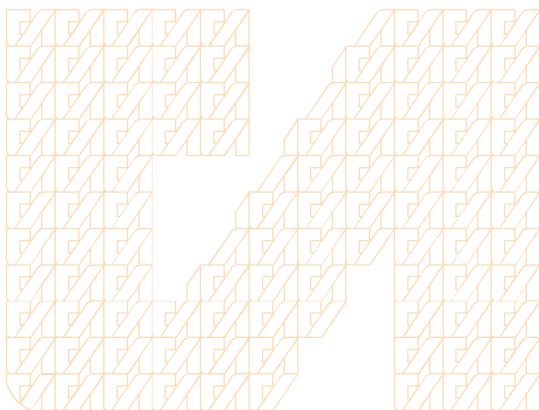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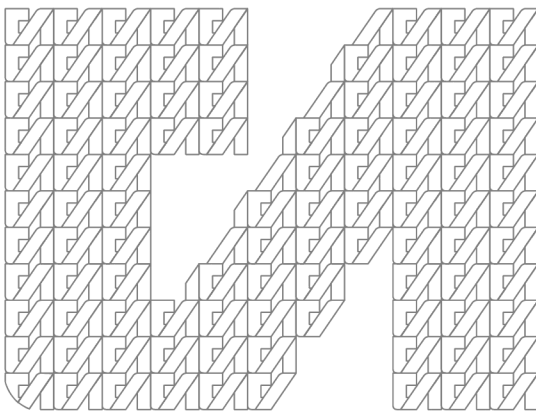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지역 인구변화 진단을 위한 상생협력연구: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동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최성은 외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지역 인구변화 진단을 위한 상생협력연구: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동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최성은 외



연구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성은 /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형복 / 기획조정실 선임연구위원 주혜진 /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안용준 /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류형원 / 도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노상진 / 도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김영호 / 기획조정실 주임
비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영환 / 대전대학교 겸임교수 김영아 / 충청지방통계청 주무관 권 진 /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은호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제현 / 세종연구실 조사원

전략연구 2023-04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지역 인구 변화
진단을 위한 상생협력 연구: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동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발행인 김 영 진

발행일 2023년 12월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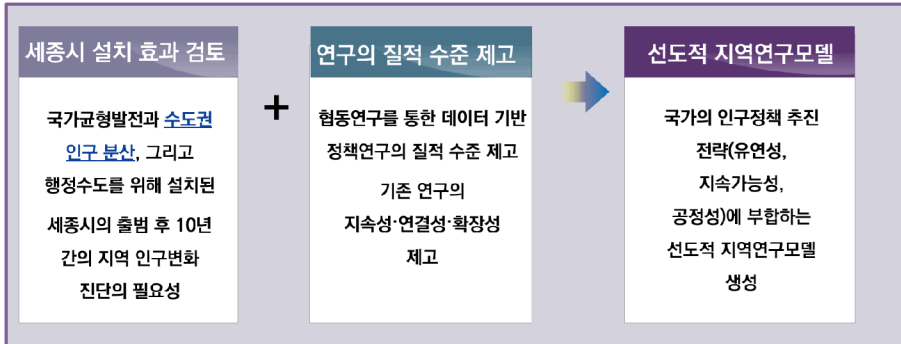
인쇄처 디자인하우스 바꿈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 제언

■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의 필요성]

-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지역 인구변화의 추적, 왜 필요한가?**
 -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 그리고 행정수도를 위해 설치된 세종시는 지난 2022년 7월이 되면서 출범 10년을 맞이하였음
 -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성과 공유가 이루어졌으나 지역 인구 변화에 대한 논의는 거의 부재함. 특히,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본 연구의 시작은 ‘세종시 출범 이후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인구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연구 질문에서 출발함
 - 지역 인구감소 위기는 비단 인구 증가의 청신호 사례로 손꼽히는 세종시에도 예외가 아닌 상황임
 - 합계출산율 0.78명에 이른 지금의 시기, 인구감소와 출생률 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차별화되어야 하나, 지역 내 인구 논의에서 두 개념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인구감소위기 대응은 사회적 이동에 따른 증감과 자연적 증감을 고려하여 차별화되어 마련되어야 하지만, 지역에서 인구 데이터에 대한 생산과 가공, 그리고 해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지역 인구변화 추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한 기존의 저출산 및 인구이동 연구성과의 업데이트를 통한 연구의 지속성·연결성·확장성 제고
 - 2018년 발간된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 및 <세종시 인구 이동 특성과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의 주요 분석 내용 업데이트를 진행함
 - 주요 분석 내용: 17개 광역시·도의 출산감소 유형, 세종시 읍·면·동 단위를 포함한 인구이동 데이터 분석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지역 인구변화 분석, 어떻게 할 것인가?

- 본 연구진은 세종시 출범 후 10여 년간의 지역 인구변화의 흐름을 추적하고, 대전과 세종 지역에 필요한 인구 감소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지역상생협력 연구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범적인 연구수행 과정을 시도함
- 단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세종시의 인구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충청권 지역통계센터인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동 연구를 추진하여 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수준을 높이고,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협동연구를 통한 정책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지식 플랫폼으로서의 대전세종연구원 발전 전략 모색

- 지식 플랫폼으로서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대전과 세종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데이터 생산 기관 등과의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 2023년 2월, 대전세종연구원은 충청지방통계청과 협동 정책연구 및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초석을 다졌음
- 협동 정책연구와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협력연구 사례를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함

□ **(협동연구를 통한 정책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 (기존 상생협력연구와는 다른 연구모델 시도) 대전시와 세종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연구원의 특성상 상생협력 연구의 주된 주제는 두 지역의 공통된 관심사를 다루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음
- 본 연구는 상생협력의 범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확대함. 기존 상생협력의 주체: 대전시, 세종시, 시민(전문가 중심) ⇒ 충청권 지역통계센터인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력체계를 더한 **전략적 협업 파트너십으로 외연의 확대 추진**

□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부합하는 선도적 지역연구모델 생성**

- 현 정부의 인구정책은 크게 완화정책, 기획정책, 적응정책으로 구분되어 국가적 차원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음
- 이러한 완화·기획·적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변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의 출산 결정이 왜 지연, 보류, 거부되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기초가 되어야 함
- 최성은 외(2023)의 <중앙-지방정부 간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세종시 정책 제안> 연구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기조에 부합하기 위하여, 지역 상생연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통한 인구변화 분석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세종시 출범 이후의 인구변화 진단을 위한 지역 상생연구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선도적 사례이자,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도 부합하는 지역연구모델 사례가 될 것임

■ **연구의 차별성**

□ **연구의 구성 측면: 액자형 구조**

- 이 과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자체 심의를 거쳐 진행된 전략상생연구임
 - 세종시나 대전시의 연구 제안을 통해 연구 주제가 정해진 후, 수행하는 정책연구와는 다른 과제 유형임

- 따라서 대전세종연구원 차원의 선제적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정책 제안이 가능하고, 연구 방법론과 구성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전략적 연구’ 수행이 가능함
- 본 연구는 기존의 주어진 하나의 주제에 대한 문제해결형 정책 방향 제시 연구 형태(정책연구)와는 다른 액자형 구성 형태를 통해,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지역연구모형을 제시함
 - 액자형 구조는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 있는 글쓰기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지역연구모형 마련’이라는 연구 목적을 큰 프레임으로 두고,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동 연구를 통해 얻어진 세종시 출범 이후 10여 년간의 인구이동 분석 사례를 그 안에 담는 과정을 거침
 - 이러한 액자형 구성 연구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지역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모델의 지속가능성과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연구의 분석 내용 측면: 선행연구의 지속성·연결성·확장성 제고

-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와 세종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및 선제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 축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정책연구의 경우, 두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부서별 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제에 따라 지속성과 연결성, 그리고 확장성을 고려하여 자료의 최신화를 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대표적인 연구 주제가 바로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위기 관련 이슈’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관련 주제를 정책연구 형태로 수행하기에는 연구원의 연구 주제 선정 기준(예: 중복된 과제 배제), 분량 및 예산의 한계 등이 존재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연구의 수행 여부나 자료 최신화의 필요성도 인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남
-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지속성·연결성·확장성을 고려한 전략 연구 수행을 충청지방통계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시도하였음

- 이는 연구원 자체적인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쇄신 노력과 대전과 세종 중심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의지를 담은 ‘보완적 연구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데이터 자체의 가치 측면: 통계청 내부망 SASApp 서버 내 저장공간 할당으로 만들어진 희소성 높은 세종시 인구이동 데이터**

- 단층제 행정체계를 고려한 세종시 상황에 맞춘 출범 이후 10여 년간의 인구이동 분석은 지역 연구기관 차원에서 정확한 자료정제 및 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 본 연구의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인구이동데이터를 10여 년에 걸친 읍·면·동, 지역별/성별/연령별 등으로 세분화해야 하는데, 그 데이터 규모가 일반 업무용 PC 수준에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임
- 실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이동 데이터는 통계청 내부망 SASApp 서버 내 저장공간을 할당받아 마이크로데이터 자료 업로드 후 분석이 이루어졌음
- 충청지방통계청 데이터분석팀의 전문역량 활용(공동연구진으로의 협업)과 통계청 서버 이용이 불가능했다면, 출범 이후 10여 년간의 세종시 인구이동 데이터를 이 연구에 활용하지 못했을 것임

□ **연구의 분석 내용 측면: 협업을 위한 전략적 주제 선정, ‘청년인구 이동’**

- 본 연구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한 2018년도 정책연구 과제 2건에 대하여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최신화한 결과를 담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의 지속성·연계성·확장성을 추구하는 본 연구진은 세종시 읍, 면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고려한 청년의 인구이동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4장에 담았음
- 이것은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격차가 심한 도농복합도시 세종시의 특성에 맞춘 기획 분석이자, 충청지방통계청의 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자료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연구 방법 및 내용

□ 연구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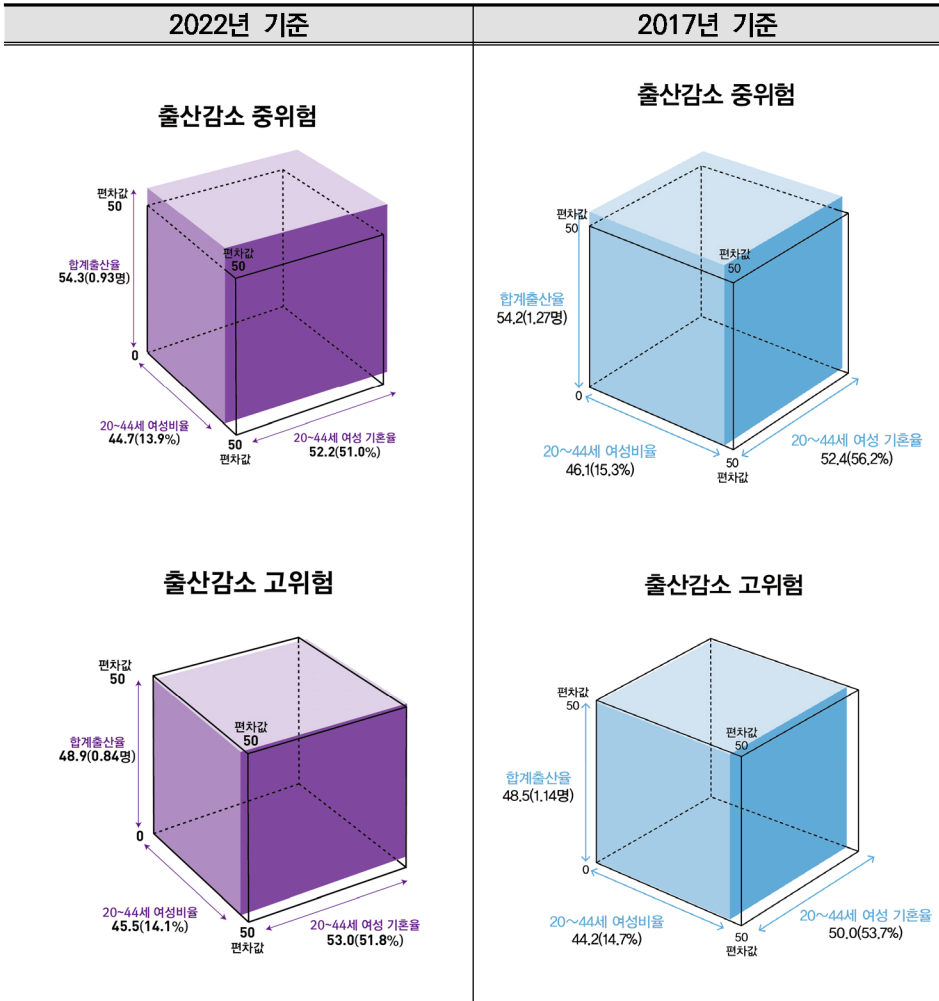
[연구의 흐름도]

■ 주요 진단 결과와 시사점 요약

가. 출산감소 유형 분석과 P지수 시나리오 분석의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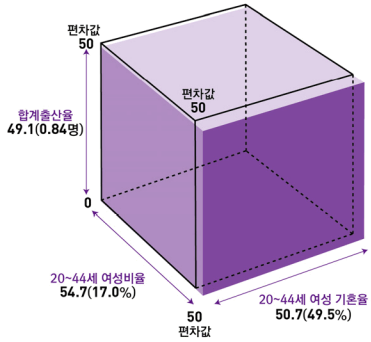
□ 출산감소 유형별 3개 지표 환산값 변화(2017년 vs. 2022년)

[출산감소 유형별 3개 지표 환산값 변화(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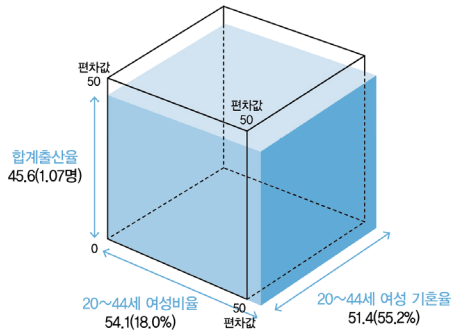


2022년 기준	2017년 기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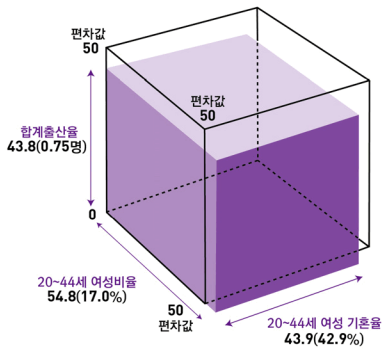
출산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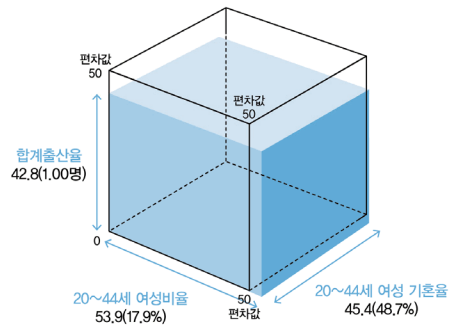
출산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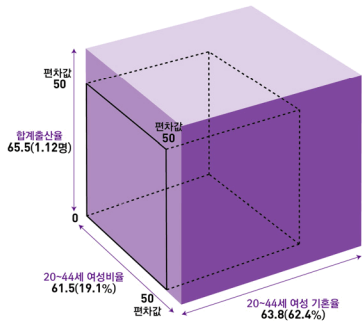
결혼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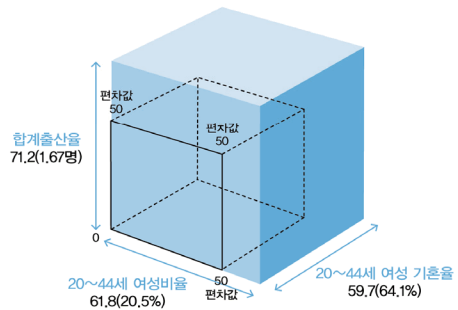
결혼회피



출산선호



출산선호



자료: 2017년 기준 자료는 최성은(2018)의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 자료를 발췌하여 포함하였음

○ 출산감소 유형별 기준 모형의 차이(2017년 vs. 2022년)

[출산감소 유형별 기준 모형의 차이(2017년 vs. 2022년)]

유형 구분	지표	A: 2022년		B: 2017년		증감(A-B)	
		환산값	지표값	환산값	지표값	환산값	지표값
출산감소 중위험	X	44.7	13.9	46.1	15.3	-1.4	-1.40
	Y	52.2	51.0	52.4	56.2	-0.2	-5.20
	Z	54.3	0.9	54.2	1.3	0.1	-0.34
출산감소 고위험	X	45.5	14.1	44.2	14.7	1.3	-0.60
	Y	53	51.8	50	53.7	3	-1.90
	Z	48.9	0.8	48.5	1.1	0.4	-0.30
출산회피	X	54.7	17.0	54.1	18.0	0.6	-1.00
	Y	50.7	49.5	51.4	55.2	-0.7	-5.70
	Z	49.1	0.8	45.6	1.1	3.5	-0.23
결혼회피	X	54.8	17.0	53.9	17.9	0.9	-0.90
	Y	43.9	42.9	45.4	48.7	-1.5	-5.80
	Z	43.8	0.8	42.8	1.0	1	-0.25
출산선호	X	61.5	19.1	61.8	20.5	-0.3	-1.40
	Y	63.8	62.4	59.7	64.1	4.1	-1.70
	Z	65.5	1.1	71.2	1.7	-5.7	-0.55

주: X= 20~44세 여성 비율(단위:%), Y=20~44세 여성 기혼율(단위:%), Z=합계출산율(단위:명)

- 2017년 대비 2022년 모든 유형의 X, Y, Z 지표값이 감소하였음이 확인됨
- 다만, 지표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값이 낮아져서(예: 2017년 17개 시도 평균 Y 지표값 1.3명을 50으로 환산 ⇒ 2022년 17개 시도 평균 Y 지표값 0.8명을 50으로 환산) 일부 유형별 X, Y, Z 지표의 환산값의 경우, 증가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광역자치단체별 출산감소 유형 분석 결과(2012~2022년)

- 출산감소지역 유형화 작업을 통해 도출한 17개 시·도의 2012~2022년 까지의 출산감소 유형 변화를 살펴봄
- 출산감소 유형의 연도별 변화의 해석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앞서 살펴본 출생지표(X, Y, Z)의 모든 수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현 시점(2022년)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수준에서 유형별 구분이 유의미하다는 점임
 - 세종시는 출범 해인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출산선호 유형을 유지해 왔음
 - 대전시의 경우,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결혼회피 유형을 유지해 오고 있음

[세종시와 대전시의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

연도 유형구분	2012년	2015년	2017년	2020년	2022년 ¹⁾
출산감소 중위험 (G1:저-저-고)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없음	
출산감소 중위험 (G2:저-고-고)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감소 고위험 (G3:저-고-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없음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출산감소 고위험 (G4:저-저-저)	없음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북도
출산회피 (G5:고-고-저)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출산선호 (G6: 고-고-고)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출산감소 저위험 (G7:고-저-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결혼회피 (G8:고-저-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주: [부록 표 1-12]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지표 상세표기) 참조

1) 2022년 - y축: 통계청(2021), <2020년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자료 활용

- z축: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2023.2.22.

□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 지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출산감소 심화 요인)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연령대인 20~44세 여성 비율이 낮다는 점이 출산 감소의 위험을 높여 온 것으로 여겨짐

- 이 유형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출산감소 고위험군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젊은 세대, 특히 청년 여성의 지속적인 유입과 정주환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지역임

- (출산감소 중위험 지역의 변화) 2017년에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이었던 강원지역이 2022년에는 중위험 지역으로 변화하였음. 제주의 경우, 2017년에는 20~44세 여성 비율과 20~44세 여성 기혼율이 모두 낮았던 중위험 지역에서 여성 비율만 낮은 중위험 지역으로 이전됨
 - 이러한 변화는 X, Y, Z 지표값의 감소에 기인한 평균값의 변화로 상대적인 수준에서의 변동으로 추정됨

□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 지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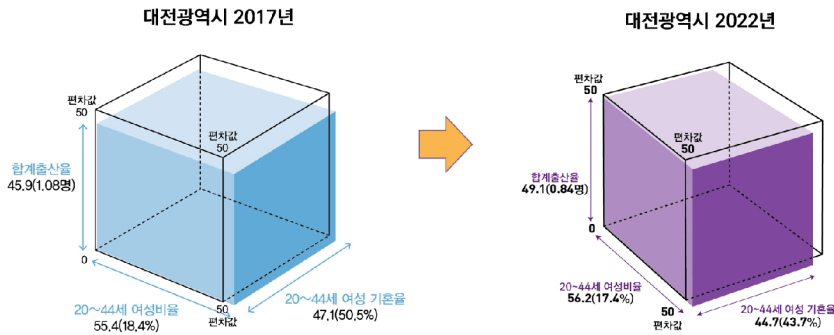
- (출산감소 심화 요인) 합계출산율과 20~44세 젊은 여성 비율이 모두 낮은 지역인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은, 여성의 높은 기혼율에도 불구하고 출산감소가 일어나는 지역(울산, 경남)과 여성의 기혼율도 모두 낮은 지역(전북)에 해당됨
 - 울산과 경남의 경우, 유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출산장려정책과 다둥이 가정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전북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 추진과 동시에 인구 구조 변화에 적응할 인구정책 시나리오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출산감소 고위험 지역의 변화) 2017년 기준, 출산감소 고위험 지역은 강원, 부산, 전북이었으나, 2022년 기준 울산, 경남, 전북으로 분석됨. 전북의 경우만 지속적으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 출산회피 유형 지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출산감소 심화 요인) 이 유형은 젊은 여성과 여성의 기혼율이 높지만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로서 젊은 여성의 유입이 많아 합계 출산율 수치가 낮을 가능성이 큰 지역임
 - 실제 경기도는 젊은 청년들의 인구 유입이 서울과 더불어 가장 활발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유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젊은 청년들의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안정 등의 전략을 함께 펼칠 필요가 있겠음
- (출산회피 지역의 변화) 2012~2022년 경기도만 유일하게 출산회피 유형에 속함

□ 결혼회피 유형 지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출산감소 심화 요인) 소위 대도시로 분류되는 6개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가 2022년 기준 결혼회피 유형에 포진됨. 젊은 청년의 비혼 또는 미혼율이 높아 기혼율이 낮고, 합계출산율도 낮은 지역임
 - 이 유형에 포함되는 지역의 경우,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그 지역에 정주하는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대학 등 학교 교육 이후에도 정주를 선택하였으나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보류/지연하는 경우라면,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반면, 대학 등 학교 교육 이후에 수도권 등의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젊은 세대가 많을 경우 지역의 출산감소 위기 대응 방안은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결혼회피 지역의 변화) 2017년 대비 2022년의 두드러진 변화는 부산이 출산감소 고위험 지역에서 결혼회피 지역으로 이전하였다는 점임. 결혼회피와 고위험 지역 간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함
 - 대구의 경우도, 2017년에는 결혼회피 유형이었다가, 2020년 출산감소 고위험 지역으로 이전 후 2022년 다시 결혼회피 유형으로 복귀함
 - 이러한 변화도 2022년의 X, Y, Z 지표값의 감소에 기인한 상대적인 수준에서의 변동으로 추정되나, 젊은 여성 유출이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할 경우, 20~44세 여성비율이 감소함으로써 결혼회피 유형 지역은 출산감소 고위험 지역으로 언제든지 변동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함
 - 따라서 대도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청년 여성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경우, 인구유출 속도와 그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함(예: 일자리, 주거안정 등 청년 정주여건 조성)
- (사례: 대전광역시의 변화) 2017년과 동일하게 결혼회피 유형으로 분류된 대전광역시의 경우, X, Y, Z 지표값이 모두 감소하였음
 -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출산감소 고위험 지역으로의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청년 여성의 유입과 유출의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해 나감과 동시에 청년에게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강화와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인구전략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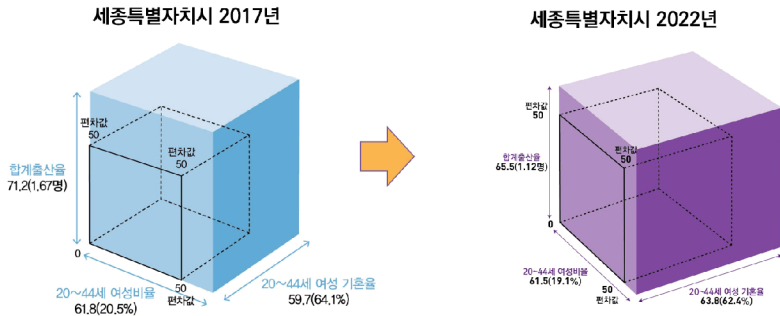
2022년	20~44세 여성 비율(X축)	20~44세 여성 기혼율(Y축)	합계출산율(Z축)
대전광역시 2022년	17.4	43.7	0.84
대전광역시 2017년	18.4	50.5	1.08
2017년 대비 2022년 증감률	-5.3	-13.5	-22.2

[결혼회피 유형 대전광역시의 지표별 증감률]

□ 유일한 출산선호 지역, 세종시의 정책 방향 제안

○ (세종 출산감소 유형 변화 특징) 2012년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 ⇒ 2015년 ‘출산선호’ 유형으로 변경됨 ⇒ 2022년까지 전국에서 유일한 ‘출산선호’ 유형 유지 중임

- 그러나 2022년의 X, Y, Z 지표값의 감소에 따라 3가지 지표의 평균 값이 2017년 대비 낮아졌기 때문에, 세종시의 모든 지표가 평균 이상이라도 하더라도 출산감소 위험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음
-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출생아수의 감소와 더불어 여성의 주민등록연앙 인구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됨. 이를 고려할 때, 15~49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출산의 지연/보류/거부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함(최성은 외, 2023)



2022년	20~44세 여성 비율(X축)	20~44세 여성 기혼율(Y축)	합계출산율(Z축)
세종특별자치시 2022년 지표값(B)	19.1	62.4	1.12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지표값(A)	20.5	64.1	1.67
2017년 대비 2022년 증감률((B-A)/A*100)	-7.0	-2.7	-32.9

[출산선호 유형 세종특별자치시의 지표별 증감률]

- P지수 시나리오 분석 결과, 세종시 전체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20~44세 남녀 인구비율은 2022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65세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대비 2050년 4.8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다만, 세종시의 미래 인구 증가는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이동에 근거하여 일어날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세종시 출산감소의 속도와 그 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인구의 자연증가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나리오 분석) 만약, 2017년 기준으로 2022년 17개 지역의 출산감소 유형을 재분류한다면 세종시는 어느 유형에 포함될 것인가?

- 본 연구에서는 2017년의 X, Y, Z 축의 각 지표별 평균값을 2022년에 적용할 때 지역 유형 구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음

구분	2017년	2022년 ¹⁾
출산감소 중위험 (G1:저-저-고)	제주특별자치도	없음
출산감소 중위험 (G2:저-고-고)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없음
출산감소 고위험 (G3:자-고-저)	강원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출산감소 고위험 (G4:자-저-저)	전라북도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회피 (G5:고-고-저)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선호 (G6: 고-고-고)	세종특별자치시	없음
출산감소 저위험 (G7:고-저-고)	없음	없음
결혼회피 (G8:고-저-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2017년 각 지표별 평균값을 활용한 출산감소 유형분석 시나리오]

주 1) 2022년 - y축 : 통계청(2021), <2020년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자료 활용
 - z축 :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2023.2.22.

- 분석 결과, 2017년 각 지표별 평균값을 적용하면, 2022년의 출산감소 유형은 큰 변동을 보임
-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에 속해 있던 지역들이 고위험 유형으로 이동하고, 고위험 군 내 비교적 양호했던 그룹은 X, Y, Z축 지표값이 모두 평균 값 미만으로 떨어진 고위험군으로 출산감소 위험이 증가했음
- 결혼회피지역으로 구분되었던 부산과 대구는 고위험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함
- 무엇보다 세종시는 출산선호에서 출산회피 유형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어서는 도대체 왜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인지, 세종시 출범 이후의 인구이동 분석을 통해 그 변화를 추적하고 진단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함

나. 세종시 출범 후 10여 년간 지역 인구변화 진단

□ 최근 10년간 세종시 인구변화의 특징

-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함. 동 지역 중심의 인구 증가가 특징임
 - 평균 연령의 증가, 면 지역과 읍, 동 지역의 평균연령의 격차(2022년 기준 면 지역 평균연령 49.2세, 읍 지역 40.9세, 동 지역 35.1세)를 보여, 읍, 면 지역의 고령화 추세와 동 지역의 고령화 추세가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세종시 인구이동의 특징

- 최근 10년간 순이동은 여전히 (+)방향이지만,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입초과 현상은 약화 추세임
 - 읍, 면 지역의 순이동 감소와 달리, 동 지역은 증가하는 이분화된 인구 이동 패턴을 보이고 있음.
 - 타 시도로의 전출 사유로 '교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30대의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남. 최근 10년간(2013~2022년) 30대가 시·도 간 전입(24.1%), 전출(23.2%)이 가장 많았고, 시·도 내 이동에서도 비중이 가장 컸음(24.3%)

□ 읍·면 지역의 순유출, 동 지역의 순유입

- 세종시 읍·면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읍 지역에서 가장 많이 순유출이 일어난 연도는 2019년도로 -1,218명이었음. 면 지역은 2018년에 -1,270명을 보였음
- 동 지역은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2015년의 경우 +54,207명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로도 2만명 이상의 순유입이 나타났음
- 그래프상으로 순이동을 살펴보면 읍·면·동 모두에서 2020년도 이후로 순이동 증감율이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읍이나 면의 경우에는 1천 명 단위의 순이동이 2020년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고, 동의 경우 1만 명 대의 순이동을 유지하고 있어 인구의 유입이나 유출면에서 이전에 비해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임

□ 30~40대의 활발한 이동, 20대는 시·도 간 전입/전출

- 시·도 간 이동 및 시·도 내 이동에 있어서 30~4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의 누적 수치를 살펴보면 30대가 가장 많은 이동을 보였고 다음으로 40대임. 그중 남성의 이동이 비교적 여성에 비해 높았음
- 20대는 시·도 간 이동의 수치가 시·도 내 이동보다 활발하였음
 - 20대 중에서도 여성의 이동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편이었으며, 60대를 비롯하여 70대 이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음
 - 고령층과 청년층의 이동은 다른 사유에서 기인한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임

□ 읍·면·동 전입과 전출의 특성

- 읍 지역의 경우 ‘교육’의 사유로 전입한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주택’ 때문에 전입하였다는 비율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음
 - 한편, 전출의 사유에 있어서도 ‘교육’이라는 응답은 2020년 이후로 다소 높아지는 추세임. 절대적 수치는 낮지만 ‘주거 환경’의 비율도 약간씩 높아진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대목임
 - 읍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교육 같은 영역에 대한 지역민들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읍 지역의 이전 거주지와 전출지역에서 수도권 비중이 높음
 - 세종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의 이전이나, 수도권으로의 전출이 꾸준하게 높은 순위에 있음
 - 대전으로의 전출은 줄어들어 1% 미만의 수치를 보이며, 충청으로의 전출은 2020년 이후로 줄어드는 추세임

- 면 지역의 전입에 있어서 ‘기타’ 사유를 살펴볼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전출의 경우 ‘직업’ 사유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면 지역 전입/전출에서 ‘직업’, ‘가족’, ‘주택’이라는 주요한 사유는 여전히 높은 편이나, ‘기타’ 사유라는 응답이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기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함
 - 전출 면에서 ‘직업’적 사유가 과반을 넘어서는 상황이 2018년부터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함
- 면 지역의 이전 거주지와 전출지역에서 충청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세종 내 이동을 제외하고, 전입과 전출 면에서 충청권의 비중이 수도권 보다도 높은 특성을 보임
- 동 지역의 전입은 ‘주택’ 사유가 가장 많고, 전출에서는 ‘직업’ 사유가 가장 많음. 한편 ‘교육’과 ‘기타’ 사유도 높은 편임
 - 동 지역 전입은 ‘주택’ 사유가 압도적이었지만,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직업’과 ‘가족’의 사유로 점차 분배됨
 - 전출 면에서도 여전히 ‘주택’, ‘직업’, ‘가족’의 사유가 대부분이지만, ‘교육’이라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 즉, 동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교육 관련 인프라 요구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동 지역 전입/전출의 경우, 대전과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
 - 대전에서 세종으로의 전입한 인구는 20% 대에서 출발하여 10% 중반 대로 감소 추세를 보임. 수도권의 경우 12~13%의 전입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충청권은 10~11% 대임
 - 전출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수도권이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 충청 순이었음
- **성별 및 연령대로 분석한 이동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2020~2022년간 최근 3년의 인구이동 흐름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 연령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경우에도 세종의 읍·면·동은 인구수나 증감률 면에서 다소 변동의 폭이 적은 상황으로 여겨짐

다. 세종시 지역 청년인구 변화 진단

□ 세종시 청년 연령 집단별 인구이동 특성

- 2012~2022년 동안 세종시 순이동에서 차지하는 청년 비중 다소 부침은 있으나 증가세(우상향)를 보임
- (시·도 간 전입과 전출) 청년의 연령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결과, 20대 청년층의 경우 전입과 전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
 - 반면, 30대 청년층의 경우, 2019년 이후 전입이나 전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있어 20대 청년층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한 편은 아님
- (시·도 내 이동) 30대 청년층 비중이 20대 청년층 비중보다 높음. 즉, 30대가 세종시 내 이동이 20대에 비하여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세종시 청년 연령 집단별 인구이동에 있어 우려되는 변화

- 2018년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세종시 전체 유출 인구 중 2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2013년 23.1%에서 2022년 26.7%)

□ 청년의 시·도 간 이동 특징과 사유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 세종시 청년의 시·도 간 이동은 전입과 전출 모두 출범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세종시 청년인구 이동은 초기 충청권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였으나 (2014~2015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냄. 그 대신, 세종시 내 이동,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증가하였음
 - 세종시를 제외한 충청권 지역 내 가장 청년 유입과 유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전시임
- (청년인구 이동 사유 변화: 전입) 2013년 기준 직업(45.1%) > 교육(42.2%) > 가족(41.7%) 등의 순에서 2022년 직업(56%) > 가족(44%) > 주거환경(43.1%) > 교육(39.9%) 등의 순으로 변화함
- (청년인구 이동 사유 변화: 전출) 2013년 기준 직업(47.6%) > 가족(43.1%) > 주거환경(35.9%) > 교육(34.5%) 등의 순에서 2022년 직업(53.8%) > 교육(48.8%) > 주거환경(43.0%) > 주택(34.7%) 등의 순으로 변화함

□ **청년의 시·도 간 이동 특징과 사유에서 나타나는 우려되는 변화**

- 출범 초기인 2013년에 비하여 2022년에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으로 이동(전입, 전출)한 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짐
 - 2022년 기준, 서울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 중 51.8%(4,892명 중 2,533명)를 청년이 차지함(2013년 41.6%에서 10.2%p 상승)
 - 2022년 기준, 세종시에서 서울로 전출한 인구 중 61.3%(4,550명 중 2,790명)를 청년이 차지함(2013년 56%에서 5.3%p 상승)
- (전입/전출 사유의 변화 특징) ‘교육’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전입을 선택 하였던 청년인구는 감소하는 대신,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라. 세종시 지역 내 격차와 청년인구 이동

□ **주민등록인구 변화 측면**

- (주민등록인구 변화 측면)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의 경우, 출범 이후 7년 정도는 급격한 청년 인구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그 성장세가 둔화 또는 감소되었음
- (인구이동 변화 측면) 세종시 청년의 시·도 간 이동은 전입과 전출 모두 출범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주민등록 기준 읍·면 지역 청년인구 현황) 최근 2~3년 사이 큰 폭의 청년 인구 감소를 경험함. 면 지역 청년 여성의 급격한 감소에 주목해야 함
 - 지역소멸위험지수 산출 계산식에 근거할 때, 면 지역 청년 여성(20~39 세)의 감소는 세종시 면 지역의 지역소멸위험도를 높여 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읍, 면 지역 청년인구 이동 사유 측면**

- (읍, 면 지역 청년인구 이동 사유 변화: 전입) 2013년 기준 직업 > 주택 > 가족 > 기타 > 교육 등의 순에서 2022년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기타 등의 순으로 변화함

- (읍, 면 지역 청년인구 이동 사유 변화: 전출) 2013년 기준 주택 > 직업 > 가족 > 기타 > 교육 등의 순에서 2022년 직업 > 가족 = 주택 > 기타 > 교육 등의 순으로 변화

□ **읍, 면 지역 청년인구 이전 거주지 및 전출지역 측면**

- (읍, 면 지역 청년인구 전입 이전 거주지) 2013년 세종 > 충북 > 대전 > 충남 지역 순에서 2022년 세종 > 그 외 지역 > 경기 > 대전 순
- (읍, 면 지역 청년인구 전출 지역) 2013년 세종 > 충북 > 대전 > 충남 > 경기 지역 순에서 2022년 세종 > 경기 > 충남 > 대전 > 그 외 지역 등의 순

□ **전출 사유별 청년이동 특징: ①직업**

- 20대보다 30대 청년의 세종시 내 이동이 활발함
 - 20대와 30대 모두 남성 청년의 전출 인구 수가 여성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이 여성 청년보다 지역 내 활발한 이동을 보임
- 직업을 찾아 수도권으로의 전출한 청년의 전출지역은 성·연령별로 다른 특성을 보임. 서울로의 전출의 경우, 20대 여성이 30대 남녀보다 압도적으로 높음
 - 20대 남성 전출지역: 세종(2,277명), 경기(1,217명), 충남(1,019명) 등의 순
 - 여성 전출지역: 세종(1,656명), 서울(1,103명), 경기(696명) 등의 순
 - 30대 남성 전출지역: 세종(2,664명), 충남(1,107명), 경기(1,050명) 등의 순
 - 30대 여성 전출지역: 세종(1,506명), 경기(539명), 대전(415명)

□ **전출 사유별 청년이동 특징: ②주택**

- 20대 청년보다 30대 청년의 주택으로 인한 세종시 내 이동자수가 많고, 남성 전출 인구 규모가 여성 전출 인구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됨
- 20대 대비 30대 청년의 세종시 내 이동이 활발함. 30대의 경우, 가족 단위의 이주 가능성이 신도심 지역(동 지역)으로의 이동 선호 결과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됨.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패턴도 20대보다 30대의 인구수가 더 높음

- 주택을 사유로 전출한 지역의 우선순위는 20~30대 남녀 모두 '세종 > 충북 > 대전 > 충남 순'으로 동일하나, 이 결과는 '직업'을 사유로 한 전출지역이 수도권을 포함하는 것과는 대조적임

□ 전출 사유별 청년이동 특징: ③교육

- 세종시 읍 지역은 면 지역에 비하여, 교육을 사유로 전입한 수도권 등 지역 청년 비중이 높음
- 20대와 30대 청년 중, 교육을 사유로 읍, 면 지역 전입과 전출이 많은 청년층은 20대라고 할 수 있음
 - 20대: 서울(901명), 경기(965명), 그 외 지역(1,478명)으로부터 가장 많은 전입 인구를 보이며, 이는 20대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임
 - 30대: 세종(230명), 그 외 지역(45명)으로 전입 인구가 비교적 적음. 이는 30대가 교육을 이유로 세종시로 전입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30대가 학업보다는 직장이나 가족 등 다른 이유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읍, 면 지역 청년 중 20대의 경우는 서울과 경기 지역 순으로 전출 빈도가 높은 반면, 30대의 경우는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보다는 충청권 지역에서의 전출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마. 세종시 지역 내 격차와 청년인구 이동에서 우려되는 변화

□ 순이동의 감소와 청년인구 증가세 둔화

- 세종시의 경우, 청년인구의 증가세에 순이동 감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청년의 순유입이 감소하면서 주민등록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쳐 전체 인구의 감소도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읍, 면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현상 심화

- 2013년 대비 2022년 세종시 읍, 면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전출지역: 서울) 읍 지역의 경우 43.6%, 면 지역의 경우 18.9% 증가함
 - (전출지역: 경기) 읍 지역의 경우 29.5%, 면 지역의 경우 16.6% 증가함
 - (전출지역: 인천) 읍 지역의 경우 21.2% 증가, 면 지역의 경우 35.7% 감소함
- 2013년에 비하여 2022년의 읍, 면 지역 청년 여성(20~39세)의 전출 지역 우선순위에서 수도권 비중이 높아짐
 - 세종을 제외하고 볼 때, 읍 지역 젊은 여성 전출자의 경우, 2013년의 경우, 세종 > 충북 > 대전 > 충남 > 경기 등의 순으로 충청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도권 지역보다 월등히 활발했음. 반면, 2022년에는 세종 > 대전 > 서울 > 충남 > 경기 등의 순으로 전출지역 우선순위가 변화됨
 - 또한, 대전, 충남, 충북과 같은 충청권 내 지역의 전출자 수는 2013년에 비하여 모두 감소한 반면, 서울, 경기 지역은 2022년에 모두 전출자가 증가한 특징을 보임

□ 직업/주택/교육을 사유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이동패턴

- 세종시 내의 일자리의 부족, 교육 여건의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질 경우, 읍·면 지역의 청년들(특히, 20대)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심화될 전망이다
- 주택을 사유로 한 30대의 세종시 내 이동의 패턴은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에 있어 안정적인 주거 조건이 매우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줌

■ 정책 제언

가. 정책 차원

□ (국가 차원)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강화 필요

- 세종시 설치의 국가차원의 정책적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이루어진 만큼, 그 목적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됨
- 세종시 인구이동의 흐름은 인접 지자체와 지속적인 상호작용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 인접 지역에서 세종시로의 대규모 유입은 특정 시점의 일시적 현상이었음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추진은 충청권 지역 인구 재배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세종시와 더불어 충청권 지역(대전, 충남, 충북) 모두가 함께 공동의 목표로 힘을 합쳐 의지를 피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가 차원)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 전 지역 내 인구 격차를 진단하고 이동의 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12월 19일에 개최된 대전세종상생포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향후 대전에 대한 지역 내 인구 격차를 진단하고 그 이동의 패턴을 분석한 뒤, 더 나아가 충청권의 인구이동 분석을 심층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있었음
- 충청권 전 지역 내 인구 격차를 진단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이동의 패턴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곧 출범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대전세종연구원은 충청지방통계청과의 지속적인 연구 협력과 더불어 출범을 앞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 (국가 차원) 국가 전체의 인구이동 패턴과 세종, 그리고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 지역의 인구이동 패턴 비교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에 이어, 대전시 그리고 충청도와 충북도의 인구이동 심층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국가 전체의 인구이동 패턴과의 차이점, 특수성을 도출하여 충청권 지역에 필요한 인구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세종시 차원) 15~49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출산의 지연/보류/거부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

- 세종시는 2017년 기준에도 유일한 출산선호 유형 지역이었고, 2022년 기준에도 역시 출산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분류되었음
- 그러나 세종시의 20~44세 여성비율과 기혼율 그리고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출산감소 위험도가 높아졌음을 알리고 있음
- 특히, 20~44세 여성비율은 2017년 대비 7.0% 감소한 반면, 20~44세 여성 기혼율은 2.7% 정도만 감소했는데도 합계출산율이 32.9%나 감소했음
- 기혼율의 감소폭이 크지 않음에도 합계출산율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은 기혼자 중에서도 출산을 지연/기피/거부한 경우가 늘고 있음을 시사함
- 세 개의 지표 간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2017년 20~44세 기혼여성비율이 높을 때, 합계출산율도 높았던 점을 감안한 해석임
- 따라서 세종시 내 15~49세 남녀 시민을 대상으로 출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심층 분석 연구가 필요함

□ (세종시 차원) 세종시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격차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함

-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간의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동 지역 중심의 인구 변화와 읍, 면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이동 패턴이 상이하다는 것이 드러남
- 세종시 읍, 면 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지역과 유사한 인구변화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읍 지역과 면 지역 간에도 상이한 인구이동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연령 집단별 이동경로와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4년제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읍 지역의 경우, 수도권으로부터 전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 세종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전출 지역은 세종, 충청, 수도권 순으로 나타났음. 최근 10년간 읍 지역 전입/전출 인구의 경우, 20대가 가장 활발한 특징을 보임
 - 세종시 면 지역의 경우, 최근 10년간 대부분의 연도에서 순유출(전출 초과)을 보였음. 2016년과 2020~2021년에만 전입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면 지역에서 전입/전출 사유로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많아, 연령 집단별,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심층 분석이 필요함
 - 면 지역 전입 이전 거주지/전출지역을 보면, 세종시 내에서의 이동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청도, 수도권 순이었음. 면 지역의 경우도, 20대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함
- 도농복합도시 세종시는 읍, 면 지역이 전체 면적의 91.3%를 차지함(전체 면적 465km² 중 424.5km²)
- 이것은 단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세종시가 인구정책 방향 수립 시 도농복합도시이며 지역 내 인구감소 패턴이 상이한 점을 인지하여 전략을 취해야 함을 의미함
- 2021년에 수립한 <세종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읍, 면 지역의 인구 격차를 고려한 정책 대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세종시의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1~2025년)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세종으로, 추진 전략은 젊은 세대의 미래 보장, 안정적인 가족 환경 조성, 존중받는 건강 노후 보장, 시민행복 공동체 구현 4개임
 - 해당 기본계획은 사람 중심으로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전략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향후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격차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또한,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격차에 대한 심층 조사와 분석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세종시 동 지역 인구이동의 변화와 이동 패턴, 사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세종시의 인구 성장은 대부분 동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음. 순이동의 경우, 최근 10년간 257,277명을 기록함
- 동 지역으로 전입한 사유의 1순위는 주택이었음. 이는 신규 주택 분양, 입주 등과 인구 유입이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함. 향후, 세종시의 신규 주택 및 아파트 입주 계획이 지난 10년만큼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한 전략은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
- 주목할 점은 지난 10년간 이주 사유 중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었던 ‘교육’의 증가세라고 할 수 있음. 순위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해당 사유로 이주를 선택한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세종시가 앞으로 주목할 인구정책 분야가 ‘교육’이어야 함을 시사함

□ 청년의 시각으로 직업/주택/교육 정책 설계 필요

- 세종시 내의 일자리의 부족, 교육 여건의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질 경우, 읍, 면 지역의 청년들(특히, 20대)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심화될 전망이다
- 주택을 사유로 한 30대의 세종시 내 이동의 패턴은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에 있어 안정적인 주거 조건이 매우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줌
- 청년들의 전입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 및 주거 환경이므로, 향후 청년들이 생각하는 교육과 주거환경의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를 심층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세종시 내 20대 청년들과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주택/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역고등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세종시 지역에 맞춤형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청년들이 교육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아닌, 교육을 이유로 정주하고, 유입 되는 세종시를 만들어가야 함

□ 세종시 청년인구의 유출을 줄이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일자리, 비용 접근성 높은 주거시설, 청년문화 거점지역 조성

- 청년들의 전출 사유로 직업과 교육 및 주거환경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기회 확대, 거주하고 싶은 주거환경(비용, 안전, 시설 등), 그리고 청년문화의 거점 지역 조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세종시 지역 내에서 공급되는 대부분의 주택이 4인 가족 기준의 고비용 주거 시설이므로 저렴한 청년주택의 공급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나. 거버넌스 차원

□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동연구 추진 성과

- (대내적 성과) 연구원 보고서의 질적 수준 제고
- (대내적 성과) 종합연구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과 충청지방통계청 간의 협동연구의 마중물 사례 생산
- (대외적 성과)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협업 우수 사례 생산

□ 충청지방통계청 데이터분석의 협동연구 추진의 한계

- 기획 과제의 한계: 지속성 측면
 - 본 연구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전략상생연구로 기획·추진되었음. 따라서 해당 주제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현실임
 - 연구 과정의 전 기록과 더불어 결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연구 과제 완료 이후에도 후속 작업 조치가 필요하나 연구원의 과제 추진 일정과 충청지방통계청의 업무 추진 계획 간의 차이가 존재함
 - 충청지방통계청에서는 세종시 인구이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상반기 기획보도를 준비 중임. 관련 연구진들이 2024년 기획보도 자료 작성에 협업할 수 있는 연구원 차원의 업무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예: 업무 성과 인정 기준 등)
- 기획 과제의 한계: 공동연구자에 대한 보상과 협업 매뉴얼 부재
 - 향후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위하여 두 기관 간 협업 매뉴얼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음
-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인과관계 규명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통계청 데이터 이외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기간으로 인하여 연구 범위의 제약이 있음

□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필요한 선도적 지역연구모델 제안

○ 본 연구에서는 (가칭)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선도적 지역연구모델을 제안하는 바임

- (가칭)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인구 문제 해결 추진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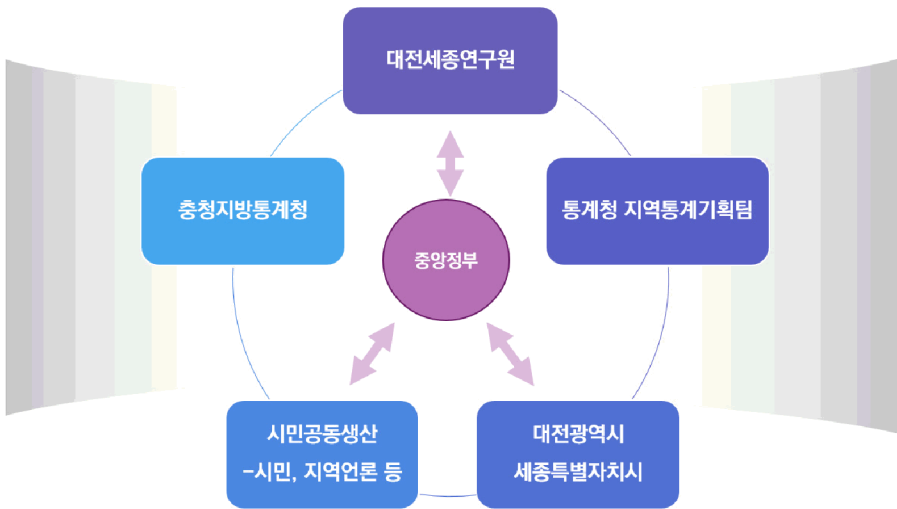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와의 차이]

구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가칭)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안)
근거법·제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0조(인구감소지역 대응센터 설치·운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조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공공기관(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시·도 연구원에 (가칭)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설치 및 운영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9조(사무기구) 외에 관련 조직에 관한 규정 부재. 센터 설치 시 시행령 개정 필요
업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 지원, 관리	각 광역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주도적인 인구미래전략 수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자체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 등 상향식 전략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평가, 환류 체계)
재원	지역소멸대응기금(10년 후 일몰)	국비(지역소멸대응기금 등) + 시비 매칭
차별성	하향식. 인구감소 지정 지역 한정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초점. 1개 공공기관이 17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상향식. 제외 지역 없음. 인구의 사회적 이동 + 자연적 증가(출생)와 감소(사망, 고령화)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대응 가능

자료: 최성은 외(2023), <중앙-지방정부 간 저출산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세종시 정책 제안>, 대전세종연구원, 142쪽 [표5-1] 발췌

□ (종합)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필요한 선도적 지역연구모델 제안

- 향후, 대전세종연구원과 충청지방통계청이 (가칭)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를 필두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시민과의 공동생산을 통해 확대·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인접한 충남도, 충북도와의 연계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음



[선도적 지역연구모델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필요한 선도적 지역연구 모델(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임
 - (가칭)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설치될 경우, 대전과 세종 지역의 인구 전략 추진의 주체로서 인구변화모니터링, 연구 및 교육, 심층조사, 지역사회 연계를 담당할 수 있음
 - 또한, 중앙정부와의 대응 및 인구정책에 따른 성과관리를 담당하여, 연구와 더불어 중앙-지방정부 간 가교역할,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중앙정부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필요한 선도적 지역연구모델(안)]

차 례

1장 서론	3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7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13
3.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6
3절 협동 연구의 추진 과정	17
1. 추진 개요	17
2장 출산감소 유형으로 본 우리 지역의 인구 위기 진단	27
1절 분석 개요	27
1. 분석의 의의	27
2. 지표 측정 방법과 산출방식	29
3. 출산감소 지역 유형화 방법	32
2절 출산감소 유형으로 본 지역 특성	35
1.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	35
2. 출산감소 유형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전망	42
3절 P지수로 본 지역 인구 전망과 시사점	66
1. 유형별 특징에 따른 정책 방향 제안	66
2. 세종시 유형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제안	69
3. P지수 분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70
4. 2022년 출산감소 유형 변화 시나리오(2017년 기준 적용 시)	72

3장 세종시 출범 후 10여 년간의 인구변화 진단	77
1절 분석 개요	77
1. 충지방통계청 데이터분석팀과의 협업 개요	77
2. 자료정제 및 분석 과정	78
3.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간 인구변화 진단을 위한 주요 순서	84
2절 세종시 인구변화의 특징	86
1. 세종시 인구변화	86
3절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간 인구이동 현황	101
1.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101
2. 세종시 읍 지역 인구이동 현황	115
3. 세종시 면 지역 인구이동 현황	131
4. 세종시 동 지역 인구이동 현황	147
4절 세종시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변화 진단 결과	163
1. 세종시 인구이동의 분석 주요 결과 요약	163
2. 세종시 출범 10년 인구이동 분석 결과의 시사점	166
4장 지역 청년 인구변화 진단과 과제	171
1절 심층 기획 분석 개요	171
1. 심층 기획 분석의 추진 배경	171
2절 청년 인구변화에 대한 주요 이슈별 진단	173
1. 세종시 청년(19~29세 vs. 30~39세) 연령 집단별 인구이동 특성 ..	173
2. 세종시 청년들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갔는가?	177
3. 세종시 지역 내 격차와 청년 인구 이동	183
3절 시사점	209
1. 세종시 청년 연령 집단별 인구이동 특성	209
2. 청년의 시·도 간 이동 특징과 사유 비교	209
3. 세종시 지역 내 격차와 청년 인구 이동	211

5장 결 론	217
1절 연구 요약	217
1.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측면	217
2. 연구의 차별성 측면	218
2절 진단 결과와 시사점	221
1. 출산감소 유형 분석과 P지수 시나리오 분석의 주요 결과	221
2. 세종시 출범 후 10여 년간 지역 인구변화 진단	232
3. 세종시 지역 청년인구 변화 진단	235
4. 세종시 지역 내 격차와 청년인구 이동	237
3절 정책 제안	241
1. 정책 차원	241
2. 거버넌스 차원	246
참고문헌	253
부 록	254

표 차례

[표 1-1] 연구의 흐름	11
[표 1-2] 간담회 및 내외부 연구진 회의 주요 논의 안건	23
[표 2-1] 20~44세 젊은 기혼여성 비율 산출 방법	31
[표 2-2] 각 지표 수준별 8개 유형	32
[표 2-3] 출산감소 유형별 3개 지표 환산값 변화(2022년 기준)	35
[표 2-4] 출산감소 유형별 기준 모형의 차이(2017년 vs. 2022년)	37
[표 2-5] 세종시와 대전시의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	38
[표 2-6] 출산감소 유형별 광역자치단체 현황(2022년 기준)	40
[표 2-7]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 지자체(6개)	42
[표 2-8] 출산감소 중위험(강원특별자치도)	44
[표 2-9] 출산감소 중위험(충청북도)	45
[표 2-10] 출산감소 중위험(충청남도)	46
[표 2-11] 출산감소 중위험(전라남도)	47
[표 2-12] 출산감소 중위험(경상북도)	48
[표 2-13] 출산감소 중위험(제주특별자치도)	49
[표 2-14]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 지자체(3개)	50
[표 2-15] 출산감소 고위험(울산광역시)	51
[표 2-16] 출산감소 고위험(경상남도)	52
[표 2-17] 출산감소 고위험(전라북도)	53
[표 2-18] 결혼회피 유형 지자체(6개)	54
[표 2-19] 결혼회피(서울특별시)	56
[표 2-20] 결혼회피(부산광역시)	57
[표 2-21] 결혼회피(대구광역시)	58
[표 2-22] 결혼회피(인천광역시)	59

[표 2-23] 결혼회피(광주광역시)	60
[표 2-24] 결혼회피(대전광역시)	61
[표 2-25] 출산회피 유형 지자체(1개)	62
[표 2-26] 출산회피(경기도)	63
[표 2-27] 출산선호 유형 지자체(1개)	64
[표 2-28] 출산선호(세종특별자치시)	65
[표 2-29] 인구 피라미드와 P지수의 비교	72
[표 2-30] 출산감소 유형 분류 및 P지수로 본 인구 시나리오 결과 요약	74
[표 3-1]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의 인구이동 변화 분석을 위한 과정	78
[표 3-2] 국내인구이동통계 MD 자료 SAS 시스템 서버 내 탑재 예시	80
[표 3-3] 지도시각화 프로그램(QGIS) 활용 예시	83
[표 3-4] 세종시 전체 인구별·세대별 추이	86
[표 3-5] 세종시 성별 주민등록인구 변화 추이	87
[표 3-6] 세종시 연령별 인구비율변화 추이	88
[표 3-7] 세종시 연령그룹별 비율 변화 추이(총인구)	89
[표 3-8] 세종시 연령그룹별 비율 변화 추이(남자)	89
[표 3-9] 세종시 연령그룹별 비율 변화 추이(여자)	89
[표 3-10] 세종시 청년인구 변화 추이(요약)	91
[표 3-11] 세종시 청년인구 변화 추이(백분율)	92
[표 3-12] 세종시 읍 지역 인구별·세대별 추이	93
[표 3-13] 세종시 면 지역 인구별·세대별 추이	94
[표 3-14] 세종시 동 지역 인구별·세대별 추이	95
[표 3-15] 세종시 성별·지역별 평균 연령 추이	97
[표 3-16] 세종시 부양인구비 및 노령화 지수	98
[표 3-17] 세종시 가구원수별 현황	100
[표 3-18] 최근 10년간(2013~2022년) 세종시의 인구이동 현황	102
[표 3-19] 세종시 연도별 시·도 간 전입 사유 변화 추이	103
[표 3-20] 세종시 연도별 시·도 간 전출 사유 변화 추이	105
[표 3-21] 2013~2022년 세종시의 읍·면·동 별 인구이동 현황	106

[표 3-22]	세종시 전입자의 이전거주지와 전출자의 전출지역 누계 현황	108
[표 3-23]	연도별 세종시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와 전출자의 전출지역	110
[표 3-24]	세종시의 성별/연령별 인구이동 현황	114
[표 3-25]	세종시 읍 지역 순이동의 변화	115
[표 3-26]	최근 10년간 읍 지역 순전입/순전출자의 사유	116
[표 3-27]	세종시 읍 지역 순전입 사유의 연도별 변화	117
[표 3-28]	세종시 읍 지역 순전출 사유의 연도별 변화	118
[표 3-29]	세종시 읍 지역 시·도 내 이동 현황	119
[표 3-30]	세종시 읍 지역 시·도 간 이동 현황	120
[표 3-31]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 현황	121
[표 3-32]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 전출 지역 현황	123
[표 3-33]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성별	125
[표 3-34]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성별	126
[표 3-35]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127
[표 3-36]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129
[표 3-37]	세종시 면 지역 전입 / 전출 현황	131
[표 3-38]	최근 10년간 면 지역 10년간 순전입/순전출자의 사유 분석	132
[표 3-39]	세종시 면 지역 순전입 사유의 연도별 변화	133
[표 3-40]	세종시 면 지역 순전출 사유의 연도별 변화	134
[표 3-41]	세종시 면 지역 시·도 내 이동 현황	135
[표 3-42]	세종시 면 지역 시·도 간 이동 현황	136
[표 3-43]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 현황	137
[표 3-44]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 전출 지역 현황	139
[표 3-45]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성별	141
[표 3-46]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성별	142
[표 3-47]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143
[표 3-48]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145
[표 3-49]	세종시 동 지역 전입 / 전출 현황	147
[표 3-50]	최근 10년간 동 지역 순전입/순전출 사유 분석	148
[표 3-51]	세종시 동 지역 순전입 사유의 연도별 변화	149

[표 3-52] 세종시 동 지역 순전출 사유의 연도별 변화	150
[표 3-53] 세종시 동 지역 시·도 내 이동 현황	151
[표 3-54] 세종시 동 지역 시·도 간 이동 현황	152
[표 3-55]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 현황	153
[표 3-56]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 전출 지역 현황	155
[표 3-57]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성별	157
[표 3-58]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성별	158
[표 3-59]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159
[표 3-60]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161
[표 4-1] 세종시 읍·면 농촌지역 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2013년 대비 2022년) ...	184
[표 4-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소멸위험지역 현황	185
[표 4-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소멸위험지역 비율	186
[표 4-4] 19~39세 청년의 전입 사유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2년) ...	192
[표 4-5] 청년의 전입 이전 거주지역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2년) ...	193
[표 4-6] 19~39세 청년의 전출 사유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2년) ...	195
[표 4-7] 청년의 전출지역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2년)	196
[표 4-8] 20~39세 여성의 전출 사유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2년) ...	206
[표 4-9] 20~39세 여성의 전출지역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2년) ...	207
[표 5-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소멸위험지역 비율값 변화(2022년 기준) ...	221
[표 5-2] 출산감소 유형별 기준 모형의 차이(2017년 vs. 2022년)	223
[표 5-3] 세종시와 대전시의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	224
[표 5-4] 출산감소 유형 분류 및 P지수로 본 인구 시나리오 결과 요약 ...	231
[표 5-5]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와의 차이	249
[부록 표 1-1] 2012년 각 17개 시·도 전체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	254
[부록 표 1-2] 2015년 각 17개 시·도 전체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	255
[부록 표 1-3] 2017년 각 17개 시·도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256
[부록 표 1-4] 2020년 각 17개 시·도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257

[부록 표 1-5] 2022년 각 17개 시·도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258
[부록 표 1-6] 2012년 각 17개 시·도 젊은 여성(20~44세) 기혼비율	259
[부록 표 1-7] 2015년·2017년 17개 시·도 젊은 여성(20~44세) 기혼비율	260
[부록 표 1-8] 2020년·2022년 17개 시·도 젊은 여성(20~44세) 기혼비율	261
[부록 표 1-9] 각 17개 시·도별 합계출산율	262
[부록 표 1-10] 전국 및 각 17개 시·도별 인구	263
[부록 표 1-11] 전국 및 각 17개 시·도별 P지수	266
[부록 표 1-12]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지표 상세표기)	269
[부록 표 1-13] 세종시 읍·면·동별 청년(19~39세) 주민등록 인구현황	271
[부록 표 1-14] 세종시 청년(19~39세)의 시·도 간 이동 지역 변화 추이	272
[부록 표 1-15] 세종시 읍·면 지역 청년인구 변화(2012~2022년)	272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필요성	3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12
[그림 1-3] 대전세종연구원과 충청지방통계청 기관 미션과 비전	16
[그림 1-4] 대전세종연구원과 충청지방통계청 협동 연구 주요 추진 일정	18
[그림 1-5] 대전세종연구원과 충청지방통계청 상생협력 업무 협약서	19
[그림 1-6] 전략상생연구 콜로키움 행사(2023.9.15.)	20
[그림 1-7]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 업무발전 토론회(2023.11.16.)	21
[그림 2-1] 2차 그룹 재유형화 명칭 개념도	33
[그림 2-2] 결혼회피 유형 대전광역시의 지표별 증감률	68
[그림 2-3] 출산선호 유형 세종특별자치시의 지표별 증감률	69
[그림 2-4] 인구추계피라미드로 본 전국, 세종, 대전의 인구 변화	71
[그림 2-5] 2017년 각 지표별 평균값을 활용한 출산감소 유형분석 시나리오	73
[그림 3-1] 세종시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와 전출자의 전출지역의 연도별 변화	110
[그림 3-2]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 현황	122
[그림 3-3]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 전출 지역 현황	124
[그림 3-4]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128
[그림 3-5]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130
[그림 3-6]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 현황 비율	138
[그림 3-7]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 전출 지역 현황 비율	140
[그림 3-8]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144
[그림 3-9]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146
[그림 3-10]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이전 지역 비율	154
[그림 3-11]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 전출 지역 비율	156

[그림 3-12]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160
[그림 3-13]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162
[그림 3-14] 세종시 인구정책 비전(2021~2025년)	167
[그림 4-1] 세종시 청년인구의 순이동 변화(2012~2022년)	173
[그림 4-2] 세종시 전체의 인구이동 대비 청년 인구이동 비율(2012~2022년) ..	174
[그림 4-3] 청년 연령 집단별 시·도 간 전출 차이(2012~2022년)	174
[그림 4-4] 청년 연령 집단별 시·도 간 전입 차이(2012~2022년)	175
[그림 4-5] 청년 연령 집단별 시·도 내 이동 차이(2012~2022년)	176
[그림 4-6] 세종시 청년 19~39세 시·도 간 이동 지역 변화 추이	177
[그림 4-7] 세종시 청년 19~39세 시·도 간 이동 지역 변화 추이	178
[그림 4-8] 세종시 청년 19~39세 시·도 간 이동 특징(수도권 vs. 그 외 지역) ..	180
[그림 4-9] 세종시 전체 시·도 간 이동 지역 중 청년이 이동한 전출지역 비율 ..	180
[그림 4-10] 청년의 전입/전출 사유 연도별 변화	181
[그림 4-11] 세종시 전체 인구이동 사유 대비 청년 인구이동 사유 비율 (2013년 vs. 2022년)	182
[그림 4-12] 세종시 청년 인구 변화 추이(2012년~2022년)	187
[그림 4-13] 세종시 청년 인구이동 현황(2012~2022년)	189
[그림 4-14] 세종시 청년의 순이동과 주민등록인구 비교(2012~2022년) ..	189
[그림 4-15] 읍·면 지역 청년인구의 남녀인구 변화 특성	190
[그림 4-16] 세종시 읍, 면 지역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이주 사유 변화 ..	192
[그림 4-17] 세종시 읍, 면 지역으로 온 청년의 이전 거주지 변화	194
[그림 4-18] 읍, 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의 전출사유 비교 ..	195
[그림 4-19] 세종시 읍, 면 지역에서 전출한 청년의 전출 지역 변화	197
[그림 4-20] 직업을 사유로 전출한 읍, 면 지역 청년 특성 (2012~2022년 누적)	199
[그림 4-21] 읍, 면 지역 전입 청년의 이전 거주지 특성 (2012~2022년 누적)	201
[그림 4-22] 읍, 면 지역 전출 청년의 전출 지역 특성(2012~2022년 누적) ..	202

[그림 4-23] 교육을 사유로 전입한 읍, 면 지역 청년의 이전거주지 특성 (2012~2022년 누적)	203
[그림 4-24] 교육을 사유로 전출한 읍, 면 지역 청년 특성 (2012~2022년 누적)	204
[그림 4-25] 9개 면 지역 65세 이상 고령자와 20~39세 여성 인구수 비교	205
[그림 4-26] 20~39세 세종시 청년 여성이 읍, 면 지역을 떠나는 이유	206
[그림 4-27] 20~39세 세종시 읍, 면 지역 청년여성의 주요 전출지역	208
[그림 5-1] 연구의 주요 내용	217
[그림 5-2] 결혼회피 유형 대전광역시의 지표별 증감률	227
[그림 5-3] 출산선호 유형 세종특별자치시의 지표별 증감률	228
[그림 5-4] 2017년 각 지표별 평균값을 활용한 출산감소 유형분석 시나리오	229
[그림 5-5] 세종시 인구정책 비전(2021~2025년)	244
[그림 5-6] 선도적 지역연구모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250
[그림 5-7]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필요한 선도적 지역연구모형(안)	251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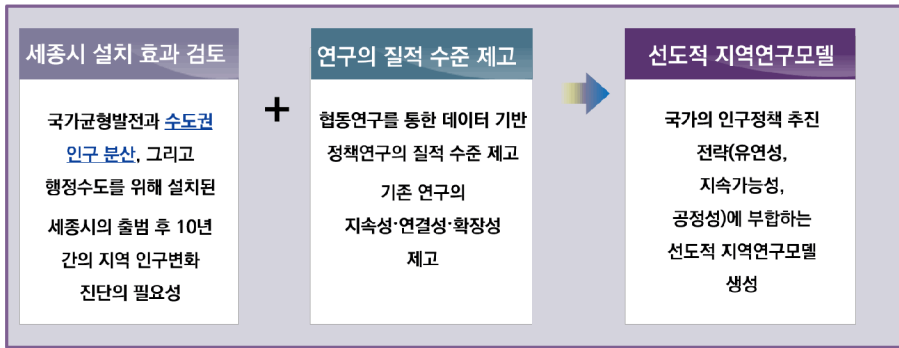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장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그림 1-1] 연구의 필요성

1) 세종시 출범 이후 지역 인구변화 진단의 필요성

□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지역 인구변화의 추적, 왜 필요한가?

-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 그리고 행정수도를 위해 설치된 세종시는 지난 2022년 7월이 되면서 출범 10년을 맞이하였음
-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성과 공유가 이루어졌으나 지역 인구변화에 대한 논의는 거의 부재함. 특히,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세종시의 인구 관련 논의는 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만 강조되었을 뿐, 지난 시간 동안 인구변화의 모습과 현재의 진단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인구변화 예측과 전망에 대한 필요성은 간과되어 왔음
- 본 연구의 시작은 '세종시 출범 이후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인구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연구 질문에서 출발함

- 지역 인구감소 위기는 비단 인구 증가의 청신호 사례로 손꼽히는 세종 시에도 예외가 아닌 상황임
- 합계출산율 0.78명에 이른 지금의 시기, 인구감소와 출생률 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차별화되어야 하나, 지역 내 인구 논의에서 두 개념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인구감소위기 대응은 사회적 이동에 따른 증감과 자연적 증감을 고려하여 차별화되어 마련되어야 하지만, 지역에서 인구 데이터에 대한 생산과 가공, 그리고 해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지역 인구변화 추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한 기존의 저출산 및 인구이동 연구성과의 업데이트를 통한 연구의 지속성·연결성·확장성 제고
 - 2018년 발간된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 및 <세종시 인구 이동 특성과 정책방향 연구>¹⁾ 보고서의 주요 분석 내용 업데이트를 진행함
 - 주요 분석 내용: 17개 광역시·도의 출산감소 유형, 세종시 읍·면·동 단위를 포함한 인구이동 데이터 분석
- 출산감소유형 데이터 분석(최성은, 2018) 업데이트의 의의
 - 인구감소의 위기 원인을 ①혼인율 저하, ②젊은 여성의 지역 내 감소, ③부부 평균 아이 수 감소로 두고, 전체 광역시·도별 2012~2022년까지의 유형 변화 흐름을 시각화된 자료로 제시하여 상대적인 수준의 인구감소 위기 원인을 비교해 볼 수 있음
- 세종시 인구이동 분석(최성은 외, 2018) 업데이트의 의의
 - 출범 10년이 갓 지난 세종시의 경우, 인구변화의 차별적 특징을 보일

1) 대전세종연구원이 2018년에 발간한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연구책임: 최성은)> 연구는 2012~2017년까지 17개 광역시·도의 출산감소유형 변화를 결혼회피, 결혼선호(출산선호, 출산감소, 출산회피)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한 자료임. 같은 해 발간된 <세종시 인구 이동 특성과 정책방향 연구(연구책임: 최성은)>는 2012~2016년까지 단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세종시의 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를 연구진이 분석한, 세종시 인구변화에 관한 최초의 기초 연구임

것으로 예상되나, 단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세종시의 인구이동 현황은 통계청의 주기적인 공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²⁾ 별도의 분석 과정을 거쳐야만 기초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음

- 또한, 세종시의 출범 후 10여 년 동안의 인구이동 변화는 국가 차원의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 추진의 과정을 점검하고, 충청권 지역의 인구 변화와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논의를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로서 그 분석의 가치가 높음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지역 인구변화 분석, 어떻게 할 것인가?

- 본 연구진은 세종시 출범 후 10여 년간의 지역 인구변화의 흐름을 추적하고, 대전과 세종 지역에 필요한 인구 감소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지역상생협력 연구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범적인 연구 수행 과정을 시도해 보고자 함
- 단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세종시의 인구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충청권 지역통계센터인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동 연구를 추진하여 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수준을 높이고,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협동연구를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지식 플랫폼으로서의 대전세종연구원 발전 전략 모색 차원

- 우리 연구원은 대전·세종 시민의 행복과 공지를 높이는 일류 경제도시, 미래전략수도를 선도하는 지식 플랫폼을 비전으로 하여 미래에 대응하는 선제적 전략을 도출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연구 수행을 목표로 시정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지식 플랫폼으로서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대전과 세종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데이터 생산 기관 등과의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 2023년 2월, 대전세종연구원은 충청지방통계청과 협동 정책연구 및 지역

²⁾ 세종시는 시군구 단위의 행정체계가 없는 단층제임. 통계청의 주기적인 국내이동통계 공표 자료에는 읍·면·동 단위의 분석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통계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초석을 다졌음

- 협동 정책연구와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협력연구 사례를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함

□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 (기존 상생협력연구와는 다른 연구모델 시도) 대전시와 세종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연구원의 특성상 상생협력 연구의 주된 주제는 두 지역의 공통된 관심사를 다루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음
- 본 연구는 상생협력의 범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확대하여, 지역 내 주소지를 둔 정부 기관과의 협력체제로 확산하는데 그 차별성을 두고자 함
 - (차별성) 기존 우리 연구원 상생협력의 주체: 대전시, 세종시, 시민(전문가 중심) ⇒ 충청권 지역통계센터인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력체계를 더한 전략적 협업 파트너십으로 외연의 확대 추진

3)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부합하는 선도적 지역연구모델 생성

- 현 정부의 인구정책은 크게 완화정책, 기획정책, 적응정책으로 구분되어 국가적 차원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음
 - 완화정책은 인구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출산을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정책이며, 기획정책은 예측되는 인구감소 미래에 맞춘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고, 적응정책은 인구변동이 가져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함(최성은 외, 2023)
 -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은 이러한 정책들이 유연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높여 가는 것임
- 이러한 완화·기획·적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변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젊은 세대의 출산 결정이 왜 지연, 보류, 거부

되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기초가 되어야 함

- 최성은 외(2023)의 <중앙-지방정부 간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세종시 정책 제안> 연구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기조에 부합하기 위하여, 지역 상생연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통한 인구변화 분석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세종시 출범 이후의 인구변화 진단을 위한 지역 상생연구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선도적 사례이자,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도 부합하는 지역연구모델 사례가 될 것임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동 연구 사례로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한 기존 연구의 지속성·연결성·확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부합하는 선도적 지역연구 모델을 만드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세종시 출범 이후 10여 년간의 ❶ 출산감소 유형의 변화(17개 시·도), ❷ 세종시 읍·면·동 중심의 인구이동, ❸ 지역 청년 인구변화에 대한 진단을 협업을 위한 전략적 주제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연구함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의 기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임
 - 세종시 인구이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입지, 전출지로서의 다른 지역을 일부 다룸

2) 시간적 범위

분석의 기준 시점은 2023년이나, 분석 내용별 시간적 범위는 상이함

- 기준 시점: 2023년
 - 출산감소 유형 분석 기간: 2012~2022년
 - 세종시 인구이동 분석 기간: 2013~2022년

3) 내용적 범위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협력의 필요성과 과정의 기록(제1장)

- 연구의 필요성
 - 세종시 출범 후 10년간의 지역 인구변화 진단의 필요성
 - 협동연구를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의 필요성
 -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부합하는 선도적 지역연구모델 제시의 필요성
- 대전세종연구원과 충청지방통계청 협동 연구의 추진 과정 기록
 - 협동 정책연구 및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 추진
 - 간담회 및 내·외부 연구진 회의 주요 논의 과정 기록

□ 출산감소 유형을 통해 본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진단(제2장)

- 최성은(2018)의 연구는 출산감소유형은 2012년~2017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위기 진단을 3가지 지표(20~44세 여성의 수, 20~44세 여성의 기혼율, 합계출산율)를 활용하여, 입체적인 도형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한 바 있음
 -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는 인구의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을 모두 고려하여 진단해야 하므로, 출산감소 유형은 주요한 정책 대상의 변화를 시각화하여 제시해 주는 정책디자인 도구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지속성, 연계성,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2012~2022년까지 17개 광역시·도별 출산감소 유형의 변화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기존 최성은(2018)의 연구에서 진행한 출산감소 유형분류의 기준연도를 2022년으로 재설정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대한 유형 분류를 최신화함. 기존 연구와 최신화한 유형 분류 결과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함
 - 또한, P지수를 활용한 인구변화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있어 주요한 정책 대상의 변화를 시각화하여 제시함
 - 출산감소 유형 분류와 P지수로 본 인구 미래 시나리오를 통하여, 각 유형별 인구감소 위기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2장은 액자형 구성에 있어 세종시의 인구이동을 분석하게 될 3장의 도입부로의 역할을 수행함

□ 세종시 출범 이후 10여 년간의 인구이동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구변화 진단(제3장)

- 세종시 출범 이후 10여 년간의 인구이동 분석(충청지방통계청)
 - 기존 연구 성과(세종시 인구이동) 자료 수정·보완 및 최신화(최성은 외, 2018)
 -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간의 인구이동 분석을 통한 인구변화 특징 진단

□ **지역 청년 인구변화 진단과 과제(제4장, 심층 기획 분석)**

- 지역 청년 인구변화 진단과 과제 제시: 최근 10년간 세종시 청년의 인구 변화를 주요 이슈별로 구분해 심층 분석을 실시함
- [이슈 1] 세종시 청년 연령 집단별(19~29세, 30~39세) 인구이동 특성
- [이슈 2] (2013년 vs. 2022년) 청년의 시·도 간 이동 특징과 사유 비교 분석: 세종시 청년들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갔는가?
- [이슈 3] 세종시 지역 내 격차와 청년인구 이동
 - 세종시 지역 내 소멸위험도 격차와 청년인구 이동 간의 관계
 - 청년인구 변화
 - 청년 인구이동 사유 톺아보기: ①청년들은 왜 읍, 면 지역으로 이주했을까?
②청년들은 왜 읍, 면 지역을 떠났을까?
 - 전출 사유별(직업, 주택, 교육) 청년이동 추적하기: 연령집단 및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함
 - 소멸위험지수 주요 지표로서의 읍, 면 지역 여성 청년(20~39세)의 인구 이동 특징

□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필요한 선도적 지역연구 모델 제안(제5장)**

- 정책적 차원의 과제
 - 국가 차원의 과제
 - 세종시 차원의 과제
- 거버넌스 차원의 과제
 -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연구 추진 성과와 한계
 -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필요한 선도적 지역연구모델 제안

[표 1-1] 연구의 흐름

목차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서 론: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협력의 필요성</p>
제1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협동연구의 추진 과정 <p style="text-align: center;">출산감소 유형으로 본 우리 지역의 인구 위기 진단</p>
제2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개요 • 출산감소 유형으로 본 지역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 - 출산감소 유형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전망(P지수) • P지수로 본 지역 인구 전망과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특징에 따른 정책 방향 제안 - 세종시 유형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제안 - P지수 분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p style="text-align: center;">세종시 출범 후 10여 년간의 인구변화 진단</p>
제3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개요 • 세종시 인구변화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인구변화(총인구, 읍·면·동별 인구변화) •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간(2013~2022년) 인구이동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2013~2022년) - 세종시 읍/면/동 지역 인구이동 현황(2013~2022년) (순이동, 순전입/순전출자 사유, 시·도 내 이동변화, 시·도 간 이동, 전입 인구의 이전 거주지, 전출자의 전출지역, 전입/전출인구의 성별·연령대별 특징) • 세종시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변화 진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인구이동 분석 주요 결과 요약 - 세종시 출범 후 10년간 인구이동 분석 결과의 시사점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 청년 인구변화 진단</p>
제4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 기획 분석의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년인구 이동의 중요성 -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한 심층 기획 분석 시도 • 청년 인구변화에 대한 주요 이슈별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 1] 세종시 청년 연령 집단별(19~29세, 30~39세) 인구이동 특성 - [이슈 2] (2013년 vs. 2022년) 청년의 시·도 간 이동 특징과 사유 비교 분석: 세종시 청년들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갔는가? - [이슈 3] 세종시 지역 내 격차와 청년 인구 이동 • 시사점: 정책적 차원의 개선과제 제안 <p style="text-align: center;">결 론</p>
제5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요약 • 정책적 차원의 과제 • 거버넌스 차원의 과제 • (종합)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필요한 선도적 지역연구모델 제안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2. 연구의 방법

1) 문헌분석

문헌 분석

○ 행정자료 분석

- 세종시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행정자료 분석

○ 선행연구 검토

- 대전세종연구원 발간 보고서 중심의 선행연구 검토: 저출생 대응, 인구 감소대응 등 관련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자료 최신화 실시.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적극 활용함
- 관련 학술논문 및 타 기관의 정책 자료 및 연구보고서 활용

2) 현황 분석

주민등록인구 현황 분석

○ 통계청 통계포털 데이터를 활용한 현황 분석: 2012~2022년 주민등록 인구 변화

- 성·연령별, 세대별(청년 중심) 특징으로 분석

○ 인구감소 위기 측정을 위한 현황 분석

-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활용한 지역소멸위험 수준 분석

출산감소 지역 유형화 및 시각화

○ 대전세종연구원의 2018년 발간 보고서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연구책임: 최성은)>연구의 출산감소 지역 유형화 작업의 최신화를 시도함

- 출산감소유형 분류 기준: 20~44세 여성비율(X축), 20~44세 여성의 기혼율(Y축), 합계출산율(Z축)
- 17개 시·도의 지표별 평균을 50으로 환산한 뒤, 편차를 구하여 출산 감소 지역을 분류함. X, Y, Z축이 50인 정육면체 대비 각 시·도의

지표별 편차(=지표의 평균값-각 시·도별 지표값)를 50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통해, 직육면체를 중첩하여 상호 비교를 실시함

- 2022년 각 시·도별 인구를 100으로 산출하여 인구변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 P지수 산출을 실시함. 과거는 2012년, 현재는 2022년, 미래는 2050년으로 설정함

세종시 출범 이후 10여 년간의 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충청지방통계청 수행)
 - 「세종시 인구 이동 특성과 정책방향 연구」(2018) 보고서 업데이트
 - 보고서 본문 내 25개 지표, 부록 내 19개 지표 분석 가능(총 44개 지표)
 - (세부 지표명) 보고서 본문 내 총 25개 지표 분석 가능
 - (세부 지표명) 보고서 부록 내 총 19개 지표
- 통계청의 인구이동 공표 데이터와 선행연구의 집계 방식이 다소 상이함
 - 선행연구는 시·도 내 이동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추진함
 - 이에 충청지방통계청에서는 통계청 인구이동 공표 기준 데이터와 선행 연구 기준 데이터를 모두 가공하여 제공함

3) 전문가 의견조사와 협업을 위한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약 17회 정도의 전문가를 포함한 간담회를 실시함
 - 충청지방통계청 소속 공동연구진(김영아 주무관)과의 수시 회의 진행 포함
 -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데이터분석팀과의 공동 간담회 8회 추진 (데이터분석팀 김영호 팀장 참석 기준)
- 전략상생과제 콜로키움: 세종시와 대전시 지역통계담당 및 인구가족정책담당자들과의 세미나 개최
- 인구이동 분석 결과에 대한 인구사회학 전공 전문가 간담회 추진

4) 현장 조사를 통한 정책 개선과제 제시

해외사례 현장 조사를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

○ 일본 요코하마시 현장 조사

- 일본을 대표하는 항구도시이자 국제도시인 요코하마는 1971년부터 도시정비국 기획부산하에 도시 디자인실을 두고 ‘인간적 매력 있는 도시 만들기’ 정책을 지속 추진 중임
- 일본 요코하마시 도시디자인 사례 현장조사를 통하여 생활인구 유입, 체류인구 유입의 가능성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새로운 지역상생협력 연구 모델 제안

- ①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연구수행을 위한 지식플랫폼의 새로운 제도변화 추진 및 발전 방안 모색
- ② 연구 동반자로서의 충청지방통계청의 역할 제시⇒ 충청지방통계청 미션, 비전, 사업목표, 전략과제에 부합

□ 지역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생성

- ① 단층제행정체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위한 기초통계자료 제공, 인구 미래전략 수립 근거로 활용 가능
- ② 곧 출범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서, 충청권 인구변화 진단의 첫 포문을 여는 연구자료임. 향후, 대전, 충남, 충북 연구와의 연계를 통한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함



[그림 1-3] 대전세종연구원과 충청지방통계청 기관 미션과 비전

3절 협동 연구의 추진 과정

1. 추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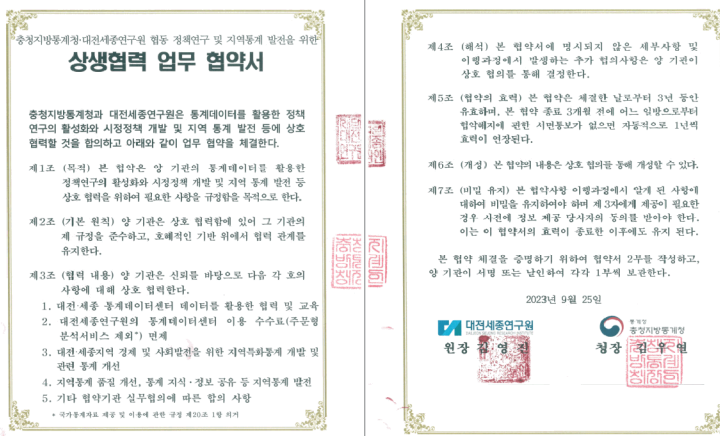
- 협동 연구의 정례화 추진 계기 마련을 통해 윈-윈(win-win) 전략 마련
 - 세종과 대전지역의 정책연구에 전문성을 가진 우리 연구원과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분석에 탁월한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업은 지역 통계 분석 자료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구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상호 발전 전략이 될 수 있음
 - 연구원 차원의 필요성
 - 개별 연구자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
 - 연구자 개인별 지역통계센터와의 연구 협력 추진의 한계
 - 데이터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도 단기간에 연구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움
 - 충청지방통계청 차원의 필요성
 - 수시로 공표되는 지역 통계 자료의 정책적 활용도가 높지 않아, 시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전략적 창구가 필요한 시점임
 - 기존의 기관 간 MOU 체결 후 대응 미미 ⇒ 협력연구의 성과물 생성을 통해 지역 통계 활용의 선도적 모범 사례 창출
 - 이에 본 연구는 상생협력연구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역에 필요한 기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여 정례화된 협동연구의 첫 포문을 열고자 함

□ 주요 추진 일정



[그림 1-4] 대전시중앙연구원과 충청지방통계청 협동 연구 주요 추진 일정

- ❶ 2023년 2월 충청지방통계청과 대전세종연구원의 협동 정책연구 수행과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체결
 - (협력 내용) 대전·세종 통계데이터센터 데이터를 활용한 협력 및 교육, 대전세종연구원의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수수료(주문형 분석서비스 제외) 면제, 대전과 세종지역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지역특화통계 개발 및 관련 통계 개선, 지역통계 품질 개선, 통계 지식·정보 공유 등 지역통계 발전, 기타 협약기관 실무협약에 따른 합의 사항
 - 9월 데이터 이용 수수료 면제 조항 추가



[그림 1-5] 대전세종연구원과 충청지방통계청 상생협력 업무 협약서

- ❷ 2023년 4월 14일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지역 인구변화 진단을 위한 상생협력 연구: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동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시작
 - 충청지방통계청 데이터분석팀 김영아 주무관을 공동연구진으로 포함하여 연구수행 전 과정을 함께 협력함. 충청지방통계청 김영호 팀장의 경우, 모든 간담회에 동석하여 두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의 구심점 역할을 맡음
- ❸ 2023년 9월 15일 전략상생연구 콜로키움 개최
 -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동 연구 과정의 공유와 결과의 확산,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대전시와 세종시 지역통계담당 및 인구가족정책담당자와의 세미나 실시

- 두 지자체 통계 관련 업무 담당 팀장과의 지자체-연구원-충청지방 통계청과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방향성을 논의함

III 진행순서		
시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10	개회	인사말 및 내빈소개 - 진행: 최성은 - 인사 말씀: 김영진 원장
10:10~10:40 (30분)	발표	- 주제① 연구 소개(15분) - 발표자: 최성은 연구책임 - 주제② 세종시 출범 10년에 따른 인구변화 분석 결과 추진과 시사점(15분) - 발표자: 김경아 주무관(충청지방통계청)
10:40~11:30 (50분)	라운드테이블 ※자문요청 사항 "지역통계생산과 확산, 인구가족정책 추진에 있어 대전세종연구원과 지속적인 연구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 좌장: 이형복 기획조정실장(대전세종연구원) - 추지혜 주무관(충청지방통계청, 대전세종광역통계분석담당) - 강석규 사무관(세종시청 지역통계담당) - 한경자 사무관(세종시청 인구가족담당) - 박미영 사무관(대전시청 지역통계담당) - 김선희 사무관(대전시청 인구정책팀장)
11:30~11:40	질의응답	해당 과제 보고서 발간방안에 대한 자유 논의
11:40~11:50	폐회	



[그림 1-6] 전략상생연구 콜로키움 행사(2023.9.15.)

- ④ 2023년 11월 16일 충청권 업무발전 토론회
 - 충청지방통계청의 지역통계업무발전 토론회에 파트너로 참석하여 성과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데 일조함. 이를 통하여, 두 기관 간 협동 연구 과정과 지속적인 협력의 과정을 대외적으로 알림

- 충청지방통계청과 대전세종연구원 협동연구 수행 사례(세종시 국내인구 이동통계 MDIS 자료 분석) 발표와 더불어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중인 이종통계분석서비스 구상(안) 시연



[그림 1-7]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 업무발전 토론회(2023.11.16.)

- ⑤ 2023년 12월 21일 대전세종연구원과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동연구 성과보고회 개최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협업 방향 논의
 - 세종시, 대전시, 충청지방통계청, 통계청,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 간의 지속가능한 지역협업연구모델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략 세미나 실시
 - (주제) “지방시대는 협업이다”를 주제로, 대전과 세종의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협력과 협업 전략 모색

- (참석 대상) 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지역 통계 및 인구 가족 관련 부서 담당자
- (주요 내용) MOU 체결 이후 협업 과정 보고 및 주요 연구 결과 발제
- (라운드 테이블) 김우열 충청지방통계청장, 김영진 원장, 천흥빈 정책 기획관(세종시), 최원 과장(통계청),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위원장으로 구성된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업 방향 논의

[표 1-2] 간담회 및 내외부 연구진 회의 주요 논의 안건

구분	주요 논의 안건	일시	장소
1(공동)	연구진 소개 및 연구 진행 방향 논의	2023년 4월 20일, 10:00 ~ 13:00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청사 3층 증회의실
2(공동)	대전·세종 인구감소 위험 측정 및 변화추이 분석 자료 검토	2023년 5월 2일, 14:00 ~ 17:00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청사 3층 증회의실
3	통계청 <지역동계발전포럼> 참석 및 과제 진행상황 공유 및 추후 연구결과 확산 방안 논의	2023년 6월 8일, 12:00 ~ 19:00	전라남도 여수 소노캅
4	외부 연구진(충청지방통계청, 비상임연구원)의 1차 성과를 점검 및 연구 성과물 시사회 방안 논의	2023년 6월 21일, 17:00 ~ 20:00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청사 3층 기획조정실장실
5(공동)	‘청년인구 이동’에 대한 연구 필요성 논의 및 충청지방통계청, 대전세종연구원 진행상황 공유	2023년 6월 22일, 10:00 ~ 13:00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청사 3층 증회의실
6	비상임연구원 정은호(충남대학교 산업협력단) 소개 및 P지수 데이터 시각화	2023년 7월 6일, 16:30~ 20:30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청사 3층 멀티미디어실
7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사업 운영 방향 제시 및 성과물 공유 및 협의	2023년 7월 21일, 17:00 ~ 19:00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청사 3층 증회의실
8	출산감소유형 시사회 및 P지수 시사회 자료 확인 및 수정	2023년 7월 25일, 17:00 ~ 20:00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청사 3층 증회의실
9(공동)	내외부 연구진 연구 진행상황 공유 및 대전세종 생활권 광역통계 작성 상황 및 협력적 활용방안과 SDC 데이터 센터와 대전세종연구원의 지속적인 협력방안 논의	2023년 7월 26일, 10:00 ~ 14:00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청사 3층 증회의실
10(공동)	연구 추진 일정 조율과 분석 결과의 정책 제언 도출을 위한 업무협의	2023년 8월 8일, 15:30 ~ 18:00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청사 3층 증회의실
11	세종시청 보건복지국에 회의 자료 보고 및 인구가족담당 사무관과의 면담	2023년 8월 16일, 11:00 ~ 13:30	세종시청 4층 보건복지국장실
12	클로킹음 개최계획 논의 및 세부 일정 논의	2023년 8월 17일, 16:00 ~ 19:30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청사 기획조정실장실

구분	주요 논의 안건	일시	장소
13	세종시 지역통계 개발, 생산 및 활용 과정 중 대전세종연구실과 협업이 필요한 사항, 시민 친화적 정보 확산을 위한 협업 필요 사항에 대한 자문요청	2023년 8월 22일, 11:00 ~ 15:00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청사 707호
14(공동)	인포그래픽스 기획안 공유 및 추가 분석, 필요 사항 논의 및 콜로키움 개최 협의	2023년 8월 31일, 10:00 ~ 14:00	충청지방통계청 11층 소회의실
15(공동)	전략상생연구 콜로키움 개최(김영진 원장님 참석)	2023년 9월 15일, 10:00 ~ 13:00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청사 1층 대회의실
16(공동)	보고서 작성 내용 교차 검토 및 11월 16일 충청권 지역통계 업무발전 토론회 발표 내용 공유 및 협업이 필요한 사항 논의(김영진 원장님 참석)	2023년 11월 6일 14:00~18:00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청사 3층 중회의실
17	인구이동 분석 결과와 심층 기획 분석을 위한 전문가자문회의	2023년 12월 1일 10:00~ 16:00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청사 7층 회의실
18	2023년 대전세종상생포럼 하반기 정기포럼 주제: 출산감소 유형으로 본 우리 지역의 인구 위기와 세종시 청년 인구변화 진단과 과제 - 연구 주요 결과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연구원의 전문가 포럼 활용(김영진 원장님 참석)	2023년 12월 19일 14:00~16:00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청사 1층 대회의실
19	2023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합동연구 성과보고회 - MOU 체결 이후 협업과정 보고 및 주요 연구 결과 발표 - 김우열 충청지방통계청장, 김영진 원장, 찬용빈 청원기획관(세종시), 최원 과장(통계청),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위원장으로 구성된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업 방향 논의	2023년 12월 21일 10:00~12:00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청사 2층

*주: (공동)은 충청지방통계청 연구진 및 관계자(김영호 데이터분석팀장 등)와 함께 추진한 간담회를 의미함

출산감소 유형으로 본 우리 지역의 인구 위기 진단

1절 분석 개요

2절 출산감소 유형으로 본 지역 특성

3절 P지수로 본 지역 인구 전망과 시사점

2장

2장 출산감소 유형으로 본 우리 지역의 인구 위기 진단

1절 분석 개요

1. 분석의 의의

- 분석의 의의①: 3장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간의 인구변화 분석을 위한 도입부
 - 2장의 선행연구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발간한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연구책임: 최성은)> 연구보고서임
 - 최성은(2018)의 연구는 출산감소유형은 2012년~2017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위기 진단을 3가지 지표(20~44세 여성의 수, 20~44세 여성의 기혼율, 합계출산율)를 활용하여, 입체적인 도형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한 바 있음
 - 또한, 출산감소 유형 분류와 P지수로 본 인구 미래 시나리오를 통하여, 각유형별 인구감소 위기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는 인구의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을 모두 고려하여 진단해야 함. 따라서 출산감소 유형은 주요한 정책 대상의 변화를 시각화하여 제시해 주는 유용한 정책디자인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지속성, 연계성,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2012~2022년까지 17개 광역시·도별 출산감소 유형의 변화를 진단하고 2050년까지 P지수로 인구변화 시나리오 작성하여,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³⁾
 - 다만, 출산감소유형은 특정년도의 고정된 자료를 통해 가공하여 시각화된 자료이며, P지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한 성·연령별 남녀 인구 비율의 변화를 다루기 때문에 ‘젊은 여성’의 세부 연령별 이동의 패턴과 그 사유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정보 제공은 한계가 있음

3) 제2장의 자료갱신 지원-공동연구원 류형원, 시각화 지원-비상임연구원 정은호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왜 출산감소 유형이 변화하고 저출산의 위기가 고조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여성 인구 이동을 분석해야 함
- 따라서 2장은 이어질 '3장 세종시 출범 이후 10여 년간의 인구이동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구변화 진단'의 포문을 열어줄 도입부로서 의의가 있음
- **분석의 의의②: 출산감소유형 분류와 인구변화 시나리오 관찰의 의의**
 - 출산감소유형 분류와 P지수를 활용한 인구변화 시나리오는 저출산 위기에 있어 주요한 정책 대상의 변화를 시각화하여 제시해 줄 수 있는 정책 디자인 도구라고 할 수 있음
 - 젊은 여성인구가 저출산 및 지역소멸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여성의 연령대가 실제 주 출산 연령대와는 다소 괴리가 있음
 - 이 연구는 젊은 여성의 연령대를 만혼화 흐름을 고려하여 20~44세 여성으로 정의하여 연도별 변화를 추적하고 기혼여성비율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를 디자인 사고를 통해 구현해 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최성은(2018)의 연구에서 진행한 출산감소 유형분류의 기준연도를 최신의 시점으로 재설정하여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대한 출산감소 유형분류를 수행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2. 지표 측정 방법과 산출방식

□ 지표 측정 방법

- 유형화 분류의 기준연도는 2022년임
-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초기부터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 2022년 기준 38만 명으로 40만 명을 달성하기 직전인 상황임⁴⁾
- 세종시의 출산감소 유형 변화가 있을 것을 고려해 2012년, 2015년, 2017년, 2020년, 2022년의 출산감소 유형분류를 실시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대한 출산감소 유형분류를 수행함
- 또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를 활용하여 P지수(각 광역시·도의 2022년 전체인구를 100명으로 산정하여 나온 지수)를 산출하고 과거(2012년)-현재(2022년)-미래(2050년)의 연령별(20세 미만, 20~44세 남/녀, 45~64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비교 분석함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인구 구조는 변화하며, 젊은 세대의 감소와 노년층의 증가 등은 지역의 출산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영향을 미침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출산감소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는 지역별 출산감소의 진행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장기적인 인구 구조의 흐름 분석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 젊은 세대와 노년층 인구비율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X축) 20~44세 젊은 여성 비율
 - 20~44세 젊은 여성 비율은 통계청이 2022년 5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의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 5세별/시·도)’ 자료이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제공함(자료 검색일: 2023년 5월 3일)⁵⁾

4) (참고)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53.3만 명으로 집계된 이후 다음 해인 2014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149만 명으로 150만 명 인구가 붕괴됨

5) 작성 대상 인구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외국인 포함)이며, 해당 자료의 경우 1970년부터 2020년까지는 확정인구를 포함하고, 2021년 이후는 다음 인구 추계 시 변경 가능성을 밝히고 있음

- 장래인구추계는 저, 중, 고위추계로 구성되며 고위추계는 최대인구, 저위추계는 최소인구추계를 나타냄. 본 연구에서는 ‘중위추계 인구(기본 추계)’ 자료를 활용함
 - 본 연구에서는 ‘각 광역시·도에서 20~44세의 젊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X축)’의 대리변수로써, 광역시·도별 전체 인구 대비 20~44세 젊은 여성인구 비율을 사용함
- (Y축) 20~44세 젊은 기혼여성 비율
-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 전수조사, <2015년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 <202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함. 세종시는 2013년에 공표된 <2013 세종시 특별센서스> 자료를 활용함
 -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혼인상태별 인구는 1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20~44세 여성인구 대비 배우자가 있는 20~44세 여성인구 비율을 ‘Y축 20~44세 젊은 기혼 여성 비율지표’의 대리변수로 사용함
- (Z축) 합계출산율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제공하는 ‘인구동향조사(2000~2021년): 시군구/합계출산율,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활용함 (자료 검색일: 2023년 5월 3일)

[표 2-1] 20~44세 젊은 기혼여성 비율 산출 방법

2012년 여성 기혼율 산출	〈2010년 인구총조사〉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함. 20~44세 여성 인구 대비 20~44세 ‘배우자 있음’ 여성 비율로 산출함. 세종시의 경우, 〈2010년 인구총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2013년 특별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 산출식으로 기혼율을 산출하여 포함함
2015년 여성 기혼율 산출	〈2015년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함. 혼인상태별 정보는 20% 표본조사 자료만 제공되고 있어 표본대상 20~44세 여성인구 대비 20~44세 ‘배우자 있음’ 여성 비율로 산출함
2017년 여성 기혼율 산출	인구총조사는 5년 주기로 수행되는 조사로, 2017년은 자료 구득이 어려움. 이로 인해 〈2015년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 자료 결과를 대리변수로 활용함
2020년 여성 기혼율 산출	〈2020년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함. 혼인상태별 정보는 20% 표본조사 자료만 제공되고 있어 표본대상 20~44세 여성인구 대비 20~44세 ‘배우자 있음’ 여성 비율로 산출함
2022년 여성 기혼율 산출	인구총조사는 5년 주기로 수행되는 조사로, 주기가 아닌 연도의 자료는 구득이 어려움. 이로 인해 2022년은 〈2020년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 자료 결과를 대리변수로 활용함

□ 지표값 산출방식

- (정육면체 시각화) 아래의 산출방식으로 출산감소 3가지 지표 변수값을 표준화함
 - (X축) 50으로 표준화: 17개 광역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20~44세 여성 인구 비율의 평균을 산출하여 50으로 환산한 값
 - (Y축) 50으로 표준화: 17개 광역시·도별 20~44세 여성인구 대비 배우자가 있는 20~44세 여성인구 비율의 평균을 산출하여 50으로 환산한 값
 - (Z축) 50으로 표준화: 17개 광역시·도별 합계출산율 평균값을 50으로 환산한 값
- (직육면체 시각화) 17개 광역시·도별 X, Y, Z축 환산값 산출
 - 예: 대전시 (X축) 20~44세 여성비율 = (2022년 기준 비율 값(17.4)/17개 광역시·도 평균비율(15.5))×50 = 56.2
-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산출된 3개 지표값의 기준값 대비 고저에 따라 그룹화를 수행하고, ‘과거(2012년) - 현재(2022년) - 미래(2050년)’의 P지수를 산출하여, 시각화함
 - P지수란, 각 광역시·도별 2022년 전체인구를 100으로 산정하고, 비교 대상 연도의 인구를 상대적으로 산출하여 표기한 수치임. 2022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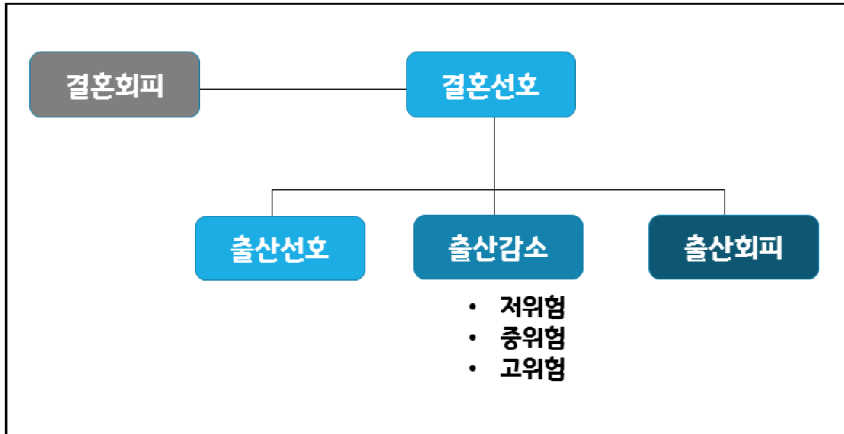
- 지수를 기준(현재)으로 설정하여, 세종시 출범연도인 2012년(과거)과 2050년 추계인구(미래)를 비교 분석하여 인구 구조 특징을 도출함
- 기준연도인 2022년 인구수는 각 광역시·도별로 상이하여 산출한 지수 값 100의 의미는 지자체별로 의미가 상이함

3. 출산감소 지역 유형화 방법

- (제1단계) 17개 광역시·도의 3개 출산감소 지표 수치 표준화
 - X, Y, Z축의 지표별 평균값을 산출하고, 그 값을 50으로 환산한 후,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평균값 대비 편차값을 구함
- (제2단계) 3개 지표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각 지표의 수준별 고(高)-저(低)를 구분하여 8개 유형으로 1차 그룹화(2×2×2의 8개 그룹)
 - 17개 광역시·도의 지표별 환산값이 50 미만은 ‘저’수준으로, 50 이상은 ‘고’수준으로 분류하고 8개의 그룹으로 유형화

[표 2-2] 각 지표 수준별 8개 유형

1차 그룹유형	20~44세 여성 비율 (X축)	20~44세 여성 기혼율 (Y축)	합계출산율 (Z축)	2차 그룹유형*
G1	저	저	고	출산감소 중위험
G2	저	고	고	출산감소 중위험
G3	저	고	저	출산감소 고위험
G4	저	저	저	출산감소 고위험
G5	고	고	저	출산회피
G6	고	고	고	출산선호
G7	고	저	고	출산감소 저위험
G8	고	저	저	결혼회피



[그림 2-1] 2차 그룹 재유형화 명칭 개념도

주: 최성은(2018),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제3단계) 1차 그룹 유형의 지표별 고·저에 따라 2차 그룹 재유형화 수행([그림 2-1] 2차 그룹 재유형화 명칭 개념도) 참조)
 - G1과 G2: 두 그룹은 합계출산율이 모두 높은 수준임. 두 그룹에서 20~44세 젊은 기혼여성 비율은 차이가 있으나, 가임기 여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20~44세 젊은 여성 비율이 낮은 것이 두 그룹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됨. 이에 2차 그룹에서는 ‘출산감소 중위험’으로 재분류함
 - G3와 G4: 두 그룹은 20~44세 젊은 여성 비율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낮은 수준으로, 20~44세 젊은 기혼여성 비율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그룹에서는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으로 재유형화함
 - G5: 이 그룹은 20~44세 젊은 여성 비율과 20~44세 젊은 기혼여성 비율이 높으나, 합계출산율은 낮아 부부 평균 자녀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에 ‘출산회피’ 유형으로 재유형화함
 - G6: 이 그룹은 3개의 모든 지표에서 높은 수준이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급함이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따라서 이 그룹은 ‘출산선호’ 유형으로 재유형화함
 - G8: 20~44세 젊은 여성 비율은 높으나, 20~44세 젊은 기혼여성 비율과

합계출산율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 그룹은 ‘결혼회피’ 유형으로 재유형화함

- 한편, G7의 경우, 20~44세 젊은 기혼여성 비율은 낮는데, 20~44세 젊은 여성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높기 때문에, G6 그룹과 G8 그룹 중간 정도로 구분하여 ‘출산감소 저위험’ 유형으로 재유형화함

○ (제4단계) 정육면체(평균값 50)와 직육면체(X,Y,Z축 지표 편차값)로 시각화

- 출산감소 3개 지표별 평균값은 길이가 50인 정육면체로 시각화하여 제시되며, 2차 그룹 재유형화한 6개 그룹의 지표 편차값을 X축, Y축, Z축으로 표현하여, 17개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총 17개의 직육면체를 시각화함

- 평균값과 편차값을 나타내는 두 도형을 중복하여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평균대비 출산감소 유형의 차이를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함

○ 연도별 유형분석 결과,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시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2015년에 울산광역시와 같은 ‘출산선호’ 유형으로 분류됨. 이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출산선호’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음

- 세종시의 경우, 2012년에는 20~44세 젊은 기혼여성 비율과 합계출산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44세 젊은 여성 비율이 낮아, ‘출산감소 중위험’으로 분류됨

- 그러나 2015년부터는 20~44세 젊은 여성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출산선호’ 유형으로 분류됨

○ 반면, 대전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결혼회피’ 유형으로 분류됨

- 대전시는 20~44세 젊은 기혼여성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44세 젊은 여성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결혼회피’ 유형으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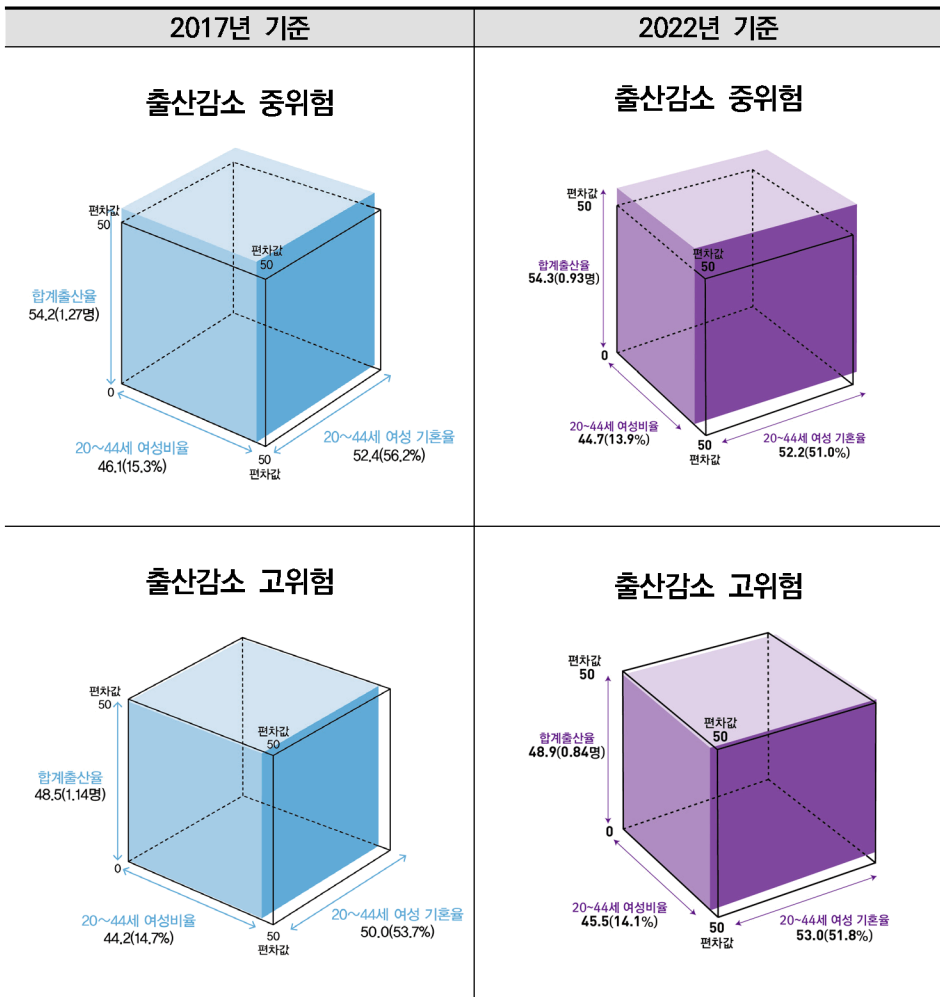
2절 출산감소 유형으로 본 지역 특성

1.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

□ 출산감소 유형별 3개 지표 환산값 변화(2017년 vs.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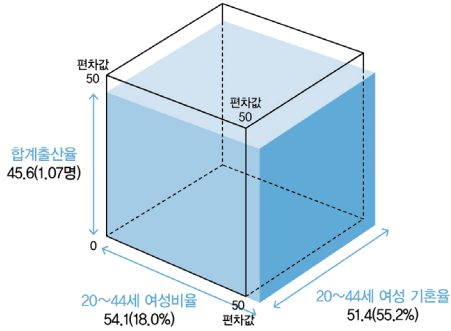
○ 2017년 기준 출산감소 유형을 분석한 선행연구(최성은, 2018)와 2022년 기준으로 산출한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별 변화된 특징을 살펴봄

[표 2-3] 출산감소 유형별 3개 지표 환산값 변화(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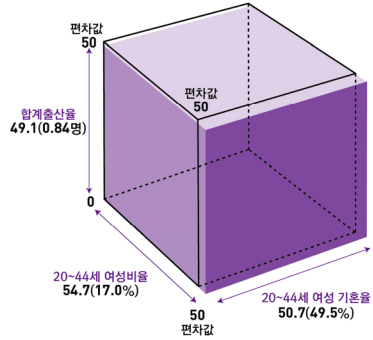


2017년 기준	2022년 기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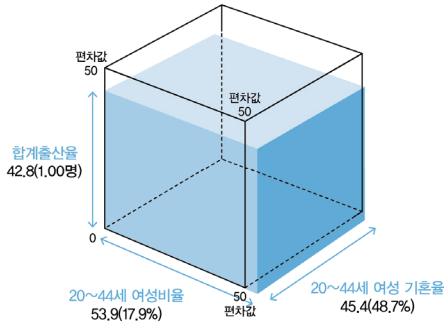
출산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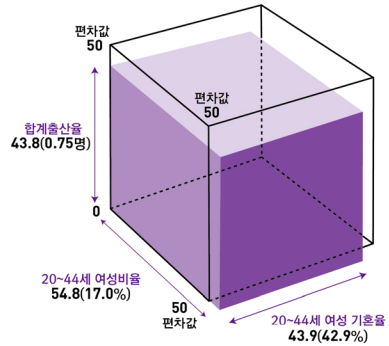
출산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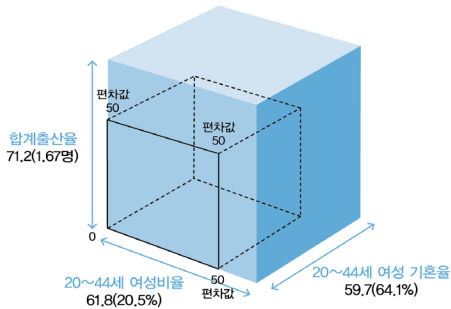
결혼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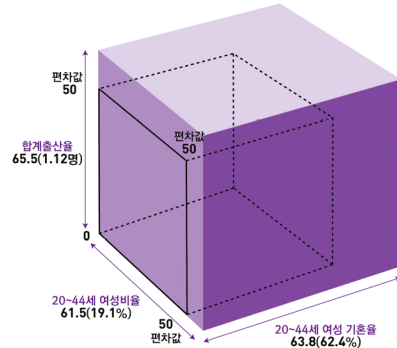
결혼회피



출산선호



출산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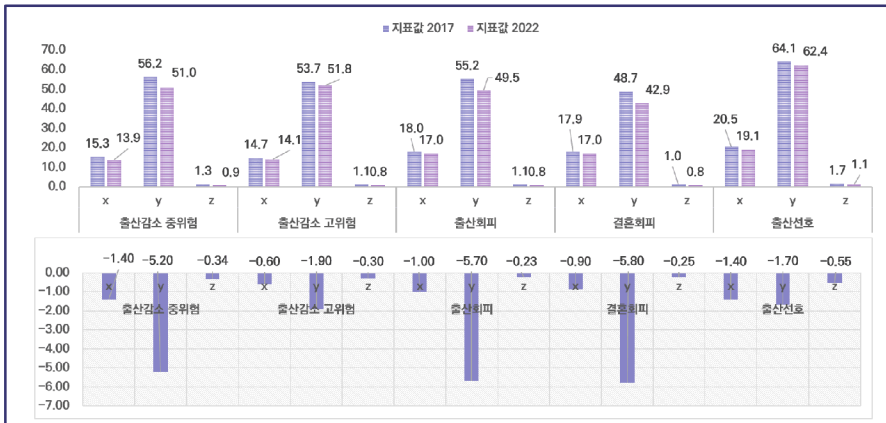
자료: 2017년 기준 자료는 최성은(2018)의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 자료를 발췌하여 포함하였음

- 출산감소 유형은 기준년도의 각 지표별 평균값에 따라 그 표준화된 모델이 상이함. 지표별 17개 시·도의 평균값을 50으로 놓고, 지역별 X, Y, Z 축 길이를 환산하여 산출하기 때문임
- 출산감소 유형 분류를 처음 시도한 최성은(2018)의 기준 유형과 본 연구를 위하여 산출한 2022년 기준 출산감소 유형별 기준 모형의 X, Y, Z 축 값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4] 출산감소 유형별 기준 모형의 차이(2017년 vs. 2022년)

유형 구분	지표	A: 2022년		B: 2017년		증감(A-B)	
		환산값	지표값	환산값	지표값	환산값	지표값
출산감소 중위험	X	44.7	13.9	46.1	15.3	-1.4	-1.40
	Y	52.2	51.0	52.4	56.2	-0.2	-5.20
	Z	54.3	0.9	54.2	1.3	0.1	-0.34
출산감소 고위험	X	45.5	14.1	44.2	14.7	1.3	-0.60
	Y	53	51.8	50	53.7	3	-1.90
	Z	48.9	0.8	48.5	1.1	0.4	-0.30
출산회피	X	54.7	17.0	54.1	18.0	0.6	-1.00
	Y	50.7	49.5	51.4	55.2	-0.7	-5.70
	Z	49.1	0.8	45.6	1.1	3.5	-0.23
결혼회피	X	54.8	17.0	53.9	17.9	0.9	-0.90
	Y	43.9	42.9	45.4	48.7	-1.5	-5.80
	Z	43.8	0.8	42.8	1.0	1	-0.25
출산선호	X	61.5	19.1	61.8	20.5	-0.3	-1.40
	Y	63.8	62.4	59.7	64.1	4.1	-1.70
	Z	65.5	1.1	71.2	1.7	-5.7	-0.55

2017년 vs. 2022년 X, Y, Z 지표값의 변화
(검은색 바탕의 그래프는 지표값 증감 수치를 나타냄)



주: X= 20~44세 여성 비율(단위:%), Y=20~44세 여성 기혼율(단위:%), Z=합계출산율(단위:명)

- 2017년 대비 2022년 모든 유형의 X, Y, Z 지표값이 감소하였음이 확인됨
- 다만, 지표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값이 낮아져서(예: 2017년 17개 시도 평균 Y 지표값 1.3명을 50으로 환산 ⇒ 2022년 17개 시도 평균 Y 지표값 0.8명을 50으로 환산) 일부 유형별 X, Y, Z 지표의 환산값의 경우, 증가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 광역자치단체별 출산감소 유형 분석 결과(2012~2022년)

- 출산감소지역 유형화 작업을 통해 도출한 17개 시·도의 2012~2022년 까지의 출산감소 유형 변화를 살펴봄

[표 2-5] 세종시와 대전시의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

연도 유형구분	2012년	2015년	2017년	2020년	2022년 ¹⁾
출산감소 중위험 (G1:저-저-고)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없음	
출산감소 중위험 (G2:저-고-고)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감소 고위험 (G3:저-고-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없음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출산감소 고위험 (G4:저-저-저)	없음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북도
출산회피 (G5:고-고-저)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출산선호 (G6: 고-고-고)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출산감소 저위험 (G7:고-저-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결혼회피 (G8:고-저-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주: [부표 1-12]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지표 상세표기) 참조

1) 2022년 - y축: 통계청(2021), <2020년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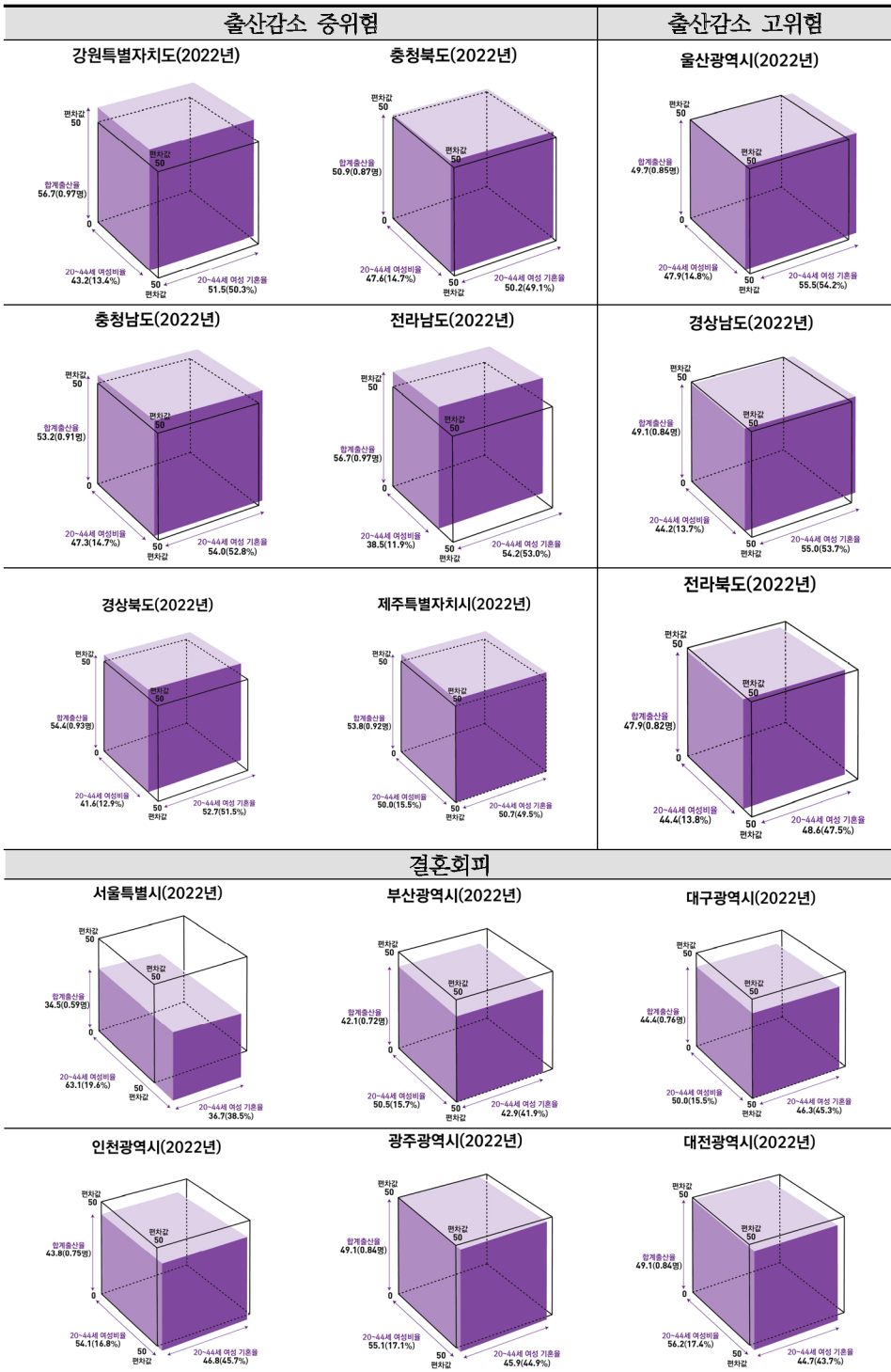
- z축: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2023.2.22.

- 출산감소 유형의 연도별 변화의 해석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앞서 살펴본 출생지표(X, Y, Z)의 모든 수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현 시점(2022년)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수준에서 유형별 구분이 유의미하다는 점임
 - 세종시는 출범 해인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출산선호 유형을 유지해 왔음
 - 대전시의 경우,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결혼회피 유형을 유지해 오고 있음

□ **2022년 기준, 출산감소 유형별 광역자치단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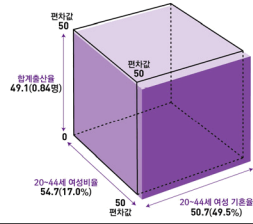
- 2022년 기준 출산감소 유형별 광역자치단체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함
 -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에 속하는 광역시·도는 총 6개 지역으로 분석됨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에 속하는 지역은 울산, 경남, 전북 3개 지역임
 - 결혼회피 유형에 속하는 지역은 6개 광역시 전부가 해당함(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출산회피 유형에 속하는 지역은 경기도 1개 지역이며, 출산선호 유형은 세종이 유일함

[표 2-6] 출산감소 유형별 광역자치단체 현황(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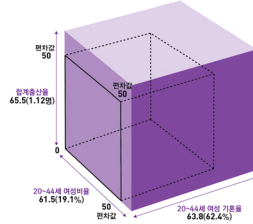
출산회피

경기도(2022년)



출산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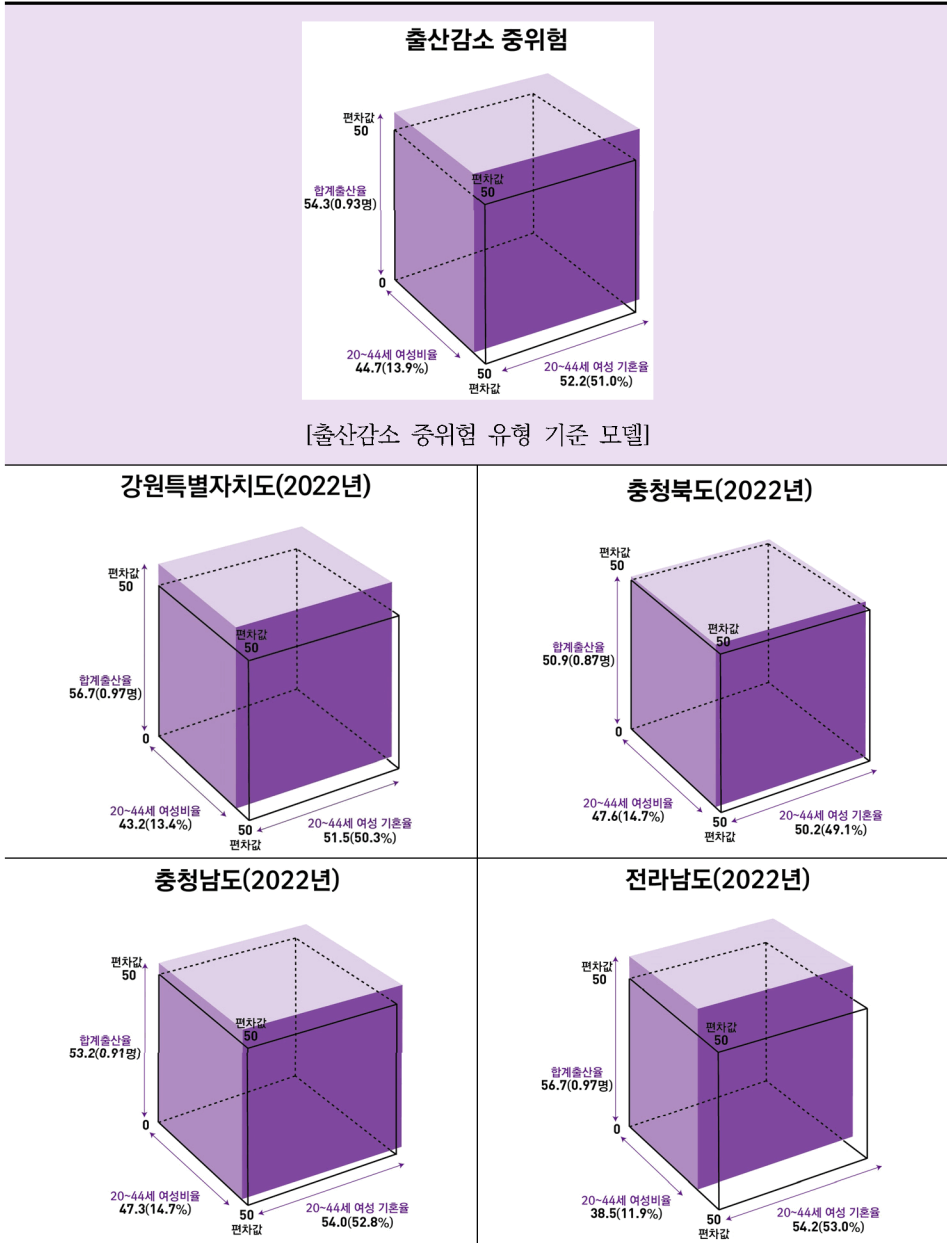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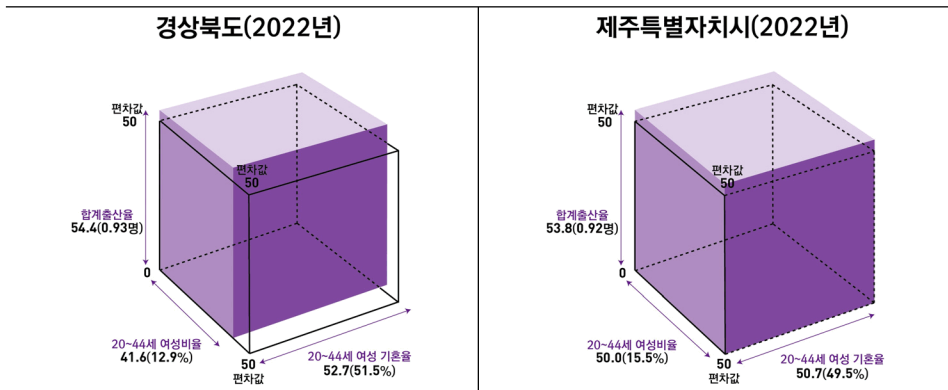


2. 출산감소 유형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전망

1) 유형 ① 출산감소 중(中)위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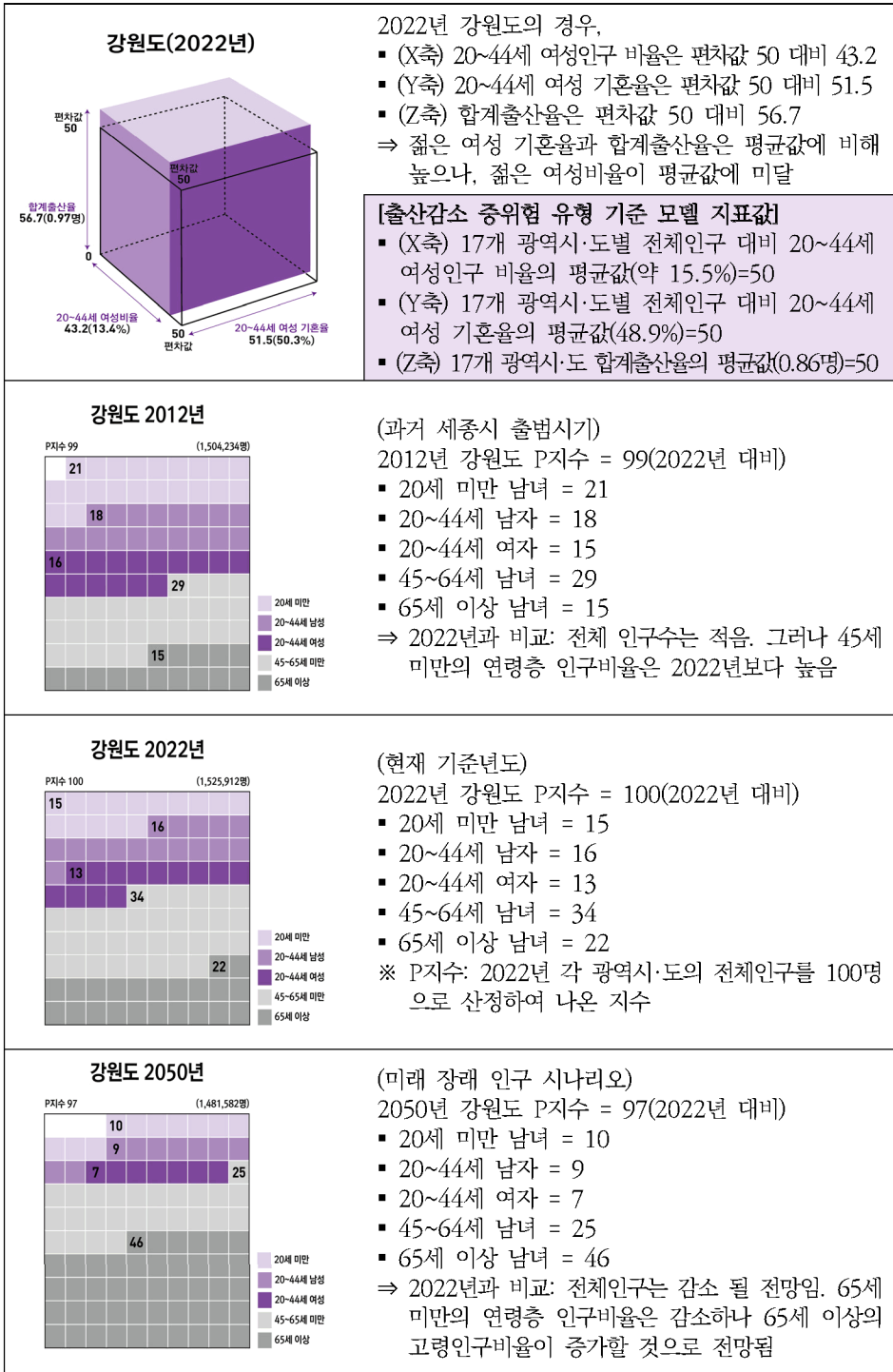
[표 2-7]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 지자체(6개)





- 출산감소 중위험군에 속한 6개 지역의 인구 전망을 P지수를 활용하여 살펴봄
 - 젊은 여성 기혼율과 합계출산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젊은 여성비율이 평균값에 미달인 지역으로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가 해당함
- 출산감소 중위험군 6개 지역별로 2022년 전체 구를 100명으로 산정하여 과거(2012년)와 미래(2050년)의 P지수를 시각화하여, 인구변화를 전망함
- 각각의 결과는 [표 2-8]~[표 2-13]에 정리하여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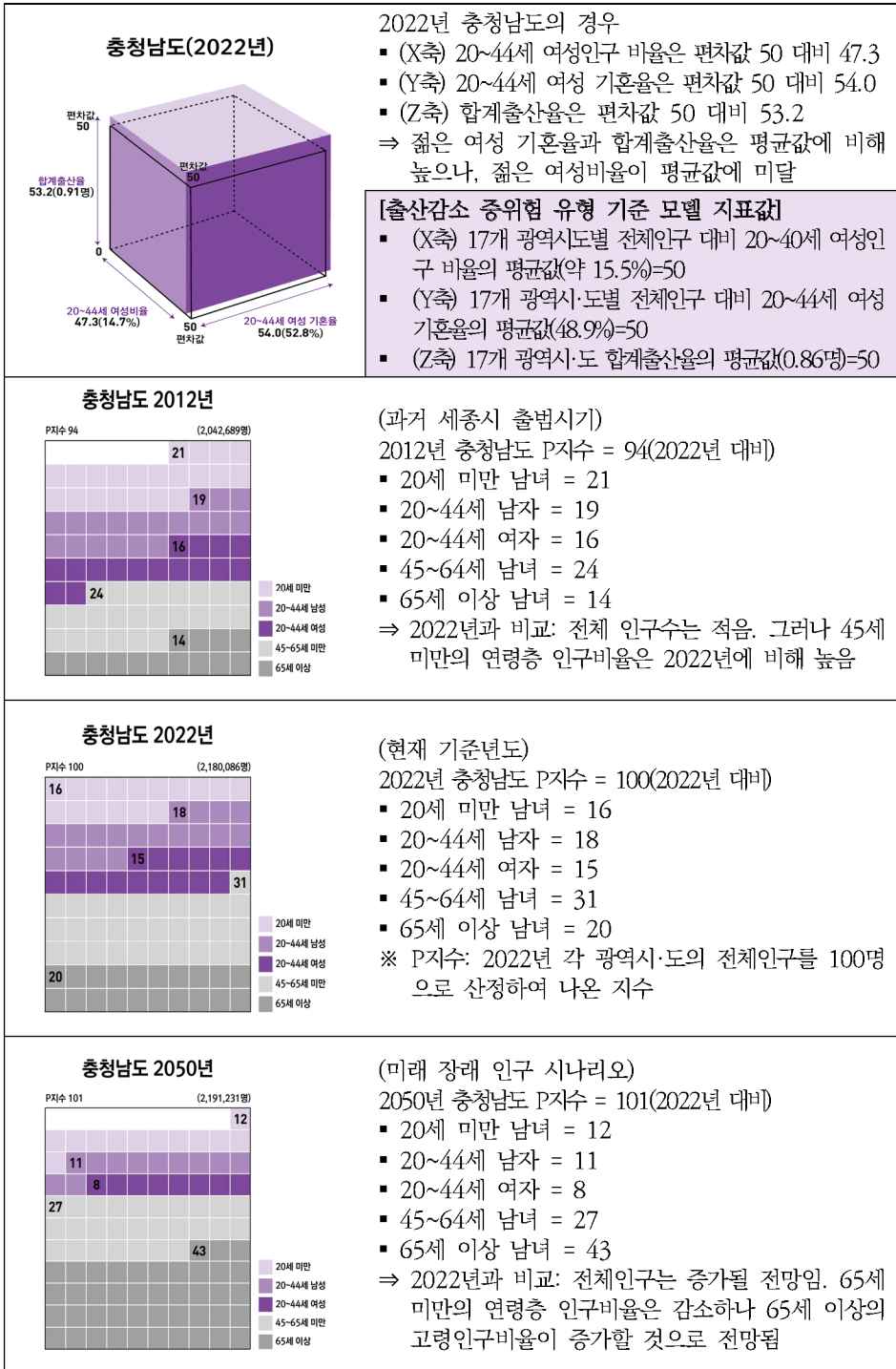
[표 2-8] 출산감소 증위험(강원특별자치도)



[표 2-9] 출산감소 증위험(충청북도)

<p>충청북도(2022년)</p>	<p>2022년 충청북도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축) 20~44세 여성인구 비율은 편차값 50 대비 47.6 ▪ (Y축) 20~44세 여성 기혼율은 편차값 50 대비 50.2 ▪ (Z축) 합계출산율은 편차값 50 대비 50.9 <p>⇒ 젊은 여성 기혼율과 합계출산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젊은 여성비율이 평균값에 미달</p> <p>[출산감소 증위험 유형 기준 모델 지표값]</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축) 17개 광역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20~40세 여성인구 비율의 평균값(약 15.5%)=50 ▪ (Y축) 17개 광역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20~44세 여성 기혼율의 평균값(48.9%)=50 ▪ (Z축) 17개 광역시·도 합계출산율의 평균값(0.86명)=50
<p>충청북도 2012년</p>	<p>(과거 세종시 출범시기)</p> <p>2012년 충청북도 P지수 = 95(2022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 남녀 = 22 ▪ 20~44세 남자 = 18 ▪ 20~44세 여자 = 15 ▪ 45~64세 남녀 = 26 ▪ 65세 이상 남녀 = 13 <p>⇒ 2022년과 비교: 전체 인구수는 적음. 그러나 20세 미만의 연령층 인구비율은 2022년에 높음</p>
<p>충청북도 2022년</p>	<p>(현재 기준년도)</p> <p>2022년 충청북도 P지수 = 100(2022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 남녀 = 16 ▪ 20~44세 남자 = 18 ▪ 20~44세 여자 = 15 ▪ 45~64세 남녀 = 32 ▪ 65세 이상 남녀 = 19 <p>※ P지수: 2022년 각 광역시·도의 전체인구를 100명으로 산정하여 나온 지수</p>
<p>충청북도 2050년</p>	<p>(미래 장래 인구 시나리오)</p> <p>2050년 충청북도 P지수 = 98(2022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 남녀 = 11 ▪ 20~44세 남자 = 11 ▪ 20~44세 여자 = 8 ▪ 45~64세 남녀 = 26 ▪ 65세 이상 남녀 = 42 <p>⇒ 2022년과 비교: 전체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65세 미만의 연령층 인구비율은 감소하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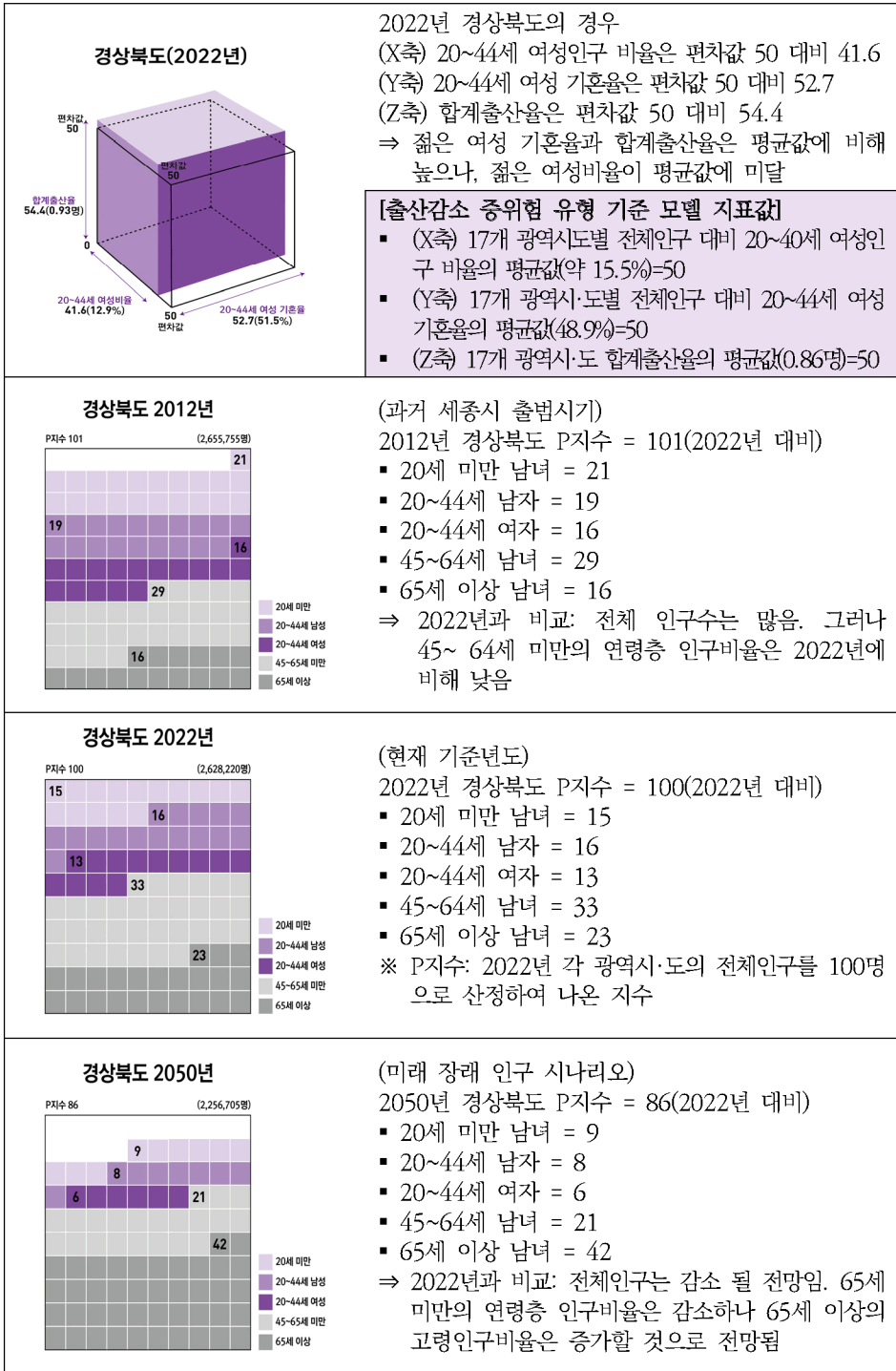
[표 2-10] 출산감소 중위험(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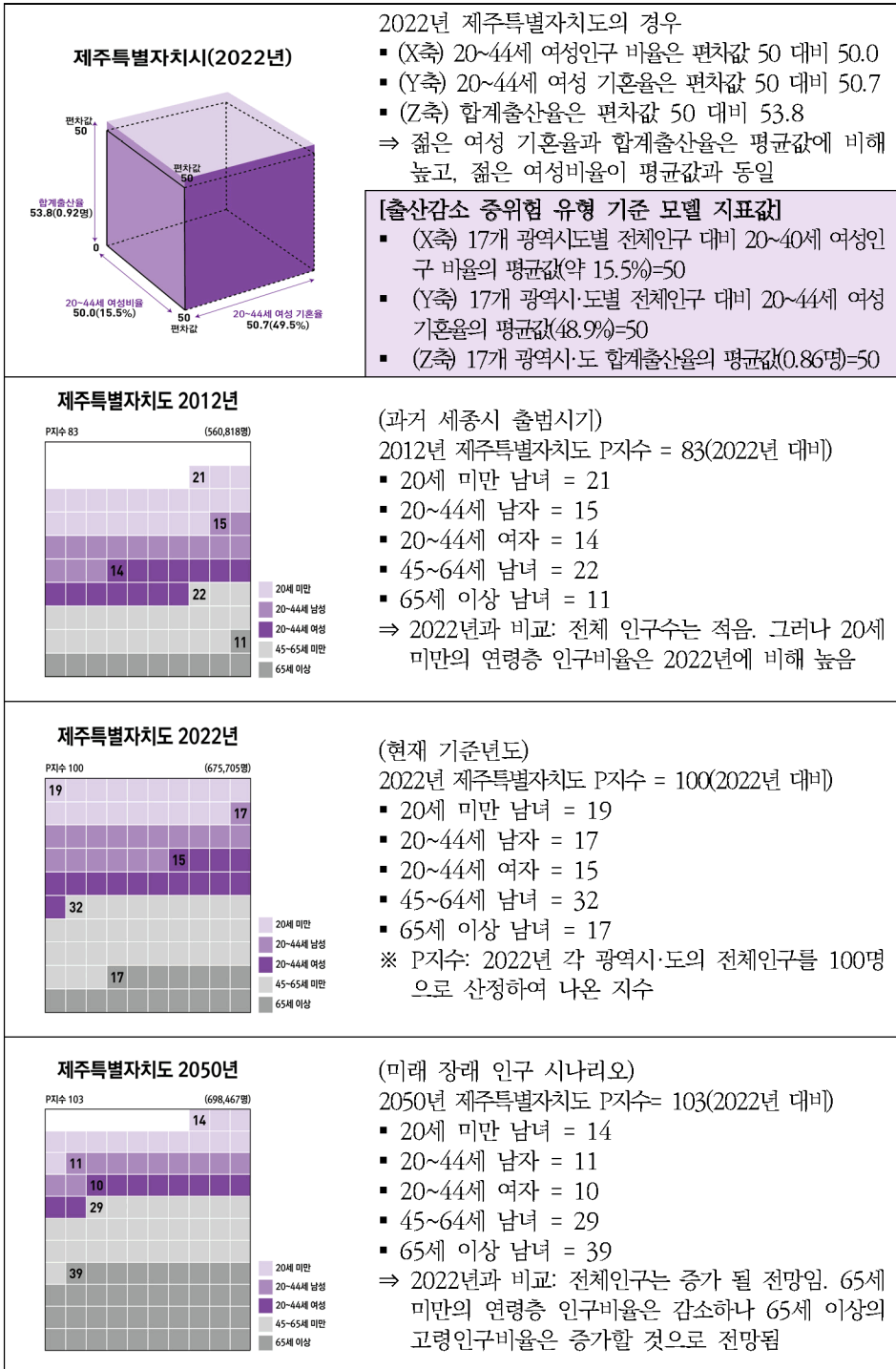
[표 2-11] 출산감소 중위험(전라남도)

<p>전라남도(2022년)</p> <p>2022년 전라남도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X축) 20~44세 여성인구 비율은 편차값 50 대비 38.5 (Y축) 20~44세 여성 기혼율은 편차값 50 대비 54.2 (Z축) 합계출산율은 편차값 50 대비 56.7 <p>⇒ 젊은 여성 기혼율과 합계출산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젊은 여성비율이 평균값에 미달</p> <p>[출산감소 중위험 유형 기준 모델 지표값]</p> <ul style="list-style-type: none"> (X축) 17개 광역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20~40세 여성인구 비율의 평균값(약 15.5%)=50 (Y축) 17개 광역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20~44세 여성 기혼율의 평균값(48.9%)=50 (Z축) 17개 광역시·도 합계출산율의 평균값(0.86명)=50 	
<p>전라남도 2012년</p> <p>P지수 101 (1,782,361명)</p> <p>(과거 세종시 출범시기) 2012년 전라남도 P지수 = 101(2022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 미만 남녀 = 22 20~44세 남자 = 16 20~44세 여자 = 14 45~64세 남녀 = 29 65세 이상 남녀 = 20 <p>⇒ 2022년과 비교: 전체 인구수는 많음. 그러나 45세 이상의 연령층 인구비율은 2022년에 비해 낮음</p>	
<p>전라남도 2022년</p> <p>P지수 100 (1,768,620명)</p> <p>(현재 기준년도) 2022년 전라남도 P지수 = 100(2022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 미만 남녀 = 16 20~44세 남자 = 15 20~44세 여자 = 12 45~64세 남녀 = 33 65세 이상 남녀 = 24 <p>※ P지수: 2022년 각 광역시·도의 전체인구를 100명으로 산정하여 나온 지수</p>	
<p>전라남도 2050년</p> <p>P지수 86 (1,522,919명)</p> <p>(미래 장래 인구 시나리오) 2050년 전라남도 P지수 = 86(2022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 미만 남녀 = 8 20~44세 남자 = 7 20~44세 여자 = 6 45~64세 남녀 = 22 65세 이상 남녀 = 43 <p>⇒ 2022년과 비교: 전체인구는 감소될 전망이다. 65세 미만의 연령층 인구비율은 감소하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p>	

[표 2-12] 출산감소 중위험(경상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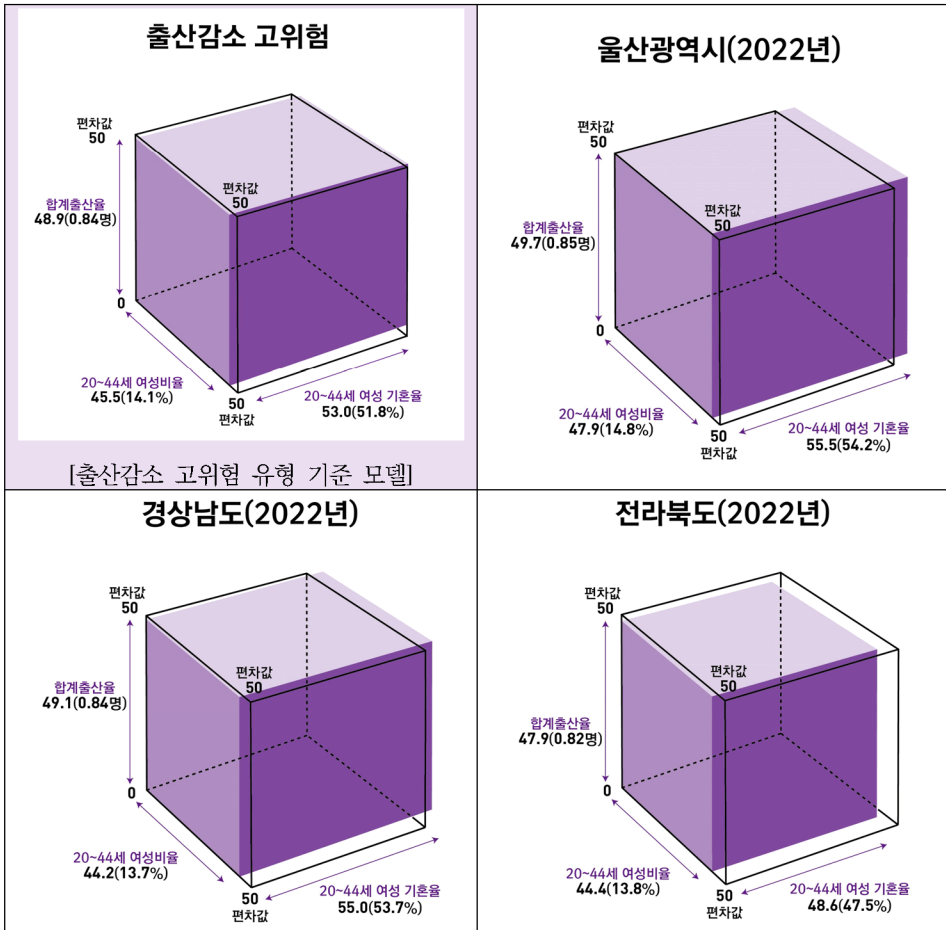


[표 2-13] 출산감소 중위험(제주특별자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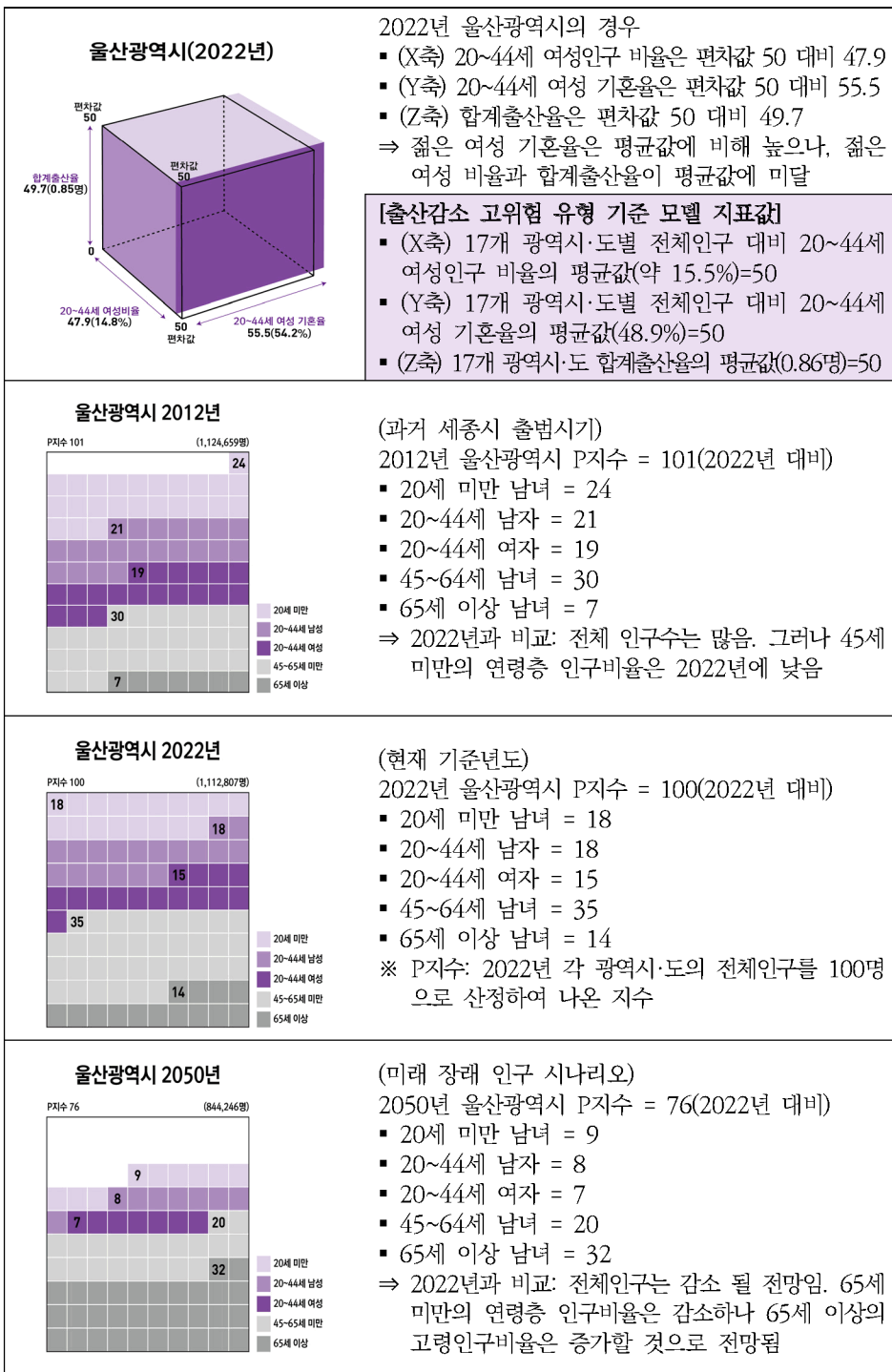
2) 유형 ② 출산감소 고(高)위험군

[표 2-14]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 지자체(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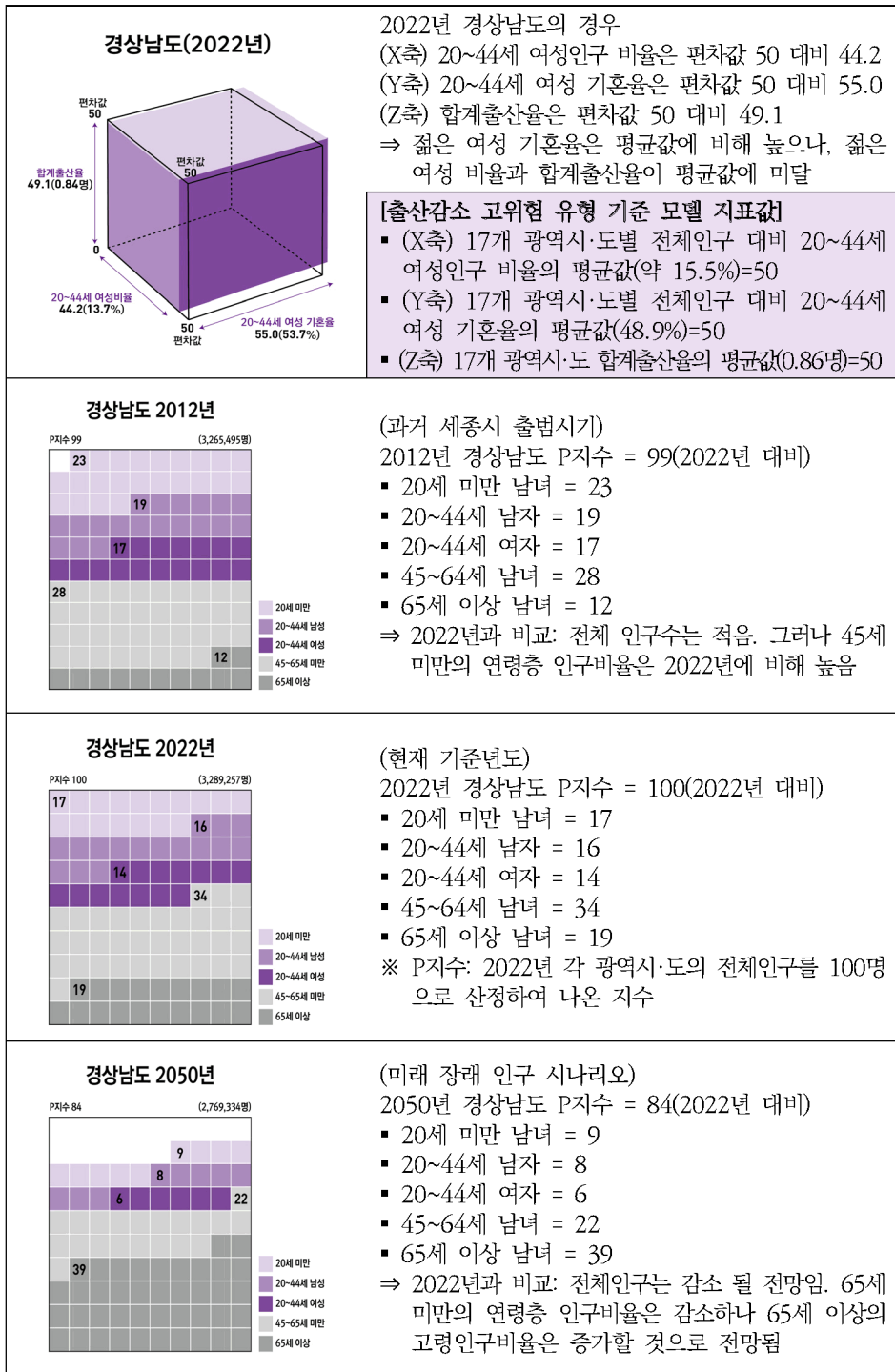


- 출산감소 고위험군에 속한 3개 지역의 인구 전망을 P지수를 활용하여 살펴봄
 - 젊은 여성 기혼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젊은 여성 비율과 합계출산율이 평균값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울산, 경남, 전북이 해당함
- 출산감소 고위험군 지역도 각각의 지역별 P지수(2022년 기준)를 활용하여, 인구변화를 전망함
- 각각의 결과는 [표 2-15]~[표 2-17]에 정리하여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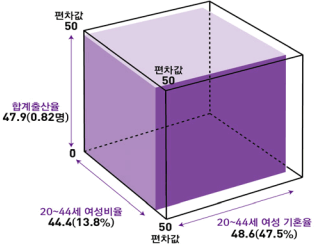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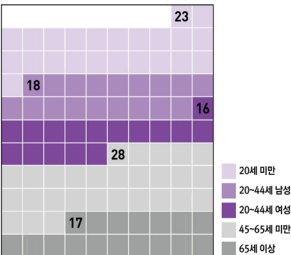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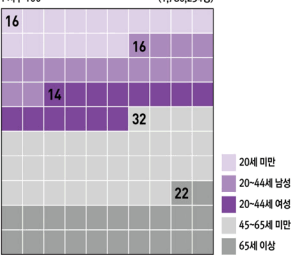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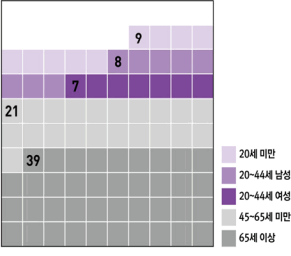
[표 2-15] 출산감소 고위험(울산광역시)



[표 2-16] 출산감소 고위험(경상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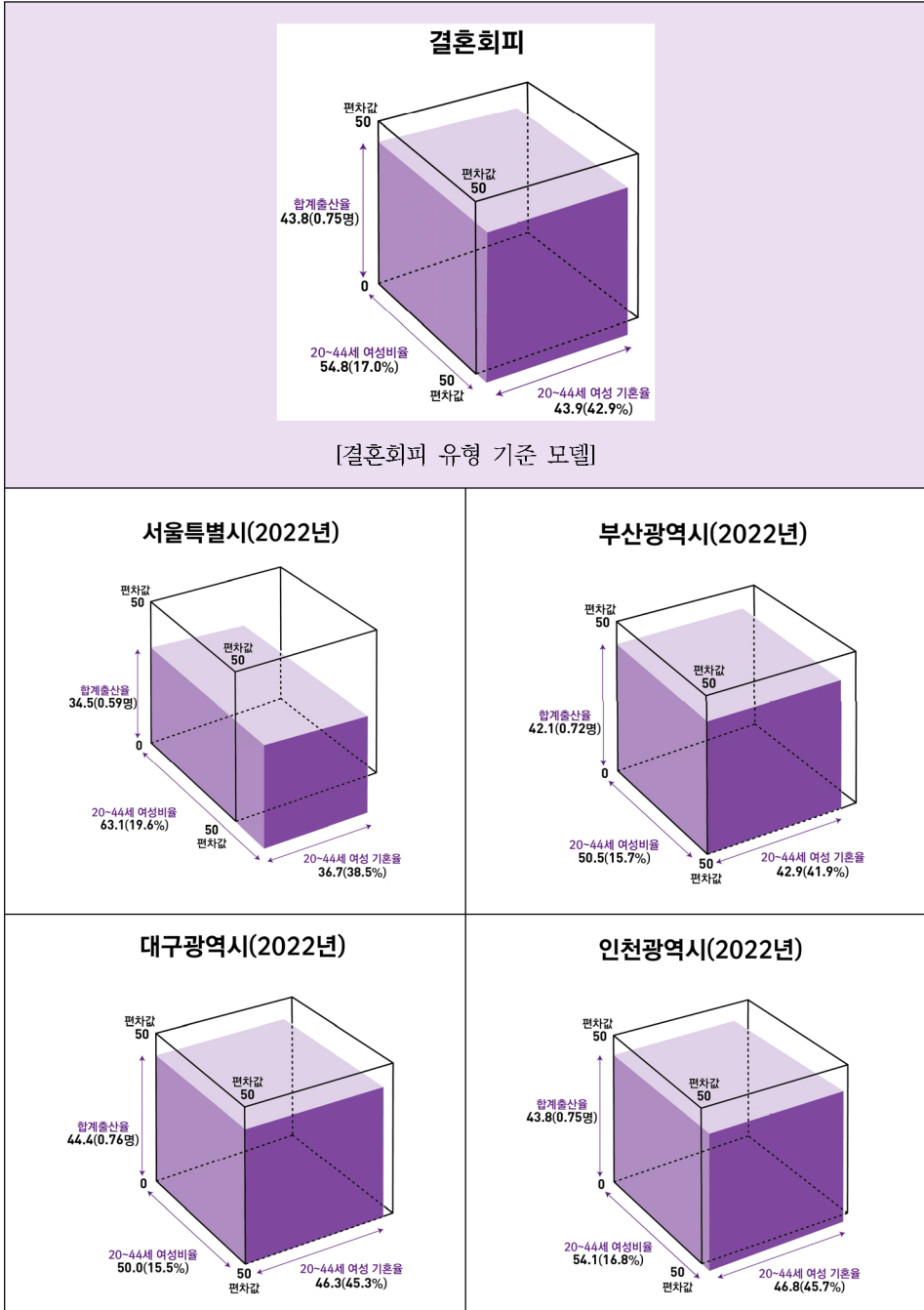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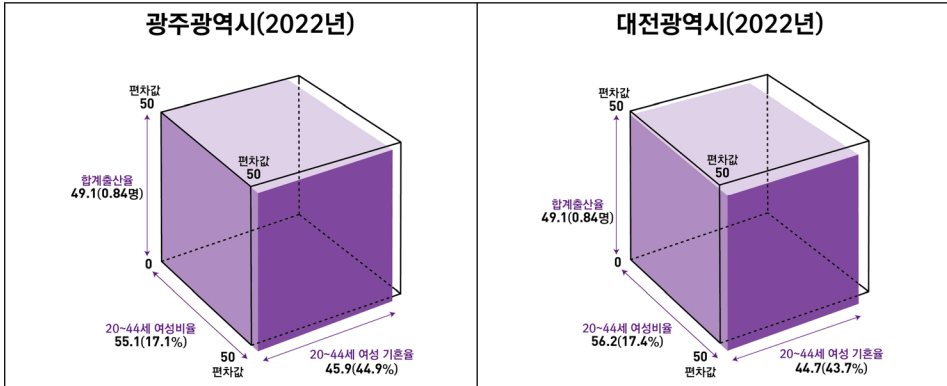
[표 2-17] 출산감소 고위험(전라북도)

<p>전라북도(2022년)</p>  <p>편차값 50</p> <p>합계출산율 47.9(0.82명)</p> <p>20~44세 여성 비율 44.4(13.8%)</p> <p>20~44세 여성 기혼율 48.6(47.5%)</p>	<p>2022년 전라북도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축) 20~44세 여성인구 비율은 편차값 50 대비 44.4 ▪ (Y축) 20~44세 여성 기혼율은 편차값 50 대비 48.6 ▪ (Z축) 합계출산율은 편차값 50 대비 47.9 <p>⇒ 젊은 여성 비율, 젊은 여성 기혼율, 합계출산율 모두 평균값에 미달</p> <p>[출산감소 고위험 유형 기준 모델 지표값]</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축) 17개 광역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20~44세 여성인구 비율의 평균값(약 15.5%)=50 ▪ (Y축) 17개 광역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20~44세 여성 기혼율의 평균값(48.9%)=50 ▪ (Z축) 17개 광역시·도 합계출산율의 평균값(0.86명)=50
<p>전라북도 2012년</p> <p>P지수 102 (1,817,430명)</p>  <p>20세 미만</p> <p>20~44세 남성</p> <p>20~44세 여성</p> <p>45~65세 미만</p> <p>65세 이상</p>	<p>(과거 세종시 출범시기)</p> <p>2012년 전라북도 P지수 = 102(2022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 남녀 = 23 ▪ 20~44세 남자 = 18 ▪ 20~44세 여자 = 16 ▪ 45~64세 남녀 = 28 ▪ 65세 이상 남녀 = 17 <p>⇒ 2022년과 비교: 전체 인구수는 많음. 그러나 45세 이상의 연령층 인구비율은 2022년에 비해 낮음</p>
<p>전라북도 2022년</p> <p>P지수 100 (1,780,234명)</p>  <p>20세 미만</p> <p>20~44세 남성</p> <p>20~44세 여성</p> <p>45~65세 미만</p> <p>65세 이상</p>	<p>(현재 기준년도)</p> <p>2022년 전라북도 P지수 = 100(2022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 남녀 = 16 ▪ 20~44세 남자 = 16 ▪ 20~44세 여자 = 14 ▪ 45~64세 남녀 = 32 ▪ 65세 이상 남녀 = 22 <p>※ P지수: 2022년 각 광역시·도의 전체인구를 100명으로 산정하여 나온 지수</p>
<p>전라북도 2050년</p> <p>P지수 84 (1,493,464명)</p>  <p>20세 미만</p> <p>20~44세 남성</p> <p>20~44세 여성</p> <p>45~65세 미만</p> <p>65세 이상</p>	<p>(미래 장래 인구 시나리오)</p> <p>2050년 전라북도 P지수 = 84(2022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 남녀 = 9 ▪ 20~44세 남자 = 8 ▪ 20~44세 여자 = 7 ▪ 45~64세 남녀 = 21 ▪ 65세 이상 남녀 = 39 <p>⇒ 2022년과 비교: 전체인구는 감소 될 전망이다. 65세 미만의 연령층 인구비율은 감소하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p>

3) 유형 ③ 결혼회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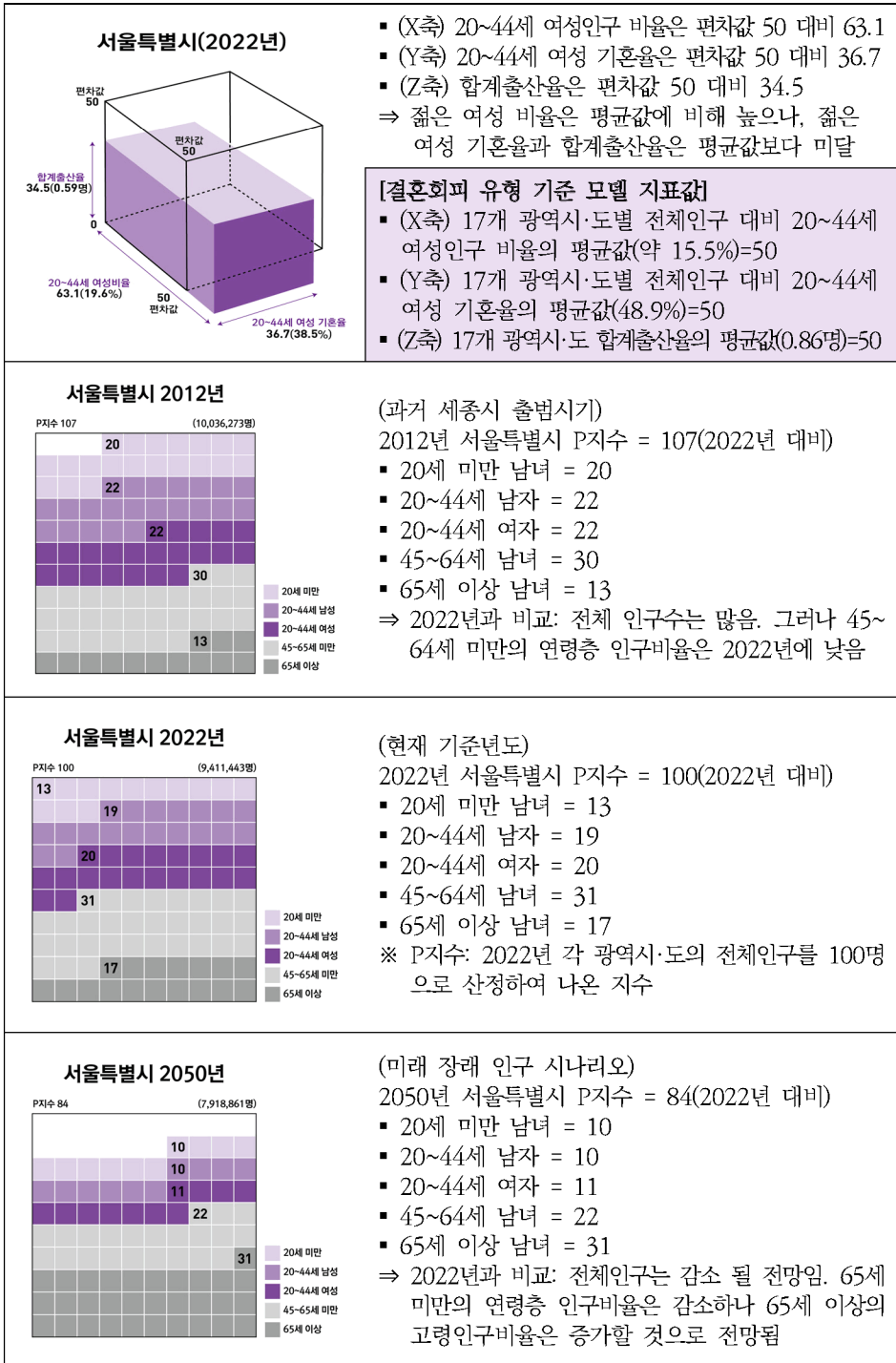
[표 2-18] 결혼회피 유형 지자체(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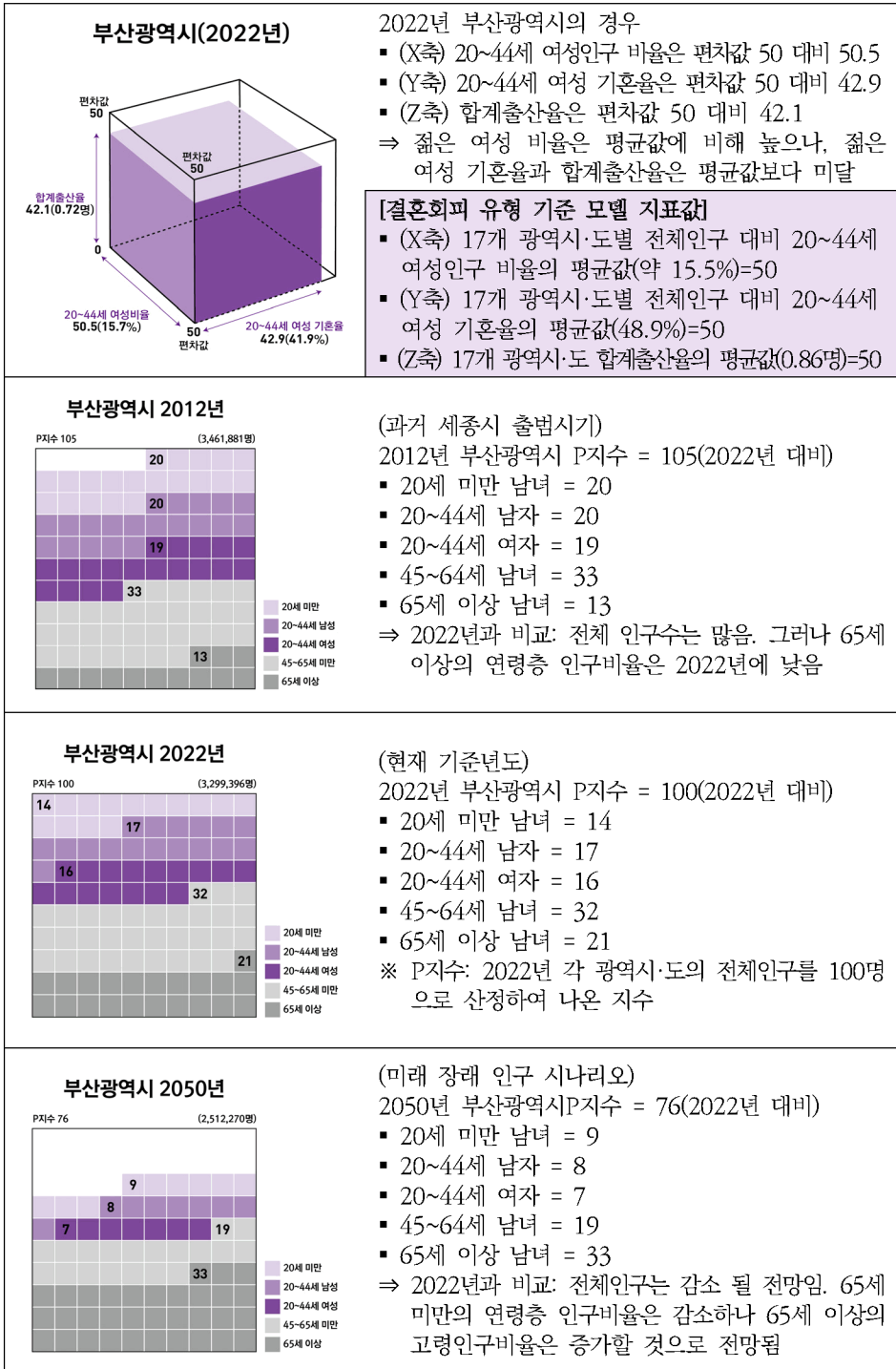


- 결혼회피군에는 대도시로 구분되는 6개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가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음
 - 젊은 여성 비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젊은 여성 기혼율과 합계출산율은 평균값보다 미달되는 지역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이 유형에 속함
- 결혼회피유형인 6개 대도시의 P지수(2022년)를 기준으로 인구변화를 시각화하여, 살펴봄
- 각각의 결과는 [표 2-19]~[표 2-24]에 정리하여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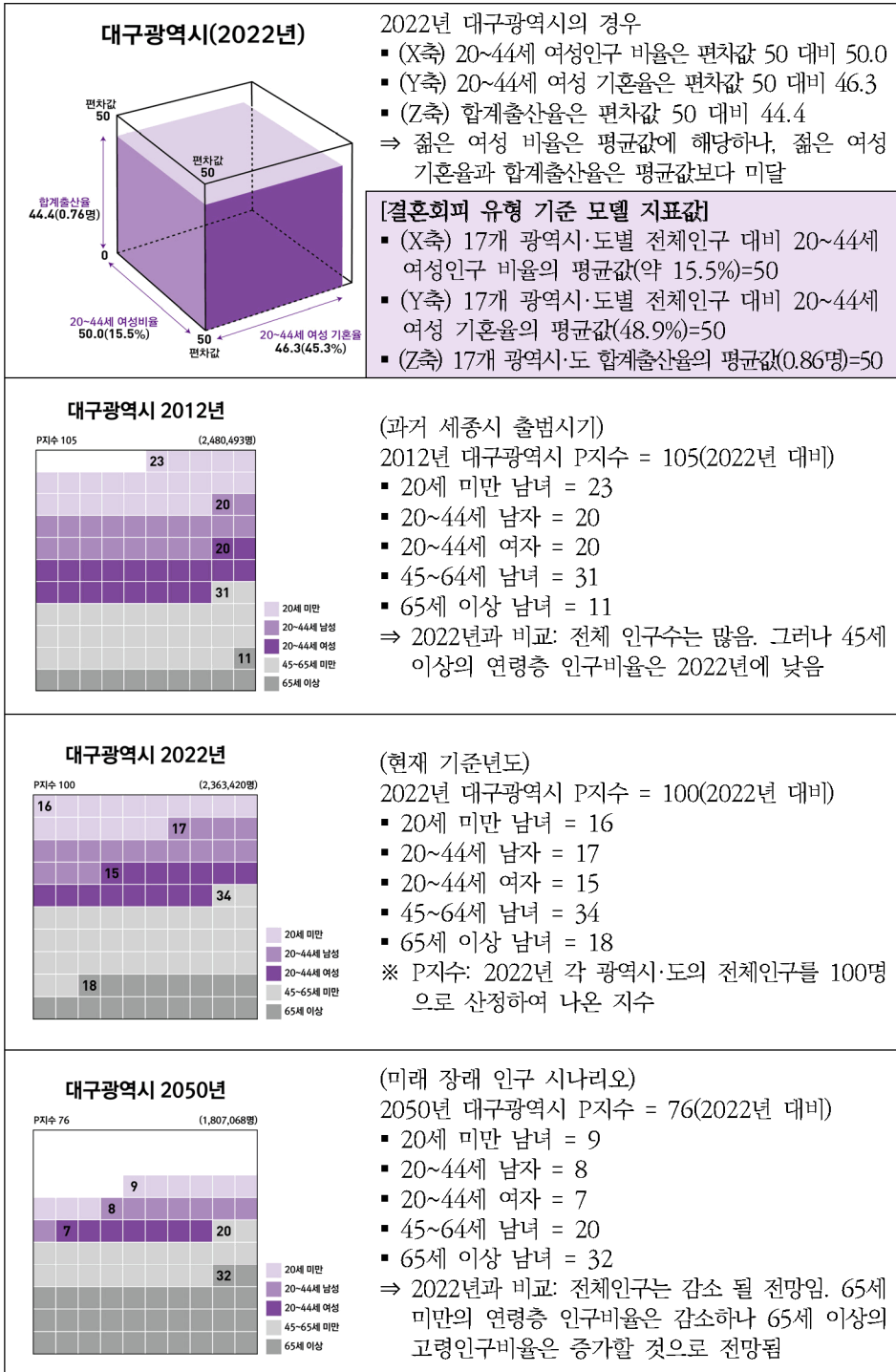
[표 2-19] 결혼회피(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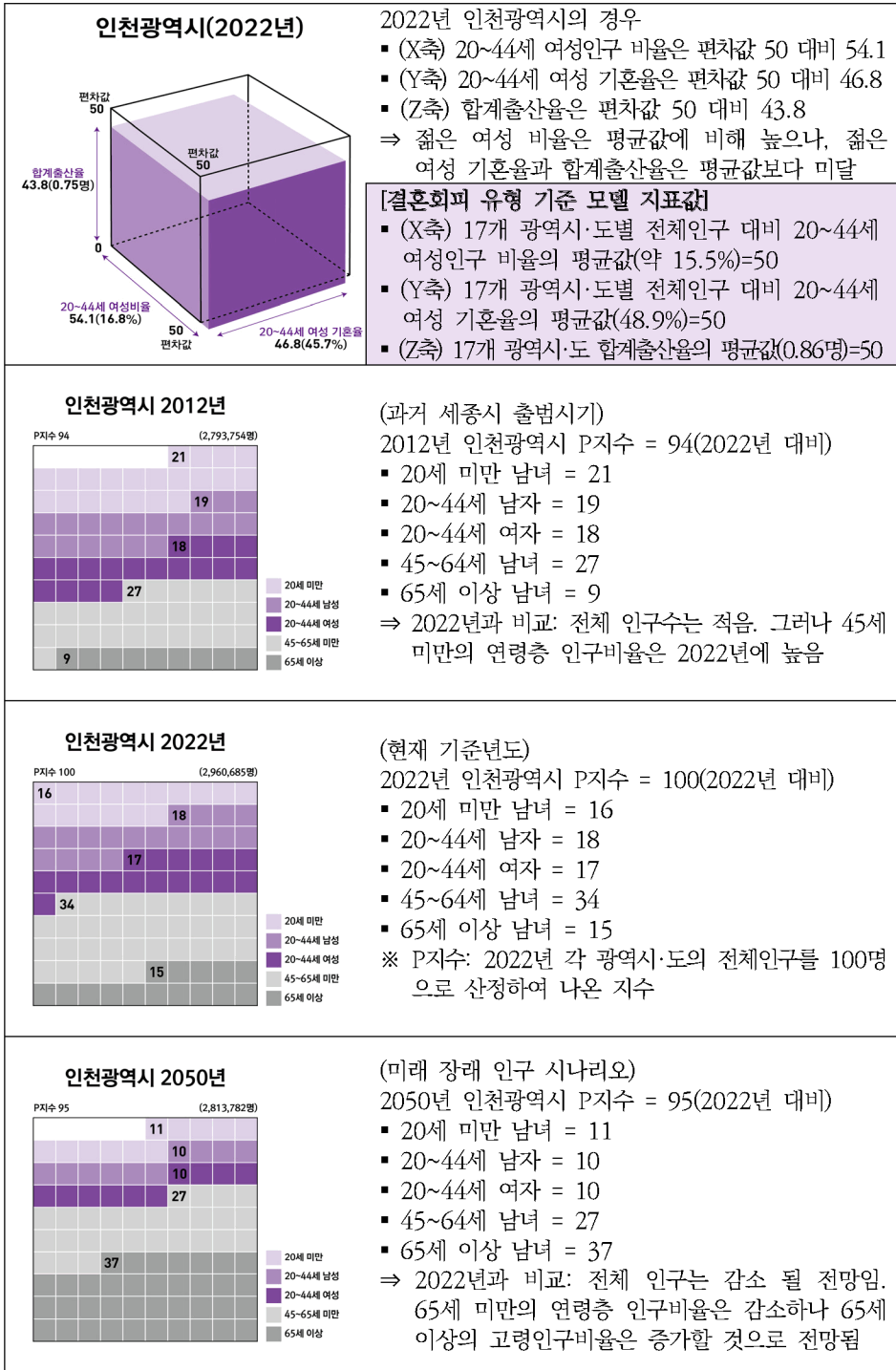
[표 2-20] 결혼회피(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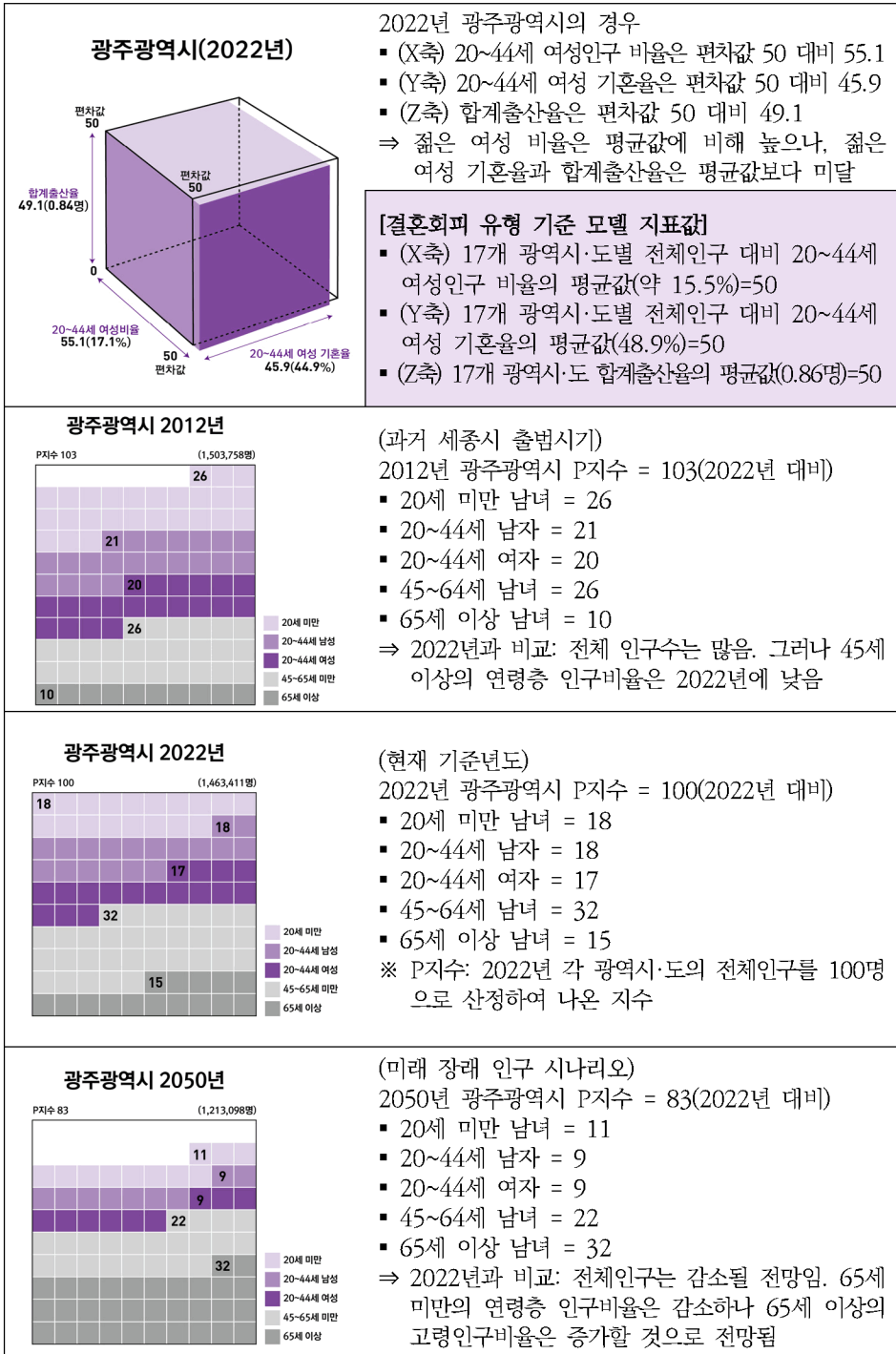
[표 2-21] 결혼회피(대구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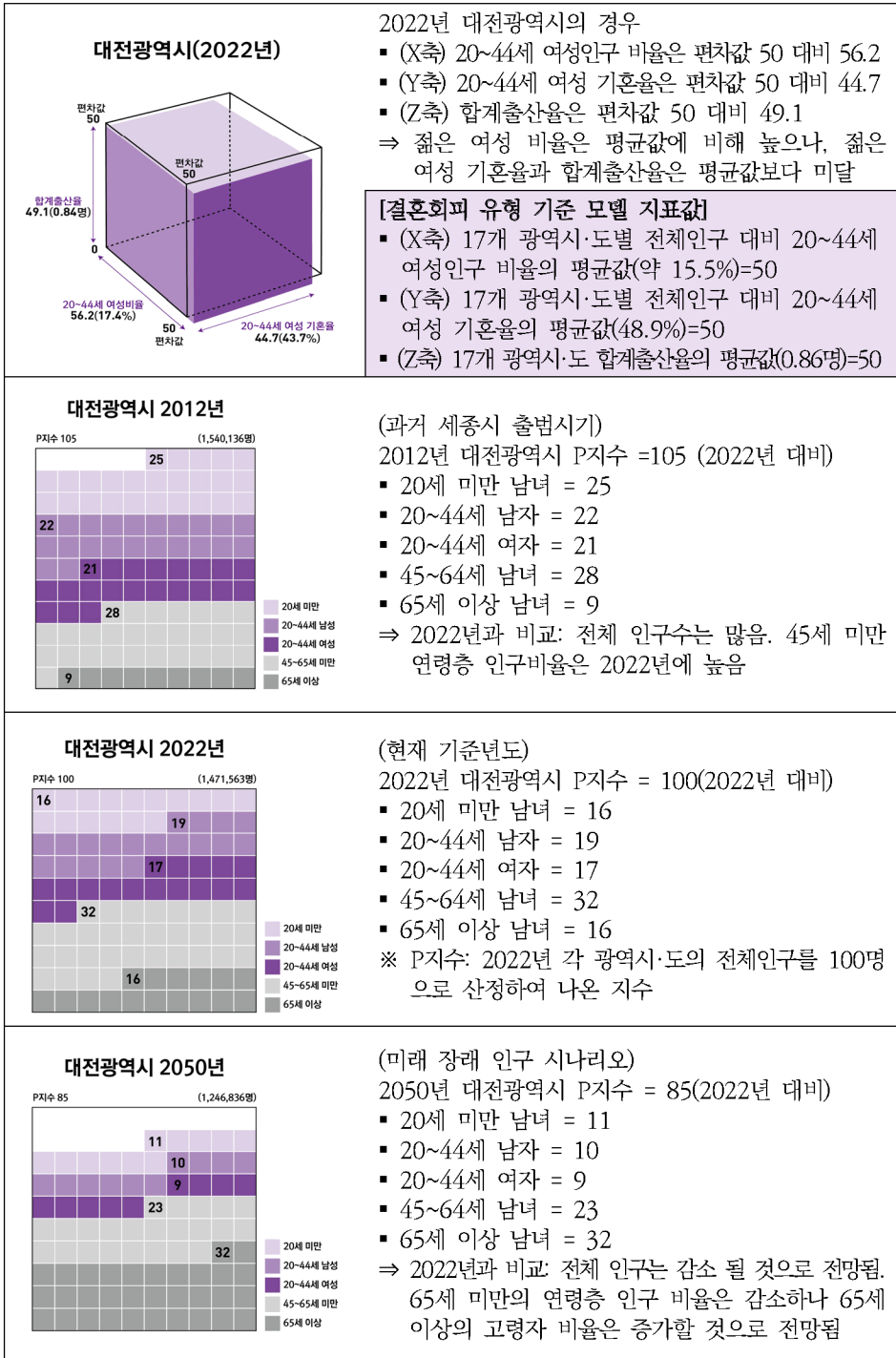
[표 2-22] 결혼회피(인천광역시)



[표 2-23] 결혼회피(광주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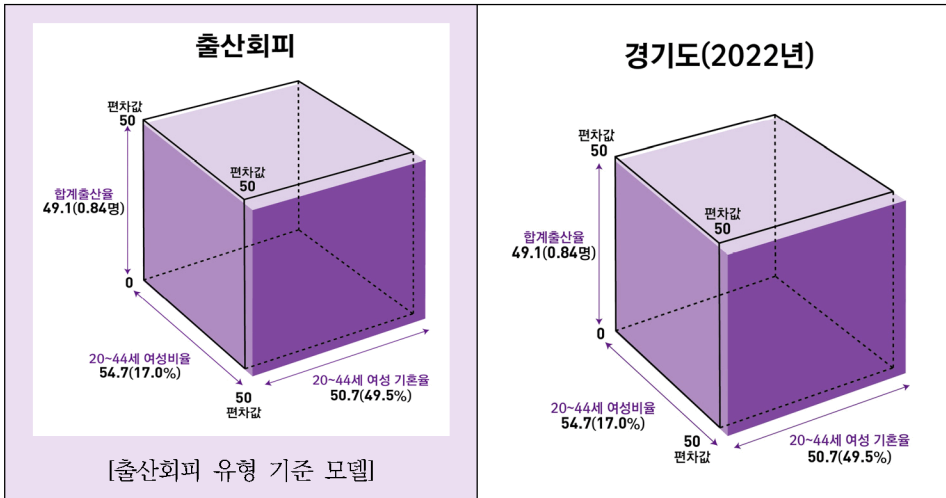


[표 2-24] 결혼회피(대전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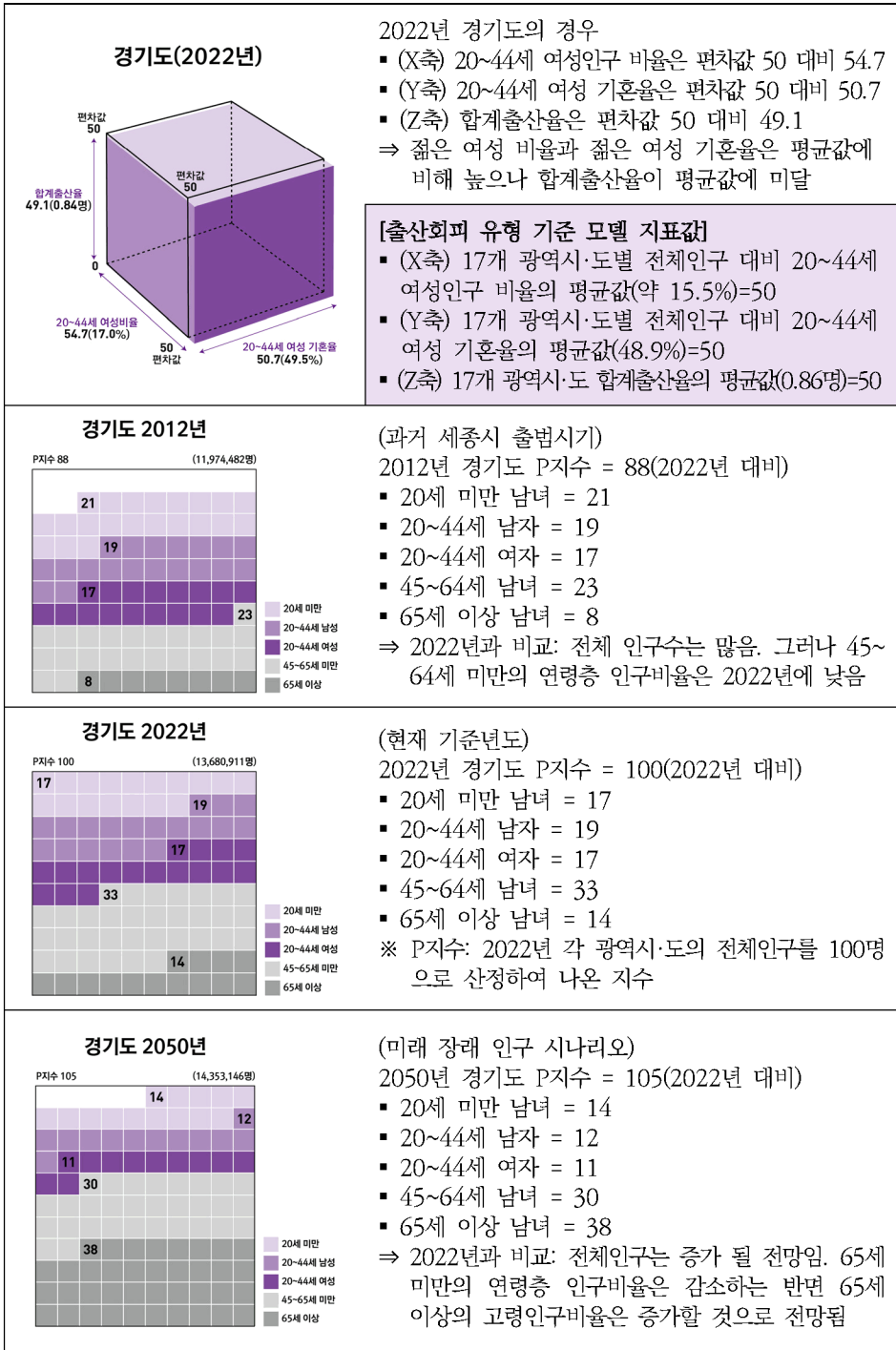
4) 유형 ④ 출산회피 유형

[표 2-25] 출산회피 유형 지자체(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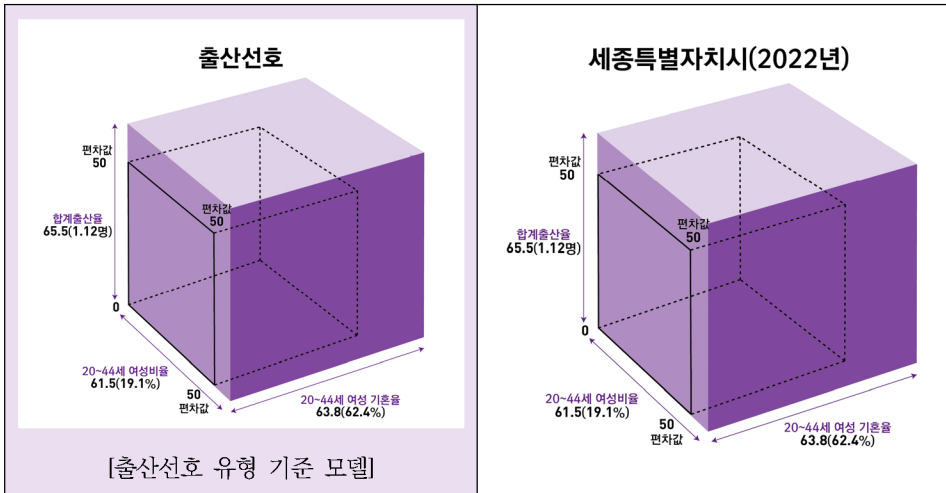
- 출산회피군에 속한 1개 지역인 경기도의 인구 전망을 P지수를 활용하여 살펴봄
 - 출산회피 유형인 경기도는 젊은 여성 비율과 젊은 여성 기혼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합계출산율이 평균값에 못 미치는 지역임
- 출산회피 지역인 경기도의 P지수(2022년)를 기준으로 시각화하여, 과거-현재-미래의 인구변화를 전망함
- 각각의 결과는 [표 2-26]에 정리하여 제시함

[표 2-26] 출산회피(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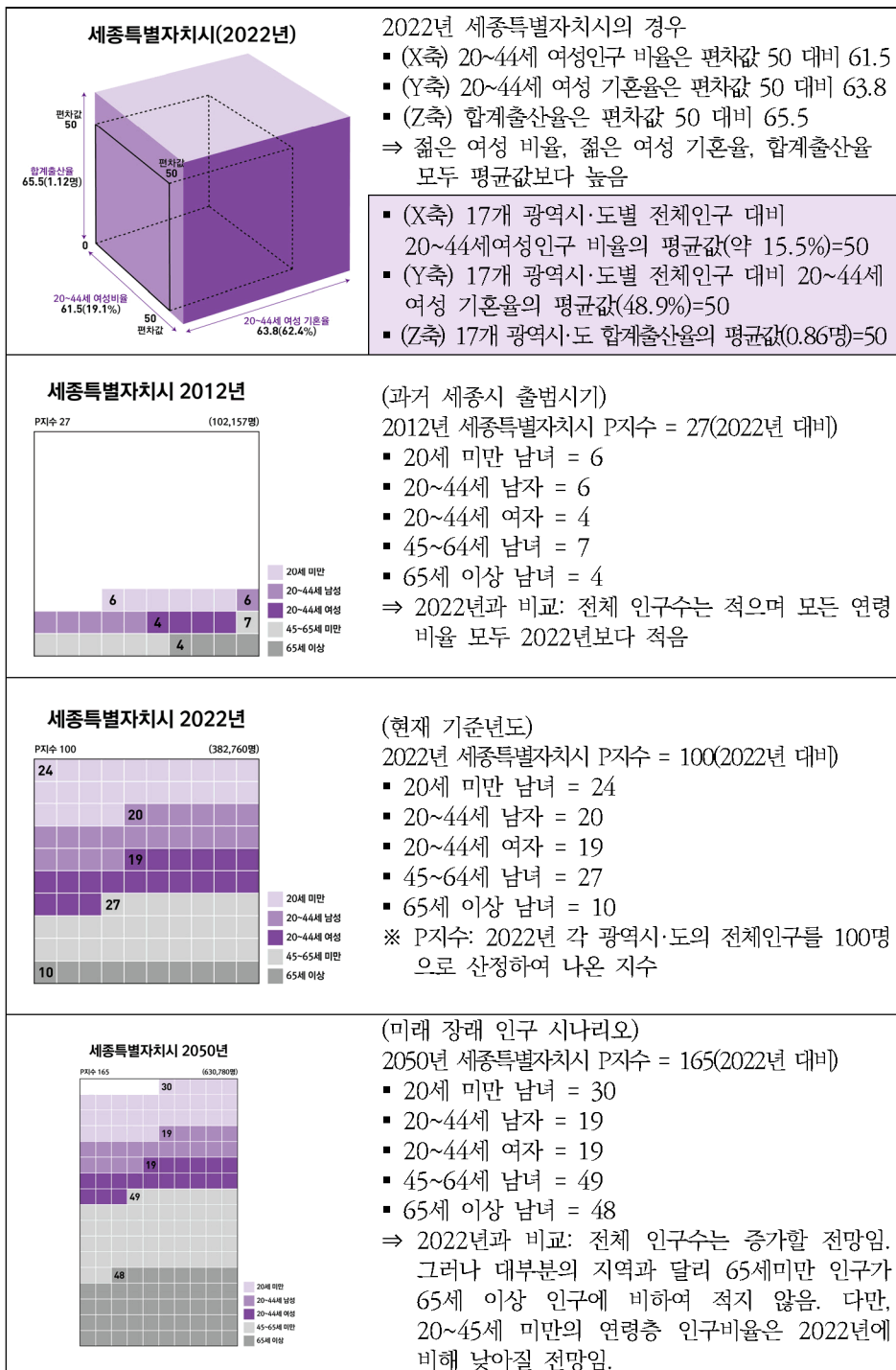
5) 유형 ⑤ 출산선호 유형

[표 2-27] 출산선호 유형 지자체(1개)



- 2022년 기준 유일한 출산선호지역인 세종시의 인구 전망을 P지수를 활용하여 살펴봄
 - 젊은 여성 비율, 젊은 여성 기혼율, 합계출산율 모두 17개 시·도의 평균값보다 높은 지역으로, 상대적 의미에서 출산감소에 있어 위험도가 낮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출산선호 유형인 세종시의 P지수(2022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표 2-28] 참조)

[표 2-28] 출산선호(세종특별자치시)



3절 P지수로 본 지역 인구 전망과 시사점

1. 유형별 특징에 따른 정책 방향 제안

□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 지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출산감소 심화 요인)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연령대인 20~44세 여성 비율이 낮다는 점이 출산 감소의 위험을 높여 온 것으로 여겨짐
 - 이 유형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출산감소 고위험군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젊은 세대, 특히 청년 여성의 지속적인 유입과 정주환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지역임
- (출산감소 중위험 지역의 변화) 2017년에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이었던 강원지역이 2022년에는 중위험 지역으로 변하였음. 제주의 경우, 2017년에는 20~44세 여성 비율과 20~44세 여성 기혼율이 모두 낮았던 중위험 지역에서 여성 비율만 낮은 중위험 지역으로 이전됨
 - 이러한 변화는 X, Y, Z 지표값의 감소에 기인한 평균값의 변화로 상대적인 수준에서의 변동으로 추정됨

□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 지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출산감소 심화 요인) 합계출산율과 20~44세 젊은 여성 비율이 모두 낮은 지역인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은, 여성의 높은 기혼율에도 불구하고 출산감소가 일어나는 지역(울산, 경남)과 여성의 기혼율도 모두 낮은 지역(전북)에 해당됨
 - 울산과 경남의 경우, 유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출산장려정책과 다둥이 가정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전북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 추진과 동시에 인구 구조 변화에 적응할 인구정책 시나리오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출산감소 고위험 지역의 변화) 2017년 기준, 출산감소 고위험 지역은 강원, 부산, 전북이었으나, 2022년 기준 울산, 경남, 전북으로 분석됨. 전북의 경우만 지속적으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 출산회피 유형 지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출산감소 심화 요인) 이 유형은 젊은 여성과 여성의 기혼율이 높지만 합계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로서 젊은 여성의 유입이 많아 합계출산율 수치가 낮을 가능성이 큰 지역임
 - 실제 경기도는 젊은 청년들의 인구 유입이 서울과 더불어 가장 활발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유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젊은 청년들의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안정 등의 전략을 함께 펼칠 필요가 있겠음
- (출산회피 지역의 변화) 2012~2022년 경기도만 유일하게 출산회피 유형에 속함

□ 결혼회피 유형 지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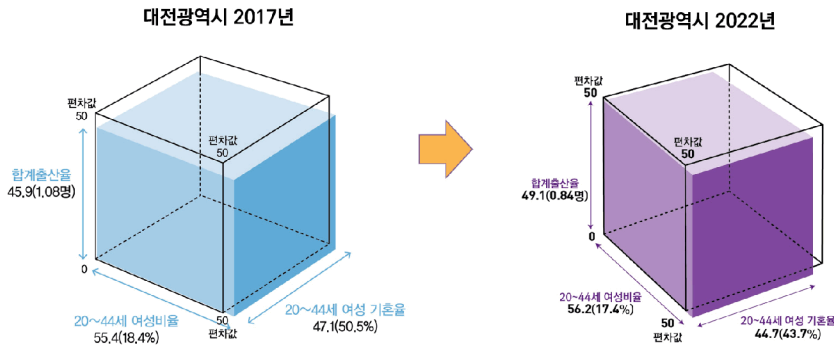
- (출산감소 심화 요인) 소위 대도시로 분류되는 6개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가 2022년 기준 결혼회피 유형에 포진됨. 젊은 청년의 비혼 또는 미혼율이 높아 기혼율이 낮고, 합계출산율도 낮은 지역임
 - 이 유형에 포함되는 지역의 경우,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그 지역에 정주하는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대학 등 학교 교육 이후에도 정주를 선택하였으나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보류/지연하는 경우라면,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반면, 대학 등 학교 교육 이후에 수도권 등의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젊은 세대가 많을 경우 지역의 출산감소 위기 대응 방안은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결혼회피 지역의 변화) 2017년 대비 2022년의 두드러진 변화는 부산이 출산감소 고위험 지역에서 결혼회피 지역으로 이전하였다는 점임. 결혼회피와 고위험 지역 간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함
 - 대구의 경우도, 2017년에는 결혼회피 유형이었다가, 2020년 출산감소 고위험 지역으로 이전 후 2022년 다시 결혼회피 유형으로 복귀함
 - 이러한 변화도 2022년의 X, Y, Z 지표값의 감소에 기인한 상대적인

수준에서의 변동으로 추정되나, 젊은 여성 유출이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할 경우, 20~44세 여성비율이 감소함으로써 결혼회피 유형 지역은 출산감소 고위험 지역으로 언제든지 변동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함

- 따라서 대도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청년 여성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경우, 인구유출 속도와 그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함(예: 일자리, 주거안정 등 청년 정주여건 조성)

○ (사례: 대전광역시의 변화) 2017년과 동일하게 결혼회피 유형으로 분류된 대전광역시의 경우, X, Y, Z 지표값이 모두 감소하였음

-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출산감소 고위험 지역으로의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청년 여성의 유입과 유출의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해 나감과 동시에 청년에게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강화와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인구전략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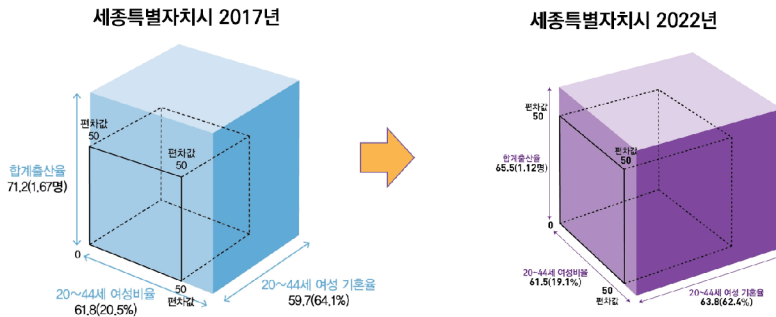
2022년	20~44세 여성 비율(X축)	20~44세 여성 기혼율(Y축)	합계출산율(Z축)
대전광역시 2022년	17.4	43.7	0.84
대전광역시 2017년	18.4	50.5	1.08
2017년 대비 2022년 증감률	-5.3	-13.5	-22.2

[그림 2-2] 결혼회피 유형 대전광역시의 지표별 증감률

2. 세종시 유형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제안

□ 유일한 출산선호 지역, 세종시의 정책 방향 제안

- (세종 출산감소 유형 변화 특징) 2012년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 ⇒ 2015년 ‘출산선호’ 유형으로 변경됨 ⇒ 2022년까지 전국에서 유일한 ‘출산선호’ 유형 유지 중임
- 그러나 2022년의 X, Y, Z 지표값의 감소에 따라 3가지 지표의 평균 값이 2017년 대비 낮아졌기 때문에, 세종시의 모든 지표가 평균 이상이라도 하더라도 출산감소 위험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음
-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출생아수의 감소와 더불어 여성의 주민등록연앙 인구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됨. 이를 고려할 때, 15~49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출산의 지연/보류/거부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함(최성은 외, 2023)



2022년	20~44세 여성 비율(X축)	20~44세 여성 기혼율(Y축)	합계출산율(Z축)
세종특별자치시 2022년 지표값(B)	19.1	62.4	1.12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지표값(A)	20.5	64.1	1.67
2017년 대비 2022년 증감률((B-A)/A*100)	-7.0	-2.7	-32.9

[그림 2-3] 출산선호 유형 세종특별자치시의 지표별 증감률

- P지수 시나리오 분석 결과, 세종시 전체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20~44세 남녀 인구비율은 2022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65세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대비 2050년 4.8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다만, 세종시의 미래 인구 증가는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이동에 근거하여 일어날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세종시 출산감소의 속도와 그 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인구의 자연증가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P지수 분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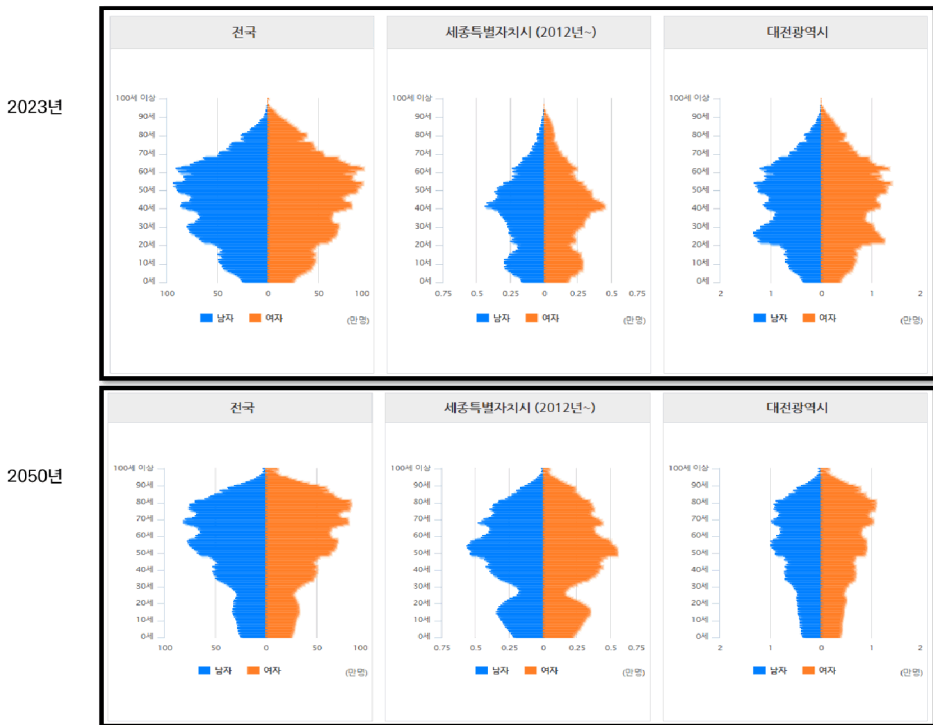
□ P지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인구변화 시나리오

- 본 연구에서는 2022년 각 시·도의 인구를 기준으로 P지수를 산출하여, 2012년을 ‘과거’로, 2022년을 ‘현재’로, 2050년을 ‘미래’로 두어, 인구변화 시나리오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2050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함. 세종시의 경우, 전체적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65세 미만 인구 비율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것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20~44세 구간 남녀 인구가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2022년 대비 감소하고 있어 출산감소 위험이 높아질 전망

□ 인구 추계 피라미드로 본 인구 전망과의 차이

- 이러한 결과는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예시로 세종과 대전의 사례를 살펴봄
 - 세종시의 경우, 20대 청년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중장년층과 고령자 층은 남녀 모두 증가함
 - 대전시의 경우 학령기 아동·청소년들의 인구와 청년의 인구 규모가 대폭 감소될 전망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각 지역의 성, 연령별 인구 구성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산출한 P지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한 성·연령별 남녀 인구 비율의 변화를 다룬다는 점에서 통계청 인구 피라미드와 유사한 데이터를 활용함

- 인구 피라미드의 장점: “연령 및 성별 분포의 시각화 정보 제공”
 - 횡단적 측면에서 해당 지역의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분포를 확인 또는 다른 지역과의 유형의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장점을 가짐
 - 종단적 측면에서 인구추계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가 성별, 연령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해 줌
- 인구 피라미드 결과 해석의 한계: “미세한 변화나 추세 관찰 어려움”
 - 인구 피라미드가 보여주는 정보는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예: 교육수준, 소득, 인종, 건강 등)을 반영하기는 어려움
 - 인구구조를 단순화된 형태로 제시하므로 복잡한 인구 동향이나 변화의 특징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움



[그림 2-4] 인구추계피라미드로 본 전국, 세종, 대전의 인구 변화

자료: 통계청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2.jsp>), 시도 인구 추계 피라미드 각 년도 재구성

- P지수로 살펴본 인구 미래 전망의 장점: 인구 피라미드와 같이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인구 전망을 시각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동시에 타겟 연령층(예: 출산 및 혼인률이 높은 연령대)의 성별 변화에 한정하여 시각화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현재 시점을 100으로 계산하여, 수치 변화를 통해 과거와 미래의 각 연령대별 인구변화를 쉽게 확인 가능함
- P지수 결과 해석의 한계: 인구 피라미드 결과 해석의 한계와 동일함

[표 2-29] 인구 피라미드와 P지수의 비교

구분	인구 피라미드	P지수
장점	연령 및 성별 분포 시각화	연령 및 성별 분포 시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겟 연령층(예: 출산 및 혼인률이 높은 연령대)의 성별 변화를 중심으로 시각화 가능 • 현재 시점을 100으로 과거와 미래의 각 연령대별 인구 변화를 쉽게 확인 가능
	과거, 현재, 미래 인구 변화 예측	과거, 현재, 미래 인구 변화 예측
	국내외 지역 및 도시 비교	국내외 지역 및 도시 비교
	시민 교육에 활용 가능	시민 교육에 활용 가능
한계	다양한 인구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다양한 인구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단순화된 표현으로 미세한 변화의 특징 감지 어려움	단순화된 표현으로 미세한 변화의 특징 감지 어려움
	미래 예측의 한계 (예: 사망률, 이민자, 출산율 변동 등 변수를 고려하기 어려움)	미래 예측의 한계 (예: 사망률, 이민자, 출산율 변동 등 변수를 고려하기 어려움)

4. 2022년 출산감소 유형 변화 시나리오(2017년 기준 적용 시)

- (시나리오 분석) 만약, 2017년 기준으로 2022년 17개 지역의 출산감소 유형을 재분류한다면 세종시는 어느 유형에 포함될 것인가?
 - 본 연구에서는 2017년의 X, Y, Z축의 각 지표별 평균값을 2022년에 적용할 때 지역 유형 구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음

구분	2017년	2022년 ¹⁾
출산감소 중위험 (G1:저-저-고)	제주특별자치도	없음
출산감소 중위험 (G2:저-고-고)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없음
출산감소 고위험 (G3:저-고-저)	강원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출산감소 고위험 (G4:저-저-저)	전라북도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회피 (G5:고-고-저)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선호 (G6: 고-고-고)	세종특별자치시	없음
출산감소 저위험 (G7:고-저-고)	없음	없음
결혼회피 (G8:고-저-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그림 2-5] 2017년 각 지표별 평균값을 활용한 출산감소 유형분석 시나리오

주 1) 2022년 - y축 : 통계청(2021), <2020년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자료 활용
 - z축 :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2023.2.22.

- 분석 결과, 2017년 각 지표별 평균값을 적용하면, 2022년의 출산감소 유형은 큰 변동을 보임([그림 2-5]) 참조
-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에 속해 있던 지역들이 고위험 유형으로 이동하고, 고위험 군 내 비교적 양호했던 그룹은 X, Y, Z축 지표값이 모두 평균값 미만으로 떨어진 고위험군으로 출산감소 위험이 증가했음
- 결혼회피지역으로 구분되었던 부산과 대구는 고위험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함
- 무엇보다 세종시는 출산선호에서 출산회피 유형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2-30] 출산감소 유형 분류 및 P지수로 본 인구 시나리오 결과 요약

유형별	과거(2012년)		현재(2022년)		미래(2050년)	
	지역 구분	P지수 해석 (2022년 대비)	지역 구분	직육면체 해석	P지수 해석 (2022년 대비)	
출산 감소 중위험 (G1:저-저-고)	없음	전체 인구수 적음/ 모든 연령 인구비를 직음(세종) 20세 미만 인구비를 높음 (충북, 제주)	없음	젊은 여성 기혼율 및 합계출산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젊은 여성 비율이 평균값에 미달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전체 인구수 감소 전망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45세 미만 인구비를 높음 (충남, 경남) 전체 인구수 많음/ 45세 이상 인구비를 직음 (전남, 전북) 45~64세 미만 인구비를 직음(강북)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젊은 여성 기혼율은 평균값보다 높으나, 젊은 여성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평균에 미달 (울산, 경남) 젊은 여성 기혼율, 젊은 여성 기혼율, 합계출산율 모두 평균값에 미달 (전북)	전체 인구수 증가 전망 (충남, 제주)	
출산 감소 고위험 (G3:저-고-저)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인구수 적음, 45세 미만 인구비를 높음 (강원)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젊은 여성 기혼율, 젊은 여성 기혼율, 합계출산율 모두 평균값에 미달 (전북)	전체 인구수 감소 전망 (울산, 경남, 전북)	(공통점) 젊은 연령층 (20~44세)의 인구비율보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없음		전라북도			
출산회피 G5:고-고-저)	경기도	전체 인구수 많음, 45~64세 미만 인구비를 직음(경기)	경기도	젊은 여성 비율과 젊은 여성 기혼율, 기혼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고 합계출산율은 평균값에 미달 (경기)	전체 인구수 증가 전망 (경기)	
	출산선호 (G6:고-고-고)	전체 인구수 많음, 45세 미만 인구비를 직음(울산)	세종특별자치시	젊은 여성 기혼율, 젊은 여성 기혼율, 합계출산율 모두 평균값보다 높음(세종)	전체 인구수 증가 전망 (세종)	
결혼회피 (G8:고-저-저)	사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체 인구수 많음/ 45~64세 미만 인구비를 직음(서울), 65세 이상 인구비를 직음(부산), 45세 이상 인구비를 직음 (대구, 광주), 45세 미만 인구비를 높음(대전)	사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젊은 여성 비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젊은 여성 기혼율과 합계출산율은 평균값보다 미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체 인구수 감소 전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수 적음/ 45세 미만 인구비를 높음(인천)	대전광역시			

세종시 출범 후 10여 년간의 인구변화 진단

1절 분석 개요

2절 세종시 인구변화의 특징

3절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간 인구이동 현황

4절 세종시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변화 진단 결과

3장 세종시 출범 후 10여 년간의 인구변화 진단

1절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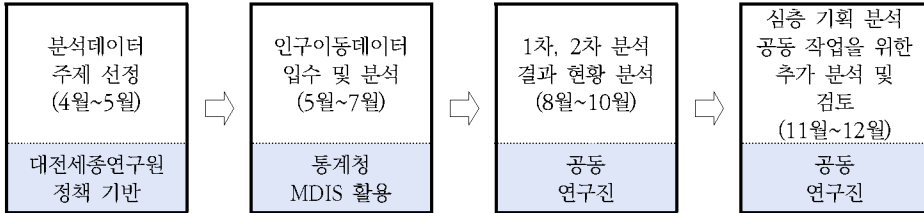
1. 충청지방통계청 데이터분석팀과의 협업 개요

□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의 인구이동 변화 분석을 위한 과정

- 분석 대상 데이터 주제 선정에 관한 합의(2023년 4월~5월)
 - 충청지방통계청 데이터분석팀과 연구진 간의 대전세종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발간한 <세종시 인구 이동 특성과 정책방향 연구>를 토대로 데이터 갱신 및 보완의 필요성 합의
 - 2023년 5월 2일 내·외부 연구진 업무분장 회의를 거쳐 공동 작업 완료 기한 정하고 연구 시작
- 충청지방통계청 데이터분석팀의 MDIS 데이터 분석(2023년 5월~7월)
 - 충청지방통계청 데이터분석팀(팀장: 김영호) 소속 김영아 주무관님 전담 업무로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간의 인구이동 데이터 분석 실시
- 분석 데이터 관련 현황 분석(2023년 8~9월)
 - 충청지방통계청 김영아 주무관의 1차 데이터를 토대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진의 분석 데이터 현황 보고서 작성
- 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 검토 후 수정 및 보완(2023년 10월~11월)
 - 연구진의 분석 데이터 관련 현황 분석 보고서에 대하여 충청지방통계청 데이터분석팀의 검토 후 수정·보완
 - 2차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 드러난 수치 오류 등 수정·보완
- 심층 기획 분석 공동 작업을 위한 추가 분석 및 검토(2023년 11월~12월)
 - 심층 기획 분석 대상으로 청년을 선정하여, 청년의 인구이동 변화를 진단하기 위한 심층 분석을 공동으로 진행함

- 수시 협의(전화, 이메일 등) 및 자료 재가공 작업, 분석 결과 상호 검토 작업을 거침

[표 3-1]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의 인구이동 변화 분석을 위한 과정



2. 자료정제 및 분석 과정

□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자료> 입수 및 분석

- [데이터 현황]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자료는 중앙주민전산망센터에서 취합된 전입신고서 전산처리 결과를 통계청으로 전송하여 집계한 자료임 (통계청, 2016). 전입신고서의 양식은 가구단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MDIS데이터 자료는 추가적인 가공 절차가 요구됨(최성은 외, 2018)

- 주민등록전입신고→동·읍·면→중앙주민전송망센터→행정안전부 행정정보 중계시스템→통계청

- [데이터 변환] 본 연구에서는 가구 단위 자료를 인구 단위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1,199,290명의 사례수를 획득하였음

- 1단계: '세종시로의 전입자'와 '세종시로부터의 전출자'를 추출하여, 출범 첫 해인 2012년부터 2022년까지, 784,030가구 데이터 확인

- 2단계: 대용량 자료 처리를 위한 통계패키지 SAS를 활용하여 국내 이동통계자료 11개 연도 반복 실시, 전입자 정보 11개 반복 실시 등의 과정을 거침(SAS 매크로(Macro) 기능 활용)

- 선행연구인 최성은 외(2018)의 경우, 중첩관측치가 발견되어 삭제 처리한 바 있음. 이번 충청지방통계청 데이터 분석 결과, 중첩관측치는 발견되지 않았음

- 이것은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시도별 공표 결과와 동일한 결과

였음. 이것은 충청지방통계청과 연구원 간의 협업을 통해 선행연구의 데이터 분석 결과의 오류를 시정하고, 보완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긍정적인 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3단계: 가구단위 자료를 인구단위로 변환. 이에 따라 총 1,199,290개의 개별 이동 인구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을 실시함

□ 충청지방통계청 데이터분석팀의 MDIS 데이터 분석(2023년 5월~7월)

- ❶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기초자료 정보 파악(5월)
 - 기초자료: 읍·면·동에 접수된 전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전입신고 중 읍·면·동 단위 이동자 정보
- ❷ 국내인구이동통계 MDIS 자료 입수(5월)
 - 세종시 출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자료 MDIS 내 다운로드
 - 입수 데이터 크기: 6.17GB(인구), 3.95GB(세대)
- ❸ 국내인구이동통계 MD 자료 구조 파악(6월)
 - 인구 관련 마스타: 시계열 연구를 위한 11년간 자료 구조 동일(6.17GB)

① 전입행정구역코드	⑦ 전입자1_세대주관계코드	중 간 … 생 략	⑫ 전입자9_만연령
② 전입일자	⑧ 전입자1_만연령		⑬ 전입자9_성별코드
③ 전입구분코드	⑨ 전입자1_성별코드		⑭ 전입자10_세대주관계코드
④ 전출행정구역코드	⑩ 전입자2_세대주관계코드		⑮ 전입자10_만연령
⑤ 전출구분코드	⑪ 전입자2_만연령		⑯ 전입자10_성별코드
⑥ 전입사유코드	⑫ 전입자2_성별코드		⑰ 일련번호

- 세대 관련 마스타: 시계열 연구를 위한 11년간 자료 구조 동일(3.95GB)

① 전입행정구역코드	⑦ 세대주관계코드	⑬ 이동_여자인구수
② 전입일자	⑧ 세대주만연령	
③ 전입구분코드	⑨ 세대주성별코드	
④ 전출행정구역코드	⑩ 세대관련코드	
⑤ 전출구분코드	⑪ 이동_총인구수	
⑥ 전입사유코드	⑫ 이동_남자인구수	

- ❹ 국내인구이동통계 MD 자료 SAS 시스템 서버 내 탑재(6월)
 -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통계분석 프로그램)
 - SAS 버전: SAS Enterprise Guide 7.13
 - 통계청 내부망 SASApp 서버 내 저장공간 할당 받음

□ 분석 데이터 관련 현황 분석(2023년 8~9월)

○ 분석 데이터 관련 현황 분석(2023년 8~9월)

- 충청지방통계청 김영아 주무관의 1차 데이터를 토대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진의 분석 데이터 현황 보고서 작성

○ ❶ 세종시 인구이동 정책연구 지표 분석 1차 완료(8월)

- 읍·면·동별, 연도별로 지표들이 5 미만이 많음. 해당 지표 활용 방법안내
-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MDIS 자료 이용 안내: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개인정보 보호법/ 통계법 41조]

○ ❷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지역별 분석(8월)

- 읍 지역 단위: 읍지역의 인구이동자는 2013년을 제외하고 유출이 많음
- 면 지역 단위: 면지역의 인구이동자에도 유입보다는 유출의 연도가 더 많음
- 동 지역 단위: 인구이동자의 대부분이 유입으로 유입 인구수가 최근 둔화 되는 부분을 증점적으로 파악 필요

○ ❸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성별·연령별 분석(8월)

- 성별 현황: 성별 확인에 있어서 세종시는 읍·면·동 지역의 전입, 전출자의 양상이 다르므로, 소지역 단위별로 파악이 필요
- 연령별 현황: 연령별 확인시에서도 읍·면·동 지역 단위의 전입, 전출자를 파악 필요

○ ❹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도시정보 아카이브 시스템 적용 방안(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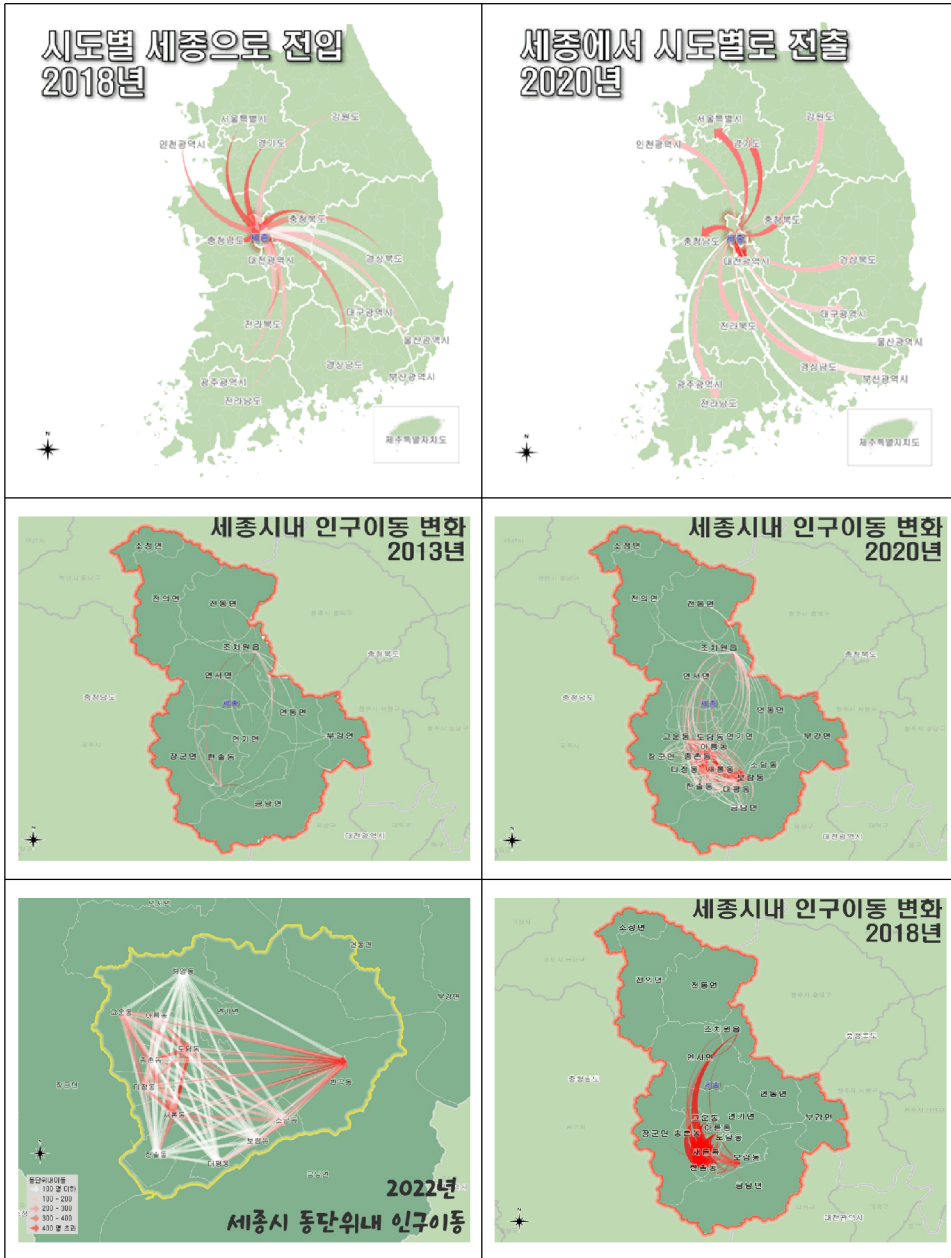
- 시스템 적용 단위 결정: 소지역(읍·면·동) 단위 공표
- 인구이동 현황 표출 방안 논의

○ ❺ 인구이동 관련 각종 주제별 2차 분석 실시(9월)

- 출범 10년, 세종시의 읍·면 지역 청년인구 이동의 특성: 세종시 19~39세 청년 인구 중 해당연도 전입/전출자
- 세종시 인구이동에 따른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 세종시 15~49세 여성 인구 중 해당연도 전입/전출자, 세종시 주출산연령대 25~39세 여성 인구 중 해당연도 전입/전출자

- 세종시 읍면 지역 인구감소 위기는 ‘빨간 불’: 세종시 읍, 면 지역내 20~39세 여성인구, 세종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시·도 간 전출 사유 톺아보기, 인구이동통계 자료 세대 자료 추가 분석 결과
 - 세종시 청년 이동의 특징(충청권에 머무는가? 아니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가?): 세종시 19~29세, 30~39세 연령대 집단 청년인구
 - 대전시 여성의 사회적 이동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 특징 살펴보기: 인구이동통계 자료 세종시 인근 대전시 자료 추가 분석 결과, 대전시 15~49세 여성 인구 중 해당연도 전입/전출자, 대전시 주출산연령대 25~39세 여성 인구 중 해당연도 전입/전출자
- 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 검토 후 수정 및 보완(2023년 10월~11월)
- 연구진의 분석 데이터 관련 현황 분석 보고서에 대하여 충청지방통계청 데이터분석팀의 검토 후 수정·보완
 - 2차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 드러난 수치 오류 등 수정·보완
 -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시각화 프로그램(QGIS)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

[표 3-3] 지도시각화 프로그램(QGIS) 활용 예시



3.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간 인구변화 진단을 위한 주요 순서

□ 첫째, 세종시 인구변화의 특징

- 세종시의 총인구 변화(2013~2022년), 세종시 읍·면·동별 인구변화(성별, 연령별, 가구원수별 등)
 - 주민등록인구를 중심으로 연도별 인구변화를 검토함

□ 둘째, 세종시 인구이동 살펴보기

-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간의 인구이동 현황을 검토함
 -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의 최근 10년간의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함 (2012년 제외)
 - 세종시 전체 인구이동현황을 살펴본 뒤, 읍·면·동 지역별 인구이동 현황을 분석함
 - 각 지역별 순이동, 순전입/전출자 사유, 시·도 내 이동변화, 시·도 간 이동, 전입인구의 이전 거주지, 전출자의 전출지역, 전입/전출인구의 성별·연령대별 특징을 중심으로 특성을 도출함
-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간의 인구이동 분석 결과의 시사점

□ 셋째, 세종시 지역 청년 인구변화 진단과 과제(심층 기획 분석)

- 청년 인구변화에 대한 주요 이슈별 진단을 실시함
- [이슈 1] 세종시 청년 연령 집단별(19~29세, 30~39세) 인구이동 특성
 - 세종시 청년 인구의 순이동 변화
 - 세종시 전체 대비 청년의 시·도간 전입과 전출, 순이동이 차지하는 비율
 - 세종시 전체 대비 청년 연령 집단별 시·도 간 전입/전출, 시·도 내 이동 비율 비교
- [이슈 2] (2013년 vs. 2022년) 청년의 시·도 간 이동 특징과 사유 비교 분석: 세종시 청년들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갔는가?
 - 세종시 청년 시·도 간 이동 특징: 충청권 vs. 그 외 지역 비교

- 세종시 청년 시·도 간 이동 특징: 수도권 vs. 그 외 지역 비교
- [이슈 3] 세종시 지역 내 격차와 청년 인구 이동
 - 세종시 지역 내 소멸위험도 격차와 청년인구 이동 간의 관계
 - 청년인구의 변화: 읍, 면 지역 남녀 인구
 - 청년 인구이동 사유 훑어보기: ‘청년들은 왜 세종시의 읍, 면 지역으로 이주해 왔을까?’, ‘청년들은 왜 세종시의 읍, 면 지역을 떠났을까?’
 - 전출 사유별(직업, 주택, 교육) 청년이동 추적하기: 연령 집단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 읍, 면 지역 여성청년(20~39세)의 인구이동 특징: 소멸위험지수 주요 지표인 20~39세 청년여성 인구이동 분석

2절 세종시 인구변화의 특징

1. 세종시 인구변화

1) 세종시 전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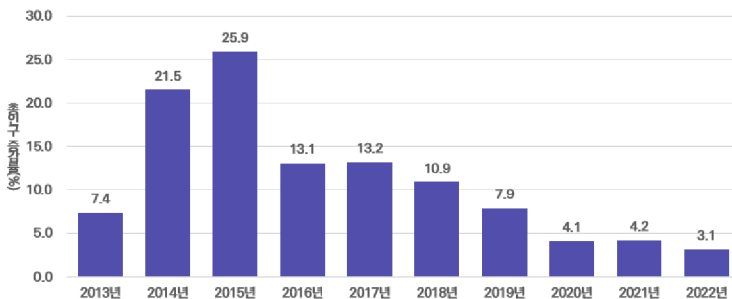
□ 총인구 변화

- 2013년 124,615명이었던 세종시 전체 인구는 2022년 기준, 388,927 명을 나타내었음
- 세종시 전체 인구의 증감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2020년부터는 증감율이 3.1~4.2%대로 줄어들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3-4] 세종시 전체 인구별·세대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총인구						세대수 (외국인 제외)	
	합계		내국인		외국인		세대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2013	124,615	7.4	122,153	7.4	2,462	7.8	50,045	6.9
2014	158,844	21.5	156,125	21.8	2,719	9.5	62,807	20.3
2015	214,364	25.9	210,884	26.0	3,480	21.9	81,806	23.2
2016	246,793	13.1	243,048	13.2	3,745	7.1	94,343	13.3
2017	284,225	13.2	280,100	13.2	4,125	9.2	109,490	13.8
2018	319,066	10.9	314,126	10.8	4,940	16.5	123,762	11.5
2019	346,275	7.9	340,575	7.8	5,700	13.3	135,408	8.6
2020	360,907	4.1	355,831	4.3	5,076	-12.3	144,275	6.1
2021	376,779	4.2	371,895	4.3	4,884	-3.9	153,649	6.1
2022	388,927	3.1	383,591	3.0	5,336	8.5	159,386	3.6



자료: 통계포털(<https://kosis.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 세종시 성별 주민등록인구 변화 추이

- 세종시 주민등록인구 중 남성인구는 2012년 57,633명에서 2022년 기준 191,389명, 여성은 55,484명에서 192,202명으로 증가하였음
- 세종시 출범 초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인구수 모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근소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표 3-5] 세종시 성별 주민등록인구 변화 추이

(단위: 명, %)

연도	총인구					
	합계		남성		여성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2012	113,117	-	57,633	-	55,484	-
2013	122,153	8.0%	62,205	7.9%	59,948	8.0%
2014	156,125	27.8%	78,862	26.8%	77,263	28.9%
2015	210,884	35.1%	105,752	34.1%	105,132	36.1%
2016	243,048	15.3%	121,505	14.9%	121,543	15.6%
2017	280,100	15.2%	139,734	15.0%	140,366	15.5%
2018	314,126	12.1%	156,831	12.2%	157,295	12.1%
2019	340,575	8.4%	169,845	8.3%	170,730	8.5%
2020	355,831	4.5%	177,568	4.5%	178,263	4.4%
2021	371,895	4.5%	185,678	4.6%	186,217	4.5%
2022	383,591	3.1%	191,389	3.1%	192,202	3.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 세종시 연령그룹별 비율 변화

- 세종시 연령그룹별 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세종시 출범당시 대비 2022년 기준으로 유소년(0-14세, 2.7%p 증가) 및 생산연령(15-64세, 2.1%p 증가)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고령인구(65세 이상, 4.8%p 감소)의 비율은 감소함

[표 3-6] 세종시 연령별 인구비율변화 추이

(단위 : 명, %)

연령구분		총인구								
		2012년			2022년			증감율		
		총인구	남자	여자	총인구	남자	여자	총인구	남자	여자
유소년	0 - 4세	6,079	3,066	3,013	18,964	9,592	9,372	212.0%	212.9%	211.1%
	5 - 9세	5,953	2,994	2,959	26,987	13,787	13,200	353.3%	360.5%	346.1%
	10 - 14세	6,471	3,305	3,166	27,557	13,981	13,576	325.9%	323.0%	328.8%
생산연령인구	15 - 19세	6,256	3,388	2,868	21,445	10,666	10,779	242.8%	214.8%	275.8%
	20 - 24세	6,458	3,472	2,986	17,737	9,340	8,397	174.7%	169.0%	181.2%
	25 - 29세	6,369	3,495	2,874	20,642	10,365	10,277	224.1%	196.6%	257.6%
	30 - 34세	8,765	4,592	4,173	27,853	13,615	14,238	217.8%	196.5%	241.2%
	35 - 39세	9,547	5,024	4,523	33,230	16,334	16,896	248.1%	225.1%	273.6%
	40 - 44세	9,718	5,440	4,278	41,183	20,249	20,934	323.8%	272.2%	389.3%
	45 - 49세	8,075	4,385	3,690	35,321	17,981	17,340	337.4%	310.1%	369.9%
	50 - 54세	9,046	4,813	4,233	30,068	15,987	14,081	232.4%	232.2%	232.6%
	55 - 59세	7,474	3,874	3,600	21,599	11,139	10,460	189.0%	187.5%	190.6%
60 - 64세	5,692	2,808	2,884	20,786	10,399	10,387	265.2%	270.3%	260.2%	
고령인구	65 - 69세	4,556	2,109	2,447	15,002	7,398	7,604	229.3%	250.8%	210.7%
	70 - 74세	5,064	2,195	2,869	9,541	4,640	4,901	88.4%	111.4%	70.8%
	75 - 79세	3,850	1,542	2,308	6,164	2,754	3,410	60.1%	78.6%	47.7%
	80 - 84세	2,263	724	1,539	5,094	1,988	3,106	125.1%	174.6%	101.8%
	85 - 89세	1,007	289	718	2,985	895	2,090	196.4%	209.7%	191.1%
	90 - 94세	352	88	264	1,165	233	932	231.0%	164.8%	253.0%
	95 - 99세	83	14	69	233	39	194	180.7%	178.6%	181.2%
100+	39	16	23	35	7	28	-10.3%	-56.3%	21.7%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표 3-7] 세종시 연령그룹별 비율 변화 추이(총인구)

(단위: 명, %)

연령 구분	총인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유소년	16.4%	16.5%	18.2%	20.1%	20.4%	20.7%	20.6%	20.4%	20.1%	19.6%	19.2%
생산 연령 인구	68.4%	68.8%	69.1%	69.3%	69.6%	69.8%	70.1%	70.2%	70.1%	70.3%	70.4%
고령 인구	15.2%	14.7%	12.7%	10.6%	10.0%	9.6%	9.3%	9.4%	9.8%	10.1%	10.5%

*유소년(0-14세), 생산연령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표 3-8] 세종시 연령그룹별 비율 변화 추이(남자)

(단위: 명, %)

연령 구분	남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유소년	16.2%	16.5%	18.4%	20.4%	20.7%	21.0%	21.0%	20.8%	20.5%	20.0%	19.5%
생산 연령 인구	71.6%	71.8%	71.4%	70.8%	71.0%	70.9%	71.1%	71.1%	70.9%	71.1%	71.1%
고령 인구	12.1%	11.8%	10.2%	8.7%	8.3%	8.1%	7.9%	8.1%	8.6%	8.9%	9.4%

*유소년(0-14세), 생산연령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표 3-9] 세종시 연령그룹별 비율 변화 추이(여자)

(단위 : 명, %)

연령 구분	여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유소년	16.5%	16.5%	18.1%	19.8%	20.1%	20.3%	20.3%	20.0%	19.7%	19.3%	18.8%
생산 연령 인구	65.1%	65.7%	66.8%	67.7%	68.2%	68.6%	69.1%	69.3%	69.2%	69.5%	69.6%
고령 인구	18.5%	17.7%	15.1%	12.5%	11.6%	11.1%	10.6%	10.7%	11.0%	11.3%	11.6%

*유소년(0-14세), 생산연령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 세종시 청년인구 변화 추이

- 세종시 청년인구는 2012년 32,394명에서 2022년 85,375명으로 증가함
 - 청년 총인구수와 연령대별 인구수를 활용하여 각 연령대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2022년을 기준으로 2012년에 비해 백분율이 올라간 연령대는 35~39세(2.7%), 25~29세(0.3%)로 나타남. 세종시 청년의 평균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세종시 총인구 대비 청년의 비율도 2012년 28.6%에서 2015년 30.9%로 2.3% 상승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22년 26.9%를 나타냄

[표 3-10] 세종시 청년인구 변화 추이(오약)

(단위: 명)

연령구분	총인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세미만	1,255	695	560	1,413	763	650	1,684	929	755	2,032	1,069	963	2,305	1,217	1,088	2,702	1,394	1,308							
20-24세	6,458	3,472	2,986	7,008	3,719	3,289	8,777	4,586	4,191	11,419	5,989	5,430	12,764	6,714	6,050	14,210	7,517	6,693							
25-29세	6,369	3,495	2,874	6,876	3,781	3,095	8,755	4,552	4,203	11,624	5,774	5,850	13,759	6,711	7,048	16,056	7,799	8,257							
30-34세	8,765	4,592	4,173	9,553	4,914	4,639	13,227	6,529	6,698	18,411	8,807	9,604	20,193	9,749	10,444	21,908	10,535	11,373							
35-39세	9,547	5,024	4,523	10,041	5,206	4,835	14,421	7,253	7,168	21,614	10,701	10,913	25,758	12,652	13,106	30,499	14,846	15,653							
합계	32,394	17,278	15,116	34,891	18,383	16,508	46,864	23,849	23,015	65,100	32,340	32,760	74,779	37,043	37,736	85,375	42,091	43,284							
총인구	113,117	57,633	55,484	122,153	62,205	59,948	156,125	78,862	77,263	210,884	105,752	105,132	243,048	121,505	121,543	280,100	139,734	140,366							
청년비	28.6%	30.0%	27.2%	28.6%	29.6%	27.5%	30.0%	30.2%	29.8%	30.9%	30.6%	31.2%	30.8%	30.5%	31.0%	30.5%	30.1%	30.8%							
연령구분	총인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세미만	3,146	1,567	1,579	3,511	1,804	1,707	3,340	1,682	1,658	3,495	1,816	1,679	3,798	1,879	1,919										
20-24세	15,914	8,424	7,490	16,611	8,683	7,928	17,056	8,931	8,125	17,528	9,203	8,325	17,737	9,340	8,397										
25-29세	18,117	8,859	9,258	19,729	9,674	10,055	20,397	10,119	10,278	20,982	10,525	10,457	20,642	10,365	10,277										
30-34세	23,831	11,612	12,219	25,644	12,495	13,149	26,014	12,727	13,287	27,081	13,174	13,907	27,853	13,615	14,238										
35-39세	34,550	16,746	17,804	35,820	17,489	18,331	35,478	17,277	18,201	34,638	16,957	17,681	33,230	16,334	16,896										
합계	95,558	47,208	48,350	101,315	50,145	51,170	102,285	50,736	51,549	103,724	51,675	52,049	103,260	51,533	51,727										
총인구	314,126	156,831	157,295	340,575	169,845	170,730	355,831	177,568	178,263	371,895	185,678	186,217	383,591	191,389	192,202										
청년비	30.4%	30.1%	30.7%	29.7%	29.5%	30.0%	28.7%	28.6%	28.9%	27.9%	27.8%	28.0%	26.9%	26.9%	26.9%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각년도 자료 재구성

[표 3-11] 세종시 청년인구 변화 추이(백분율)

(단위: %)

연령구분	총인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세미만	3.9%	4.0%	3.6%	3.1%	3.1%	3.2%	3.3%	3.5%	3.3%	3.4%	3.7%
20-24세	19.9%	20.1%	18.7%	17.5%	17.1%	16.6%	16.7%	16.4%	16.7%	16.9%	17.2%
25-29세	19.7%	19.7%	18.7%	17.9%	18.4%	18.8%	19.0%	19.5%	19.9%	20.2%	20.0%
30-34세	27.1%	27.4%	28.2%	28.3%	27.0%	25.7%	24.9%	25.3%	25.4%	26.1%	27.0%
35-39세	29.5%	28.8%	30.8%	33.2%	34.4%	35.7%	36.2%	35.4%	34.7%	33.4%	32.2%
*2022년을 기준으로 2012년에 비해 백분율이 올라간 연령대는 35-39세(2.7%), 25-29세(0.3%)임. 청년의 평균 연령대가 오르는 것은 아닌지?											
연령구분	총인구(남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세미만	4.0%	4.2%	3.9%	3.3%	3.3%	3.3%	3.3%	3.6%	3.3%	3.5%	3.6%
20-24세	20.1%	20.2%	19.2%	18.5%	18.1%	17.9%	17.8%	17.3%	17.6%	17.8%	18.1%
25-29세	20.2%	20.6%	19.1%	17.9%	18.1%	18.5%	18.8%	19.3%	19.9%	20.4%	20.1%
30-34세	26.6%	26.7%	27.4%	27.2%	26.3%	25.0%	24.6%	24.9%	25.1%	25.5%	26.4%
35-39세	29.1%	28.3%	30.4%	33.1%	34.2%	35.3%	35.5%	34.9%	34.1%	32.8%	31.7%
*남자의 경우 35-3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백분율 감소											
연령구분	총인구(여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세미만	3.7%	3.9%	3.3%	2.9%	2.9%	3.0%	3.3%	3.3%	3.2%	3.2%	3.7%
20-24세	19.8%	19.9%	18.2%	16.6%	16.0%	15.5%	15.5%	15.5%	15.8%	16.0%	16.2%
25-29세	19.0%	18.7%	18.3%	17.9%	18.7%	19.1%	19.1%	19.7%	19.9%	20.1%	19.9%
30-34세	27.6%	28.1%	29.1%	29.3%	27.7%	26.3%	25.3%	25.7%	25.8%	26.7%	27.5%
35-39세	29.9%	29.3%	31.1%	33.3%	34.7%	36.2%	36.8%	35.8%	35.3%	34.0%	32.7%

*여성의 경우 25-29세(0.9%), 35-39세(2.8%)에서 백분율 상승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각년도 자료 재구성

2) 세종시 읍·면·동별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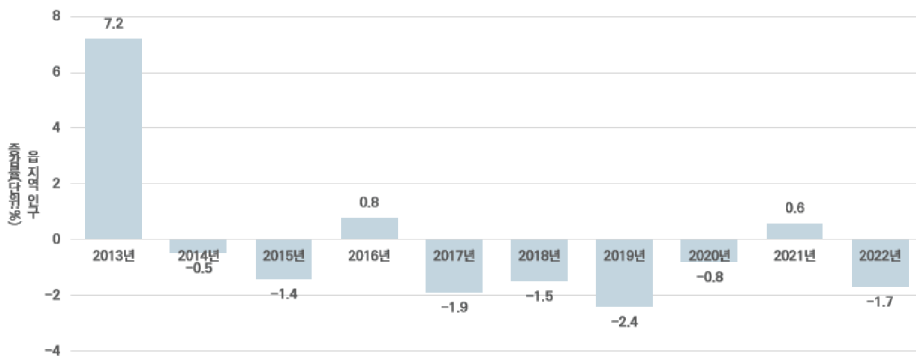
□ 세종시 읍·면·동 지역별 인구수 및 세대수 변화 추이

- (읍 지역 주민등록인구수 변화) 주민등록기준, 세종시 읍 지역 인구수는 2013년 48,048명이었고, 2022년 기준 43,966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인구수는 4,082명 감소하였으나, 세대수는 2,029세대 증가(외국인 제외))
 - 읍 지역의 전체적인 인구수는 최근 10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16년과 2021년에 각각 0.8%, 0.6%의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내국인은 감소하고 외국인은 증가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음 (2020년의 외국인 감소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판단됨)

[표 3-12] 세종시 읍 지역 인구별·세대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세종시 읍 지역 총인구						세대수 (외국인 제외)	
	합계		내국인		외국인		세대	증감률
	인구	증감률	인구	증감률	인구	증감률		
2013	48,048	7.2	47,401	7.1	647	17.3	18,807	7.4
2014	47,795	-0.5	47,009	-0.8	786	17.7	18,895	0.5
2015	47,139	-1.4	46,163	-1.8	976	19.5	18,730	-0.9
2016	47,524	0.8	46,452	0.6	1,072	9	19,027	1.6
2017	46,620	-1.9	45,413	-2.3	1,207	11.2	19,111	0.4
2018	45,913	-1.5	44,443	-2.2	1,470	17.9	19,287	0.9
2019	44,821	-2.4	43,266	-2.7	1,555	5.5	19,472	1
2020	44,462	-0.8	43,100	-0.4	1,362	-14.2	20,307	4.1
2021	44,712	0.6	43,262	0.4	1,450	6.1	20,972	3.2
2022	43,966	-1.7	42,309	-2.3	1,657	12.5	20,836	-0.7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https://kosis.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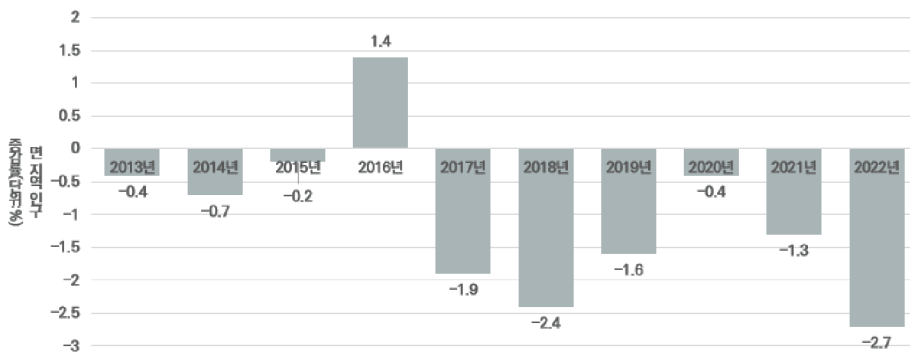
○ (면 지역 주민등록인구수 변화) 면 지역 주민등록인구수는 2013년 기준 52,336명에서 2022년 기준 47,603명을 기록하여, 4,733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외국인을 제외한 세대수는 2,179세대 증가)

- 면 지역의 전체적인 인구수는 읍 지역과 마찬가지로 최근 10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16년에 각각 1.4%의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읍 지역과 마찬가지로 내국인의 감소와 외국인의 증가로 요약해 볼 수 있음 (20, 21년의 외국인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단됨)

[표 3-13] 세종시 면 지역 인구별·세대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세종시 면 지역 총인구						세대수 (외국인 제외)	
	합계		내국인		외국인		세대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2013	52,336	-0.4	50,670	-0.5	1,666	3.4	23,543	0.6
2014	51,951	-0.7	50,212	-0.9	1,739	4.2	23,635	0.4
2015	51,868	-0.2	49,928	-0.6	1,940	10.4	23,809	0.7
2016	52,616	1.4	50,587	1.3	2,029	4.4	24,782	3.9
2017	51,649	-1.9	49,520	-2.2	2,129	4.7	24,915	0.5
2018	50,461	-2.4	48,004	-3.2	2,457	13.3	24,663	-1
2019	49,690	-1.6	46,755	-2.7	2,935	16.3	24,576	-0.4
2020	49,506	-0.4	46,889	0.3	2,617	-12.2	25,661	4.2
2021	48,867	-1.3	46,586	-0.7	2,281	-14.7	26,173	2
2022	47,603	-2.7	45,250	-3	2,353	3.1	25,722	-1.8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https://kosis.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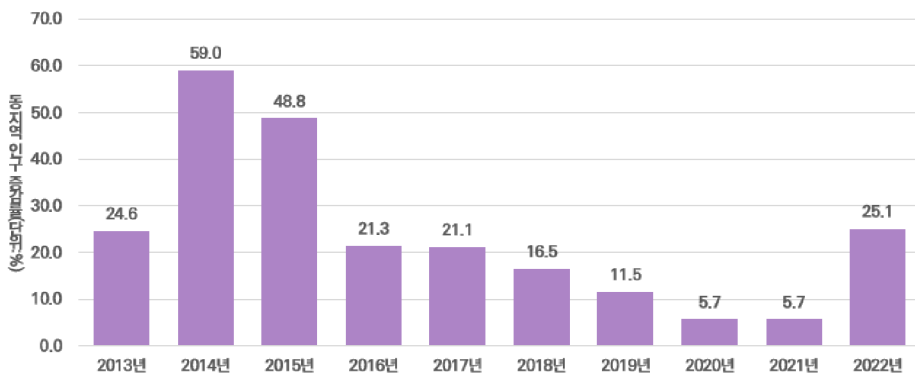
○ (동 지역 주민등록인구수 변화) 세종시 동 지역은 2013년 24,231명에서 2022년 297,358명으로, 273,127명의 큰 폭으로 인구 증가함

- 동 지역 인구수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세대수도 105,133세대가 증가하였음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증가율이 20%를 넘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교적 완만한 추세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내국인의 주민등록으로 인한 증가세가 대부분임. 외국인도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비율이나 수치값으로도 읍·면에 비하여 그 수가 상당히 적음

[표 3-14] 세종시 동 지역 인구별·세대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총인구						세대수 (외국인 제외)	
	합계		내국인		외국인		세대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2013	24,231	24.6	24,082	24.6	149	14.8	7,695	24.9
2014	59,098	59.0	58,904	59.1	194	23.2	20,277	62.1
2015	115,357	48.8	114,793	48.7	564	65.6	39,267	48.4
2016	146,653	21.3	146,009	21.4	644	12.4	50,534	22.3
2017	185,956	21.1	185,167	21.1	789	18.4	65,464	22.8
2018	222,692	16.5	221,679	16.5	1,013	22.1	79,812	18
2019	251,764	11.5	250,554	11.5	1,210	16.3	91,360	12.6
2020	266,939	5.7	265,842	5.8	1,097	-10.3	98,307	7.1
2021	283,200	5.7	282,047	5.7	1,153	4.9	106,504	7.7
2022	297,358	4.8	296,032	4.7	1,326	13.0	112,828	5.6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https://kosis.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연도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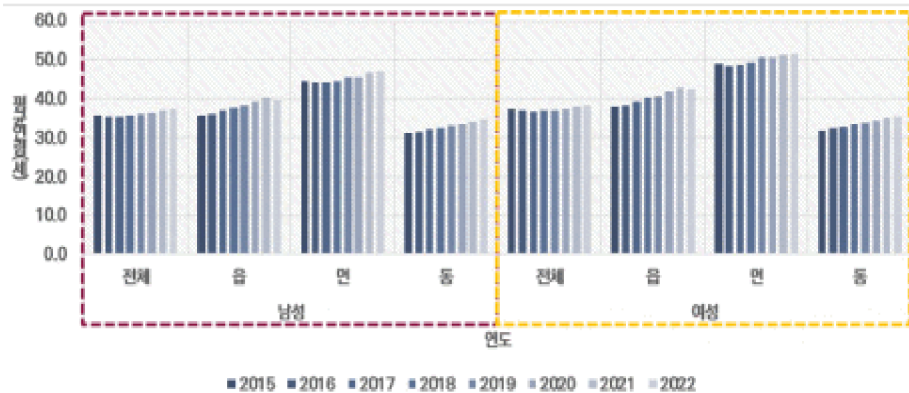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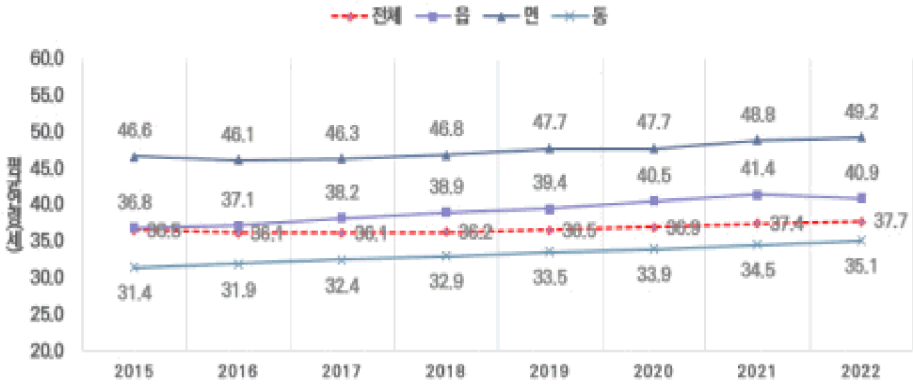
□ 세종시 읍·면·동 지역별 평균 연령의 변화 추이

- (전체 평균 연령) 세종시 전체의 평균 연령은 2016년과 2017년에 36.1세로 가장 낮았다가 2022년 37.7세로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읍 지역) 2015년 36.8세에서 2022년 40.9세로 높아졌음
 - (면 지역) 2015년 46.6세에서 2022년 49.2세로 높아졌음
 - (동 지역) 2015년 31.4세에서 2022년 35.1세로 높아졌음
- (성별 평균 연령 비교) 세종시 전체 남성의 평균 연령은 35.7세에서 37.2세로 높아졌으며, 여성의 평균 연령은 37.4세에서 38.3세로 높아졌음
 - (지역별 남성의 평균 연령) 면 지역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 읍·동 지역과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읍 지역의 경우, 2015년 35.6세에서 39.6세로 높아짐. 면 지역은 44.4세에서 47.1세로 높아졌음. 동 지역은 31.0세에서 34.8세로 높아졌음
 - (지역별 여성의 평균 연령) 여성의 경우 평균 연령이 남성에 비하여 모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읍 지역은 38.0세에서 42.4세로 높아졌고, 면 지역은 48.9세에서 51.7세로 높아졌음. 동 지역은 31.8세에서 35.5세로 높아졌음
 - (지역별로 여성의 평균 연령이 높은 이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평균수명이 높은 것과 관련이 많음. 평균 연령은 그 지역 거주자의 연령의 평균이므로, 고령자 중 여성비율이 많을 경우 평균 연령도 같이 상승할 수 있음
 - 다만, 우리가 주목 해야 할 점은 2013년에 비하여 2022년에 인구가 감소한 읍, 면 지역에서 평균 연령이 증가한다는 점임. 이것은 감소된 인구 중 젊은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세종시 읍, 면 지역의 청년의 유출과 유입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3-15] 세종시 성별·지역별 평균 연령 추이

(단위: 세)

평균 연령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36.5	36.1	36.1	36.2	36.5	36.9	37.4	37.7
읍			36.8	37.1	38.2	38.9	39.4	40.5	41.4	40.9
면			46.6	46.1	46.3	46.8	47.7	47.7	48.8	49.2
동			31.4	31.9	32.4	32.9	33.5	33.9	34.5	35.1
남성(소계)			35.7	35.4	35.5	35.6	35.9	36.3	36.9	37.2
읍			35.6	35.9	37.0	37.7	38.3	39.4	40.3	39.6
면			44.4	44.0	44.1	44.6	45.3	45.4	46.7	47.1
동			31.0	31.5	32.0	32.6	33.1	33.5	34.1	34.8
여성(소계)			37.4	36.9	36.8	36.9	37.1	37.4	37.9	38.3
읍			38.0	38.4	39.4	40.2	40.6	41.7	42.7	42.4
면			48.9	48.5	48.8	49.4	50.6	50.6	51.4	51.7
동			31.8	32.3	32.8	33.3	33.8	34.3	34.9	35.5



주: 통계청의 평균 연령 데이터는 2015년부터 제공됨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https://kosis.kr/>), <인구총조사> 각 년도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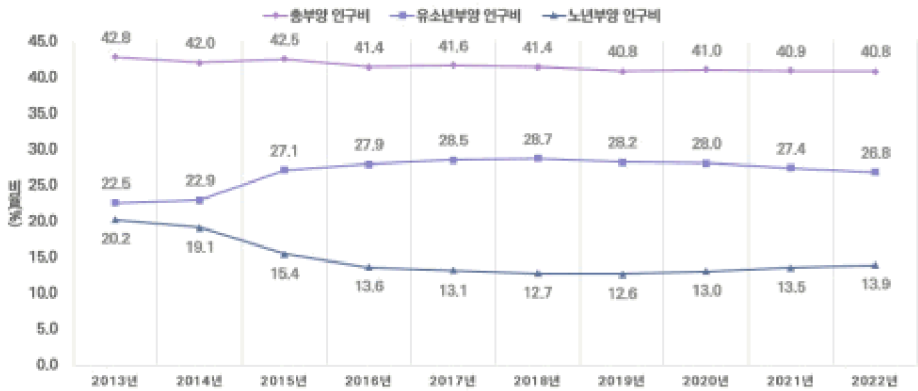
□ 세종시의 그룹별 인구 구성과 부양비 변화

- (3가지 그룹별 인구 구성 변화) 세종시 인구를 유소년(14세 이하), 생산연령(15~64세), 노인(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세종시 인구의 성장이 폭발적인 수준으로 변해온 만큼, 모든 그룹(유소년 / 생산연령 / 노인인구)에서 고른 성장을 보였음
- (부양비의 관점에서의 변화) 2013년 대비 2022년 총부양비는 2%p 감소, 노년부양비는 6.3%p 감소된 반면, 유소년부양비의 경우 4.3%p 증가되었음
 - 총부양비는 2013년 대비 2022년 42.8%→40.8%로 감소하였음. 유소년부양비는 22.5%→26.8%로 증가, 노년부양비는 20.2%→13.9%로 감소하였음. 노령화지수 역시 89.9%→52.0%로 크게 감소하였음
 - 한편, 노년부양비나 노령화지수는 2019년부터 오름세를 보임

[표 3-16] 세종시 부양인구비 및 노령화 지수

(단위: 명, %)

구분	인구	유소년 인구 (14세 이하)	생산 연령 (15-64세)	노인 인구 (65세 이상)	총부양* 인구비	유소년** 부양 인구비	노년*** 부양 인구비	노령화**** 지수
2013	118,463	18,686	82,986	16,791	42.8	22.5	20.2	89.9
2014	132,437	21,396	93,265	17,776	42.0	22.9	19.1	83.1
2015	187,202	35,607	131,343	20,252	42.5	27.1	15.4	56.9
2016	234,410	46,224	165,721	22,465	41.4	27.9	13.6	48.6
2017	265,517	53,386	187,571	24,560	41.6	28.5	13.1	46.0
2018	302,249	61,356	213,732	27,161	41.4	28.7	12.7	44.3
2019	329,422	66,081	233,963	29,378	40.8	28.2	12.6	44.5
2020	348,302	69,271	246,980	32,051	41.0	28.0	13.0	46.3
2021	366,165	71,180	259,869	35,116	40.9	27.4	13.5	49.3
2022	382,760	72,933	271,932	37,895	40.8	26.8	13.9	52.0



주: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유소년인구/생산연령인구 * 100

***노년부양비=고령인구/생산연령인구 * 100

****노령화지수=고령인구/유소년인구 * 100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https://kosis.kr/>),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 세종시 가구원수별 변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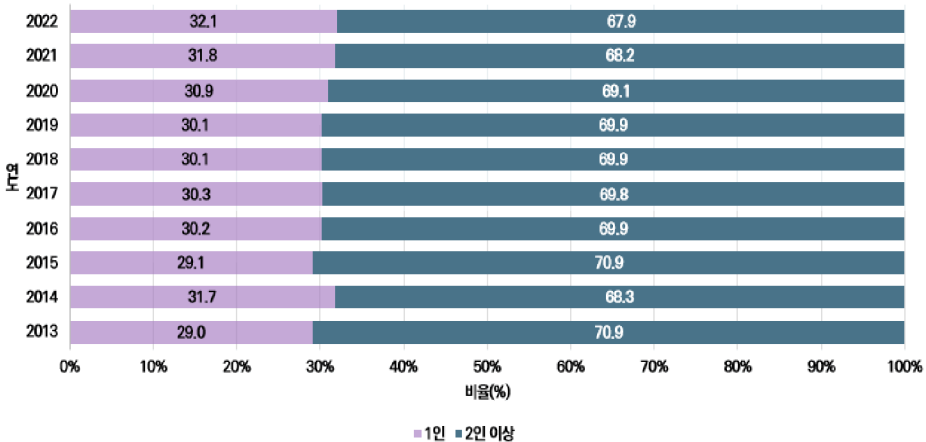
○ 세종시의 경우 2인 이상 다인 가구보다는 1인 가구의 비중이 계속 증가해왔음

- 1인 가구는 2013년 12,696명으로 나타나 전체 세종시 인구대비 29.0%였고, 2022년 현재 48,844명으로써 32.1%인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가 증가하였음
- 2인 가구는 2013년 11,244명이었고 전체 세종시 인구대비 25.7%였고, 2022년 현재 37,394명으로써 24.6%를 나타내어 다소 감소하였음
- 3인 및 4인 가구는 2013년에 각각 19.1%, 16.9%를 보였으며, 2022년 현재 20.1%, 18.3%를 보여 최근 10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 5인 이상 가구는 9.2%에서 4.9%로 나타나 절반 정도 감소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3-17] 세종시 가구원수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인원수(명)						
2013	43,736	12,696	11,244	8,366	7,397	4,033
2014	54,396	17,248	13,300	10,080	9,200	4,568
2015	72,716	21,162	17,381	14,800	14,202	5,171
2016	85,315	25,736	19,454	17,122	16,701	6,302
2017	99,639	30,193	22,678	20,184	19,588	6,996
2018	114,077	34,321	26,633	23,472	22,277	7,374
2019	126,077	37,958	30,146	26,078	24,344	7,551
2020	135,921	42,051	32,546	27,808	25,923	7,593
2021	143,407	45,590	34,904	28,961	26,655	7,297
2022	152,213	48,844	37,394	30,667	27,810	7,498
비율(%)						
2013	100.0	29.0	25.7	19.1	16.9	9.2
2014	100.0	31.7	24.5	18.5	16.9	8.4
2015	100.0	29.1	23.9	20.4	19.5	7.1
2016	100.0	30.2	22.8	20.1	19.6	7.4
2017	100.0	30.3	22.8	20.3	19.7	7.0
2018	100.0	30.1	23.3	20.6	19.5	6.5
2019	100.0	30.1	23.9	20.7	19.3	6.0
2020	100.0	30.9	23.9	20.5	19.1	5.6
2021	100.0	31.8	24.3	20.2	18.6	5.1
2022	100.0	32.1	24.6	20.1	18.3	4.9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https://kosis.kr/>),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3절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간 인구이동 현황

1.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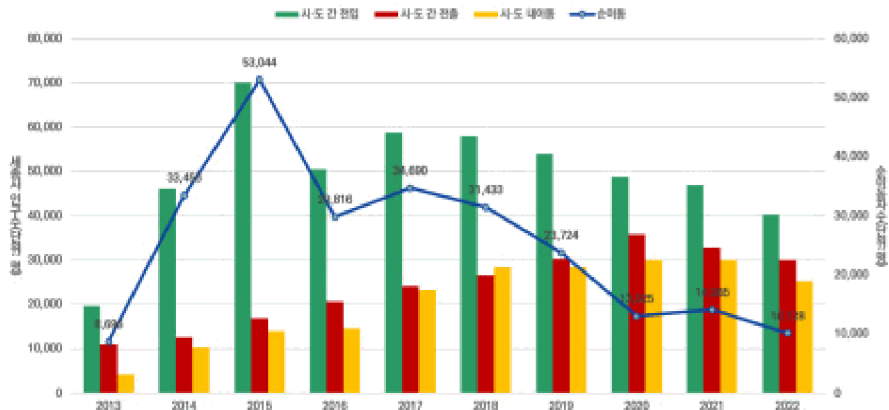
□ 세종시 인구이동 현황(총괄) 검토 결과

- 세종시는 여전히 전입이 많은 지역이지만, 점차 전입과 전출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임
 - 매년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순유입(전입초과)’ 현상이 나타났으나, 순이동률은 2015년 최고치(29%)를 경신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2022년 기준 2.7%에 그침)
 - 시·도 간 전입자 수 그래프는 2015년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 반면, 시·도 간 전출자 수 그래프와 시·도 내 이동 그래프 곡선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이후 감소세를 나타냄

[표 3-18] 최근 10년간(2013~2022년) 세종시의 인구이동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입		전출		시·도 내 이동*	순이동**	순이동률***
	총전입	시·도 간 전입	총전출	시·도 간 전출			
2013	23,805	19,700	15,109	11,004	4,105	8,696	7.4
2014	56,526	46,071	23,070	12,615	10,455	33,456	24.2
2015	83,994	70,004	30,950	16,960	13,990	53,044	29.0
2016	65,052	50,506	35,236	20,690	14,546	29,816	13.2
2017	82,073	58,828	47,383	24,138	23,245	34,690	13.3
2018	86,433	57,983	55,000	26,550	28,450	31,433	10.6
2019	82,398	54,017	58,674	30,293	28,381	23,724	7.3
2020	78,934	48,889	65,909	35,864	30,045	13,025	3.8
2021	76,912	46,875	62,827	32,790	30,037	14,085	3.9
2022	65,529	40,237	55,401	30,109	25,292	10,128	2.7
합계	701,656	493,110	449,559	241,013	208,546	252,097	-



주: * 세종시 내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경우와 읍에서 읍, 면에서 면, 동에서 동으로의 이동을 모두 제외한 수치(통계청 공표 기준 준용)

** 순이동의 수는 순 시·도 간 이동 수와 동일. 순이동의 수가 양의 부호를 갖는다는 것은 전입이 전출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순유입의 수로 볼 수 있음

*** 순이동률은 「순이동자수/주민등록연앙인구 X 100」으로 계산된, 주민등록연앙인구 100명당 이동자수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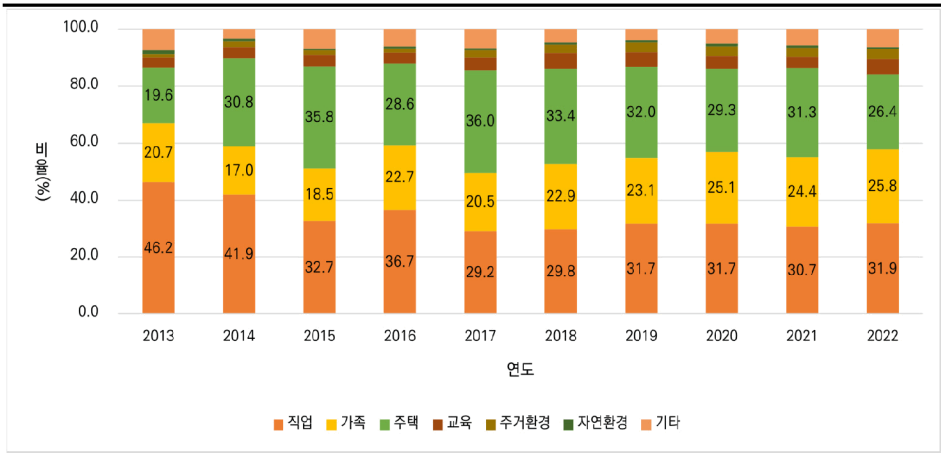
□ 세종시 연도별 시·도 간 전입 사유 변화 추이

-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세종시로의 전입 사유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늘어난 비율을 보이는 응답은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임
 - 2013년의 경우 전입 사유를 밝힌 19,700명 중 ‘직업’이라는 응답이 9,104건으로 전체 대비 46.2%로 나타났음. 뒤를 이어 ‘가족’이 4,078건(20.7%), ‘주택’이 3,860건(19.6%)로 나타났음.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이라는 응답은 5% 미만이었고, ‘기타’라는 응답이 1,447건으로 7.3%의 응답률을 보였음
 - 2022년을 기준으로, ‘직업’이라는 응답은 31.9%, ‘주택’이 26.4%, ‘가족’이 25.8%인 것으로 나타났음. 즉, 최근 10년간 타 시도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사유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이라는 응답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가족’ 또는 ‘주택’의 사유가 다소 늘어났음
 - 또한 ‘교육’, ‘주거환경’이라는 사유는 미미하지만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었는데, ‘자연환경’이나 ‘기타’의 사유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19] 세종시 연도별 시·도 간 전입 사유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직업	9,104	19,313	22,870	18,523	17,149	17,293	17,129	15,504	14,374	12,840
가족	4,078	7,826	12,982	11,441	12,064	13,296	12,485	12,273	11,444	10,392
주택	3,860	14,199	25,027	14,440	21,162	19,339	17,282	14,325	14,663	10,619
교육	693	1,858	2,782	1,902	2,552	3,149	2,697	2,172	1,843	2,177
주거환경	215	981	1,194	825	1,574	1,806	2,002	1,706	1,515	1,421
자연환경	303	400	468	358	472	435	405	484	393	295
기타	1,447	1,494	4,681	3,017	3,855	2,665	2,017	2,425	2,643	2,493
합계	19,700	46,071	70,004	50,506	58,828	57,983	54,017	48,889	46,875	40,237
비율(%)										
직업	46.2	41.9	32.7	36.7	29.2	29.8	31.7	31.7	30.7	31.9
가족	20.7	17.0	18.5	22.7	20.5	22.9	23.1	25.1	24.4	25.8
주택	19.6	30.8	35.8	28.6	36.0	33.4	32.0	29.3	31.3	26.4
교육	3.5	4.0	4.0	3.8	4.3	5.4	5.0	4.4	3.9	5.4
주거환경	1.1	2.1	1.7	1.6	2.7	3.1	3.7	3.5	3.2	3.5
자연환경	1.5	0.9	0.7	0.7	0.8	0.8	0.7	1.0	0.8	0.7
기타	7.3	3.2	6.7	6.0	6.6	4.6	3.7	5.0	5.6	6.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세종시 연도별 시·도 간 전출 사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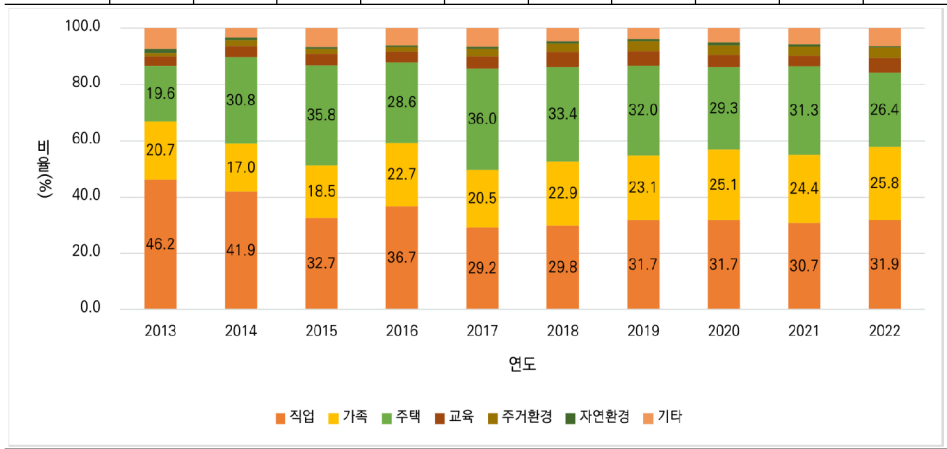
○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타 시도로의 전출 사유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교육’ 임

- 2013년의 경우 전출 사유를 밝힌 11,004건 중 ‘직업’이라는 응답이 3,585건으로 전체 대비 32.6%로 나타났음. 뒤를 이어 ‘가족’이 3,062건(27.8%), ‘주택’이 2,256건(20.5%)로 나타났음. ‘주거환경’, ‘자연환경’이라는 응답은 5% 미만이었고, ‘교육’이라는 응답이 5.0%, ‘기타’라는 응답이 11.9%의 응답률을 보였음
- 2022년을 기준으로, ‘직업’이라는 응답은 35.4%, ‘가족’이 25.2%, ‘주택’이 18.9%인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10년간 세종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사유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직업’, ‘가족’, ‘주택’이라는 응답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음
- 한편 ‘교육’이라는 응답이 다소 늘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 ‘교육’ 때문에 전출하였다는 응답은 9.3%에 달함. ‘주거환경’, ‘자연환경’이라는 응답은 큰 변화 없이 미미하였으며, ‘기타’의 사유는 약간 감소하였음

[표 3-20] 세종시 연도별 시·도 간 전출 사유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직업	3,585	4,262	6,097	7,434	8,258	9,523	10,870	12,397	11,361	10,668
가족	3,062	3,963	5,154	6,168	7,009	7,465	8,401	9,025	8,329	7,596
주택	2,256	2,649	3,303	4,111	4,762	5,088	5,709	8,141	6,912	5,701
교육	551	616	808	1,066	1,458	1,600	2,076	2,507	2,343	2,797
주거환경	150	267	338	411	629	640	882	1,128	1,057	920
자연환경	87	142	152	197	348	325	303	535	490	375
기타	1,313	716	1,108	1,303	1,674	1,909	2,052	2,131	2,298	2,052
합계	11,004	12,615	16,960	20,690	24,138	26,550	30,293	35,864	32,790	30,109
비율(%)										
직업	32.6	33.8	35.9	35.9	34.2	35.9	35.9	34.6	34.6	35.4
가족	27.8	31.4	30.4	29.8	29.0	28.1	27.7	25.2	25.4	25.2
주택	20.5	21.0	19.5	19.9	19.7	19.2	18.8	22.7	21.1	18.9
교육	5.0	4.9	4.8	5.2	6.0	6.0	6.9	7.0	7.1	9.3
주거환경	1.4	2.1	2.0	2.0	2.6	2.4	2.9	3.1	3.2	3.1
자연환경	0.8	1.1	0.9	1.0	1.4	1.2	1.0	1.5	1.5	1.2
기타	11.9	5.7	6.5	6.3	6.9	7.2	6.8	5.9	7.0	6.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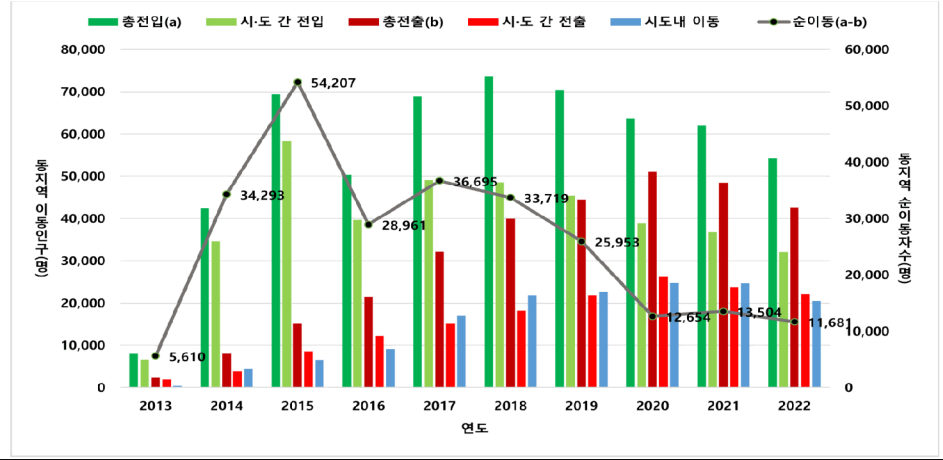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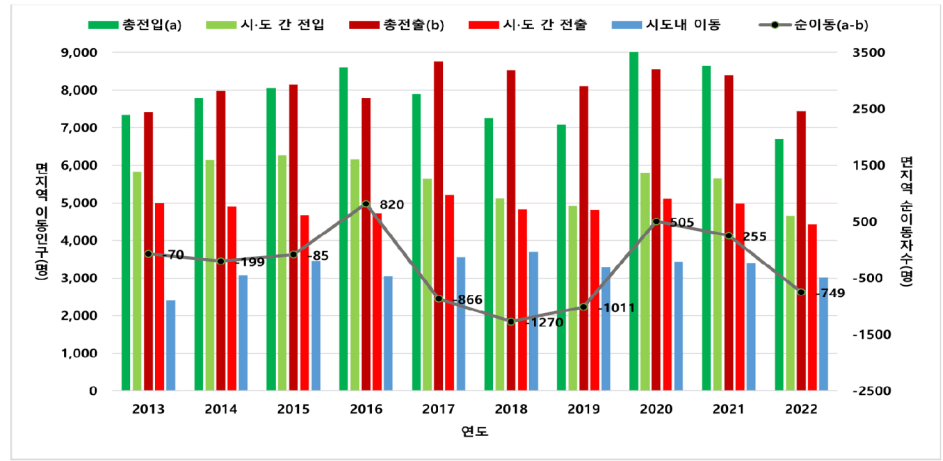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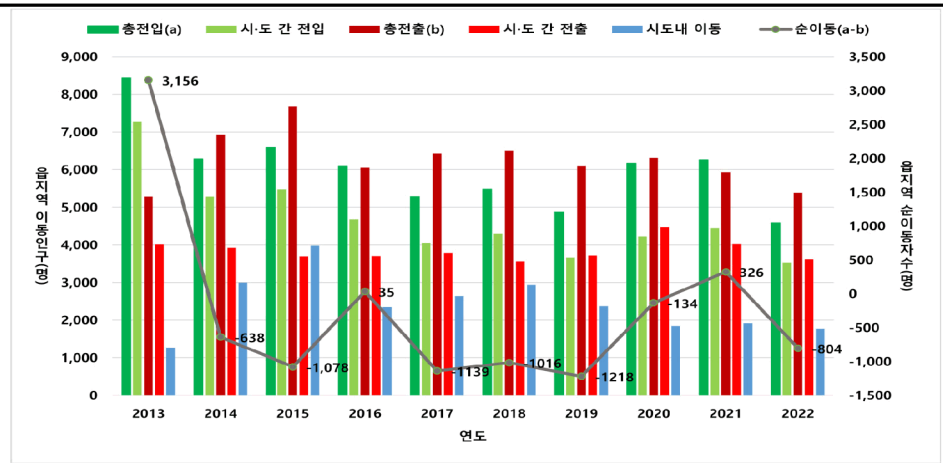
□ 세종시 2013~2022년 읍·면·동 별 인구이동 현황

○ 최근 10년 누계의 순이동을 기준으로, 읍 지역은 2,510명 감소하였고, 면 지역도 2,670명 감소하였으며, 동 지역은 257,277명 증가하였음

[표 3-21] 2013~2022년 세종시의 읍·면·동 별 인구이동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전입		전출		전출기준 시·도 내 이동	순이동* (a-b)
		총전입(a)	시·도 간 전입	총전출(b)	시·도 간 전출		
읍 (A)	2013	8,435	7,270	5,279	4,012	1,267	3,156
	2014	6,286	5,281	6,924	3,924	3,000	-638
	2015	6,599	5,477	7,677	3,697	3,980	-1,078
	2016	6,089	4,683	6,054	3,710	2,344	35
	2017	5,290	4,042	6,429	3,787	2,642	-1139
	2018	5,483	4,301	6,499	3,555	2,944	-1016
	2019	4,876	3,670	6,094	3,727	2,367	-1218
	2020	6,177	4,223	6,311	4,466	1,845	-134
	2021	6,260	4,442	5,934	4,017	1,917	326
	2022	4,586	3,527	5,390	3,614	1,776	-804
	소계	60,081	46,916	62,591	38,509	24,082	-2,510
면 (B)	2013	7,340	5,832	7,410	5,001	2,409	-70
	2014	7,781	6,142	7,980	4,900	3,080	-199
	2015	8,057	6,270	8,142	4,680	3,462	-85
	2016	8,602	6,153	7,782	4,727	3,055	820
	2017	7,900	5,643	8,766	5,208	3,558	-866
	2018	7,255	5,122	8,525	4,831	3,694	-1270
	2019	7,089	4,912	8,100	4,813	3,287	-1011
	2020	9,054	5,791	8,549	5,112	3,437	505
	2021	8,652	5,651	8,397	4,991	3,406	255
	2022	6,703	4,663	7,452	4,431	3,021	-749
	소계	78,433	56,179	81,103	48,694	32,409	-2,670
동 (C)	2013	8,030	6,598	2,420	1,991	429	5,610
	2014	42,459	34,648	8,166	3,791	4,375	34,293
	2015	69,338	58,257	15,131	8,583	6,548	54,207
	2016	50,361	39,670	21,400	12,253	9,147	28,961
	2017	68,883	49,143	32,188	15,143	17,045	36,695
	2018	73,695	48,560	39,976	18,164	21,812	33,719
	2019	70,433	45,435	44,480	21,753	22,727	25,953
	2020	63,703	38,875	51,049	26,286	24,763	12,654
	2021	62,000	36,782	48,496	23,782	24,714	13,504
	2022	54,240	32,047	42,559	22,064	20,495	11,681
	소계	563,142	390,015	305,865	153,810	152,055	257,277



주*: 순이동의 수는 순 시·도 간 이동 수와 동일. 순이동의 수가 양의 부호를 갖는다는 것은 전입이 전출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순유입의 수로 볼 수 있음. 반대로 음의 부호일 경우 순유출의 수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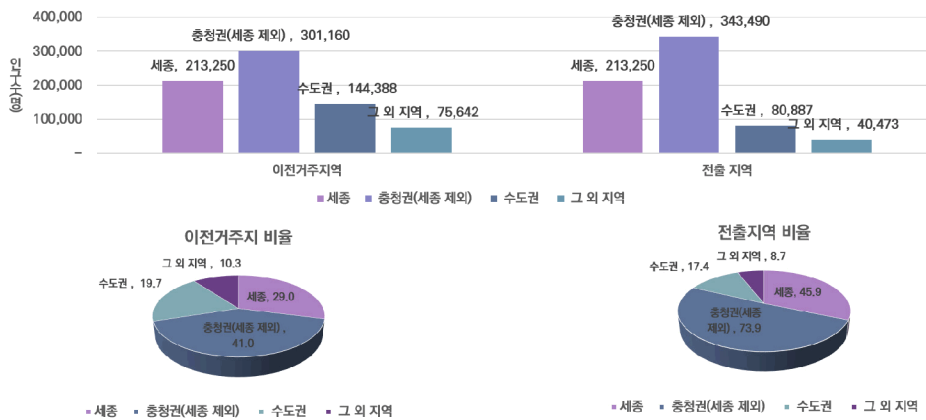
□ 세종시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 전출자의 전출지역 특성

- (시사점) 2013~2022년까지 누적 합계 기준, 세종시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와 전출자의 전출지역 특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세종시 내 이동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세종시 내 인구 재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함. 실제, 동 지역 내에서 일어난 신규 주택 입주와 그에 따른 행정구역 분동 결과는 이러한 인구 재배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음
- 다른 지역 중에는 다소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충청(대전, 충남, 충북) 지역과 경기, 서울이 가장 왕래가 많은 지역으로 분석됨
- 다만, 수도권인 경기와 서울로의 전입과 전출 정도가 충청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이동 정도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 따라서 수도권에서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표 3-22] 세종시 전입자의 이전거주지와 전출자의 전출지역 누계 현황

(단위: 명, %)

이전 거주지	누적합계 비율		전출지역	누적합계(2013~2022)	
세종	213,250	29.0	세종	213,250	45.9
대전	176,687	24.1	대전	57,673	12.4
경기	73,256	10.0	충남	40,077	8.6
충남	65,785	9.0	경기	39,869	8.6
서울	59,434	8.1	서울	34,373	7.4
충북	58,688	8.0	충북	32,490	7.0
전북	13,549	1.8	전북	6,859	1.5
인천	11,698	1.6	인천	6,645	1.4
경북	9,754	1.3	경북	5,310	1.1
경남	9,155	1.2	경남	4,792	1.0
부산	8,402	1.1	강원	4,686	1.0
대구	7,660	1.0	부산	4,470	1.0
광주	7,410	1.0	전남	3,905	0.8
강원	7,215	1.0	대구	3,554	0.8
전남	6,942	0.9	광주	3,285	0.7
울산	2,944	0.4	제주	2,170	0.5
제주	2,611	0.4	울산	1,442	0.3
합계	734,440	100	합계	464,850	10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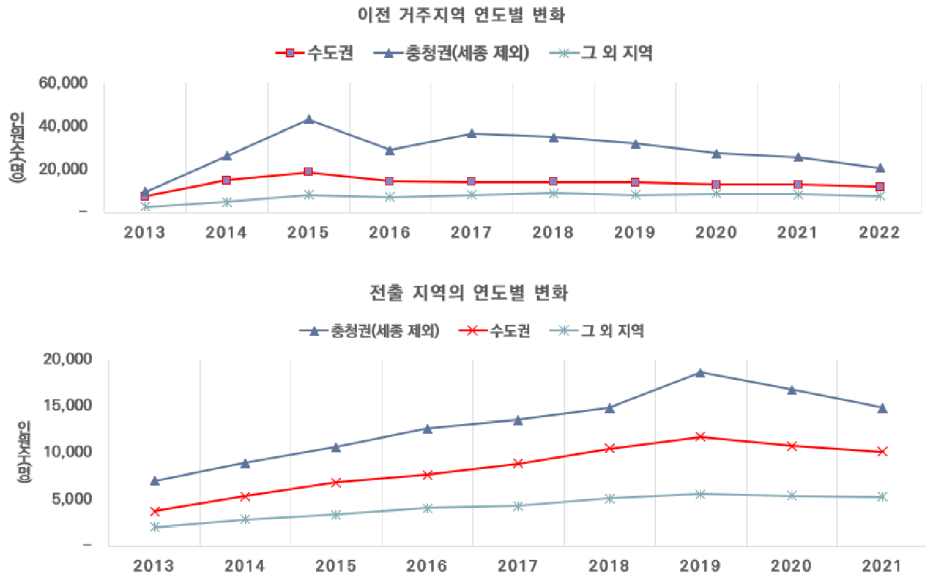
○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역 누계 특성)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734,440명이 세종시로 전입해왔음. 주요 이전 거주지역으로 보면, 세종, 대전, 경기, 충남과 충북, 서울 순이라고 할 수 있음

- 세종: 전체 유입 인구의 29.0%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그룹은 세종시 내부에서 이동한 사람들임
- 대전: 두 번째로 큰 기여 지역은 대전으로, 전체의 24.1%를 차지함
- 경기: 10.0%로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충남과 충북: 각각 9.0%와 8.0%를 차지함
- 서울: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동한 사람들은 8.1%를 차지함

○ (전출자의 전출 지역 누계 특성)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464,850명임. 주요 전출 지역으로 보면, 세종, 대전, 충남과 경기, 서울, 충북 순이라고 할 수 있음

- 세종: 전출 인구의 가장 큰 비율인 45.9%가 세종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됨
- 대전: 전출 인구의 12.4%가 대전으로 이동함
- 충남과 경기: 각각 8.6%의 비율을 차지함
- 서울: 서울로의 전출 비율은 7.4%로 나타남
- 충북: 7.0%의 전출 비율을 기록함

□ 세종시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와 전출자의 전출지역의 연도별 변화



[그림 3-1] 세종시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와 전출자의 전출지역의 연도별 변화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표 3-23] 연도별 세종시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와 전출자의 전출지역

(단위: 명)

연도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역				전출자의 전출지역			
	세종	충청권 (세종 제외)	수도권	그 외 지역	수도권	충청권 (세종 제외)	세종	그 외 지역
2012	4,704	6,411	2,767	1,409	8,985	16,218	4,704	2,877
2013	4,105	6,430	3,009	1,565	7,417	9,721	4,105	2,562
2014	10,455	6,956	3,659	2,000	15,012	26,136	10,455	4,923
2015	13,990	8,897	5,264	2,799	18,718	43,233	13,990	8,053
2016	14,546	10,583	6,785	3,322	14,470	28,987	14,546	7,049
2017	23,245	12,567	7,582	3,989	14,084	36,564	23,245	8,180
2018	28,450	13,505	8,817	4,228	14,125	34,856	28,450	9,002
2019	28,381	14,750	10,459	5,084	14,028	31,757	28,381	8,232
2020	30,045	18,612	11,736	5,516	12,793	27,434	30,045	8,662
2021	30,037	16,730	10,715	5,345	12,890	25,628	30,037	8,357
2022	25,292	14,799	10,094	5,216	11,866	20,626	25,292	7,745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역) 세종시로의 전입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세종 내부와 충청권에서의 전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서도 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1-2년간 수도권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역) 각각의 지역별 연도별 변화
 - 세종시 내 전입: 2012년에 4,704명에서 시작하여 2022년에는 25,292명으로 전입 인구가 크게 증가함. 특히,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2.5배 증가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으며, 이후로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왔음
 - 충청권(세종 제외) 전입: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에서의 전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2년 6,411명에서 2022년 14,799명으로 증가함
 - 수도권 전입: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는 2012년 2,767명에서 시작해 2020년 11,736명으로 증가한 후, 2021년과 2022년에는 다소 감소함
 - 그 외 지역 전입: 그 외 지역에서의 전입은 2012년 1,409명에서 시작해 2022년 5,216명으로 꾸준히 증가함
- (전출자의 전출지역) 전체적으로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수도권으로의 전출은 2015년을 정점으로 이후 안정된 수치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충청권으로의 전출은 2015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음
 - 세종 내부로의 전출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세종시 내에서의 인구 순환과 지역적 재배치가 활발함을 시사함
- (전출자의 전출지역) 각각의 지역별 연도별 변화
 - 수도권으로의 전출: 2012년에 8,985명으로 시작해 2015년에는 18,718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16년에는 감소한 14,470명을 기록한 후,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비슷한 수준(약 14,000명대)을 유지 중임.
2020년 이후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11,866명으로 줄어들
- 충청권(세종 제외)으로의 전출: 2012년 16,218명에서 시작해 2015년에 급증한 43,233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20,626명으로 줄어들
 - 세종 내부로의 전출: 세종 내부로의 전출은 2012년 4,704명에서 시작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30,045명으로 최고점에 도달함. 이후 2022년에는 25,292명으로 소폭 감소함
 - 그 외 지역으로의 전출: 그 외 지역으로의 전출은 2012년 2,877명에서 시작하여 2018년 9,002명으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임. 2020년 이후에는 소폭 감소하여 2022년에는 7,745명으로 기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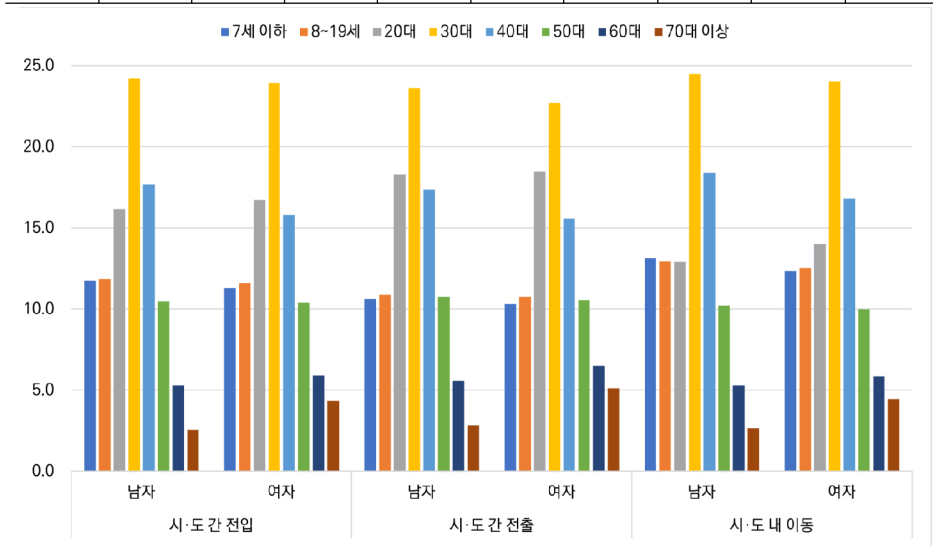
□ 세종시 2013~2022년 성별/연령별 인구이동 현황

- 최근 10년간(2013~2022년) 30대가 시·도 간 전입(24.1%), 전출(23.2%)이 가장 많았고, 시·도 내 이동에서도 비중이 가장 컸음(24.3%)
 - 7세 이하의 인구는 시·도 간 전입 11.5%, 전출 10.5% 였으며, 시·도 내 이동은 12.7% 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다소 많은 시·도간 전입 및 전출, 시·도 내 이동을 나타냄
 - 8~19세 학령기 인구는 시·도 간 전입 11.7%, 전출 10.8%였으며, 시·도 내 이동은 12.7% 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다소 많은 시·도 간 전입 및 전출, 시·도 내 이동을 나타냄
 - 20대는 시·도 간 전입 16.5%, 전출 18.4% 였으며, 시·도 내 이동은 13.5% 였음.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다소 많은 시·도 간 전입 및 전출, 시·도 내 이동을 나타냄
 - 30대는 시·도 간 전입 24.1%, 전출 22.7% 였으며, 시·도 내 이동은 24.3% 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다소 많은 시·도 간 전입 및 전출, 시·도 내 이동을 나타냄
 - 40대는 시·도 간 전입 16.7%, 전출 16.5% 였으며, 시·도 내 이동은 17.6% 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다소 많은 시·도 간 전입 및 전출, 시·도 내 이동을 나타냄
 - 50대는 시·도 간 전입 10.4%, 전출 10.7% 였으며, 시·도 내 이동은 10.1% 였음.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다소 많은 시·도 간 전입 및 전출, 시·도 내 이동을 나타냄
 - 60대는 시·도간 전입 5.6%, 전출 6.0% 였으며, 시·도 내 이동은 5.6% 였음.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다소 많은 시·도 간 전입 및 전출, 시·도 내 이동을 나타냄
 - 70대 이상은 시·도 간 전입 3.4%, 전출 5.1% 였으며, 시·도 내 이동은 3.6% 였음.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다소 많은 시·도 간 전입 및 전출, 시·도 내 이동을 나타냄

[표 3-24] 세종시의 성별/연령별 인구이동 현황

(단위: 명, %)

구분	시·도 간 전입			시·도 간 전출			시·도 내 이동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7세 이하	43,222	41,476	84,698	24,818	23,898	48,716	13,763	13,387	27,150
8~19세	43,535	42,587	86,122	25,407	24,878	50,285	13,538	13,568	27,106
20대	59,399	61,433	120,832	42,691	42,762	85,453	13,521	15,191	28,712
30대	88,923	87,877	176,800	55,193	52,491	107,684	25,664	26,085	51,749
40대	64,833	58,114	122,947	40,575	36,033	76,608	19,258	18,230	37,488
50대	38,463	38,145	76,608	25,139	24,413	49,552	10,702	10,825	21,527
60대	19,453	21,745	41,198	13,049	15,014	28,063	5,538	6,367	11,905
70대 이상	9,301	15,934	25,235	6,636	11,853	18,489	2,794	4,819	7,613
합계	367,129	367,311	734,440	233,508	231,342	464,850	104,778	108,472	213,250
비율(%)									
7세 이하	11.8	11.3	11.5	10.6	10.3	10.5	13.1	12.3	12.7
8~19세	11.9	11.6	11.7	10.9	10.8	10.8	12.9	12.5	12.7
20대	16.2	16.7	16.5	18.3	18.5	18.4	12.9	14.0	13.5
30대	24.2	23.9	24.1	23.6	22.7	23.2	24.5	24.0	24.3
40대	17.7	15.8	16.7	17.4	15.6	16.5	18.4	16.8	17.6
50대	10.5	10.4	10.4	10.8	10.6	10.7	10.2	10.0	10.1
60대	5.3	5.9	5.6	5.6	6.5	6.0	5.3	5.9	5.6
70대 이상	2.5	4.3	3.4	2.8	5.1	4.0	2.7	4.4	3.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세종시 읍 지역 인구이동 현황

□ 세종시 읍 지역 기준, 순이동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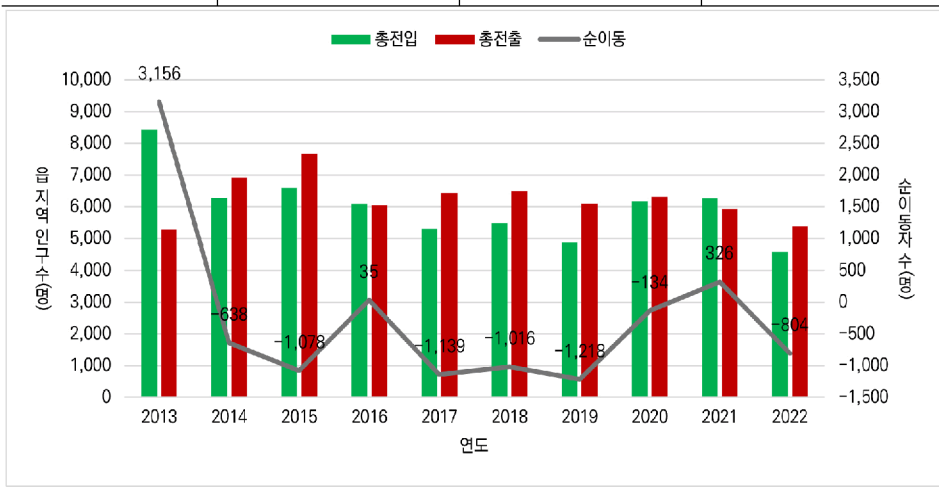
○ 세종시 읍 지역의 경우, 출범 초인 2013년(순이동 3,156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출이 전입보다 큰 순유출(전출 초과) 상태임

- 2016년, 2021년은 순유입(전입 > 전출) 상태였으나, 순이동자 수는 각각 35명, 326명으로 매우 소수임

[표 3-25] 세종시 읍 지역 순이동의 변화

(단위: 명)

구 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2013	8,435	5,279	3,156
2014	6,286	6,924	-638
2015	6,599	7,677	-1,078
2016	6,089	6,054	35
2017	5,290	6,429	-1,139
2018	5,483	6,499	-1,016
2019	4,876	6,094	-1,218
2020	6,177	6,311	-134
2021	6,260	5,934	326
2022	4,586	5,390	-804
합계	60,081	62,591	-2,51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세종시 읍 지역 기준, 10년간 순전입⁶⁾/순전출⁷⁾자의 사유 분석

○ (순전입자의 전입 사유 특징) 세종시 읍 지역 순전입자의 최근 10년간 전입 사유를 누적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입의 경우 '직업(38.7%)', '가족(24.4%)', '주택(18.3%)' 순이었음
- 전입의 경우 '교육'이라는 응답이 11.0%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다소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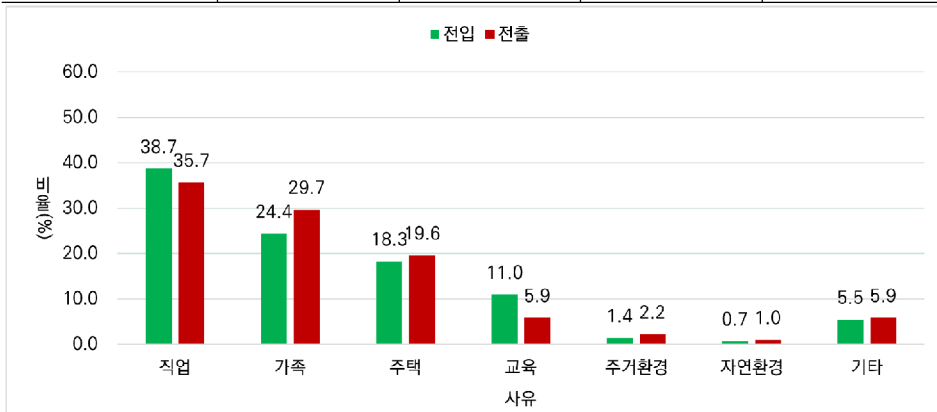
○ (순전출자의 전입 사유 특징) 세종시 읍 지역 순전출자의 최근 10년간 전출 사유를 누적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출사유도 '직업(35.7%)', '가족(29.7%)', '주택(19.6%)' 순이었음

[표 3-26] 최근 10년간 읍 지역 순전입/순전출자의 사유

(단위: 명, %)

구 분	순전입		순전출	
	명	비율	명	비율
직업	18,142	38.7	13,758	35.7
가족	11,431	24.4	11,445	29.7
주택	8,574	18.3	7,548	19.6
교육	5,155	11.0	2,274	5.9
주거환경	675	1.4	844	2.2
자연환경	379	0.7	381	1.0
기타	2,560	5.5	2,259	5.9
합계	46,916	100.0	38,509	10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6) 순전입 : 특정기간 동안 어떤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전입자) 수에서 그 지역을 떠난 사람의 수를 차감한 값

7) 순전출 : 순전입과 반대로 전출자 수에서 그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의 수를 차감한 값

□ 읍 지역 순전입/순전출 사유의 연도별 변화

- 읍 지역의 순전입 사유로 가장 많이 늘어난 사유는 ‘교육’이었음(4.8% ⇒ 21.3%)
 - 2013년 기준으로 순전입 사유 비율은 ‘직업(42.9%)’, ‘주택(26.6%)’, ‘가족(20.4%)’ 순이었음
 - 2022년 기준으로 순전입 사유 비율은 ‘직업(34.9%)’, ‘교육(21.3%)’, ‘가족(18.7%)’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12.5%)’라는 응답이 ‘주택(10.2%)’ 보다도 높았음

[표 3-27] 세종시 읍 지역 순전입 사유의 연도별 변화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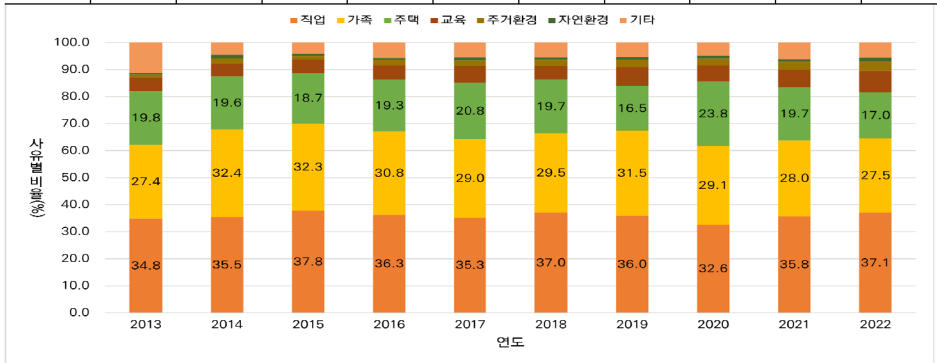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읍 지역의 순전출 사유는 최근 10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2013년 기준으로 순전출 사유 비율은 '직업(34.8%)', '가족(27.4%)', '주택(19.8%)' 순이었음
 - 2022년 기준으로 순전출 사유 비율은 '직업(37.1%)', '가족(27.5%)', '주택(17.0%)' 순으로 나타나 10년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증가 추세를 보이는 순전출 사유는 '교육', '주거환경' 이었으며, 감소 추세를 보이는 사유는 '기타'로 나타남

[표 3-28] 세종시 읍 지역 순전출 사유의 연도별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구수(명)										
직업	1,398	1,392	1,397	1,347	1,335	1,317	1,340	1,456	1,437	1,339
가족	1,099	1,273	1,193	1,141	1,099	1,047	1,173	1,301	1,125	994
주택	794	769	693	715	789	701	616	1,063	792	616
교육	207	194	183	195	234	184	259	269	260	289
주거환경	38	65	45	77	81	78	108	113	119	120
자연환경	27	52	31	25	41	32	33	46	39	55
기타	449	179	155	210	208	196	198	218	245	201
합계	4,012	3,924	3,697	3,710	3,787	3,555	3,727	4,466	4,017	3,614
비율(%)										
직업	34.8	35.5	37.8	36.3	35.3	37.0	36.0	32.6	35.8	37.1
가족	27.4	32.4	32.3	30.8	29.0	29.5	31.5	29.1	28.0	27.5
주택	19.8	19.6	18.7	19.3	20.8	19.7	16.5	23.8	19.7	17.0
교육	5.2	4.9	4.9	5.3	6.2	5.2	6.9	6.0	6.5	8.0
주거환경	0.9	1.7	1.2	2.1	2.1	2.2	2.9	2.5	3.0	3.3
자연환경	0.7	1.3	0.8	0.7	1.1	0.9	0.9	1.0	1.0	1.5
기타	11.2	4.6	4.2	5.7	5.5	5.5	5.3	4.9	6.1	5.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읍 지역 시·도 내 이동 변화 추이

- 읍 지역의 시·도 내 이동 비율은 최근 10년간 전체 세종시의 시·도 내 이동 중 25% 정도임
- 2013년의 경우 세종시 전체 시·도 내 이동 중 읍 지역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3%였으나, 2022년 들어 17.4%로 낮아짐

[표 3-29] 세종시 읍 지역 시·도 내 이동 현황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읍 지역	전체 대비(%)
2013	9,134	6,150	67.3
2014	10,491	4,593	43.8
2015	15,248	4,674	30.7
2016	15,110	4,635	30.7
2017	17,488	4,561	26.1
2018	16,859	3,997	23.7
2019	19,950	3,743	18.8
2020	24,189	4,310	17.8
2021	18,724	3,518	18.8
2022	16,104	2,802	17.4
합계/평균	163,297	42,983	25.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읍 지역 시·도 간 이동 변화 추이

- 읍 지역의 시·도 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전체 세종시의 시·도 간 이동 중 11.6% 정도로 나타나, 관내 이동에 비해서는 적은 비율을 나타냄
- 2013년은 세종시 전체 시·도 간 이동 중 36.7%의 비중을 보이다가 2022년 들어 10.2%로 낮아짐

[표 3-30] 세종시 읍 지역 시·도 간 이동 현황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읍 지역	전체 대비(%)
2013	30,704	11,282	36.7
2014	58,686	9,205	15.7
2015	86,964	9,174	10.5
2016	71,196	8,393	11.8
2017	82,966	7,829	9.4
2018	84,533	7,856	9.3
2019	84,310	7,397	8.8
2020	84,753	8,689	10.3
2021	79,665	8,459	10.6
2022	70,346	7,141	10.2
합계/평균	734,123	85,425	11.6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읍 지역 전입 인구의 이전 거주지 현황

- 수도권으로부터 전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 세종 순으로 나타남
 - 10년 평균적으로 세종시 읍 지역에 전입한 인구의 2.3%(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 대비)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서 이전 하였음
 - 다음으로 충청남도과 충청북도를 합쳐서 2.1%, 세종시 내부에서 전입한 비율이 1.9% 정도였음

[표 3-31]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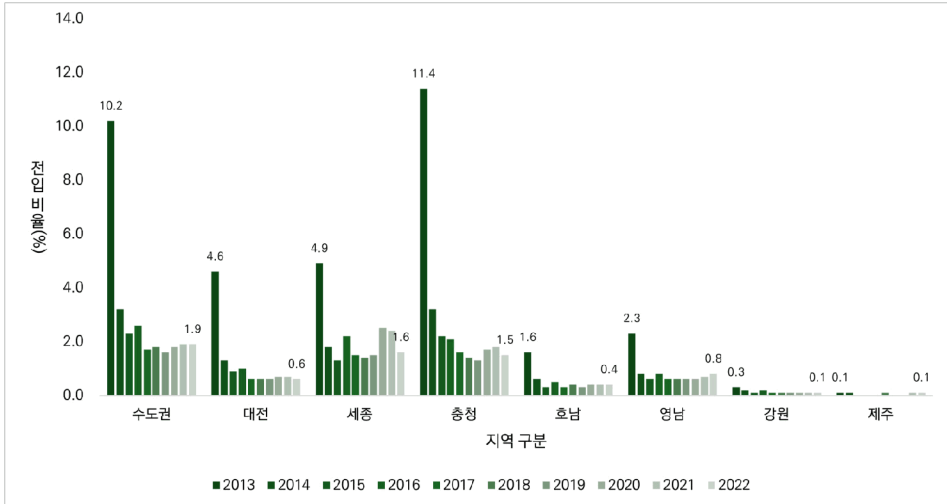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읍지역 전체	수도권	대전	세종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인구수(명)										
2013	23,805	8,435	2,419	1,099	1,165	2,705	391	550	83	23
2014	56,526	6,286	1,816	741	1,005	1,801	323	462	108	30
2015	83,994	6,599	1,969	733	1,122	1,881	265	498	106	25
2016	65,052	6,089	1,679	632	1,406	1,392	310	526	118	26
2017	82,073	5,290	1,397	507	1,248	1,273	252	490	105	18
2018	86,433	5,483	1,564	555	1,182	1,194	337	488	115	48
2019	82,398	4,876	1,297	459	1,206	1,079	270	465	78	22
2020	78,934	6,177	1,428	573	1,954	1,335	301	475	90	21
2021	76,912	6,260	1,433	570	1,818	1,394	330	573	103	39
2022	65,529	4,586	1,256	368	1,059	976	283	541	70	33
합계	701,656	60,081	16,258	6,237	13,165	15,030	3,062	5,068	976	285
비율(%)										
2013	100.0	35.4	10.2	4.6	4.9	11.4	1.6	2.3	0.3	0.1
2014	100.0	11.1	3.2	1.3	1.8	3.2	0.6	0.8	0.2	0.1
2015	100.0	7.9	2.3	0.9	1.3	2.2	0.3	0.6	0.1	0.0
2016	100.0	9.4	2.6	1.0	2.2	2.1	0.5	0.8	0.2	0.0
2017	100.0	6.4	1.7	0.6	1.5	1.6	0.3	0.6	0.1	0.0
2018	100.0	6.3	1.8	0.6	1.4	1.4	0.4	0.6	0.1	0.1
2019	100.0	5.9	1.6	0.6	1.5	1.3	0.3	0.6	0.1	0.0
2020	100.0	7.8	1.8	0.7	2.5	1.7	0.4	0.6	0.1	0.0
2021	100.0	8.1	1.9	0.7	2.4	1.8	0.4	0.7	0.1	0.1
2022	100.0	7.0	1.9	0.6	1.6	1.5	0.4	0.8	0.1	0.1
합계	100.0	8.6	2.3	0.9	1.9	2.1	0.4	0.7	0.1	0.0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비율 산식: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 *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그림 3-2]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 현황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읍 지역 전출 인구의 전출 지역 현황

- 읍 지역 전출 인구의 전출 지역은 세종, 충청, 수도권 순으로 나타났음
 - 최근 10년동안 평균적으로 세종시 읍 지역에서 전출한 인구의 5.4%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 대비)가 세종시 내로의 이동한 비율로, 관내 이동이 가장 컸음
 - 다음으로 충청권으로의 전출이 3.2%, 수도권으로의 전출이 2.9% 순으로 나타났음

[표 3-32]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 전출 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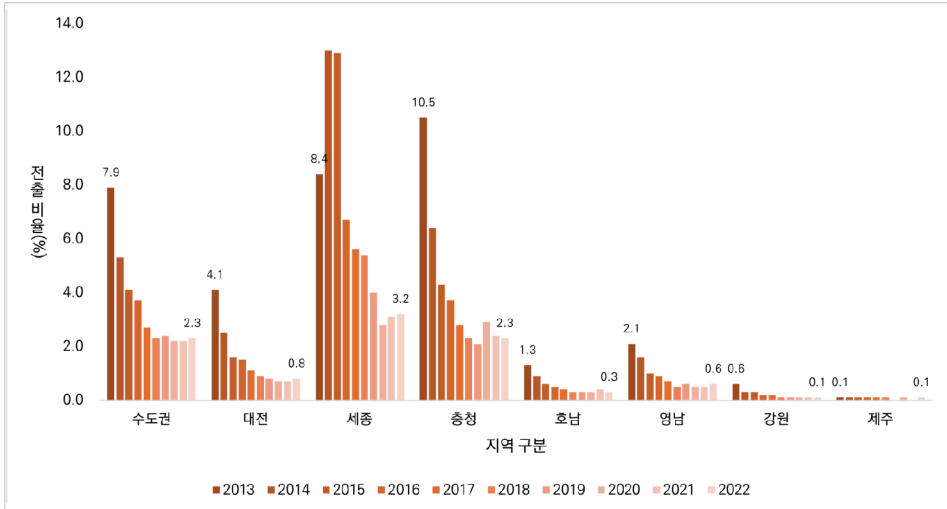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읍지역 전체	수도권	대전	세종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인구수(명)										
2013	15,109	5,279	1,189	625	1,267	1,590	192	316	84	16
2014	23,070	6,924	1,212	572	3,000	1,479	206	364	76	15
2015	30,950	7,677	1,254	480	3,980	1,335	174	306	103	45
2016	35,236	6,054	1,305	516	2,344	1,299	181	308	77	24
2017	47,383	6,429	1,276	516	2,642	1,341	206	312	97	39
2018	55,000	6,499	1,243	480	2,944	1,280	179	267	71	35
2019	58,674	6,094	1,404	462	2,367	1,210	201	350	75	25
2020	65,909	6,311	1,450	457	1,845	1,928	218	306	74	33
2021	62,827	5,934	1,391	463	1,917	1,526	226	322	66	23
2022	55,401	5,390	1,269	443	1,776	1,287	186	338	63	28
합계	449,559	62,591	12,993	5,014	24,082	14,275	1,969	3,189	786	283
비율(%)										
2013	100.0	34.9	7.9	4.1	8.4	10.5	1.3	2.1	0.6	0.1
2014	100.0	30.0	5.3	2.5	13.0	6.4	0.9	1.6	0.3	0.1
2015	100.0	24.8	4.1	1.6	12.9	4.3	0.6	1.0	0.3	0.1
2016	100.0	17.2	3.7	1.5	6.7	3.7	0.5	0.9	0.2	0.1
2017	100.0	13.6	2.7	1.1	5.6	2.8	0.4	0.7	0.2	0.1
2018	100.0	11.8	2.3	0.9	5.4	2.3	0.3	0.5	0.1	0.1
2019	100.0	10.4	2.4	0.8	4.0	2.1	0.3	0.6	0.1	0.0
2020	100.0	9.6	2.2	0.7	2.8	2.9	0.3	0.5	0.1	0.1
2021	100.0	9.4	2.2	0.7	3.1	2.4	0.4	0.5	0.1	0.0
2022	100.0	9.7	2.3	0.8	3.2	2.3	0.3	0.6	0.1	0.1
합계	100.0	13.9	2.9	1.1	5.4	3.2	0.4	0.7	0.2	0.1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비율 산식: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 *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그림 3-3]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 전출 지역 현황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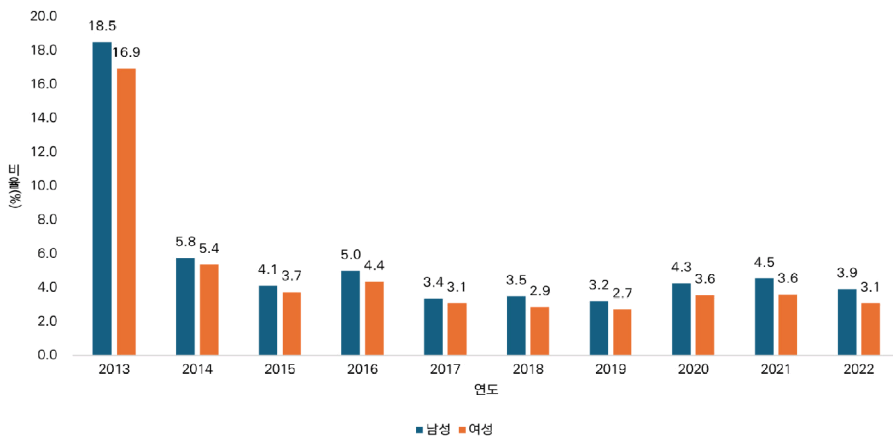
□ 읍 지역 전입 인구의 성별 특성

- 최근 10년간 읍 지역 전입 인구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평균 남성 4.6%, 여성 4.0%로 나타났음
- 세종시 읍 지역의 성별 전입 인구는 매년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3]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성별

(단위: 명,%)

연도	세종시 전체	읍 지역	남성		여성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13	23,805	8,435	4,403	18.5	4,032	16.9
2014	56,526	6,286	3,256	5.8	3,030	5.4
2015	83,994	6,599	3,455	4.1	3,144	3.7
2016	65,052	6,089	3,247	5.0	2,842	4.4
2017	82,073	5,290	2,764	3.4	2,526	3.1
2018	86,433	5,483	3,015	3.5	2,468	2.9
2019	82,398	4,876	2,640	3.2	2,236	2.7
2020	78,934	6,177	3,363	4.3	2,814	3.6
2021	76,912	6,260	3,489	4.5	2,771	3.6
2022	65,529	4,586	2,571	3.9	2,015	3.1
합계/평균	701,656	60,081	32,203	4.6	27,878	4.0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 *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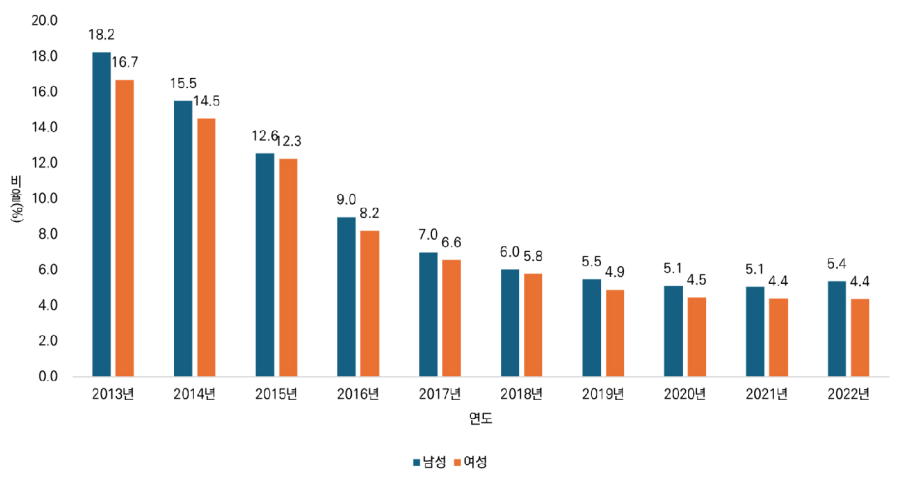
□ 읍 지역 전출 인구의 성별 특성

- 최근 10년간 읍 지역 전출 인구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평균 남성 7.3%, 여성 6.6%로 나타났음
- 세종시 읍 지역의 성별 전출 인구는 매년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4]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성별

(단위: 명,%)

연도	세종시 전체	읍 지역	남성		여성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13	15,109	5,279	2,756	18.2	2,523	16.7
2014	23,070	6,924	3,577	15.5	3,347	14.5
2015	30,950	7,677	3,885	12.6	3,792	12.3
2016	35,236	6,054	3,161	9.0	2,893	8.2
2017	47,383	6,429	3,321	7.0	3,108	6.6
2018	55,000	6,499	3,318	6.0	3,181	5.8
2019	58,674	6,094	3,220	5.5	2,874	4.9
2020	65,909	6,311	3,369	5.1	2,942	4.5
2021	62,827	5,934	3,179	5.1	2,755	4.4
2022	55,401	5,390	2,972	5.4	2,418	4.4
합계/평균	449,559	62,591	32,758	7.3	29,833	6.6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 *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읍 지역 전입 인구의 연령대별 특성

- 최근 10년간 읍 지역 전입 인구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평균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0대, 40대 순이었음
 - 20대의 경우 평균 2.4%를 보였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1.7%, 1.2% 정도를 나타내었음.
 - 20대가 조치원읍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들의 영향에 따라 거의 매년 2% 대의 안정적인 전입률을 보였다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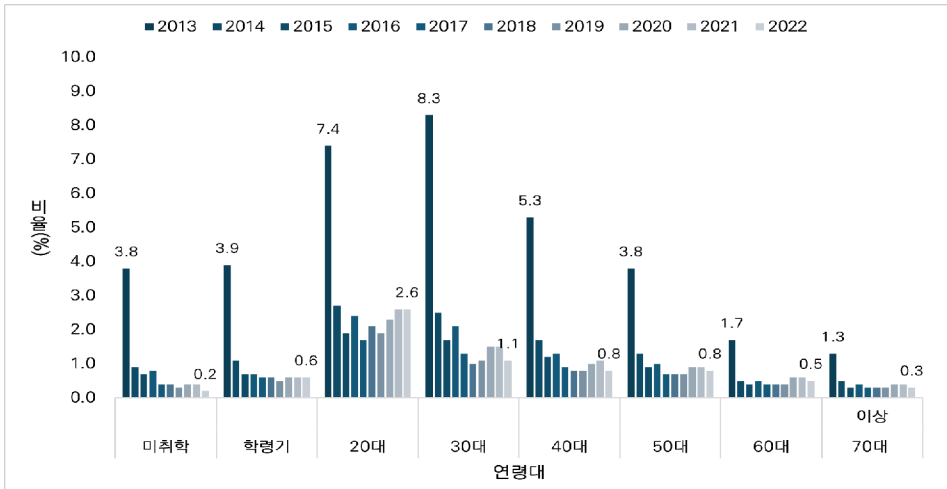
[표 3-35]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읍지역 전체	미취학	학령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구수(명)										
2013	23,805	8,435	906	918	1,756	1,971	1,268	900	404	312
2014	56,526	6,286	501	617	1,522	1,427	953	715	290	261
2015	83,994	6,599	617	616	1,573	1,419	1,010	732	342	290
2016	65,052	6,089	532	484	1,569	1,380	848	683	341	252
2017	82,073	5,290	356	472	1,430	1,067	765	580	338	282
2018	86,433	5,483	323	517	1,811	899	682	642	358	251
2019	82,398	4,876	254	391	1,554	885	663	555	337	237
2020	78,934	6,177	324	472	1,830	1,222	824	710	478	317
2021	76,912	6,260	304	455	1,992	1,160	812	720	482	335
2022	65,529	4,586	160	409	1,699	751	518	522	325	202
합계	701,656	60,081	4,277	5,351	16,736	12,181	8,343	6,759	3,695	2,739
비율(%)										
2013	100.0	35.4	3.8	3.9	7.4	8.3	5.3	3.8	1.7	1.3
2014	100.0	11.1	0.9	1.1	2.7	2.5	1.7	1.3	0.5	0.5
2015	100.0	7.9	0.7	0.7	1.9	1.7	1.2	0.9	0.4	0.3
2016	100.0	9.4	0.8	0.7	2.4	2.1	1.3	1.0	0.5	0.4
2017	100.0	6.4	0.4	0.6	1.7	1.3	0.9	0.7	0.4	0.3
2018	100.0	6.3	0.4	0.6	2.1	1.0	0.8	0.7	0.4	0.3
2019	100.0	5.9	0.3	0.5	1.9	1.1	0.8	0.7	0.4	0.3
2020	100.0	7.8	0.4	0.6	2.3	1.5	1.0	0.9	0.6	0.4
2021	100.0	8.1	0.4	0.6	2.6	1.5	1.1	0.9	0.6	0.4
2022	100.0	7.0	0.2	0.6	2.6	1.1	0.8	0.8	0.5	0.3
합계	100.0	8.6	0.6	0.8	2.4	1.7	1.2	1.0	0.5	0.4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 *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그림 3-4] 세종시 읍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읍 지역 전출 인구의 연령대별 특성

- 최근 10년간 읍 지역 전출 인구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평균 20대와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0대 순이었음
 - 20대의 전출 비율은 평균적으로 3.6%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대의 비율이 3.0%를 보였음. 40대의 경우 2.0% 정도 었음
 - 30대와 40대의 전출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20대의 경우 2020년부터 약간 상승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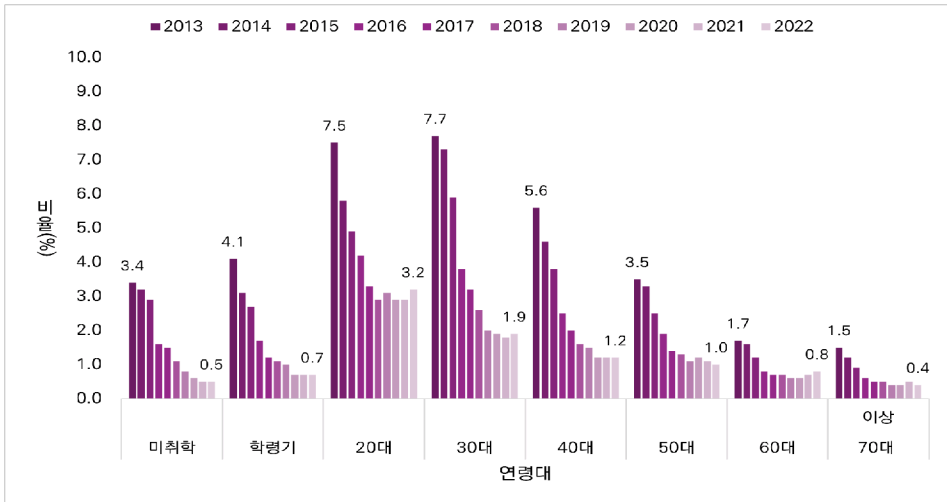
[표 3-36]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읍지역 전체	미취학	학령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구수(명)										
2013	15,109	5,279	514	622	1,129	1,160	842	529	252	231
2014	23,070	6,924	739	710	1,347	1,675	1,057	752	377	267
2015	30,950	7,677	903	850	1,528	1,829	1,164	769	362	272
2016	35,236	6,054	571	590	1,490	1,341	885	654	296	227
2017	47,383	6,429	689	569	1,545	1,498	932	641	324	231
2018	55,000	6,499	611	596	1,600	1,418	903	721	382	268
2019	58,674	6,094	451	570	1,846	1,156	874	625	352	220
2020	65,909	6,311	402	464	1,912	1,237	818	796	419	263
2021	62,827	5,934	340	420	1,838	1,125	770	694	455	292
2022	55,401	5,390	281	368	1,756	1,079	665	579	419	243
합계	449,559	62,591	5,501	5,759	15,991	13,518	8,910	6,760	3,638	2,514
비율(%)										
2013	100.0	34.9	3.4	4.1	7.5	7.7	5.6	3.5	1.7	1.5
2014	100.0	30.0	3.2	3.1	5.8	7.3	4.6	3.3	1.6	1.2
2015	100.0	24.8	2.9	2.7	4.9	5.9	3.8	2.5	1.2	0.9
2016	100.0	17.2	1.6	1.7	4.2	3.8	2.5	1.9	0.8	0.6
2017	100.0	13.6	1.5	1.2	3.3	3.2	2.0	1.4	0.7	0.5
2018	100.0	11.8	1.1	1.1	2.9	2.6	1.6	1.3	0.7	0.5
2019	100.0	10.4	0.8	1.0	3.1	2.0	1.5	1.1	0.6	0.4
2020	100.0	9.6	0.6	0.7	2.9	1.9	1.2	1.2	0.6	0.4
2021	100.0	9.4	0.5	0.7	2.9	1.8	1.2	1.1	0.7	0.5
2022	100.0	9.7	0.5	0.7	3.2	1.9	1.2	1.0	0.8	0.4
합계	100.0	13.9	1.2	1.3	3.6	3.0	2.0	1.5	0.8	0.6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 *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그림 3-5] 세종시 읍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3. 세종시 면 지역 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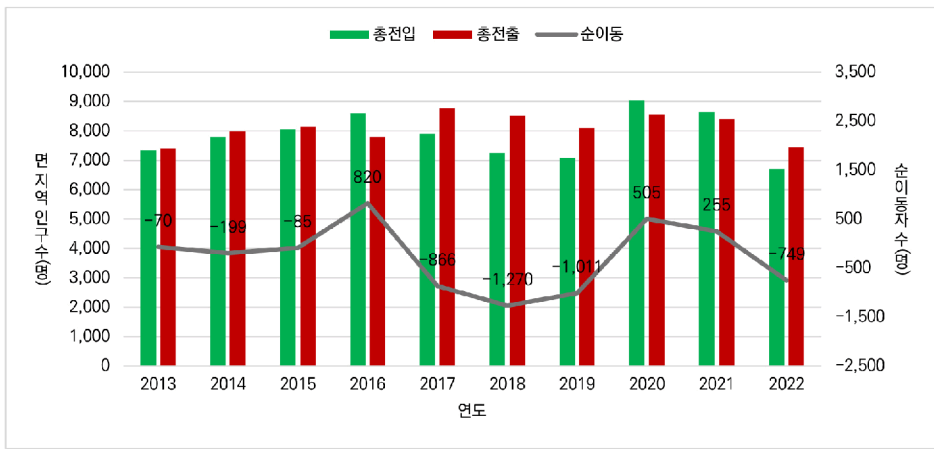
□ 세종시 면 지역의 순이동 변화

○ 세종시 면 지역의 경우, 최근 10년간 대부분의 연도에서 순유출(전출 초과)을 보였음. 2016년과 2020~2021년에만 전입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7] 세종시 면 지역 전입 / 전출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2013	7,340	7,410	-70
2014	7,781	7,980	-199
2015	8,057	8,142	-85
2016	8,602	7,782	820
2017	7,900	8,766	-866
2018	7,255	8,525	-1,270
2019	7,089	8,100	-1,011
2020	9,054	8,549	505
2021	8,652	8,397	255
2022	6,703	7,452	-749
합계	78,433	81,103	-2,67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세종시 면 지역 기준, 10년간 순전입/순전출자의 사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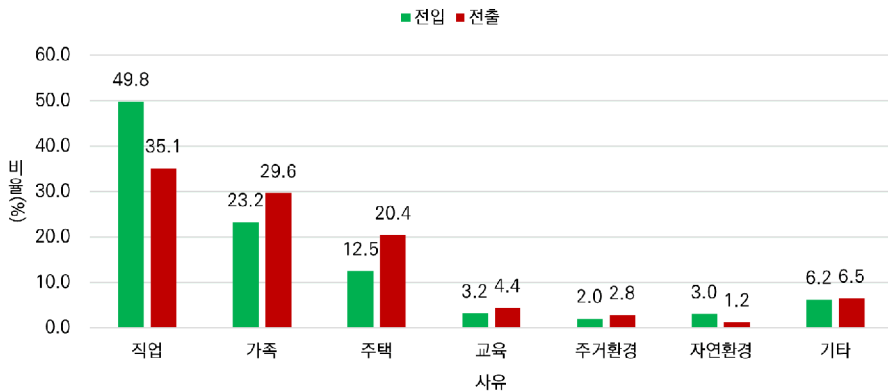
○ 면 지역 인구의 전입 및 전출 사유로 '직업'이 가장 높았음

- 전입의 경우 '직업(49.8%)', '가족(23.2%)', '주택(12.5%)' 순이었음
- 전출 역시 '직업(35.1%)', '가족(29.6%)', '주택(20.4%)' 순이었음
- 한편 '기타'의 사유가 전입과 전출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사유 파악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

[표 3-38] 최근 10년간 면 지역 10년간 순전입/순전출자의 사유 분석

(단위: 명, %)

구분	순전입		순전출	
	명	비율	명	비율
직업	27,996	49.8	17,101	35.1
가족	13,031	23.2	14,412	29.6
주택	7,048	12.5	9,936	20.4
교육	1,811	3.2	2,142	4.4
주거환경	1,116	2.0	1,362	2.8
자연환경	1,673	3.0	592	1.2
기타	3,504	6.2	3,149	6.5
합계	56,179	100.0	48,694	10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면 지역 순전입/순전출 사유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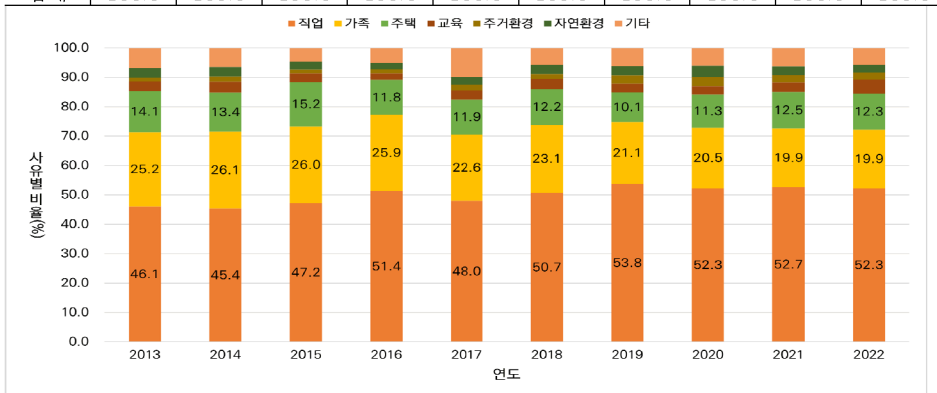
○ 면 지역 인구의 순전입 사유로 '직업'이 가장 많이 늘어났음

- 2013년 기준으로 순전입 사유의 비율은 '직업(46.1%)', '가족(25.2%)', '주택(14.1%)' 순이었음
- 2022년 기준으로는 '직업(52.3%)', '가족(19.9%)', '주택(1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사유는 2013년 대비 6.2%p 증가한 것임

[표 3-39] 세종시 면 지역 순전입 사유의 연도별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구수(명)										
직업	2,689	2,790	2,962	3,161	2,708	2,599	2,641	3,030	2,978	2,438
가족	1,471	1,601	1,632	1,594	1,274	1,184	1,034	1,189	1,123	929
주택	820	821	954	727	671	624	495	656	706	574
교육	193	229	181	138	178	177	145	164	182	224
주거환경	68	106	82	91	108	84	138	186	140	113
자연환경	198	197	169	131	151	163	158	218	167	121
기타	393	398	290	311	553	291	301	348	355	264
합계	5,832	6,142	6,270	6,153	5,643	5,122	4,912	5,791	5,651	4,663
비율(%)										
직업	46.1	45.4	47.2	51.4	48.0	50.7	53.8	52.3	52.7	52.3
가족	25.2	26.1	26.0	25.9	22.6	23.1	21.1	20.5	19.9	19.9
주택	14.1	13.4	15.2	11.8	11.9	12.2	10.1	11.3	12.5	12.3
교육	3.3	3.7	2.9	2.2	3.2	3.5	3.0	2.8	3.2	4.8
주거환경	1.2	1.7	1.3	1.5	1.9	1.6	2.8	3.2	2.5	2.4
자연환경	3.4	3.2	2.7	2.1	2.7	3.2	3.2	3.8	3.0	2.6
기타	6.7	6.5	4.6	5.1	9.8	5.7	6.1	6.0	6.3	5.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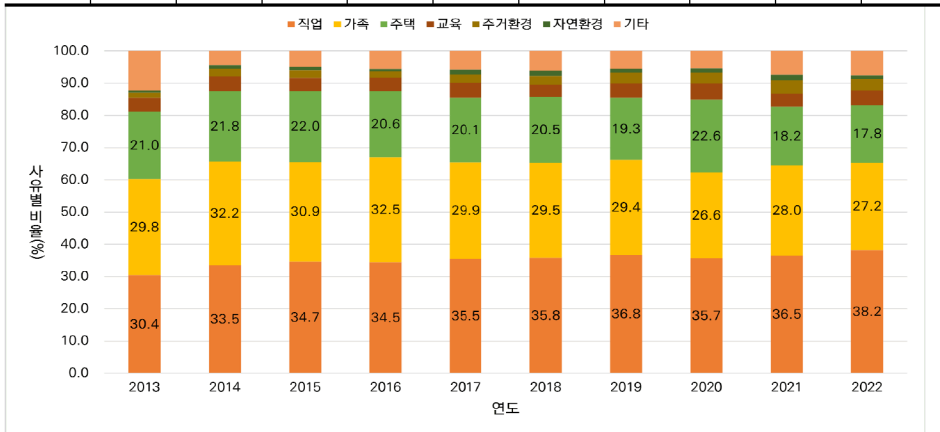
○ 면 지역 인구의 순전출 사유로 ‘직업’이 가장 많이 늘어났음

- 2013년 기준으로 순전출 사유의 비율은 ‘직업(30.4%)’, ‘가족(29.8%)’, ‘주택(21.0%)’ 순이었음
- 2022년 기준으로는 ‘직업(38.2%)’, ‘가족(27.2%)’, ‘주택(17.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사유는 2013년 대비 7.8%p 증가함

[표 3-40] 세종시 면 지역 순전출 사유의 연도별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구수(명)										
직업	1,521	1,640	1,622	1,630	1,850	1,729	1,769	1,825	1,823	1,692
가족	1,489	1,580	1,447	1,537	1,558	1,424	1,416	1,360	1,395	1,206
주택	1,051	1,067	1,031	973	1,045	991	930	1,153	906	789
교육	216	227	187	197	244	179	218	264	208	202
주거환경	77	117	110	91	134	136	160	169	209	159
자연환경	39	54	56	38	75	76	57	66	82	49
기타	608	215	227	261	302	296	263	275	368	334
합계	5,001	4,900	4,680	4,727	5,208	4,831	4,813	5,112	4,991	4,431
비율(%)										
직업	30.4	33.5	34.7	34.5	35.5	35.8	36.8	35.7	36.5	38.2
가족	29.8	32.2	30.9	32.5	29.9	29.5	29.4	26.6	28.0	27.2
주택	21.0	21.8	22.0	20.6	20.1	20.5	19.3	22.6	18.2	17.8
교육	4.3	4.6	4.0	4.2	4.7	3.7	4.5	5.2	4.2	4.6
주거환경	1.5	2.4	2.4	1.9	2.6	2.8	3.3	3.3	4.2	3.6
자연환경	0.8	1.1	1.2	0.8	1.4	1.6	1.2	1.3	1.6	1.1
기타	12.2	4.4	4.9	5.5	5.8	6.1	5.5	5.4	7.4	7.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면 지역 시·도 내 이동 변화 추이**

- 최근 10년간 면 지역의 시·도 내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세종시의 시·도 내 이동 중 11.5% 정도를 차지함
 - 2013년에는 세종시 전체 시·도내 이동 중 24.0%의 비율을 보이다가 2022년 들어 10.1%로 낮아진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추세로 보았을 때는 2020년 이후로 서서히 높아지고 있음

[표 3-41] 세종시 면 지역 시·도 내 이동 현황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면 지역	전체 대비(%)
2013	9,134	2,192	24.0
2014	10,491	2,272	21.7
2015	15,248	2,057	13.5
2016	15,110	2,117	14.0
2017	17,488	2,053	11.7
2018	16,859	1,894	11.2
2019	19,950	1,736	8.7
2020	24,189	1,941	8.0
2021	18,724	1,791	9.6
2022	16,104	1,619	10.1
합계	163,297	19,672	11.5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면 지역 시·도 간 이동 변화 추이**

- 면 지역의 시·도 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전체 세종시의 시·도 간 이동 중 14.3%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도 내 이동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 2013년은 세종시 전체 시·도 간 이동 중 35.3%의 비율을 보이다가 2022년 들어 12.9%로 낮아졌음

[표 3-42] 세종시 면 지역 시·도 간 이동 현황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면 지역	전체 대비(%)
2013	30,704	10,833	35.3
2014	58,686	11,042	18.8
2015	86,964	10,950	12.6
2016	71,196	10,880	15.3
2017	82,966	10,851	13.1
2018	84,533	9,953	11.8
2019	84,310	9,725	11.5
2020	84,753	10,903	12.9
2021	79,665	10,642	13.4
2022	70,346	9,094	12.9
합계	734,123	104,873	14.3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면 지역 전입 인구의 이전 거주지 현황

- 면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를 살펴보면, 세종시 내에서의 전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청도, 수도권 순이었음
- 최근 10년 세종시 면 지역에 전입한 인구의 3.2%(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 대비)가 세종시 내에서의 이전이었음
- 다음으로 충청남도과 충청북도를 합쳐서 2.5%, 수도권이 2.3%를 나타내었음

[표 3-43]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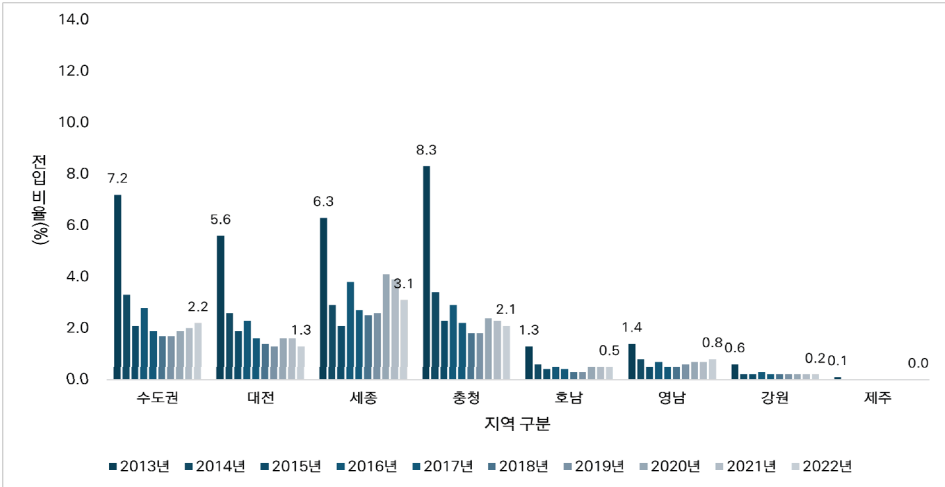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면지역 전체	수도권	대전	세종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인구수(명)										
2013	23,805	7,340	1,725	1,323	1,508	1,983	314	333	137	17
2014	56,526	7,781	1,859	1,454	1,639	1,938	324	424	121	22
2015	83,994	8,057	1,802	1,577	1,787	1,973	342	413	140	23
2016	65,052	8,602	1,827	1,464	2,449	1,859	356	449	170	28
2017	82,073	7,900	1,563	1,327	2,257	1,791	347	433	153	29
2018	86,433	7,255	1,433	1,190	2,133	1,579	296	455	141	28
2019	82,398	7,089	1,410	1,104	2,177	1,487	277	475	125	34
2020	78,934	9,054	1,499	1,301	3,263	1,883	392	556	125	35
2021	76,912	8,652	1,552	1,194	3,001	1,772	384	567	156	26
2022	65,529	6,703	1,466	836	2,040	1,395	335	493	107	31
합계	701,656	78,433	16,136	12,770	22,254	17,660	3,367	4,598	1,375	273
비율(%)										
2013	100.0	30.8	7.2	5.6	6.3	8.3	1.3	1.4	0.6	0.1
2014	100.0	13.8	3.3	2.6	2.9	3.4	0.6	0.8	0.2	0.0
2015	100.0	9.6	2.1	1.9	2.1	2.3	0.4	0.5	0.2	0.0
2016	100.0	13.2	2.8	2.3	3.8	2.9	0.5	0.7	0.3	0.0
2017	100.0	9.6	1.9	1.6	2.7	2.2	0.4	0.5	0.2	0.0
2018	100.0	8.4	1.7	1.4	2.5	1.8	0.3	0.5	0.2	0.0
2019	100.0	8.6	1.7	1.3	2.6	1.8	0.3	0.6	0.2	0.0
2020	100.0	11.5	1.9	1.6	4.1	2.4	0.5	0.7	0.2	0.0
2021	100.0	11.2	2.0	1.6	3.9	2.3	0.5	0.7	0.2	0.0
2022	100.0	10.2	2.2	1.3	3.1	2.1	0.5	0.8	0.2	0.0
합계	100.0	11.2	2.3	1.8	3.2	2.5	0.5	0.7	0.2	0.0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비율 산식: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 *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그림 3-6]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 현황 비율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면 지역 전출 인구의 전출 지역 현황

- 면 지역 전출 인구 전출 지역을 살펴보면 세종, 충청, 수도권 순이었음
 - 최근 10년 세종시 읍 지역에서 전출한 인구의 7.2%(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 대비)가 세종시 내로의 이동한 비율이었음
 - 다음으로 충청으로의 이전이 4.1%, 수도권으로의 이전이 2.9% 순으로 나타났음

[표 3-44]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 전출 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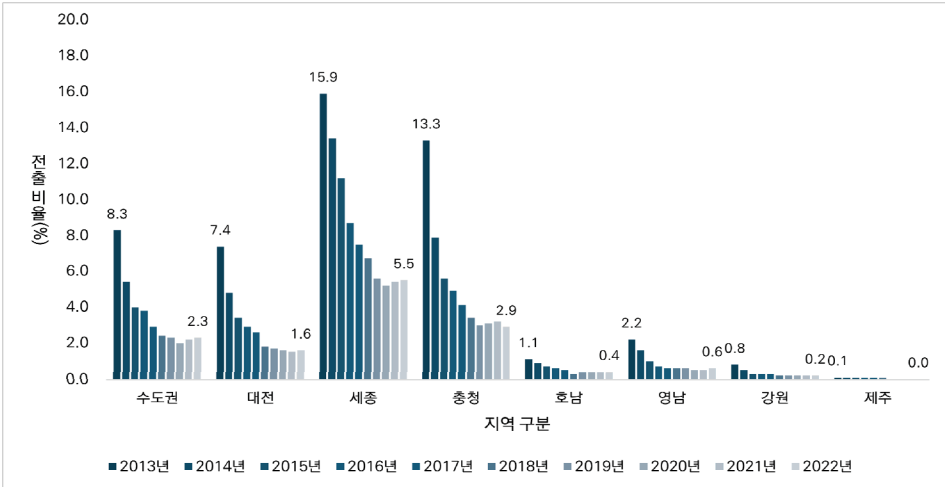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면지역 전체	수도권	대전	세종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인구수(명)										
2013	15,109	7,410	1,258	1,115	2,409	2,005	169	326	116	12
2014	23,070	7,980	1,256	1,114	3,080	1,830	213	361	111	15
2015	30,950	8,142	1,247	1,045	3,462	1,733	210	319	100	26
2016	35,236	7,782	1,356	1,020	3,055	1,741	221	262	91	36
2017	47,383	8,766	1,351	1,215	3,558	1,933	251	300	122	36
2018	55,000	8,525	1,315	968	3,694	1,871	192	327	130	28
2019	58,674	8,100	1,331	1,022	3,287	1,734	216	338	144	28
2020	65,909	8,549	1,351	1,050	3,437	2,025	234	304	117	31
2021	62,827	8,397	1,376	919	3,406	2,001	232	309	125	29
2022	55,401	7,452	1,264	859	3,021	1,627	243	323	88	27
합계	449,559	81,103	13,105	10,327	32,409	18,500	2,181	3,169	1,144	268
비율(%)										
2013	100.0	49.0	8.3	7.4	15.9	13.3	1.1	2.2	0.8	0.1
2014	100.0	34.6	5.4	4.8	13.4	7.9	0.9	1.6	0.5	0.1
2015	100.0	26.3	4.0	3.4	11.2	5.6	0.7	1.0	0.3	0.1
2016	100.0	22.1	3.8	2.9	8.7	4.9	0.6	0.7	0.3	0.1
2017	100.0	18.5	2.9	2.6	7.5	4.1	0.5	0.6	0.3	0.1
2018	100.0	15.5	2.4	1.8	6.7	3.4	0.3	0.6	0.2	0.1
2019	100.0	13.8	2.3	1.7	5.6	3.0	0.4	0.6	0.2	0.0
2020	100.0	13.0	2.0	1.6	5.2	3.1	0.4	0.5	0.2	0.0
2021	100.0	13.4	2.2	1.5	5.4	3.2	0.4	0.5	0.2	0.0
2022	100.0	13.5	2.3	1.6	5.5	2.9	0.4	0.6	0.2	0.0
합계	100.0	18.0	2.9	2.3	7.2	4.1	0.5	0.7	0.3	0.1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비율 산식: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 *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그림 3-7]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 전출 지역 현황 비율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호남(전라, 광주), 영남(경상, 부산, 울산, 대구)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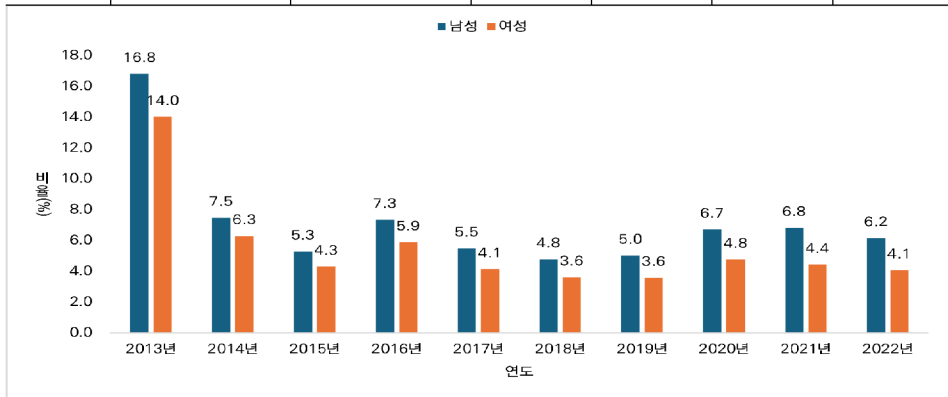
□ 면 지역 전입 인구의 성별 특성

- 면 지역 전입 인구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10년 평균 남성 6.4%, 여성 4.8%로 나타났음
 - 각 연도별로 세종시 면 지역의 성별 전입 인구는 매년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살펴본 읍 지역의 경우 최근 10년 평균 남성과 여성의 전입 비율이 각각 4.6%, 4.0%였는데, 면 지역의 경우 남성의 전입 비율이 읍 지역에 비해서 1.8%p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0.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5]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성별

(단위: 명,%)

연도	세종시 전체	면 지역	남성		여성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13	23,805	7,340	4,003	16.8	3,337	14.0
2014	56,526	7,781	4,226	7.5	3,555	6.3
2015	83,994	8,057	4,442	5.3	3,615	4.3
2016	65,052	8,602	4,777	7.3	3,825	5.9
2017	82,073	7,900	4,507	5.5	3,393	4.1
2018	86,433	7,255	4,131	4.8	3,124	3.6
2019	82,398	7,089	4,135	5.0	2,954	3.6
2020	78,934	9,054	5,298	6.7	3,756	4.8
2021	76,912	8,652	5,245	6.8	3,407	4.4
2022	65,529	6,703	4,035	6.2	2,668	4.1
합계	701,656	78,433	44,799	6.4	33,634	4.8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 *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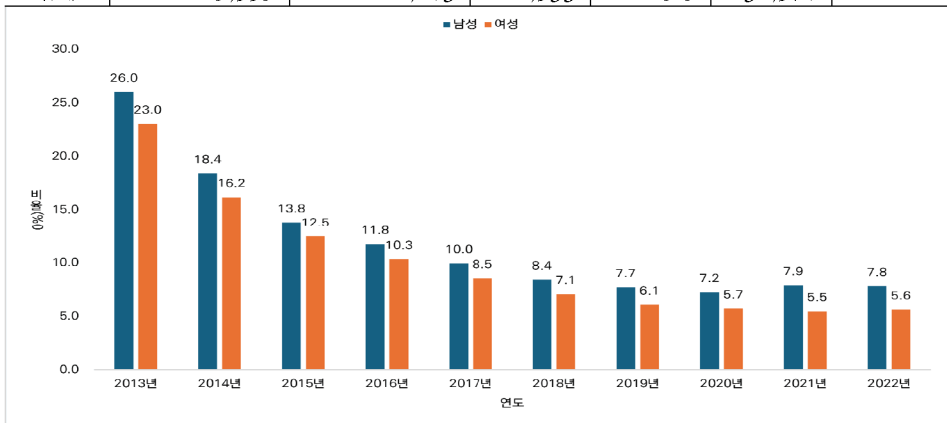
□ 면 지역 전출 인구의 성별 특성

- 면 지역 전출 인구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10년 평균 남성 9.9%, 여성 8.1%로 나타났음
 - 각 연도별로 세종시 읍 지역의 성별 전출 인구는 매년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읍 지역의 경우 최근 10년 평균 남성과 여성의 전출 비율이 각각 7.3%, 6.6%였는데, 이와 비교해보면 세종시 면 지역의 경우 남성의 전출 비율이 읍 지역에 비해서 2.6%p 높았고 여성의 경우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6]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성별

(단위: 명, %)

연도	세종시 전체	면 지역	남성		여성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13	15,109	7,410	3,929	26.0	3,481	23.0
2014	23,070	7,980	4,246	18.4	3,734	16.2
2015	30,950	8,142	4,274	13.8	3,868	12.5
2016	35,236	7,782	4,141	11.8	3,641	10.3
2017	47,383	8,766	4,716	10.0	4,050	8.5
2018	55,000	8,525	4,635	8.4	3,890	7.1
2019	58,674	8,100	4,527	7.7	3,573	6.1
2020	65,909	8,549	4,776	7.2	3,773	5.7
2021	62,827	8,397	4,957	7.9	3,440	5.5
2022	55,401	7,452	4,332	7.8	3,120	5.6
합계	449,559	81,103	44,533	9.9	36,570	8.1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 *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면 지역 전입 인구의 연령대별 특성

- 면 지역 전입 인구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10년 평균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0대, 40대 순이었음
- 20대의 경우 평균 2.5%를 보였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2.2%, 1.8% 정도를 나타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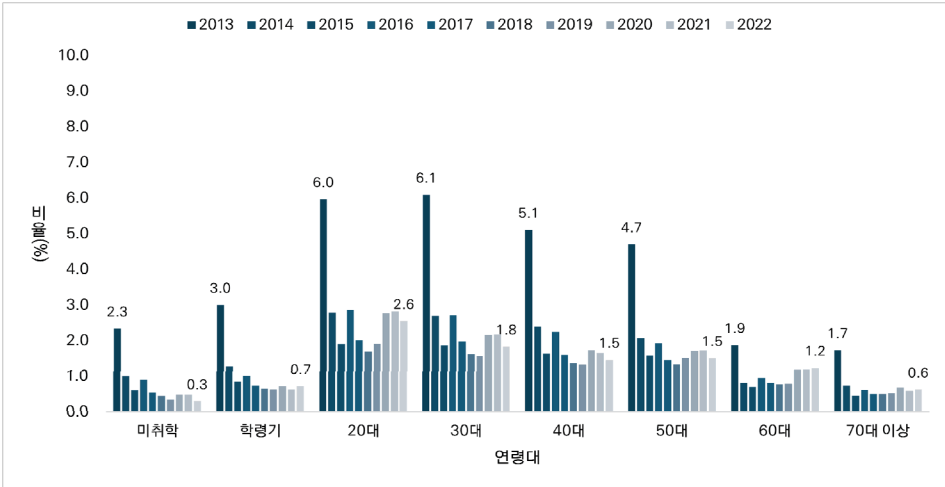
[표 3-47]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면지역 전체	미취학	학령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구수(명)										
2013	23,805	7,340	557	715	1,421	1,451	1,216	1,120	447	413
2014	56,526	7,781	564	721	1,577	1,523	1,359	1,172	455	410
2015	83,994	8,057	505	712	1,604	1,572	1,374	1,325	583	382
2016	65,052	8,602	581	656	1,868	1,767	1,458	1,260	614	398
2017	82,073	7,900	448	598	1,651	1,622	1,312	1,202	661	406
2018	86,433	7,255	380	559	1,471	1,408	1,185	1,161	662	429
2019	82,398	7,089	280	509	1,581	1,292	1,101	1,252	641	433
2020	78,934	9,054	377	571	2,193	1,712	1,374	1,354	938	535
2021	76,912	8,652	372	475	2,163	1,671	1,269	1,328	916	458
2022	65,529	6,703	190	471	1,671	1,202	960	990	812	407
합계	701,656	78,433	4,254	5,987	17,200	15,220	12,608	12,164	6,729	4,271
비율(%)										
2013	100.0	30.8	2.3	3.0	6.0	6.1	5.1	4.7	1.9	1.7
2014	100.0	13.8	1.0	1.3	2.8	2.7	2.4	2.1	0.8	0.7
2015	100.0	9.6	0.6	0.8	1.9	1.9	1.6	1.6	0.7	0.5
2016	100.0	13.2	0.9	1.0	2.9	2.7	2.2	1.9	0.9	0.6
2017	100.0	9.6	0.5	0.7	2.0	2.0	1.6	1.5	0.8	0.5
2018	100.0	8.4	0.4	0.6	1.7	1.6	1.4	1.3	0.8	0.5
2019	100.0	8.6	0.3	0.6	1.9	1.6	1.3	1.5	0.8	0.5
2020	100.0	11.5	0.5	0.7	2.8	2.2	1.7	1.7	1.2	0.7
2021	100.0	11.2	0.5	0.6	2.8	2.2	1.6	1.7	1.2	0.6
2022	100.0	10.2	0.3	0.7	2.6	1.8	1.5	1.5	1.2	0.6
합계	100.0	11.2	0.6	0.9	2.5	2.2	1.8	1.7	1.0	0.6

주: 해당 인구수/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그림 3-8] 세종시 면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면 지역 전출 인구의 연령대별 특성

- 면 지역 전출 인구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10년 평균 20대와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0대 순이었음
- 20대와 30대의 전출 비율은 평균적으로 3.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가 2.8%를 나타내었음
- 면 지역 전체로 보았을 때 평균 18.0%의 전출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읍 지역 전체적으로 13.9%의 전출 비율에 비하여 4.1%p 높은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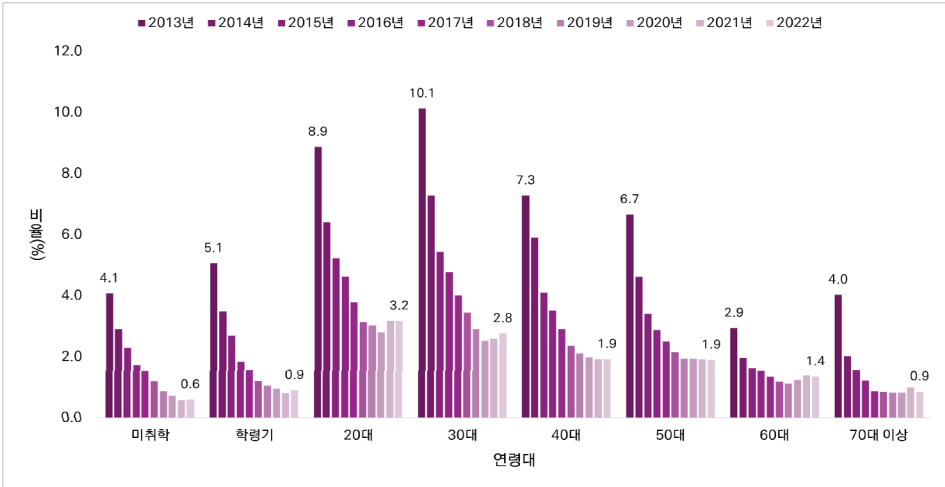
[표 3-48]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면지역 전체	미취학	학령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구수(명)										
2013	15,109	7,410	616	765	1,340	1,530	1,100	1,006	444	609
2014	23,070	7,980	670	804	1,477	1,680	1,363	1,064	455	467
2015	30,950	8,142	709	829	1,616	1,681	1,268	1,054	503	482
2016	35,236	7,782	607	647	1,629	1,683	1,237	1,013	538	428
2017	47,383	8,766	721	742	1,795	1,900	1,378	1,185	633	412
2018	55,000	8,525	656	657	1,726	1,893	1,302	1,180	646	465
2019	58,674	8,100	508	610	1,775	1,708	1,233	1,138	652	476
2020	65,909	8,549	477	624	1,846	1,662	1,314	1,273	814	539
2021	62,827	8,397	358	505	1,998	1,633	1,212	1,205	868	618
2022	55,401	7,452	325	498	1,760	1,531	1,064	1,052	750	472
합계	449,559	81,103	5,647	6,681	16,962	16,901	12,471	11,170	6,303	4,968
비율(%)										
2013	100.0	49.0	4.1	5.1	8.9	10.1	7.3	6.7	2.9	4.0
2014	100.0	34.6	2.9	3.5	6.4	7.3	5.9	4.6	2.0	2.0
2015	100.0	26.3	2.3	2.7	5.2	5.4	4.1	3.4	1.6	1.6
2016	100.0	22.1	1.7	1.8	4.6	4.8	3.5	2.9	1.5	1.2
2017	100.0	18.5	1.5	1.6	3.8	4.0	2.9	2.5	1.3	0.9
2018	100.0	15.5	1.2	1.2	3.1	3.4	2.4	2.1	1.2	0.8
2019	100.0	13.8	0.9	1.0	3.0	2.9	2.1	1.9	1.1	0.8
2020	100.0	13.0	0.7	0.9	2.8	2.5	2.0	1.9	1.2	0.8
2021	100.0	13.4	0.6	0.8	3.2	2.6	1.9	1.9	1.4	1.0
2022	100.0	13.5	0.6	0.9	3.2	2.8	1.9	1.9	1.4	0.9
합계	100.0	18.0	1.3	1.5	3.8	3.8	2.8	2.5	1.4	1.1

주: 해당 인구수/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그림 3-9] 세종시 면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4. 세종시 동 지역 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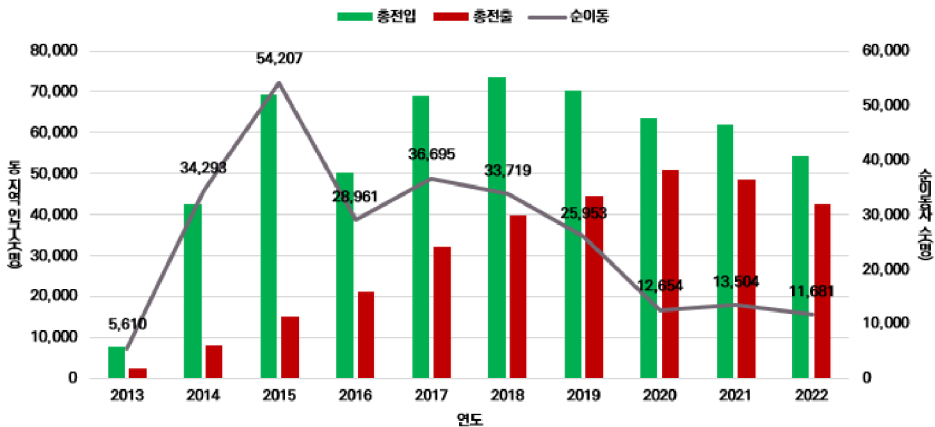
□ 세종시 동 지역 기준, 순이동의 변화

- 세종시의 인구 성장은 대부분 동 지역의 인구 증가로 발생함. 순이동 수치에 있어서도 최근 10년간 257,277명 증가를 보여줌

[표 3-49] 세종시 동 지역 전입 / 전출 현황

(단위: 명)

연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2013	8,030	2,420	5,610
2014	42,459	8,166	34,293
2015	69,338	15,131	54,207
2016	50,361	21,400	28,961
2017	68,883	32,188	36,695
2018	73,695	39,976	33,719
2019	70,433	44,480	25,953
2020	63,703	51,049	12,654
2021	62,000	48,496	13,504
2022	54,240	42,559	11,681
합계	563,142	305,865	257,277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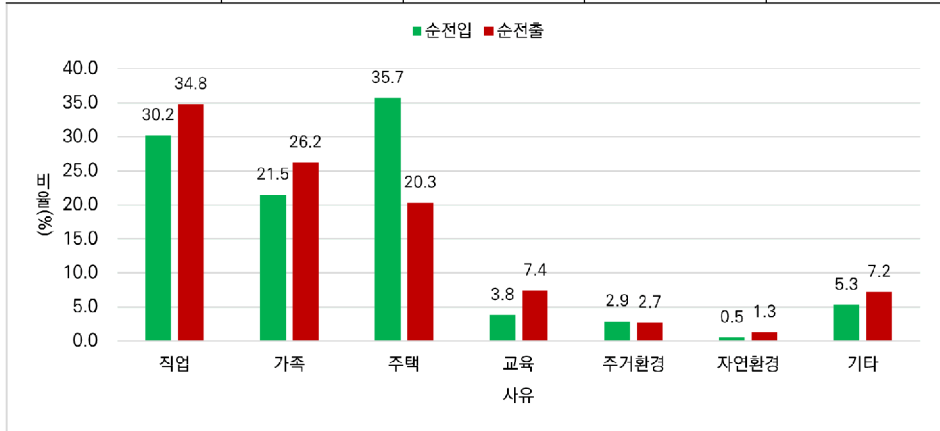
□ 세종시 동 지역 기준, 10년간 순전입/순전출자의 사유 분석

- 최근 10년간 동 지역 인구의 순전입과 순전출 사유는 다음과 같았음
 - 전입 사유는 ‘주택(35.7%)’, ‘직업(30.2%)’, ‘가족(21.5%)’ 순이었음
 - 전출 사유는 ‘직업(34.8%)’, ‘가족(26.2%)’, ‘주택(20.3%)’ 순이었음
 - 전출의 경우에는 ‘교육’이라는 응답이 7.4%로 나타났고, ‘기타’라는 응답 또한 7.2%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음

[표 3-50] 최근 10년간 동 지역 순전입/순전출 사유 분석

(단위: 명, %)

구분	순전입		순전출	
	명	비율	명	비율
직업	117,961	30.2	53,596	34.8
가족	83,819	21.5	40,315	26.2
주택	139,294	35.7	31,148	20.3
교육	14,859	3.8	11,406	7.4
주거환경	11,448	2.9	4,216	2.7
자연환경	1,961	0.5	1,981	1.3
기타	20,673	5.3	11,148	7.2
합계	390,015	100.0	153,810	10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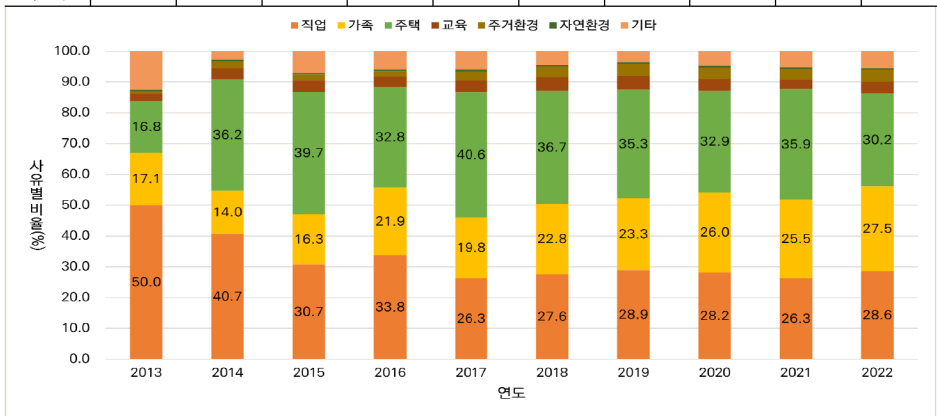
□ 동 지역 순전입/순전출 사유의 연도별 변화

- 동 지역의 순전입 사유로 가장 많이 늘어난 사유는 ‘주택’이었음
 - 2013년에는 ‘직업(50.0%)’, ‘가족(17.1%)’, ‘주택(16.8%)’ 순이었음
 - 2022년에는 ‘주택(30.2%)’, ‘직업(28.6%)’, ‘가족(27.5%)’ 순으로 나타났음. ‘주택’ 사유는 2013년 대비 13.4%p 증가하였음

[표 3-51] 세종시 동 지역 순전입 사유의 연도별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구수(명)										
직업	3,298	14,095	17,913	13,400	12,927	13,396	13,143	10,944	9,675	9,170
가족	1,125	4,851	9,493	8,687	9,707	11,087	10,579	10,120	9,367	8,803
주택	1,109	12,549	23,153	13,001	19,943	17,805	16,032	12,800	13,216	9,686
교육	151	1,220	2,236	1,322	1,930	2,186	2,034	1,466	1,114	1,200
주거환경	55	806	1,065	671	1,393	1,653	1,803	1,452	1,299	1,251
자연환경	36	162	272	184	283	238	225	219	194	148
기타	824	965	4,125	2,405	2,960	2,195	1,619	1,874	1,917	1,789
합계	6,598	34,648	58,257	39,670	49,143	48,560	45,435	38,875	36,782	32,047
비율(%)										
직업	50.0	40.7	30.7	33.8	26.3	27.6	28.9	28.2	26.3	28.6
가족	17.1	14.0	16.3	21.9	19.8	22.8	23.3	26.0	25.5	27.5
주택	16.8	36.2	39.7	32.8	40.6	36.7	35.3	32.9	35.9	30.2
교육	2.3	3.5	3.8	3.3	3.9	4.5	4.5	3.8	3.0	3.7
주거환경	0.8	2.3	1.8	1.7	2.8	3.4	4.0	3.7	3.5	3.9
자연환경	0.5	0.5	0.5	0.5	0.6	0.5	0.5	0.6	0.5	0.5
기타	12.5	2.8	7.1	6.1	6.0	4.5	3.6	4.8	5.2	5.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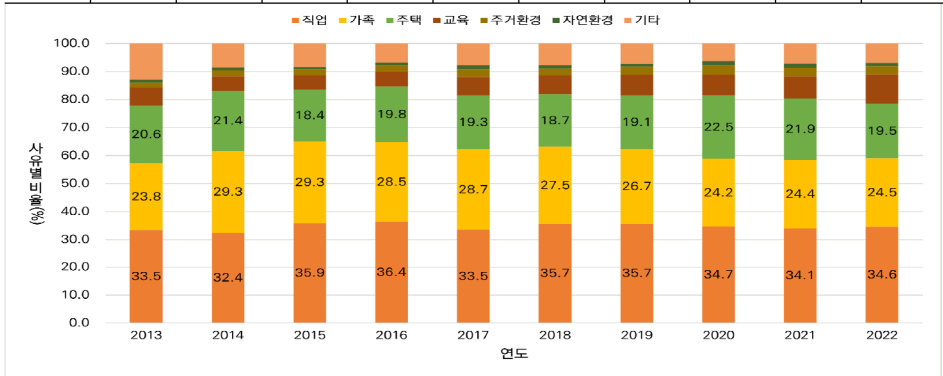
○ 동 지역의 순전출 사유 순위는 큰 변화가 없으며, ‘교육’ 사유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 2013년에는 ‘직업(33.5%)’, ‘가족(23.8%)’, ‘주택(20.6%)’ 순이었음
- 2022년에는 ‘직업(34.6%)’, ‘가족(24.5%)’, ‘주택(19.5%)’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교육’ 사유가 10.5%(2013년의 경우, 6.4%)였으며, 2015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3-52] 세종시 동 지역 순전출 사유의 연도별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구수(명)										
직업	666	1,230	3,078	4,457	5,073	6,477	7,761	9,116	8,101	7,637
가족	474	1,110	2,514	3,490	4,352	4,994	5,812	6,364	5,809	5,396
주택	411	813	1,579	2,423	2,928	3,396	4,163	5,925	5,214	4,296
교육	128	195	438	674	980	1,237	1,599	1,974	1,875	2,306
주거환경	35	85	183	243	414	426	614	846	729	641
자연환경	21	36	65	134	232	217	213	423	369	271
기타	256	322	726	832	1,164	1,417	1,591	1,638	1,685	1,517
합계	1,991	3,791	8,583	12,253	15,143	18,164	21,753	26,286	23,782	22,064
비율(%)										
직업	33.5	32.4	35.9	36.4	33.5	35.7	35.7	34.7	34.1	34.6
가족	23.8	29.3	29.3	28.5	28.7	27.5	26.7	24.2	24.4	24.5
주택	20.6	21.4	18.4	19.8	19.3	18.7	19.1	22.5	21.9	19.5
교육	6.4	5.1	5.1	5.5	6.5	6.8	7.4	7.5	7.9	10.5
주거환경	1.8	2.2	2.1	2.0	2.7	2.3	2.8	3.2	3.1	2.9
자연환경	1.1	0.9	0.8	1.1	1.5	1.2	1.0	1.6	1.6	1.2
기타	12.9	8.5	8.5	6.8	7.7	7.8	7.3	6.2	7.1	6.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동 지역 시·도 내 이동 변화 추이

- 동 지역의 시·도 내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전체 세종시의 시·도 내 이동 중 61.6%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었음
 - 2013년에는 세종시 전체 시·도 내 이동 중 8.7%의 비율을 보이다가 2022년 들어 72.5%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2015년부터는 동 지역의 시·도 내 이동이 50%를 웃돌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70%를 초과하는 시·도 내 이동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3-53] 세종시 동 지역 시·도 내 이동 현황

(단위: 명, %)

연도	세종시 전체	동 지역	전체 대비(%)
2013	9,134	792	8.7
2014	10,491	3,626	34.6
2015	15,248	8,517	55.9
2016	15,110	8,358	55.3
2017	17,488	10,874	62.2
2018	16,859	10,968	65.1
2019	19,950	14,471	72.5
2020	24,189	17,938	74.2
2021	18,724	13,415	71.6
2022	16,104	11,683	72.5
합계/평균	163,297	100,642	61.6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동 지역 시·도 간 이동 변화 추이

- 동 지역의 시·도 간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전체 세종시의 시·도 간 이동 중 74.1%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 2013년에는 세종시 전체 시·도 간 이동 중 28.0%의 비율을 보이다가 2022년 들어 76.9%로 높아진 비율을 보이고 있음
 - 2015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매년 70%를 초과한 시·도 간 이동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3-54] 세종시 동 지역 시·도 간 이동 현황

(단위: 명, %)

연도	세종시 전체	동 지역	전체 대비(%)
2013	30,704	8,589	28.0
2014	58,686	38,439	65.5
2015	86,964	66,840	76.9
2016	71,196	51,923	72.9
2017	82,966	64,286	77.5
2018	84,533	66,724	78.9
2019	84,310	67,188	79.7
2020	84,753	65,161	76.9
2021	79,665	60,564	76.0
2022	70,346	54,111	76.9
합계/평균	734,123	543,825	74.1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동 지역 전입 인구의 이전 지역 현황

- 동 지역 전입 인구의 이전 거주지를 살펴보면 세종, 대전, 수도권 순이었음
 - 최근 10년 평균적으로 세종시 동 지역에 전입한 인구의 24.7%(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 대비)가 세종시 내에서 이전하였음. 다음으로 대전 21.2%, 수도권 14.7% 순이었음

[표 3-55]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이전 거주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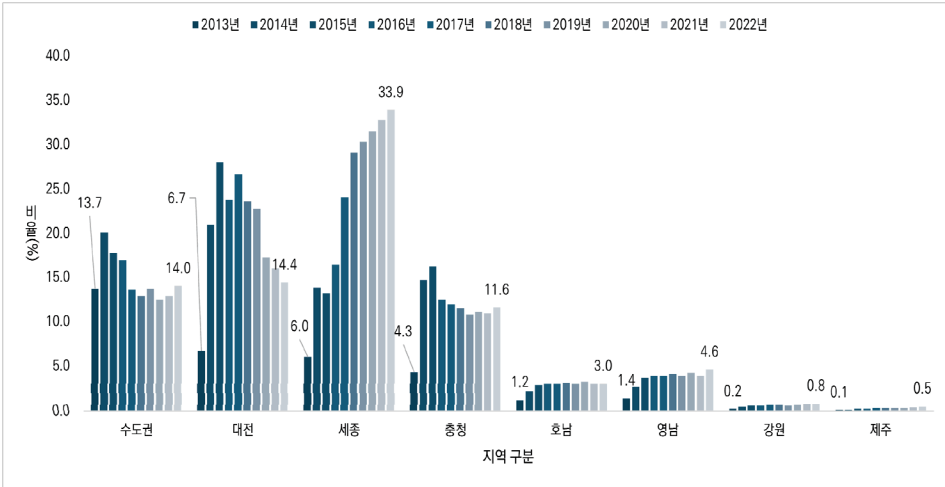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세종시 전체	동지역 전체	수도권	대전	세종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인구수(명)										
2013	23,805	8,030	3,273	1,590	1,432	1,021	293	335	52	34
2014	56,526	42,459	11,337	11,898	7,811	8,304	1,255	1,511	261	82
2015	83,994	69,338	14,947	23,478	11,081	13,591	2,440	3,142	519	140
2016	65,052	50,361	10,964	15,479	10,691	8,161	1,982	2,506	422	156
2017	82,073	68,883	11,124	21,873	19,740	9,793	2,446	3,160	539	208
2018	86,433	73,695	11,128	20,435	25,135	9,903	2,709	3,514	614	257
2019	82,398	70,433	11,321	18,751	24,998	8,877	2,506	3,229	485	266
2020	78,934	63,703	9,866	13,551	24,828	8,791	2,513	3,347	555	252
2021	76,912	62,000	9,905	12,280	25,218	8,418	2,280	3,026	578	295
2022	65,529	54,240	9,144	9,438	22,193	7,613	1,996	3,023	528	305
합계	701,656	563,142	103,009	148,773	173,127	84,472	20,420	26,793	4,553	1,995
비율(%)										
2013	100.0	33.7	13.7	6.7	6.0	4.3	1.2	1.4	0.2	0.1
2014	100.0	75.1	20.1	21.0	13.8	14.7	2.2	2.7	0.5	0.1
2015	100.0	82.6	17.8	28.0	13.2	16.2	2.9	3.7	0.6	0.2
2016	100.0	77.4	16.9	23.8	16.4	12.5	3.0	3.9	0.6	0.2
2017	100.0	83.9	13.6	26.7	24.1	11.9	3.0	3.9	0.7	0.3
2018	100.0	85.3	12.9	23.6	29.1	11.5	3.1	4.1	0.7	0.3
2019	100.0	85.5	13.7	22.8	30.3	10.8	3.0	3.9	0.6	0.3
2020	100.0	80.7	12.5	17.2	31.5	11.1	3.2	4.2	0.7	0.3
2021	100.0	80.6	12.9	16.0	32.8	10.9	3.0	3.9	0.8	0.4
2022	100.0	82.8	14.0	14.4	33.9	11.6	3.0	4.6	0.8	0.5
합계	100.0	80.3	14.7	21.2	24.7	12.0	2.9	3.8	0.6	0.3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비율 산식: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 *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그림 3-10]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이전 지역 비율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호남(전라, 광주), 영남(경상, 부산, 울산, 대구)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동 지역 전출 인구의 전출 지역 현황

- 동 지역 전출 인구의 전출 지역을 살펴보면 전입과 마찬가지로 세종, 수도권, 대전 순이었음
- 최근 10년 평균적으로 세종시 동 지역에서 전출한 인구의 33.8%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 대비)가 세종시 내로 이전하였음. 다음으로 수도권 11.6%, 대전 8.9% 순이었음

[표 3-56]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 전출 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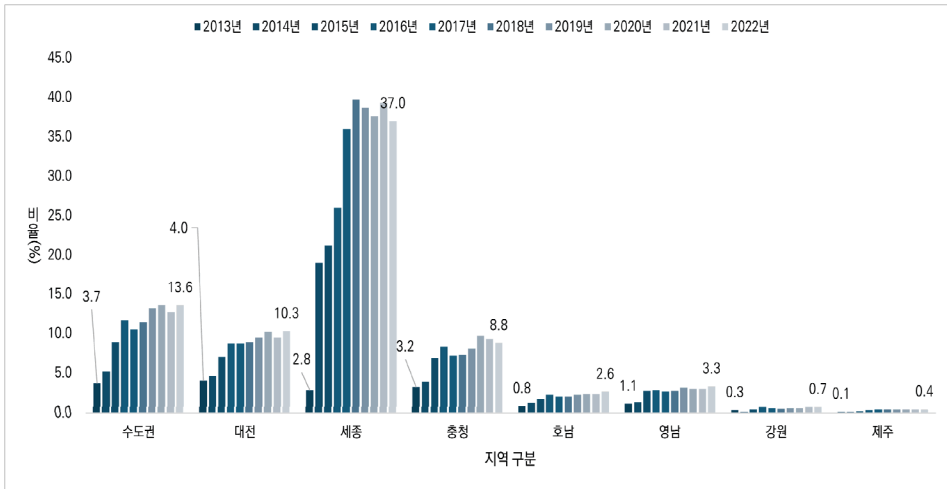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동지역 전체	수도권	대전	세종	충청	호남	영남	강원	제주
인구수(명)										
2013	15,109	2,420	562	610	429	485	124	159	38	13
2014	23,070	8,166	1,191	1,058	4,375	903	272	302	32	33
2015	30,950	15,131	2,763	2,159	6,548	2,145	514	821	113	68
2016	35,236	21,400	4,124	3,070	9,147	2,937	784	992	242	104
2017	47,383	32,188	4,955	4,140	17,045	3,422	945	1,230	263	188
2018	55,000	39,976	6,259	4,917	21,812	3,989	1,076	1,464	248	211
2019	58,674	44,480	7,724	5,548	22,727	4,774	1,286	1,833	362	226
2020	65,909	51,049	8,935	6,747	24,763	6,405	1,544	1,993	425	237
2021	62,827	48,496	7,948	5,994	24,714	5,827	1,441	1,865	442	265
2022	55,401	42,559	7,561	5,722	20,495	4,861	1,445	1,842	398	235
합계	449,559	305,865	52,022	39,965	152,055	35,748	9,431	12,501	2,563	1,580
비율(%)										
2013	100.0	16.0	3.7	4.0	2.8	3.2	0.8	1.1	0.3	0.1
2014	100.0	35.4	5.2	4.6	19.0	3.9	1.2	1.3	0.1	0.1
2015	100.0	48.9	8.9	7.0	21.2	6.9	1.7	2.7	0.4	0.2
2016	100.0	60.7	11.7	8.7	26.0	8.3	2.2	2.8	0.7	0.3
2017	100.0	67.9	10.5	8.7	36.0	7.2	2.0	2.6	0.6	0.4
2018	100.0	72.7	11.4	8.9	39.7	7.3	2.0	2.7	0.5	0.4
2019	100.0	75.8	13.2	9.5	38.7	8.1	2.2	3.1	0.6	0.4
2020	100.0	77.5	13.6	10.2	37.6	9.7	2.3	3.0	0.6	0.4
2021	100.0	77.2	12.7	9.5	39.3	9.3	2.3	3.0	0.7	0.4
2022	100.0	76.8	13.6	10.3	37.0	8.8	2.6	3.3	0.7	0.4
합계	100.0	68.0	11.6	8.9	33.8	8.0	2.1	2.8	0.6	0.4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비율 산식: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 *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그림 3-11]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 전출 지역 비율

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충북, 충남), 호남(전북, 전남, 광주), 영남(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동 지역 전입 인구의 성별 특성

- 동 지역 전입 인구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평균 남성 39.0%, 여성 41.3%로 나타났음
- 세종시 동 지역의 성별 전입 인구는 매년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7]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성별

(단위: 명, %)

연도	세종시 전체	동 지역	남 성		여 성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13	23,805	8,030	3,933	16.5	4,097	17.2
2014	56,526	42,459	20,778	36.8	21,681	38.4
2015	83,994	69,338	33,613	40.0	35,725	42.5
2016	65,052	50,361	24,241	37.3	26,120	40.2
2017	82,073	68,883	33,478	40.8	35,405	43.1
2018	86,433	73,695	35,792	41.4	37,903	43.9
2019	82,398	70,433	34,346	41.7	36,087	43.8
2020	78,934	63,703	30,802	39.0	32,901	41.7
2021	76,912	62,000	30,152	39.2	31,848	41.4
2022	65,529	54,240	26,324	40.2	27,916	42.6
합계/평균	701,656	563,142	273,459	39.0	289,683	41.3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 *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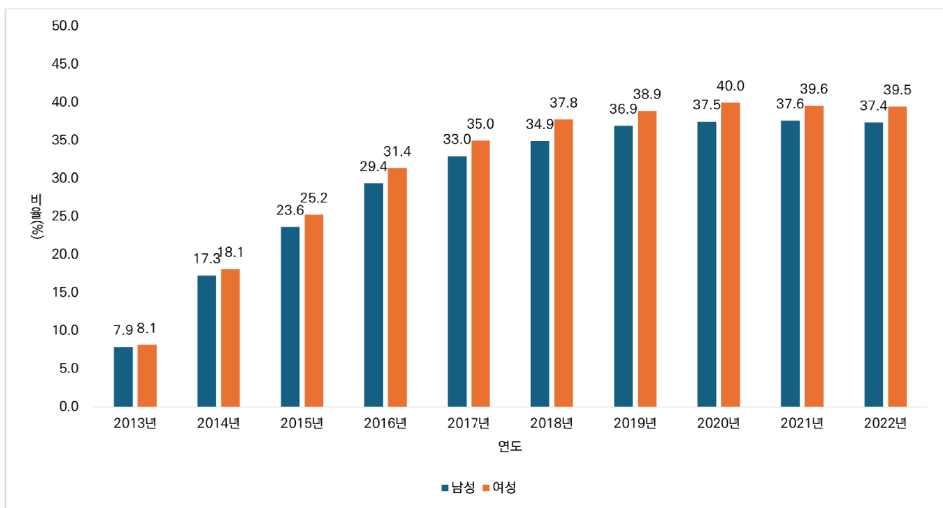
□ 동 지역 전출 인구의 성별 특성

- 동 지역 전출 인구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평균 남성 33.0%, 여성 35.0%로 나타났음
- 세종시 동 지역의 성별 전출 인구 또한 매년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8]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성별

(단위: 명, %)

연도	세종시 전체	동 지역	남성		여성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13	15,109	2,420	1,190	7.9	1,230	8.1
2014	23,070	8,166	3,987	17.3	4,179	18.1
2015	30,950	15,131	7,317	23.6	7,814	25.2
2016	35,236	21,400	10,350	29.4	11,050	31.4
2017	47,383	32,188	15,617	33.0	16,571	35.0
2018	55,000	39,976	19,211	34.9	20,765	37.8
2019	58,674	44,480	21,674	36.9	22,806	38.9
2020	65,909	51,049	24,711	37.5	26,338	40.0
2021	62,827	48,496	23,634	37.6	24,862	39.6
2022	55,401	42,559	20,703	37.4	21,856	39.5
합계/평균	449,559	305,865	148,394	33.0	157,471	35.0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 *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동 지역 전입 인구의 연령대별 특성

- 동 지역 전입 인구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10년 평균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20대 순이었음
- 30대의 경우 10년 평균 20.2%를 보였으며, 40대는 13.7%, 20대는 11.8%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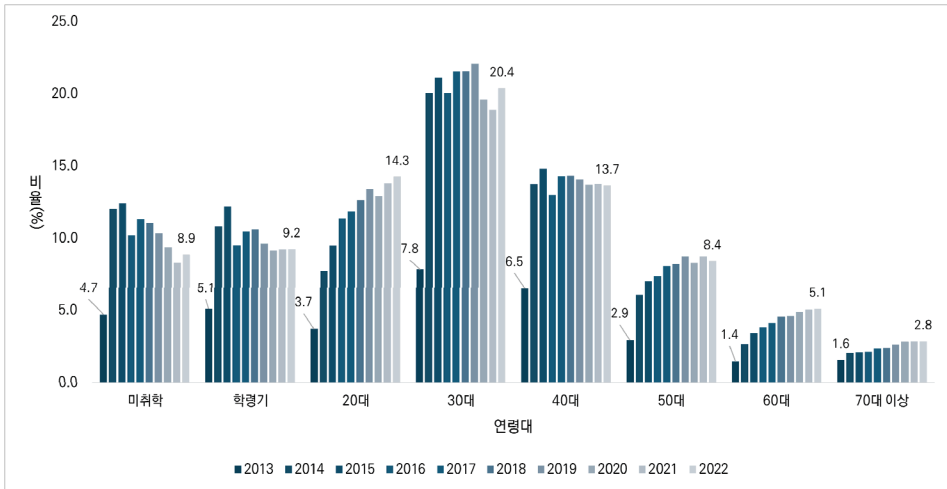
[표 3-59]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동지역 전체	미취학	학령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구수(명)										
2013	23,805	8,030	1,116	1,214	878	1,866	1,549	694	341	372
2014	56,526	42,459	6,798	6,121	4,370	11,339	7,762	3,414	1,494	1,161
2015	83,994	69,338	10,412	10,243	7,975	17,728	12,435	5,919	2,873	1,753
2016	65,052	50,361	6,628	6,177	7,388	13,041	8,451	4,808	2,484	1,384
2017	82,073	68,883	9,286	8,586	9,727	17,665	11,714	6,627	3,352	1,926
2018	86,433	73,695	9,554	9,177	10,915	18,621	12,359	7,095	3,926	2,048
2019	82,398	70,433	8,530	7,927	11,051	18,179	11,603	7,203	3,783	2,157
2020	78,934	63,703	7,397	7,224	10,205	15,446	10,813	6,540	3,841	2,237
2021	76,912	62,000	6,387	7,095	10,630	14,513	10,589	6,710	3,882	2,194
2022	65,529	54,240	5,816	6,060	9,338	13,356	8,946	5,516	3,343	1,865
합계	701,656	563,142	71,924	69,824	82,477	141,754	96,221	54,526	29,319	17,097
비율(%)										
2013	100.0	33.7	4.7	5.1	3.7	7.8	6.5	2.9	1.4	1.6
2014	100.0	75.1	12.0	10.8	7.7	20.1	13.7	6.0	2.6	2.1
2015	100.0	82.6	12.4	12.2	9.5	21.1	14.8	7.0	3.4	2.1
2016	100.0	77.4	10.2	9.5	11.4	20.0	13.0	7.4	3.8	2.1
2017	100.0	83.9	11.3	10.5	11.9	21.5	14.3	8.1	4.1	2.3
2018	100.0	85.3	11.1	10.6	12.6	21.5	14.3	8.2	4.5	2.4
2019	100.0	85.5	10.4	9.6	13.4	22.1	14.1	8.7	4.6	2.6
2020	100.0	80.7	9.4	9.2	12.9	19.6	13.7	8.3	4.9	2.8
2021	100.0	80.6	8.3	9.2	13.8	18.9	13.8	8.7	5.0	2.9
2022	100.0	82.8	8.9	9.2	14.3	20.4	13.7	8.4	5.1	2.8
합계	100.0	80.3	10.3	10.0	11.8	20.2	13.7	7.8	4.2	2.4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입 인구수 *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그림 3-12] 세종시 동 지역 전입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동 지역 전출 인구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10년 평균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20대 순이었음
- 30대의 경우 10년 평균 16.5%를 보였으며, 40대는 11.7%, 20대는 11.1%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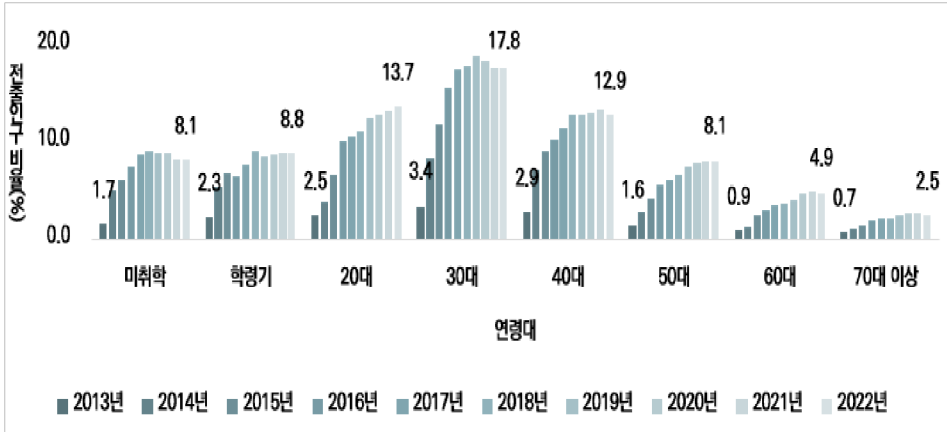
[표 3-60]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세종시 전체	동지역 전체	미취학	학령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구수(명)										
2013	15,109	2,420	250	352	375	518	437	236	139	113
2014	23,070	8,166	1,183	1,253	900	1,932	1,657	666	297	278
2015	30,950	15,131	1,894	2,092	2,071	3,666	2,836	1,321	763	488
2016	35,236	21,400	2,663	2,275	3,547	5,508	3,601	1,999	1,079	728
2017	47,383	32,188	4,174	3,617	5,000	8,314	5,474	2,929	1,668	1,012
2018	55,000	39,976	5,028	4,948	6,093	9,814	7,033	3,706	2,100	1,254
2019	58,674	44,480	5,222	5,038	7,309	11,084	7,536	4,450	2,367	1,474
2020	65,909	51,049	5,916	5,775	8,499	12,167	8,565	5,190	3,163	1,774
2021	62,827	48,496	5,168	5,608	8,316	11,114	8,459	5,024	3,059	1,748
2022	55,401	42,559	4,508	4,890	7,582	9,838	7,140	4,505	2,687	1,409
합계	449,559	305,865	36,006	35,848	49,692	73,955	52,738	30,026	17,322	10,278
비율(%)										
2013	100.0	16.0	1.7	2.3	2.5	3.4	2.9	1.6	0.9	0.7
2014	100.0	35.4	5.1	5.4	3.9	8.4	7.2	2.9	1.3	1.2
2015	100.0	48.9	6.1	6.8	6.7	11.8	9.2	4.3	2.5	1.6
2016	100.0	60.7	7.6	6.5	10.1	15.6	10.2	5.7	3.1	2.1
2017	100.0	67.9	8.8	7.6	10.6	17.5	11.6	6.2	3.5	2.1
2018	100.0	72.7	9.1	9.0	11.1	17.8	12.8	6.7	3.8	2.3
2019	100.0	75.8	8.9	8.6	12.5	18.9	12.8	7.6	4.0	2.5
2020	100.0	77.5	9.0	8.8	12.9	18.5	13.0	7.9	4.8	2.7
2021	100.0	77.2	8.2	8.9	13.2	17.7	13.5	8.0	4.9	2.8
2022	100.0	76.8	8.1	8.8	13.7	17.8	12.9	8.1	4.9	2.5
합계	100.0	68.0	8.0	8.0	11.1	16.5	11.7	6.7	3.9	2.3

주: 해당 인구수 / 세종시 전체 전출 인구수 *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그림 3-13] 세종시 동 지역 전출 인구 현황 : 연령대별 비율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4절 세종시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변화 진단 결과

1. 세종시 인구이동의 분석 주요 결과 요약

□ 최근 10년간 세종시 인구변화의 특징

-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함. 동 지역 중심의 인구 증가가 특징임
 - 평균 연령의 증가, 면 지역과 읍, 동 지역의 평균 연령의 격차(2022년 기준 면 지역 평균연령 49.2세, 읍 지역 40.9세, 동 지역 35.1세)가 보이며, 읍, 면 지역의 고령화 추세와 동 지역의 고령화 추세가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세종시 인구이동의 특징

- 최근 10년간 순이동은 여전히 (+)방향이지만,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입초과 현상은 악화 추세임
 - 읍, 면 지역의 순이동 감소와 달리, 동 지역은 증가하는 이분화된 인구이동 패턴을 보이고 있음.
 - 타 시도로의 전출 사유로 '교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30대의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남. 최근 10년간(2013~2022년) 30대가 시·도 간 전입(24.1%), 전출(23.2%)이 가장 많았고, 시·도 내 이동에서도 비중이 가장 컸음(24.3%)

□ 읍·면 지역의 순유출, 동 지역의 순유입

- 세종시 읍·면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읍 지역에서 가장 많이 순유출이 일어난 연도는 2019년도로 -1,218명이었음. 면 지역은 2018년에 -1,270명을 보였음
- 동 지역은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2015년의 경우 +54,207명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로도 2만명 이상의 순유입이 나타났음

- 그래프 상으로 순이동을 살펴보면 읍·면·동 모두에서 2020년도 이후로 순이동 증감율이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읍이나 면의 경우에는 1천명 단위의 순이동이 2020년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고, 동의 경우 1만명 대의 순이동을 유지하고 있어 인구의 유입이나 유출 면에서 이전에 비해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임

□ **30~40대의 활발한 이동, 20대는 시·도 간 전입/전출**

- 시·도 간 이동 및 시·도 내 이동에 있어서 30~4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의 누적 수치를 살펴보면 30대가 가장 많은 이동을 보였고 다음으로 40대임. 그 중 남성의 이동이 비교적 여성에 비해 높았음
- 20대는 시·도 간 이동의 수치가 시·도 내 이동보다 활발하였음
 - 20대 중에서도 여성의 이동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편이었으며, 60대를 비롯하여 70대 이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음
 - 고령층과 청년층의 이동은 다른 사유에서 기인한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임

□ **읍·면·동 전입과 전출의 특성**

- 읍 지역의 경우 ‘교육’의 사유로 전입한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주택’ 때문에 전입하였다는 비율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음
 - 한편, 전출의 사유에 있어서도 ‘교육’이라는 응답은 2020년 이후로 다소 높아지는 추세임. 절대적 수치는 낮지만 ‘주거환경’의 비율도 약간씩 높아진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대목임
 - 읍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교육 같은 영역에 대한 지역민들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읍 지역의 이전 거주지와 전출지역에서 수도권외의 비중이 높음
 - 세종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의 이전이나, 수도권으로의 전출이 꾸준하게 높은 순위에 있음
 - 대전으로의 전출은 줄어들어 1% 미만의 수치를 보이며, 충청으로의 전출은 2020년 이후로 줄어드는 추세임

- 면 지역의 전입에 있어서 ‘기타’ 사유를 살펴볼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전출의 경우 ‘직업’ 사유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면 지역 전입/전출에서 ‘직업’, ‘가족’, ‘주택’이라는 주요한 사유는 여전히 높은 편이나, ‘기타’ 사유라는 응답이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기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함
 - 전출 면에서 ‘직업’ 사유가 과반을 넘어서는 상황이 2018년부터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함
- 면 지역의 이전 거주지와 전출지역에서 충청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세종 내 이동을 제외하고, 전입과 전출 면에서 충청권의 비중이 수도권 보다도 높은 특성을 보임
- 동 지역의 전입은 ‘주택’ 사유가 가장 많고, 전출에서는 ‘직업’ 사유가 가장 많음. 한편 ‘교육’과 ‘기타’ 사유도 높은 편임
 - 동 지역 전입은 ‘주택’ 사유가 압도적이었지만,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직업’과 ‘가족’의 사유로 점차 분배됨
 - 전출 면에서도 여전히 ‘주택’, ‘직업’, ‘가족’의 사유가 대부분이지만, ‘교육’이라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 즉, 동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교육 관련 인프라 요구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동 지역 전입/전출의 경우, 대전과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
 - 대전에서 세종으로의 전입한 인구는 20% 대에서 출발하여 10% 중반 대로 감소 추세를 보임. 수도권의 경우 12~13%의 전입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충청권은 10~11% 대임
 - 전출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수도권이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 충청 순이었음
- **성별 및 연령대로 분석한 이동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의 인구이동 흐름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 연령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경우에도 세종의 읍·면·동은 인구수나 증감률 면에서 다소 변동의 폭이 적은 상황으로 여겨짐

2. 세종시 출범 10년 인구이동 분석 결과의 시사점

□ 세종시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격차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함

-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간의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동 지역 중심의 인구변화와 읍, 면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이동 패턴이 상이하다는 것이 드러남
- 세종시 읍, 면 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지역과 유사한 인구변화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읍 지역과 면 지역 간에도 상이한 인구이동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연령 집단별 이동경로와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4년제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읍 지역의 경우, 수도권으로부터 전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 세종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전출지역은 세종, 충청, 수도권 순으로 나타났음. 최근 10년간 읍 지역 전입/전출 인구의 경우, 20대가 가장 활발한 특징을 보임
 - 세종시 면 지역의 경우, 최근 10년간 대부분의 연도에서 순유출(전출 초과)을 보였음. 2016년과 2020~2021년에만 전입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면 지역에서 전입/전출 사유로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많아, 연령 집단별,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심층 분석이 필요함
 - 면 지역 전입 이전 거주지/전출지역을 보면, 세종시 내에서의 이동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청도, 수도권 순이었음. 면 지역의 경우도, 20대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함
- 도농복합도시 세종시는 읍, 면 지역이 전체 면적의 91.3%를 차지함(전체 면적 $465km^2$ 중 $424.5km^2$)
- 이것은 단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세종시가 인구정책 방향 수립 시 도농복합도시이며 지역 내 인구감소 패턴이 상이한 점을 인지하여 전략을 취해야 함을 의미함
- 2021년에 수립한 세종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읍, 면 지역의 인구격차를 고려한 정책 대안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세종시의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1~2025년)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세종으로, 추진 전략은 젊은 세대의 미래 보장, 안정적인 인 가족 환경 조성, 존중받는 건강 노후 보장, 시민행복 공동체 구현 4개임
- 해당 기본계획은 사람 중심으로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전략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향후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격차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또한,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격차에 대한 심층 조사와 분석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그림 3-14] 세종시 인구정책 비전(2021~2025년)

자료: 세종특별자치시(2021),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세종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1-2025년)>

□ **세종시 동 지역 인구이동의 변화와 이동 패턴, 사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세종시의 인구 성장은 대부분 동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음. 순이동의 경우, 최근 10년간 257,277명을 기록함
- 동 지역으로 전입한 사유의 1순위는 주택이었음. 이는 신규 주택 분양, 입주 등과 인구 유입이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함. 향후, 세종시의 신규 주택 및 아파트 입주 계획이 지난 10년만큼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한 전략은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
- 주목할 점은 지난 10년간 이주 사유 중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었던 ‘교육’의 증가세라고 할 수 있음. 순위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해당 사유로 이주를 선택한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세종시가 앞으로 고려해야 할 인구정책 분야에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함

□ **수도권으로의 유출 증가세를 완화 시키고, 수도권에서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함**

- 최근 10년간 전체 세종시의 시·도 간 이동 중 74.1%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한 동 지역 전입/전출 인구의 이전 거주지와 전출지역을 살펴보면 세종, 대전, 수도권 순이었음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세종시의 출범 목적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세종시로의 수도권 인구이동을 위한 전략 마련과 지속적인 지원 강화는 세종시 설치의 합목적성을 높이는 국가 차원의 달성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임

지역 청년 인구변화 진단과 과제

1절 심층 기획 분석 개요

2절 청년 인구변화에 대한 주요 이슈별 진단

3절 시사점

4장

4장 지역 청년 인구변화 진단과 과제

1절 심층 기획 분석 개요

1. 심층 기획 분석의 추진 배경

□ (대상의 중요성) 지역 청년인구 이동의 중요성

- 지역 청년인구 이동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자,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준임
 - 저출산·고령화 문제, 수도권 인구 과밀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많은 도시가 소멸의 위기에 처한 상황임
 - 지역소멸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며 문제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청년인구의 유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또한, 15~49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로 산출되는 합계출산율의 증감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임(최성은 외, 2019)
 - 여성의 인구이동에 따라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 방향성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청년 여성의 이동은 면밀히 관찰되어야 하는 ‘원인 지표’이자 지방정부의 ‘기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청년 집단을 20~39세로 묶어 그 변화를 해석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함. 특히, 세종시 청년 인구의 이동에 관한 읍, 면 지역 중심의 심층적 분석은 거의 부재한 상황임
 - 청년 연령 범위 내 다양한 집단과 계층적 성격을 반영한 청년인구이동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함
 - 출범 이후 소멸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세종시 읍, 면 지역의 청년 여성의 이동 행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한 심층 기획 분석 시도

- (심층 분석을 위한 협업) 본 연구는 세종시 인구이동에 관한 선행연구(최성은 외, 2018)의 자료갱신과 더불어 보완적 분석을 추진한 3장에 이어, 4장에서도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한 심층 연구를 진행함
- (4장 구성의 특징) 또한, 이 장에서는 인구변화에 대한 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과제를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래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함
 - 진단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지역청년 정책 및 인구학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 해외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구성함
- (4장 분석을 위한 데이터 특징) 이 장에서 분석한 MDIS 분석 결과는 2018년 <세종시 인구 이동 특성과 정책방향 연구(연구책임: 최성은)>와 같이, 시·도 내 이동 데이터를 포함한 것임
 - 이것은 KOSIS 기준 MDIS 분석 결과와 달리, 세종시 내에서 이동한 청년이동 기록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지역 내 인구이동의 격차 심화와 청년인구 이동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2018년 선행연구 기준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추진하는 바임

2절 청년 인구변화에 대한 주요 이슈별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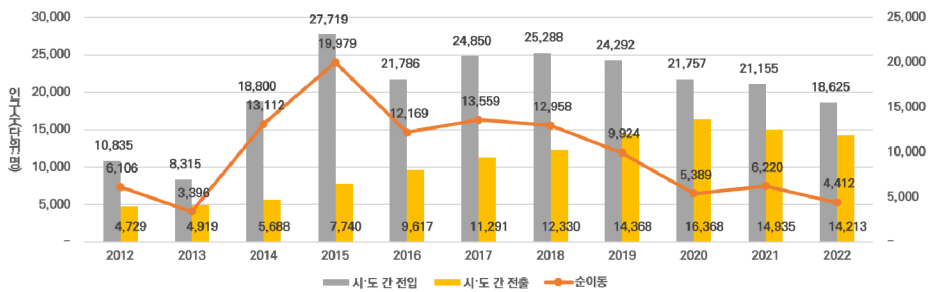
1. 세종시 청년(19~29세 vs. 30~39세) 연령 집단별 인구이동 특성

※ 제안 배경

(연구 질문) 청년의 연령 범위는 19세부터 39세까지이다. 과연, 이 연령 집단 내 인구 이동 패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9~29세 vs. 30~39세 연령 집단별 인구이동의 차이를 살펴보자.

□ 세종시 청년 인구의 순이동 변화

- (청년 순이동의 변화) 세종시 출범 해인 2012년부터 2022년(총 11년)간의 순이동을 분석한 결과, ‘유입 초과’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다만, 2015년 최고치를 보인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전체 세종시 인구 이동 패턴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냄(3장 [표 3-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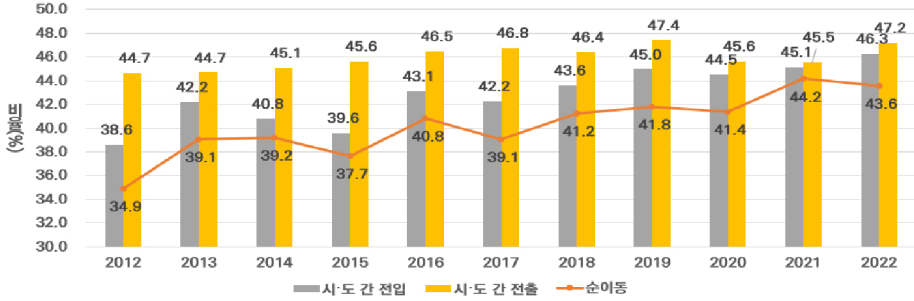
[그림 4-1] 세종시 청년인구의 순이동 변화(2012~2022년)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세종시 전체 대비 청년의 시·도 간 전입과 전출, 순이동이 차지하는 비율

- (전체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청년의 비율)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세종시 전체 대비 청년(19세~39세)의 시·도 간 전입과 전출, 그리고 순이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도 내 이동을 제외하고, 모두 평균 40%를 상회함
 - 전체 시·도 간 전입 인구 대비 청년의 비율: 평균 42.8%
 - 전체 시·도 간 전출 인구 대비 청년의 비율: 평균 46%
 - 전체 순이동 대비 청년의 비율: 평균 40.3%
 - 전체 시·도 내 이동 인구 대비 청년의 비율: 평균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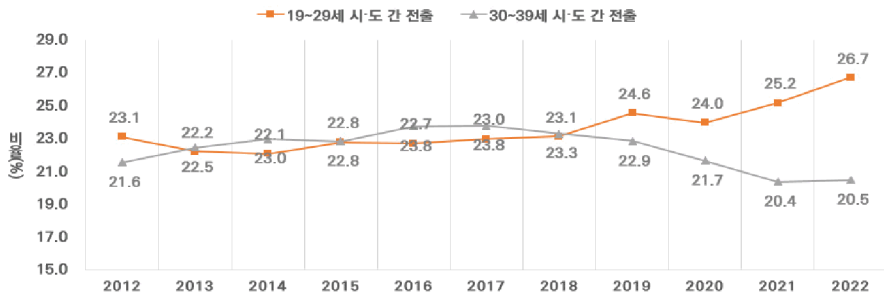
- (특이점) 흥미로운 점은 세종시의 2015년은 총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기였으나, 이 시기 청년인구 유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9.6%로 이후 다른 해에 비하여 높은 비율은 아님. 즉, 이 시기 청년이 아닌 중·장년 이상,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주해 왔을 것으로 추정 가능



[그림 4-2] 세종시 전체의 인구이동 대비 청년 인구이동 비율(2012~2022년)

주: 각 지표별 비율(%) = (해당 지표 세종시 청년(19~39세)인구) ÷ (해당 지표 세종시 전체인구) x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세종시 전체 대비 청년 연령 집단별(19~29세, 30~39세) 시·도 간 전출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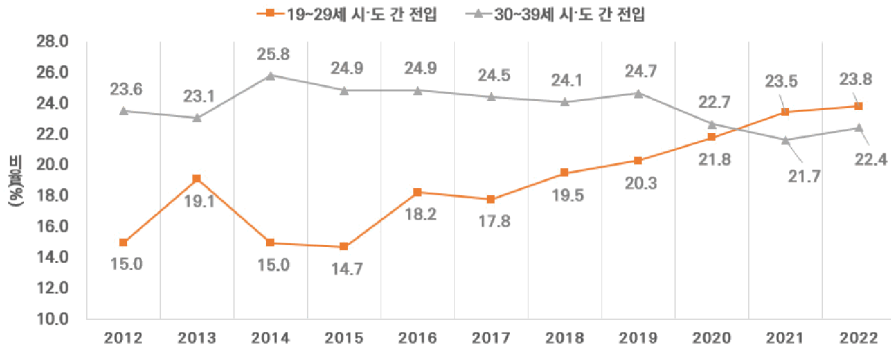


[그림 4-3] 청년 연령 집단별 시·도 간 전출 차이(2012~2022년)

주: 각 지표별 비율(%) = (해당 지표 세종시 청년(19~39세)인구) ÷ (해당 지표 세종시 전체인구) x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2018년을 기점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유출 인구 중 19~29세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부침이 있으나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2013년 23.1% ⇒ 2022년 26.7%)
- 반면, 30~39세 청년층의 경우, 출범 초기라고 할 수 있는 2013년과 비교할 때 큰 폭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2013년 21.6% ⇒ 2022년 20.5%)

□ 세종시 전체 대비 청년 2개 집단(19~29세, 30~39세)의 시·도 간 전입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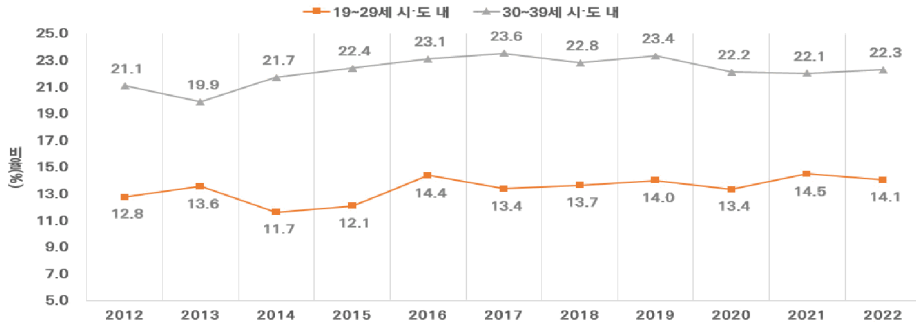
[그림 4-4] 청년 연령 집단별 시·도 간 전입 차이(2012~2022년)

주: 각 지표별 비율(%) = (해당 지표 세종시 청년(19~39세)인구) ÷ (해당 지표 세종시 전체인구) x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19~29세 청년층의 경우, 출범 초기라고 할 수 있는 2013년과 비교할 때 다소 부침은 있으나 전체 시·도 간 전입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2013년 19.1% ⇒ 2022년 23.8%)
- 30~39세 청년층의 전체 시·도 간 전입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어(2013년 23.1% ⇒ 2022년 22.4%)
- 시·도 간 전입과 전출에서 청년의 연령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결과, 20대 청년층의 경우 전입과 전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
- 반면, 30대 청년층의 경우, 2019년 이후 전입이나 전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있어 인구이동이 20대 청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 세종시 전체 대비 청년 2개 집단(19~29세, 30~39세)의 시·도 내 이동 비율 비교



[그림 4-5] 청년 연령 집단별 시·도 내 이동 차이(2012~2022년)

주: 각 지표별 비율(%) = (해당 지표 세종시 청년(19~39세)인구) ÷ (해당 지표 세종시 전체인구) x 100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시·도 내 이동의 경우, 19~29세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30~39세 청년층에 비하여 낮은 비중을 보여옴
 - 전체 시·도 내 이동 인구 대비 19~29세 청년의 비율: 평균 13.4%
 - 전체 시·도 내 이동 인구 대비 30~39세 청년의 비율: 평균 22.2%
- (시사점) 시·도 내 이동은 30대 청년층 비중이 20대 청년층 비중보다 높음. 즉, 30대가 세종시 내 이동이 20대에 비하여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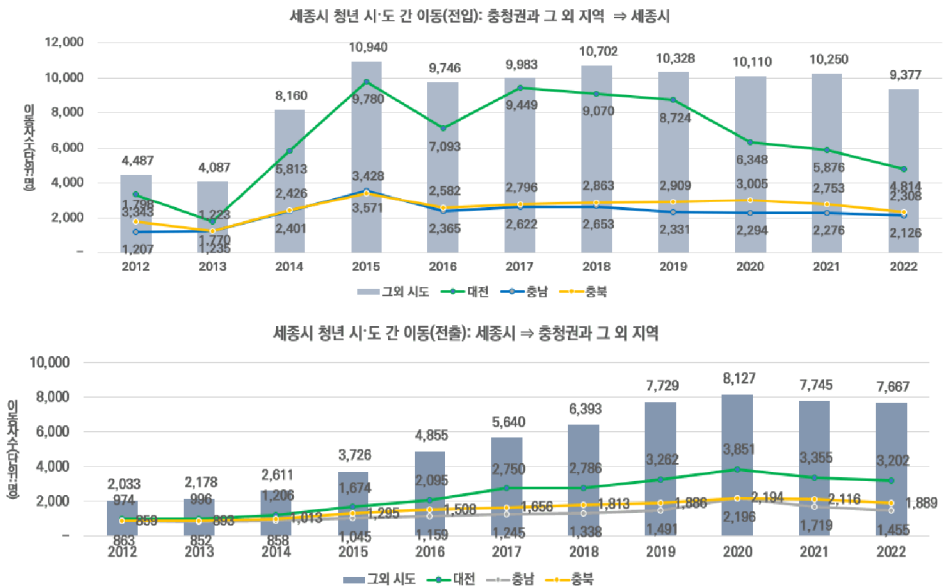
2. 세종시 청년들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갔는가?

※ 제안 배경

(연구 질문)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세종시의 청년인구 이동의 양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수도권 vs. 충청권

□ 세종시 청년 19~39세 시·도 간 이동 특징(충청권 vs. 그 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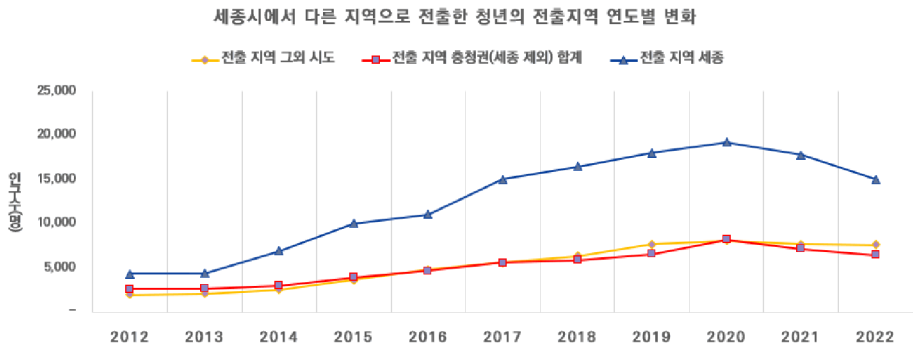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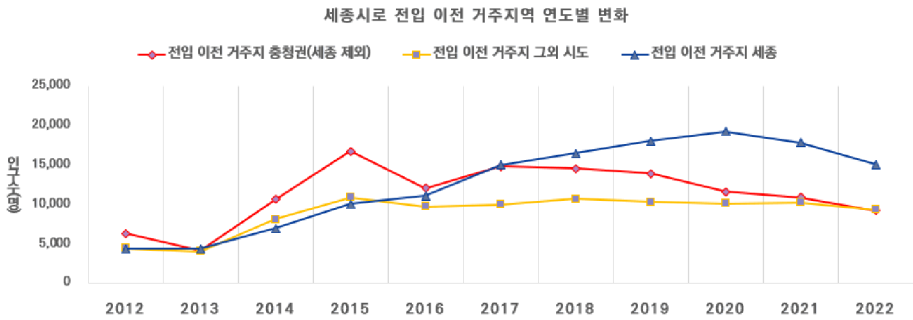
- (충청권 ⇒ 세종시) 세종시로 전입해 온 청년들의 이전 거주지역 중 충청권 4개 지역 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세종시 지역 내 이동은 제외)
 - 2013년 기준: 충청권 이외 시·도 > 대전 > 충남 > 충북 순으로 분석됨
 - 2022년 기준: 충청권 이외 시·도 > 대전 > 충북 > 충남 순으로 분석됨
- (세종시 ⇒ 충청권) 세종시에서 충청권 지역으로 진출한 경우, 충청권 이외 시·도 > 대전 > 충북 > 충남 순으로 분석됨(2013년과 2022년 모두 동일함)



[그림 4-6] 세종시 청년 19~39세 시·도 간 이동 지역 변화 추이 (대전, 충남, 충북 vs. 그 외 지역)

주: 세종시 내 이동 제외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그림 4-7] 세종시 청년 19~39세 시·도 간 이동 지역 변화 추이
(충청권* vs. 세종시 내 vs. 그 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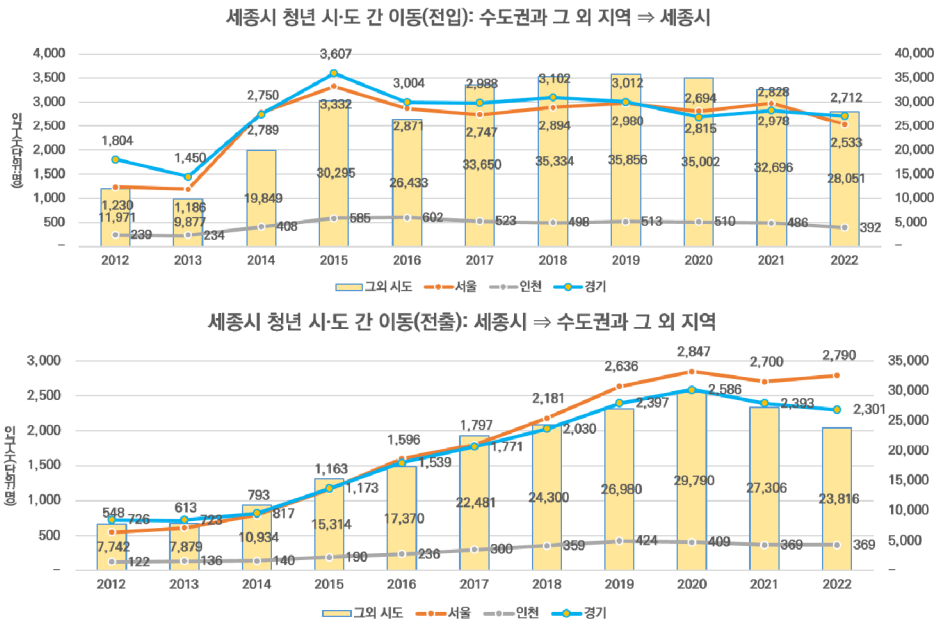
주*: 충청권-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의 합계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세종시 청년의 시·도 간 이동의 연도별 변화 특징: 전입) 세종시 출범 초기에 해당하는 2014~2015년 대전, 충남, 충북에서의 대규모 유입이 일어났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임. 대신, 세종시 내 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됨
- (세종시 청년의 시·도 간 이동의 연도별 변화 특징: 전출) 청년의 전출의 경우, 세종시 내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증가해 왔고,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됨. 전출의 경우,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이나 그 외 지역으로의 유출 규모가 비슷한 추이를 나타냄
 - 다만, 2018년 이후로 그 외 지역의 유출이 충청권으로의 유출 규모를 넘어서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으로의 대규모 유출이 예상되므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도 간 이동의 특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충청권 지역 특징) '세종과 대전 간'의 청년인구 이동이 충청권 지역 내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세종시 청년의 시·도 간 이동은 전입과 전출 모두 2020년 전후로 감소세를 보임. 충청권 지역 내 가장 청년 유입과 유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전임

□ **세종시 청년 19~39세 시·도 간 이동 특징(수도권 vs. 그 외 지역)**

- (수도권 ⇒ 세종시) 세종시로 전입해 온 청년들의 이전 거주지역 중 수도권 3개 지역 순위를 분석한 결과, 2013년과 2022년 모두 (그 외 시·도 지역) > 경기 > 서울 > 인천 순으로 분석됨
- (세종시 ⇒ 수도권) 세종시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013년의 경우는 (그 외 시·도 지역) > 경기 > 서울 > 인천 순이었으나, 2022년에는 (그 외 시·도 지역) > 서울 > 경기 > 인천 순으로 나타남
- 출범 초기인 2013년에 비하여 2022년에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으로 이동(전입, 전출)한 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짐
 - 2022년 기준, 서울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 중 51.8%(4,892명 중 2,533명)를 청년이 차지함(2013년 41.6%에서 10.2%p 상승)
 - 2022년 기준, 세종시에서 서울로 전출한 인구 중 61.3%(4,550명 중 2,790명)를 청년이 차지함(2013년 56%에서 5.3%p 상승)



[그림 4-8] 세종시 청년 19~39세 시·도 간 이동 특징(수도권 vs. 그 외 지역)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그림 4-9] 세종시 전체 시·도 간 이동 지역 중 청년이 이동한 전출지역 비율 (수도권 vs. 그 외 지역)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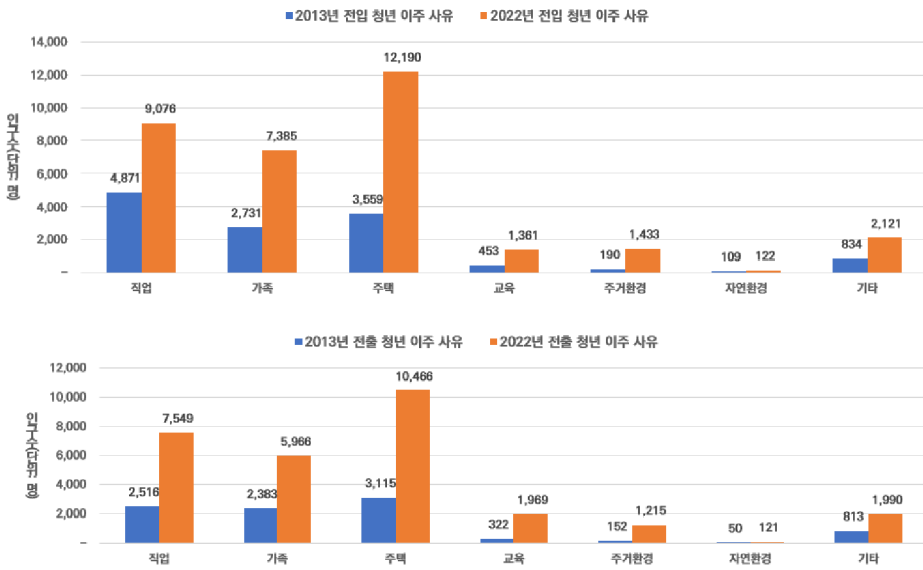
□ 세종시 청년 전입사유 연도별 변화 추이

○ 다른 지역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청년들의 이주 사유 변화

- 2013년 기준, 직업 > 주택 > 가족 > 기타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순
- 2022년 기준, 주택 > 직업 > 가족 > 기타 > 주거환경 > 교육 > 자연환경 순

○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간 청년들의 이주 사유 변화

- 2013년 기준, 주택 > 직업 > 가족 > 기타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순
- 2022년 기준, 주택 > 직업 > 가족 > 기타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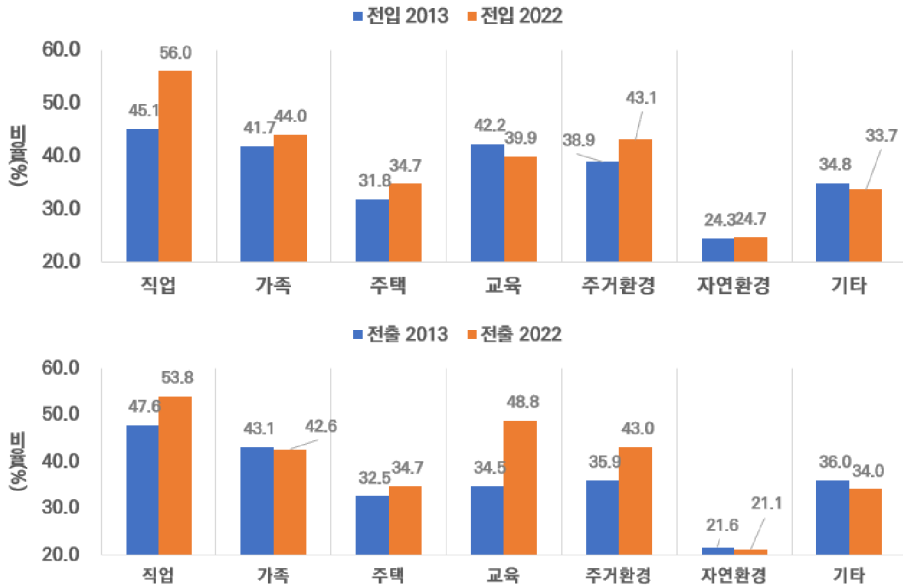
[그림 4-10] 청년의 전입/전출 사유 연도별 변화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세종시 인구가동 전입사유 대비 청년인구 이동 전입사유가 차지하는 비중

- 2013년 세종시로 전입해 온 유입인구의 이주 사유별 청년 이주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직업(45.1%) > 교육(42.2%) > 가족(4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2년의 경우, 직업(56%) > 가족(44%) > 주거환경(43.1%) > 교육(39.9%) 등으로 분석됨
- 2013년 대비 2022년의 청년 전입 사유 변화의 특징

- 세종시 전입인구의 이주사유 중 ‘교육’ 부문에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출범 초기와 달리, 2022년에는 청년 비중이 눈에 띄게 낮아진 상황임



[그림 4-11] 세종시 전체 인구이동 사유 대비 청년 인구이동 사유 비율(2013년 vs. 2022년)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세종시 인구이동 전출사유 대비 청년인구 이동 전출사유가 차지하는 비중
 - 2013년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전출자의 이주 사유별 청년 전출자 비중은 직업(47.6%) > 가족(43.1%) > 주거환경(35.9%) > 교육(3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2년의 경우, 직업(53.8%) > 교육(48.8%) > 주거환경(43.0%) > 주택(34.7%) 등의 순으로 분석됨
 - 2013년 대비 2022년의 청년 전출 사유 변화의 특징
 - 세종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의 이주 사유 중 출범 초기에는 비교적 두드러지지 않았던 ‘교육’ 부문이 2022년에 이르러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3. 세종시 지역 내 격차와 청년 인구 이동

1) 제안 배경

※ 제안 배경

(연구 질문) 세종시는 동 지역 외에 1개 읍, 9개 면 지역이 있는 ‘도농복합도시’이다. 출범 후 10년간 읍·면 지역 청년인구의 이동을 살펴보는 것은,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구이동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하다. 세종시는 읍, 면 지역과 동 지역 간 지역 내 소멸위험지수 격차가 매우 큰 지역이다. 특히, 면 지역의 소멸위험도는 모두 ‘위험’ 지역에 해당한다(소멸위험진입단계 지역 8곳, 고위험 지역 1곳). 이것은 면 지역 내 65세 고령자 인구보다 청년(특히, 여성)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이 모이는 곳을 가려, 매력적인 도시, 살고 싶은 도시라 일컫는다. 더구나 청년 여성 인구의 증가는 지역의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희망하는 인구정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출범 후 10년여 기간(2012~2022년) 동안 세종시의 청년 인구의 이동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세종시는 청년이 느끼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세종시 지역 내 소멸위험도 격차와 청년인구 이동 간의 관계

- 지역 소멸위험지수는 각 지역 내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함. 따라서 지역 내 청년 인구(특히, 여성)의 인구이동은 소멸위험 수준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침

소멸위험지수의 정의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 소멸위험지수 값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지역은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 소멸위험지수 값이 0.5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명칭		소멸위험지수	
소멸 저위험		1.5 이상	
정상지역		1.0 ~ 1.5 미만	
소멸주의		0.5 ~ 1.0 미만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	0.2 ~ 0.5 미만	
	소멸 고위험	0.2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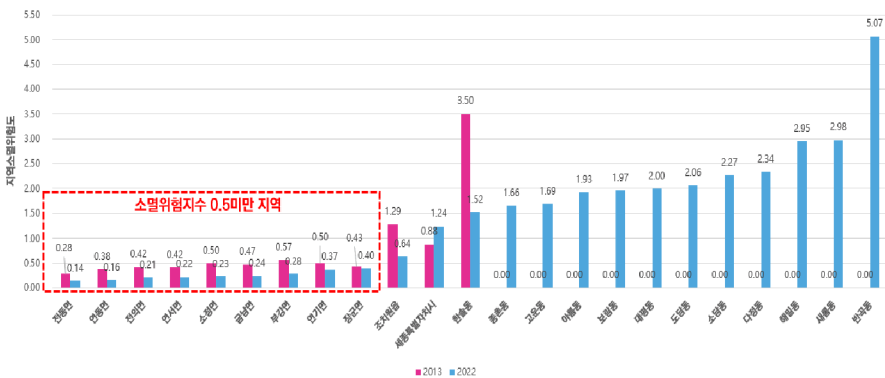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2022), <2022년 3월 전국 시군구2곳 중 1곳은 소멸위험 지역>, 이상호 연구위원의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전략이 필요하다’ 일부 발췌

- (9개 면 지역의 소멸위험지수 격차 심화) 세종시 출범 초기인 2013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세종시 조치원읍과 9개 면 지역의 소멸위험도는 모두 높아짐

- 소멸위험지수 감소 패턴이 도시지역(동 지역) vs. 농촌지역(읍·면 지역) 간 크게 상이하게 나타남
- (지리적·공간적 소멸위험 특징) 2022년 기준, 세종시의 소멸위험지역 (소멸 고위험 + 소멸위험진입 단계)은 전체 면적 중 88.4%를 차지함 (최성은 외, 2023)
- 여기에서는 세종시 인구감소 위험 지역으로 구분되는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2022년까지의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변화를 진단하여,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표 4-1] 세종시 읍·면 농촌지역 소멸위험지수 변화 추이(2013년 대비 2022년)

구분	2013년	2022년	소멸위험지수 변화
전동면	0.28	0.14	△0.14
연동면	0.38	0.16	△0.22
전의면	0.42	0.21	△0.21
연서면	0.42	0.22	△0.20
소정면	0.50	0.23	△0.27
금남면	0.47	0.24	△0.23
부강면	0.57	0.28	△0.29
연기면	0.50	0.37	△0.13
장군면	0.43	0.40	△0.03
조치원읍	1.29	0.64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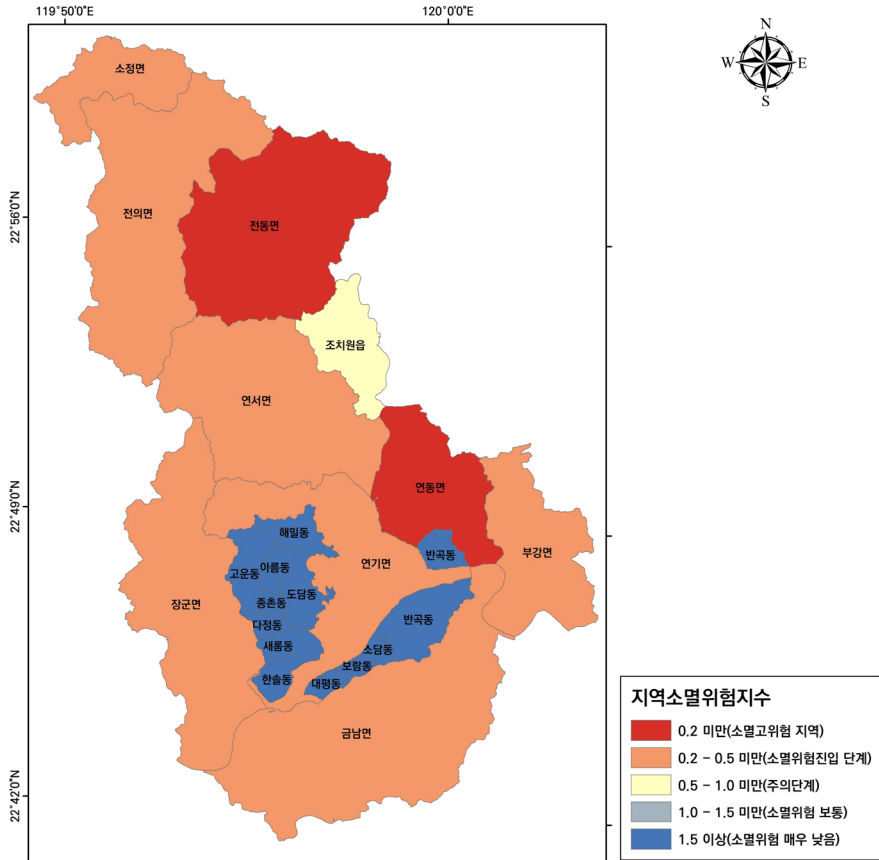
주: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자료: 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2023.05.17. 채구성: 최성은 외(2023), <중앙-지방정부 간 저출산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세종시 정책 제안>, 65~66쪽

[표 4-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소멸위험지역 현황

(단위: 곳, 2022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2022년	소멸 저위험	보통	주의	소멸위험 진입단계	소멸 고위험	합계
세종특별자치시	12	0	1	8	1	22
읍면지역	0	0	1	8	1	10
동지역	12	0	0	0	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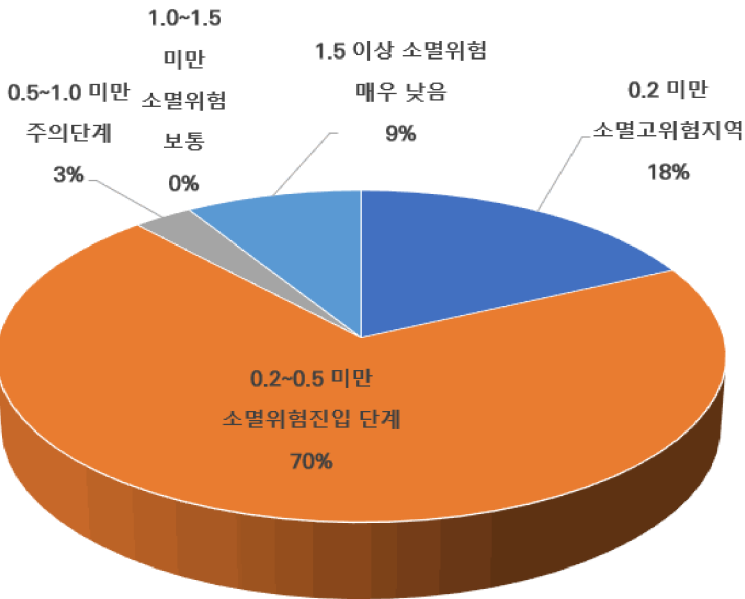


주: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자료: 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2023.05.17. 재구성: 최성은 외(2023), <중앙-지방정부 간 저출산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세종시 정책 제안>, [표 3-기 발췌, 69쪽

[표 4-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소멸위험지역 비율

단계명	면적(km ²)	비율(%)
소멸고위험지역	83.1	17.9
소멸위험진입 단계	327.7	70.5
주의단계	13.7	2.9
소멸위험 보통	0.0	0.0
소멸위험 매우 낮음	40.5	8.7
세종시 전체 면적	46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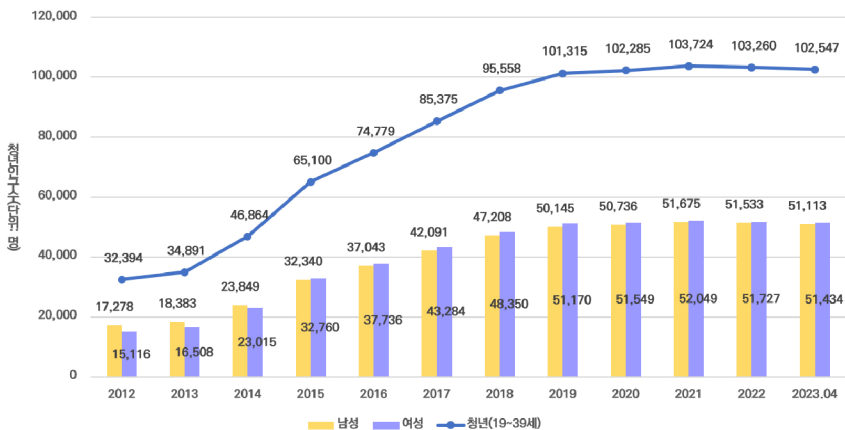


자료: 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2023.05.17. 재구성; 최성은 외(2023), <중앙-지방정부 간 저출산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세종시 정책 제언>, [표 3-7] 발췌, 68쪽

2) 청년 인구 변화

□ (주민등록인구 기준) 세종시 청년(19~39세) 인구 수 변화 추이

-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의 경우, 출범 이후 7년 정도는 급격한 청년 인구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그 성장세가 둔화 또는 감소 되는 추세로 전환됨
 - 2012년 32,394명에서 2022년 103,260명으로, 약 10년간 청년 인구는 218.88% 증가함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세종시의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21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섬
- 연도별 청년 인구수는 2012년 32,394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103,724명으로 정점을 찍음. 그러나 2022년과 2023년(4월 기준)에는 약간의 감소세를 보여 2023년에는 102,547명으로 감소함
 - 연도별 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4년과 2015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이후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20년 이후에는 증가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2022년에는 -0.45%, 2023년에는 -0.69%의 감소율을 기록함



[그림 4-12] 세종시 청년 인구 변화 추이(2012년~2022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3.04, 2023.05.25.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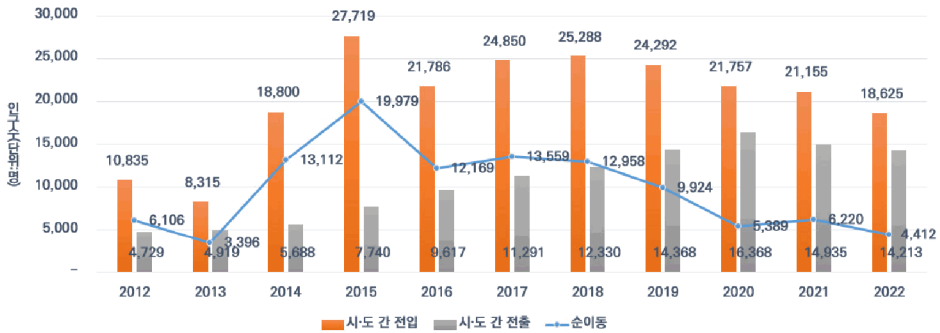
- 남성 대비 여성 인구 비율은 대체로 1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음. 초기에는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다소 많았으나, 2019년부터는 거의 비슷해지거나 여성 인구가 조금 더 많은 상황임
 - 남성과 여성의 인구 증가율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은 2022년에 -0.27%, 2023년에 -0.82%로 감소하였고, 여성은 2022년에 -0.62%, 2023년에 -0.57%로 감소함

□ (인구이동 기준) 세종시 청년 인구이동 변화

- 출범 초기와 달리, 청년 전입 속도가 둔화되고 전출이 증가하면서 순이동이 감소하고 있음
 - (10년간 다른 지역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청년인구 현황) 10,835명에서 18,62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전입 인구가 약 44.8%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그러나 2019년 이후 전입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섬(시·도 간 전입 기준)
 - (10년간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청년인구 현황) 전출 인구는 4,729명에서 14,21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냄. 2019년에는 전출 인구가 전년 대비 약 16.5% 증가하였으며, 이는 10년 중 가장 큰 증가율이었음(시·도 간 전출 기준)
 - (10년간 순이동 변화) 순이동은 6,106명에서 4,412명으로 감소. 2015년에 최고점을 찍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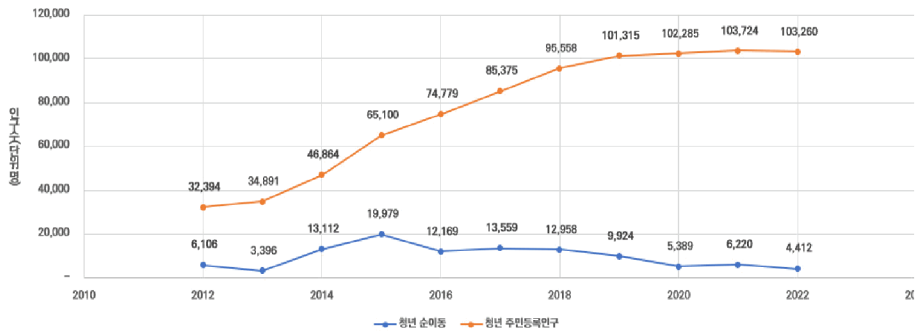
○ 세종시 청년의 순이동과 주민등록인구 비교의 시사점

- 순이동은 주민등록인구 증가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그림 4-14]을 통해, 세종시 청년의 순이동이 감소하고, 주민등록인구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음이 확인됨
- 즉, 세종시의 경우, 청년인구의 증가세에 순이동 감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청년의 순유입이 감소하면서 주민등록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쳐 전체 인구의 감소도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임



[그림 4-13] 세종시 청년 인구이동 현황(2012~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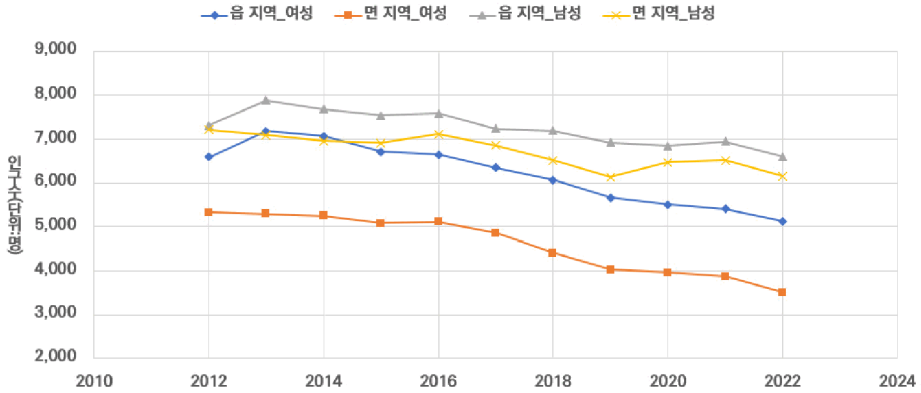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3.04, 2023.05.25. 재구성



[그림 4-14] 세종시 청년의 순이동과 주민등록인구 비교(2012~2022년)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3.04, 2023.05.25. 재구성

- (주민등록 기준 읍·면 지역 청년인구 현황) 최근 2~3년 사이 큰 폭의 청년 인구 감소를 경험함. 면 지역 청년 여성의 급격한 감소에 주목해야 함
- 지역소멸위험지수 산출 계산식에 근거할 때, 면 지역 청년 여성(20~39세)의 감소는 세종시 면 지역의 지역소멸위험도를 높여 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4-15] 읍·면 지역 청년인구의 남녀인구 변화 특성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 읍 지역에서는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으며, 두 성별 모두에서 인구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면 지역에서는 인구감소 추세가 더욱 뚜렷하며, 특히 여성 인구의 감소율이 더 큼. 면 지역 여성 인구 감소율을 보면, 2018년과 2022년에 각각 -9.30% 및 -9.11%의 큰 폭의 감소를 경험함
- 2020년을 기점으로 면 지역 남성 인구의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면 지역 남성 인구는 2020년에 5.43% 증가한 것이 특이함. 그러나 이후 2022년에 -5.48%로 다시 감소함

3) 청년 인구이동 사유 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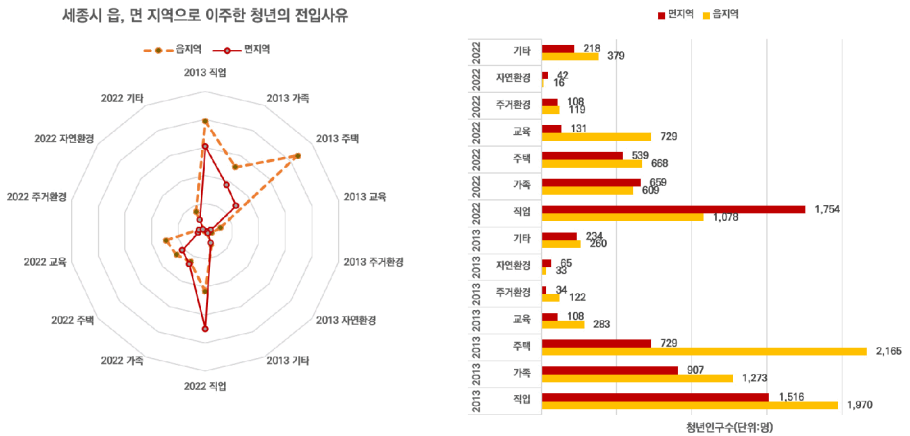
□ 청년들은 왜 세종시의 읍, 면 지역으로 이주해 왔을까?(시점 간 비교)

- (출범 초기인 2013년과 가장 최근 2022년 비교) 타 지역의 청년들이 세종시 읍, 면 지역으로 전입한 주된 사유들에 대해 2013년과 2022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직업 관련 전입 사유는 읍 지역에서 크게 감소한 반면, 면 지역에서는 증가함. 이는 면 지역의 직업 기회가 증가하거나, 또는 읍 지역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결과일 수 있음
 - 가족과 주택 사유로 인한 전입은 모두 감소함. 이는 세종시의 읍, 면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전입 청년의 가족 구성에 이전과 다른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함(예: 1인 가구의 증가)
 - 교육은 청년인구의 전입 사유 중 가장 큰 증가를 보였음. 이는 세종시 읍, 면 지역 내 위치한 대학교의 영향일 수 있음. 세종시의 관내 대학교는 모두 읍, 면 지역에 있음. 고려대 세종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는 조치원읍에, 한국영상대학교는 장군면에 위치함. 교육환경이 향상되었거나 이 지역으로의 교육 기회를 추구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증가했음을 의미함
 - 주거환경 사유로 인한 전입은 면 지역에서 매우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주거환경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거나 또는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택한 결과일 수 있음(예: 원룸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원룸가 신규 형성 등)
 - 자연환경은 전입 사유로서는 감소하여, 청년인구 유입에 있어 매력적인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이 나타남
 - 기타 사유로 인한 전입은 읍 지역에서 증가했으나 면 지역에서는 소폭 감소했음

○ 2013년과 2022년의 읍, 면 지역 청년 인구의 전입 사유별 우선순위

[표 4-4] 19~39세 청년의 전입 사유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2년)

구분	2013년(읍 + 면 지역)	2022년(읍 + 면 지역)
1순위	직업: 3,486명	직업: 2,832명
2순위	주택: 2,894명	가족: 1,268명
3순위	가족: 2,180명	주택: 1,207명, 교육: 1,207명
4순위	기타: 494명	-
5순위	교육: 391명	기타: 597명
6순위	주거환경: 156명	주거환경: 227명
7순위	자연환경: 98명	자연환경: 58명



[그림 4-16] 세종시 읍, 면 지역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이주 사유 변화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2013년 대비 2022년 청년 인구의 전입 사유별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 (직업) 읍 지역에서 45.28% 감소, 면 지역에서 15.70% 증가함
 - (가족) 읍 지역에서 52.16%, 면 지역에서 27.34% 감소함
 - (주택) 읍 지역에서 69.15%, 면 지역에서 26.06% 감소함
 - (교육) 읍 지역에서 157.60%, 면 지역에서 21.30% 증가함
 - (주거환경) 읍 지역에서 2.46% 감소, 면 지역에서 217.65% 대폭 증가함
 - (자연환경) 읍 지역에서 51.52%, 면 지역에서 35.38% 감소함
 - (기타) 읍 지역에서 45.77% 증가, 면 지역에서 6.84% 감소함

□ 읍, 면 지역으로 전입한 청년의 이전 거주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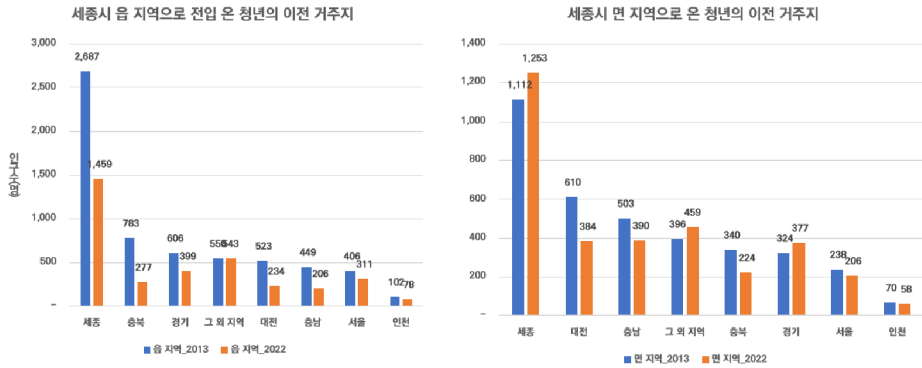
- 2013년 대비 2022년을 비교할 때, 세종시 읍 지역으로의 전입 인구는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 반면, 면 지역으로는 경기와 그 외 지역에서 증가한 전입 인구를 볼 수 있음
 - 특히, 충북과 대전지역으로부터의 청년인구 유입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함
 - 반면 경기 지역과 그 외 시·도 지역에서 세종시 면 지역으로의 전입 증가는 세종시가 외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삶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함(예: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용)
 - 서울과 인천에서의 유입은 감소함. 다만, 그 감소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2013년과 2022년의 읍, 면 지역 청년 인구의 전입 이전 거주지역 우선 순위 변화

[표 4-5] 청년의 전입 이전 거주지역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2년)

구분	2013년(읍 + 면 지역)	2022년(읍 + 면 지역)
1순위	세종: 3,799명	세종: 2,712명
2순위	충북: 1,123명	그 외 지역: 1,002명
3순위	대전: 1,133명	경기: 776명
4순위	충남: 952명	대전: 618명
5순위	그 외 지역: 946명	충남: 596명
6순위	경기: 930명	서울: 517명
7순위	서울: 644명	충북: 501명
8순위	인천: 172명	인천: 136명

- 2013년 대비 2022년 세종시 읍, 면 지역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이전 거주지별 전입 변화를 증감률로 살펴봄
 - (세종) 읍 지역의 경우 45.7% 감소, 면 지역의 경우 12.7% 증가함
 - (충북) 읍 지역의 경우 64.6%, 면 지역의 경우 34.1% 감소함
 - (경기) 읍 지역의 경우 34.2% 감소, 면 지역의 경우 16.4% 증가함
 - (그 외 지역) 읍 지역의 경우 1.3% 감소, 면 지역의 경우 2013년 15.9% 증가함

- (대전) 읍 지역의 경우 55.3%, 면 지역의 경우 37.0% 감소함
- (충남) 읍 지역의 경우 54.1%, 면 지역의 경우 22.5% 감소함
- (서울) 읍 지역의 경우 23.4%, 면 지역의 경우 13.4% 감소함
- (인천) 읍 지역의 경우 23.5%, 면 지역의 경우 7.1% 감소함



[그림 4-17] 세종시 읍, 면 지역으로 온 청년의 이전 거주지 변화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청년들은 왜 세종시의 읍, 면 지역을 떠났을까?(시점 간 비교)

○ 읍, 면 지역의 청년들이 전출하는 주된 사유들에 대해 2013년과 2022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남

- 직업 관련 사유로 인한 전출이 읍 지역보다 면 지역에서 더 크게 증가함. 전입에서도 직업을 사유로 한 청년인구 이동은 면 지역이 증가한 바 있음.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령 집단별(20대 vs. 30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가족과 주택 사유로 인한 전출은 모두 감소함. 특히 주택 사유로 인한 읍 지역 전출의 큰 감소는 시·도 내 이동이 활발한 세종시 청년인구 이동의 특징을 고려할 때 세종시 출범 초기 동 지역 대규모 아파트 분양 및 입주에 따른 변화였음을 추정할 수 있음
- 교육과 주거환경은 전출 사유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 특히 주거환경의 급격한 증가는 생활 환경에 대한 청년들의 높아진 기대와 우선 순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청년의 연령집단별(대학생 vs. 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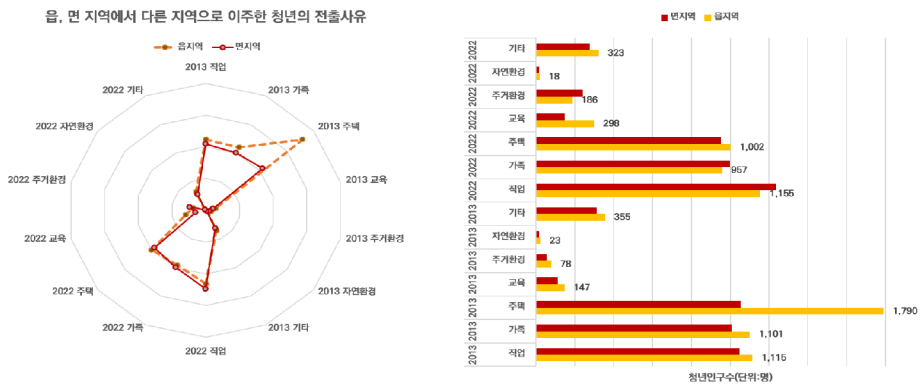
집단이 읍, 면 지역에 다수 거주한다고 볼 때, 대학교 졸업 이후의 주거환경(신도심 지역, 일자리, 자녀교육 등)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임

- 자연환경은 읍 지역에서 감소했으나 면 지역에서는 변화가 없었음
- 기타 사유로 인한 전출은 읍, 면 지역 모두에서 감소함

○ 2013년과 2022년의 읍, 면 지역 청년 인구의 전출 사유별 우선순위의 비교

[표 4-6] 19~39세 청년의 전출 사유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2년)

구분	2013년(읍 + 면 지역)	2022년(읍 + 면 지역)
1순위	주택: 2,842명	직업: 2,391명
2순위	직업 2,163명	가족: 1,955명, 주택: 1,955명
3순위	가족: 2,111명	-
4순위	기타: 667명	기타: 600명
5순위	교육: 259명	교육: 447명
6순위	주거환경: 131명	주거환경: 426명
7순위	자연환경: 40명	자연환경: 35명



[그림 4-18] 읍, 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의 전출사유 비교 (2013년 vs. 2022년)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2013년 대비 2022년 청년인구의 전출 사유별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 (직업) 읍 지역에서 3.59%, 면 지역에서 17.94% 증가함

- (가족) 읍 지역에서 13.08%, 면 지역에서 1.19% 감소함
- (주택) 읍 지역에서 44.02%, 면 지역에서 9.41% 감소함
- (교육) 읍 지역에서 102.72%, 면 지역에서 33.04% 증가함
- (주거환경) 읍 지역에서 138.46%, 면 지역에서 352.83% 증가함
- (자연환경) 읍 지역에서 21.74% 감소, 면 지역에서는 변화 없음
- (기타) 읍 지역에서 9.01%, 면 지역에서 11.22% 감소함

읍, 면 지역에서 전출한 청년의 전출지역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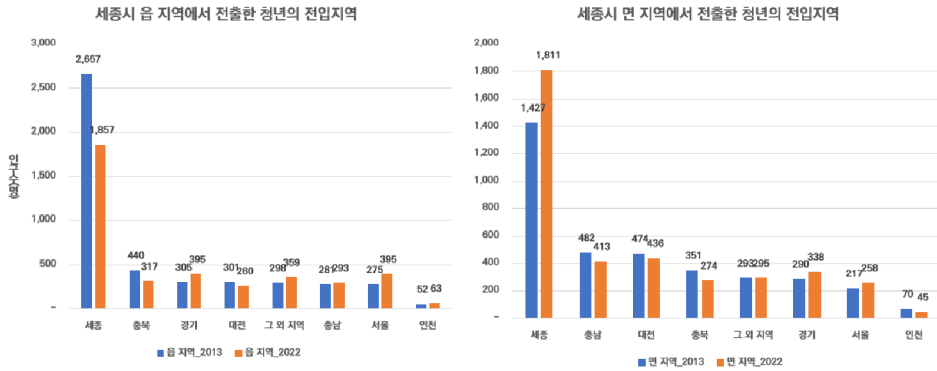
- 세종시 내 읍 지역에서의 전출 인구는 감소한 반면 면 지역에서는 증가함. 서울, 인천, 경기 등의 대도시로의 전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전, 충북, 충남 등은 전출 인구가 감소함
- 2013년과 2022년의 읍, 면 지역 청년 인구의 전출지역 우선순위 변화

[표 4-기] 청년의 전출지역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2년)

구분	2013년(읍 + 면 지역)	2022년(읍 + 면 지역)
1순위	세종 4,084명	세종 3,668명
2순위	충북 791명	경기733명
3순위	대전 775명	충남 706명
4순위	충남 763명	대전 696명
5순위	경기 595명	그 외 지역 654명
6순위	그 외 지역 591명	서울 653명
7순위	서울 492명	충북 591명
8순위	인천 122명	인천 108명

- 2013년 대비 2022년 세종시 읍, 면 지역에서 전출한 청년의 전출지역 별 변화를 증감률로 살펴봄
 - (세종) 읍 지역의 경우 30.1% 감소, 면 지역의 경우 26.9% 증가함
 - (서울) 읍 지역의 경우 43.6%, 면 지역의 경우 18.9% 증가함
 - (인천) 읍 지역의 경우 21.2% 증가, 면 지역의 경우 35.7% 감소함
 - (경기) 읍 지역의 경우 29.5%, 면 지역의 경우 16.6% 증가함
 - (대전) 읍 지역의 경우 13.6%, 면 지역의 경우 8.0% 감소함

- (충북) 읍 지역의 경우 28.0%, 면 지역의 경우 21.9% 감소함
- (충남) 읍 지역의 경우 4.3% 증가, 면 지역의 경우 14.3% 감소함
- (그 외 지역) 읍 지역의 경우 20.5%, 면 지역의 경우 0.7% 증가함



[그림 4-19] 세종시 읍, 면 지역에서 전출한 청년의 전출 지역 변화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4) 전출 사유별 청년이동 추적하기(연령집단 및 성별)

□ 읍, 면 지역에서 '직업'을 이유로 전출한 청년의 연령별·성별 특성(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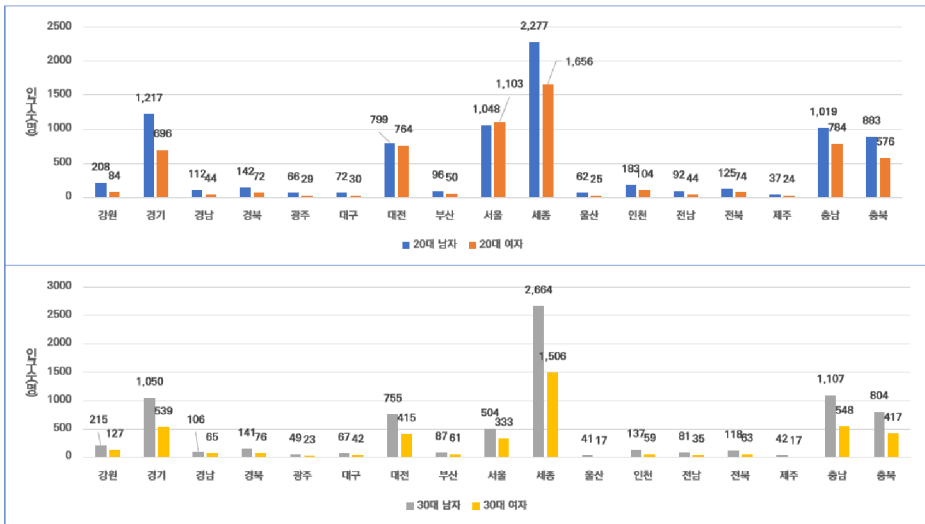
- 읍, 면 지역에 거주하였던 청년 중 '직업'을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 나간 청년들의 특성을 2012~2022년까지 누적한 인구이동 합계로 분석한 결과, 연령 집단별, 성별로 상이한 이동 패턴을 나타냄
- 연령대별 차이점: '20대보다 30대 청년의 세종시 내 이동이 활발함. 서울로의 전출의 경우, 20대 여성이 30대 남녀보다 압도적으로 높음'
 - 20대 청년 대비 30대 청년의 경우, 세종시로의 전출(시·도 내 이동) 인구가 모두 남녀에서 더 많았음
 - 특히, 세종시로의 전출이 30대 남성에서 가장 높았으며(2,664명), 이는 20대 남성 전출 인구(2,277명)보다 387명 더 많음
 - 서울로의 전출은 20대 여성(1,103명)이 30대 남성(504명)과 30대 여성(333명)보다 많음
- 성별 차이점: '남성 청년 전출 인구수 > 여성 청년 전출 인구수, 남성이 여성 청년보다 지역 내 활발한 이동'
 - 20대와 30대 모두 남성 청년의 전출 인구 수가 여성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세종시 내로의 전출은 남성(20대: 2,277명, 30대: 2,664명)이 여성(20대: 1,656명, 30대: 1,506명)보다 많았으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지역 내에서 직업을 이유로 더 활발한 이동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20대 남성
 - 가장 많이 전출한 지역: 세종(2,277명), 경기(1,217명), 충남(1,019명)
 - 가장 적게 전출한 지역: 제주(37명), 울산(62명), 광주(66명)
- 20대 여성
 - 가장 많이 전출한 지역: 세종(1,656명), 서울(1,103명), 경기(696명)
 - 가장 적게 전출한 지역: 제주(24명), 울산(25명), 광주(29명)

○ 30대 남성

- 가장 많이 전출한 지역: 세종(2,664명), 충남(1,107명), 경기(1,050명)
- 가장 적게 전출한 지역: 울산(41명), 제주(42명), 광주(49명)

○ 30대 여성:

- 가장 많이 전출한 지역: 세종(1,506명), 경기(539명), 대전(415명)
- 가장 적게 전출한 지역: 제주(17명), 울산(17명), 인천(59명)



[그림 4-20] 직업을 사유로 전출한 읍, 면 지역 청년 특성(2012~2022년 누적)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읍, 면 지역에서 '주택'을 이유로 전출한 청년의 연령별·성별 특성(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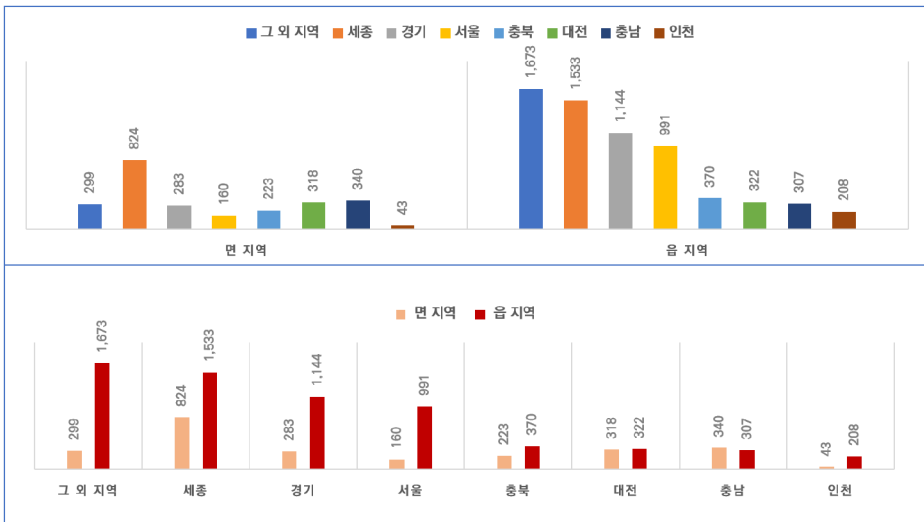
- 읍, 면 지역에 거주하였던 청년 중 '주택'을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 나간 청년들의 특성을 2012~2022년까지 누적한 인구이동 합계로 분석함
 - 직업을 사유로 한 청년 이동과 유사하게 연령 집단별, 성별에 따른 이동 패턴을 보임. 20대 청년보다 30대 청년의 주택으로 인한 세종시 내 이동자수가 많고, 남성 전출 인구 규모가 여성 전출 인구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시도 간 전출 지역의 선호에 있어, 직업을 사유로 한 청년들과는 달리,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보임

- 연령대별 차이점: 20대 대비 30대 청년의 세종시 내 이동이 활발함. 30대의 경우, 가족 단위의 이주 가능성이 신도심 지역(동 지역)으로의 이동 선호 결과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됨.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패턴도 20대보다 30대의 인구수가 더 높음
 - 세종시 내로의 주택을 사유로 한 전출은 남성(20대: 5,119명, 30대: 6,705명)이 여성(20대: 4,207명, 30대: 5,750명)보다 많음
- 성별 차이점: 20대, 30대 모두 주택을 사유로 한 전출 인구수는 '남성 > 여성'
 - '직업'을 사유로 한 20대와 30대와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 모두 남성 청년의 전출 인구수가 여성에 비해 많고, 세종시 내로의 이동이 가장 규모가 큼
- 연령대별 차이: 주택을 사유로 전출한 지역의 우선순위는 20~30대 남녀 모두 '세종 > 충북 > 대전 > 충남 순'으로 동일하나, 이 결과는 '직업'을 사유로 한 전출지역이 수도권을 포함하는 것과는 대조적임
 - 2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전출한 지역: 세종(5,119명), 충북(427명), 대전(356명), 충남(371명) 순
 -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전출한 지역: 세종(4,207명), 충북(354명), 대전(303명), 충남(287명) 순
 - 3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전출한 지역: 세종(6,705명), 충북(507명), 대전(454명), 충남(479명) 순
 - 3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전출한 지역: 세종(5,750명), 충북(405명), 대전(321명), 충남(321명) 순

□ 읍, 면 지역에서 '교육'을 이유로 전입/전출한 청년의 특성(누적)

- 여기에서는 '교육'을 사유 읍, 면 지역에 전입하거나 전출한 청년의 인구 이동을 살펴봄. 이 경우, 청년이 세종으로 전입하기 전 이전 거주지역의 특성과 전출 시 전출지역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2~2022년까지 누적한 인구이동 합계로 분석을 시도함
- '교육'을 사유로 세종시 읍, 면 지역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이전 거주지 특성(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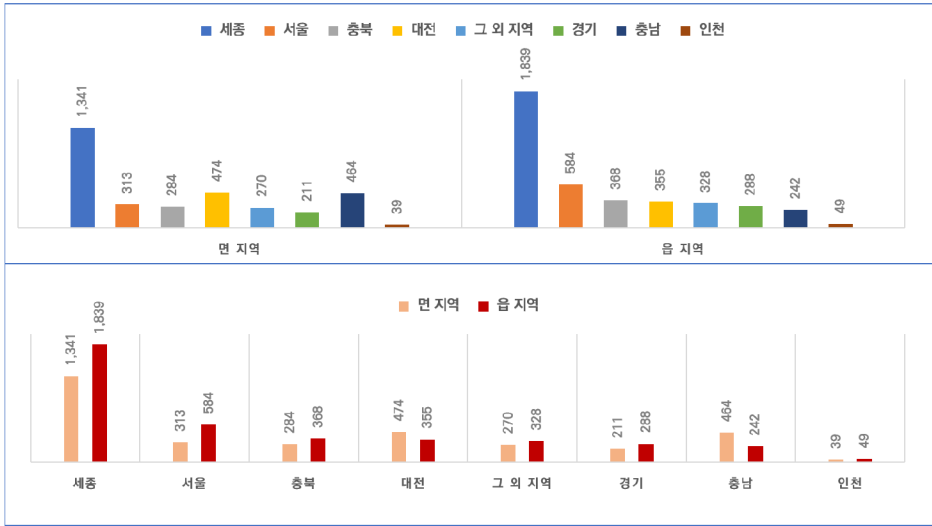
- 읍 지역 우선순위: 그 외 지역 > 세종 > 경기 > 서울 > 충북 > 대전 > 충남 > 인천 순
- 면 지역 우선순위: 세종 > 충남 > 대전 > 그 외 지역 > 경기 > 충북 > 서울 > 인천
- 면 지역에 비하여 읍 지역으로 전입한 청년 인구수가 많음
- 특히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오는 청년 인구는 읍 지역으로의 집중도가 더 높음
- 대전은 면과 읍 지역 간의 전입 인구 차이가 가장 적은 지역임
- 충남은 유일하게 면 지역으로의 전입 인구가 읍 지역보다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그림 4-21] 읍, 면 지역 전입 청년의 이전 거주지 특성(2012~2022년 누적)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교육’을 사유로 세종시 읍, 면 지역에서 전출한 청년들의 전출지역 특성(누계)
 - 읍 지역 우선순위: 세종 > 서울 > 충북 > 대전 > 그 외 지역 > 경기 > 충남 > 인천 순
 - 면 지역 우선순위: 세종 > 대전 > 충남 > 서울 > 충북 > 그 외 지역 > 경기 > 인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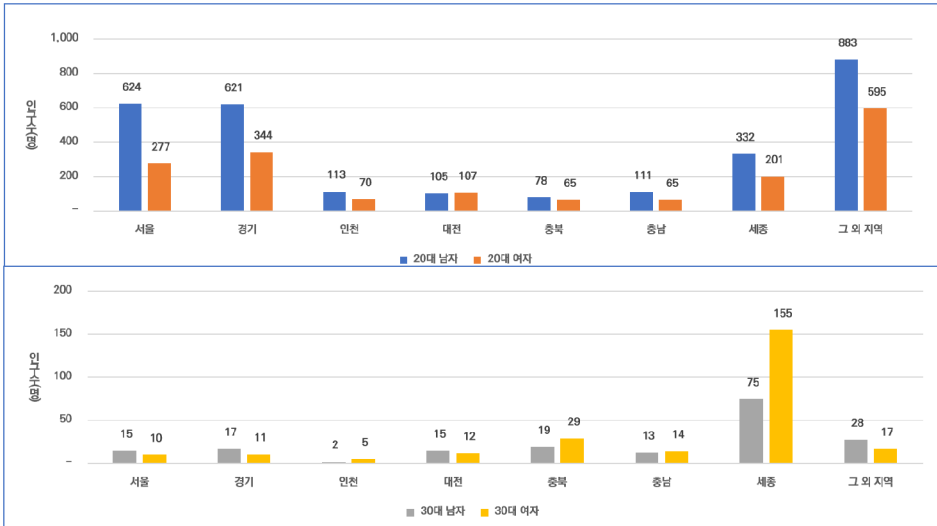
- 서울로의 이동이 읍 지역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음. 반면, 충남은 면 지역에서 읍 지역보다 전출 인구가 더 많은 유일한 지역임



[그림 4-22] 읍, 면 지역 전출 청년의 전출 지역 특성(2012~2022년 누적)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교육’을 사유로 세종시 읍, 면 지역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연령별/성별 이전 거주지 특성(누계)
 - 20대: 서울(901명), 경기(965명), 그 외 지역(1,478명)으로부터 가장 많은 전입 인구를 보이며, 이는 20대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임
 - 30대: 세종(230명), 그 외 지역(45명)으로 전입 인구가 비교적 적음. 이는 30대가 교육을 이유로 세종시로 전입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30대가 학업보다는 직장이나 가족 등 다른 이유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남자: 서울(639명), 경기(638명), 그 외 지역(911명)에서 세종시로의 전입이 가장 많으며, 특히 '그 외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인구가 많은 것은 교육의 기회를 찾아 세종시로 이동하는 남성 청년이 많음을 의미함
 - 여자: 경기(355명), 그 외 지역(612명) 순으로 전입인구가 많음. 이는

청년 여성 전입의 경우, 충청권 외 다른 시·도로부터의 전입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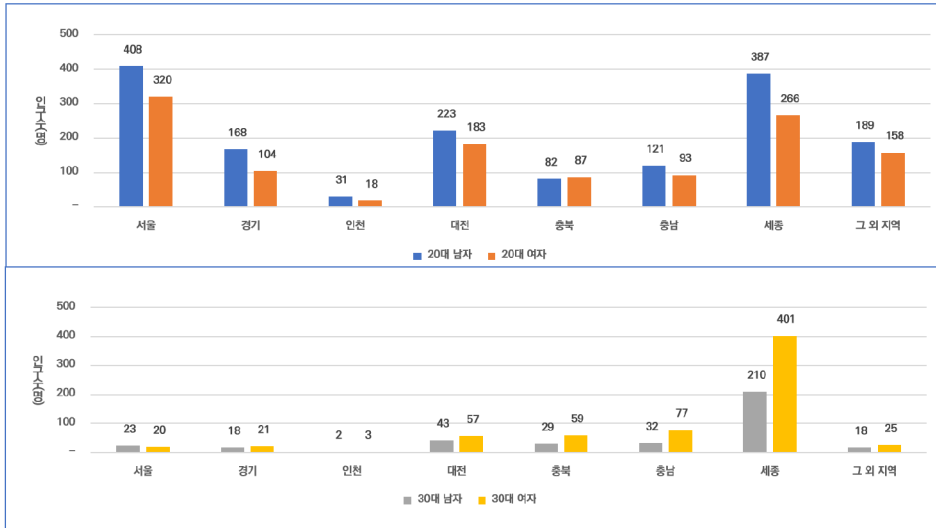


[그림 4-23] 교육을 사유로 전입한 읍, 면 지역 청년의 이전거주지 특성(2012~2022년 누적)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 ‘교육’을 사유로 세종시 읍, 면 지역에서 전출한 청년들의 연령별/성별 전출지역 특성(누계)
 - 20대: 교육을 사유로 전출한 청년들은 서울과 경기 지역 순으로 가장 많이 전출했으며, 세종, 대전 순으로의 전출이 특징임. 총 전출 인구는 2,838명임
 - 30대: 교육을 사유로 전출한 30대 청년층은 1,038명으로 2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세종(611명)으로의 전출이 가장 많았고, 대전(100명)과 충남(109명)으로의 전출도 일부 있음
 - 남자: 교육을 사유로 전출한 남성 청년은 1,984명으로, 서울(431명)과 경기(186명)으로 가장 많이 전출했음. 세종으로의 전출 인구(597명)도 상당히 많은 편임
 - 여자: 교육을 사유로 전출한 여성 청년은 1,892명으로 남성에 비해

약간 적음. 여성 청년의 경우, 세종(667명), 서울(340명)과 경기(125명) 순으로 전출 빈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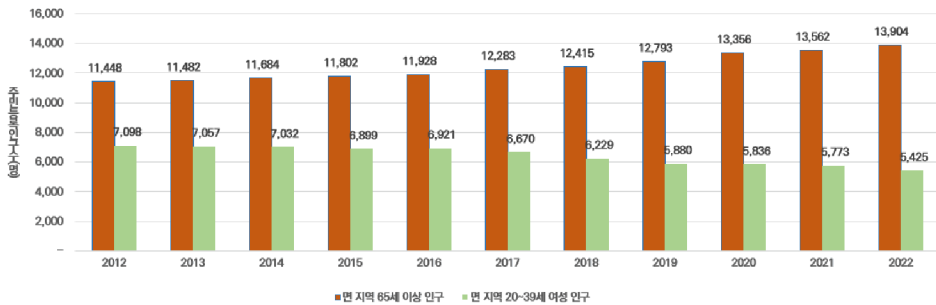
[그림 4-24] 교육을 사유로 전출한 읍, 면 지역 청년 특성(2012~2022년 누적)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5) 읍, 면 지역 여성 청년(20~39세)의 인구이동 특징

□ 소멸위험지수 주요 지표로서의 20~39세 청년여성 인구 현황

- 세종시 9개 면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면 지역 인구 감소 패턴의 특징) 대부분의 인구감소 위기 지역과 마찬가지로 세종시 면 지역의 경우 20~39세 청년여성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라는 특징을 보임(2013년 대비 2022년)



[그림 4-25] 9개 면 지역 65세 이상 고령자와 20~39세 여성 인구수 비교

자료: 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2023.05.17.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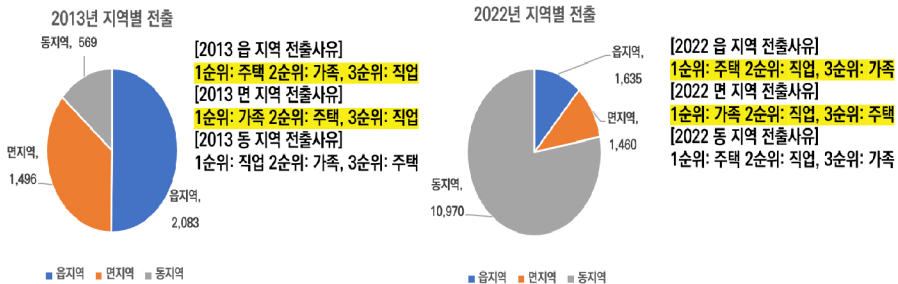
□ 20~39세 세종시 청년 여성이 읍, 면 지역을 떠나는 이유

- 전출 사유별 우선순위 변화(읍 + 면 지역 합계) 특징: 2013년 대비 2022년의 전출 사유 우선순위 변화는 청년들의 전출 동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시사함. 주택 관련 사유는 여전히 청년 전출의 주요 원인이지만, 그 중요성은 다소 감소한 반면, 교육과 주거환경 관련 전출이 증가함
 - '주택' 사유는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출 인구 수가 크게 감소함
 - '가족' 사유는 2위에서 1위로 상승하였으나, 전출 인구 수 자체는 감소함

- '직업' 사유는 2위로 상승하였으나, 전출 인구 수는 감소함
- '기타' 사유는 4위를 유지함
- '교육' 사유는 순위는 5위로 동일하나, 전출 인구 수가 증가함
- '주거환경' 사유도 순위는 6위로 동일하나, 전출 인구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함
- '자연환경' 사유는 변화가 거의 없으며,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유지함

[표 4-8] 20~39세 여성의 전출 사유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2년)

구분	2013년(읍 + 면 지역)	2022년(읍 + 면 지역)
1순위	주택: 1,247명	가족: 852명
2순위	가족: 997명	직업: 846명
3순위	직업: 837명	주택: 776명
4순위	기타: 302명	기타: 247명
5순위	교육: 118명	교육: 189명
6순위	주거환경: 63명	주거환경: 171명
7순위	자연환경: 15명	자연환경: 14명



[그림 4-26] 20~39세 세종시 청년 여성이 읍, 면 지역을 떠나는 이유

자료: 최성은 외(2023), <중앙-지방정부 간 저출산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세종시 정책 제언>, 30쪽, [그림 2-7] 일부 발췌

20~39세 세종시 읍, 면 지역 청년여성의 주요 전출지역

- 2013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세종시 읍 지역은 20~39세 여성의 전출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면 지역은 증가함

- 서울과 인천으로의 전출 인구는 증가했으나, 인천은 면 지역에서는 대폭

감소함. 경기 지역은 전출 인구가 안정적이었으며, 충북과 대전은 읍과 면 지역 모두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세종) 읍 지역에서 1,214명에서 824명으로 390명(32.13%) 감소, 면 지역에서는 596명에서 698명으로 102명(17.11%) 증가함
- (서울) 읍 지역에서는 128명에서 168명으로 40명(31.25%), 면 지역에서는 92명에서 117명으로 25명(27.17%) 증가함
- (경기) 읍 지역에서는 131명에서 131명으로 변화 없음, 면 지역에서는 110명에서 120명으로 10명(9.09%) 증가함
- (인천) 읍 지역에서는 15명에서 25명으로 10명(66.67%) 증가. 면 지역에서는 25명에서 11명으로 14명(56.0%) 감소함
- (대전) 읍 지역에서는 139명에서 111명으로 28명(20.14%), 면 지역에서는 197명에서 175명으로 22명(11.17%) 감소함
- (충북) 읍 지역에서는 215명에서 117명으로 98명(45.58%), 면 지역에서는 165명에서 100명으로 65명(39.39%) 감소함
- (충남) 읍 지역에서는 124명에서 115명으로 9명(7.26%), 면 지역에서는 204명에서 158명으로 46명(22.55%) 감소함
- (그 외 지역) 읍 지역에서는 117명에서 144명으로 27명(23.08%) 증가, 면 지역에서는 107명에서 81명으로 26명(24.3%) 감소함

○ 2013년과 2022년 20~39세 청년 여성의 전출지역 우선순위 비교

[표 4-9] 20~39세 여성의 전출지역별 우선순위 변화(2013년 vs. 2022년)

구분	2013년(읍 + 면 지역)	2022년(읍 + 면 지역)
1순위	세종(1,810명)	세종 (1,522명)
2순위	충북(380명)	대전 (286명)
3순위	대전(336명)	서울 (285명)
4순위	충남(328명)	충남 (273명)
5순위	경기(241명)	경기 (251명)
6순위	서울(220명)	충북 (217명)
7순위	그 외 지역 (224명)	그 외 지역 (225명)
8순위	인천(40명)	인천 (36명)

2013년 20~39세 세종여성의 주요 전출지

1순위: 세종, 2순위: 대전, 3순위 충북, 4순위 충남, 5순위 경기

- 읍 지역 젊은 여성 전출지: 세종>충북>대전>경기>서울 등의 순
- 면 지역 젊은 여성 전출지: 세종>충남>대전>충북>경기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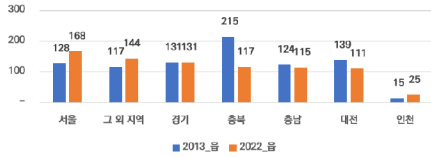


2022년 20~39세 세종여성의 주요 전출지

1순위: 세종, 2순위: 대전, 3순위 서울, 4순위 경기, 5순위 충남

- 읍 지역 젊은 여성 전출지: 세종>서울>경기>충북>충남 등의 순
- 면 지역 젊은 여성 전출지: 세종>대전>충남>경기>서울 등의 순

읍 지역 청년 여성의 전출지역 변화



면 지역 청년 여성의 전출지역 변화



[그림 4-27] 20~39세 세종시 읍, 면 지역 청년여성의 주요 전출지역

주: 읍, 면 지역 청년 여성의 전출지역 변화 그래프의 경우, 2022년 인구수 기준 내림차순 정렬함

자료: 최성은 외(2023), <중앙-지방정부 간 저출산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세종시 정책 제안>, 30쪽, [그림 2-7] 및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자료 재구성

3절 시사점

1. 세종시 청년 연령 집단별 인구이동 특성

□ 주요 특징

- 2012~2022년 동안 세종시 순이동에서 차지하는 청년 비중은 다소 부침이 있으나 증가세(우상향)를 보임
- (시·도 간 전입과 전출) 청년의 연령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결과, 20대 청년층의 경우 전입과 전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
 - 반면, 30대 청년층의 경우, 2019년 이후 전입이나 전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있어 20대 청년층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한 편은 아님
- (시·도 내 이동) 30대 청년층 비중이 20대 청년층 비중보다 높음. 즉, 30대가 세종시 내 이동이 20대에 비하여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려되는 변화

- 2018년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세종시 전체 유출 인구 중 2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2013년 23.1%에서 2022년 26.7%)

2. 청년의 시·도 간 이동 특징과 사유 비교

□ 주요 특징

- 세종시 청년의 시·도 간 이동은 전입과 전출 모두 출범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세종시 청년인구 이동은 초기 충청권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였으나 (2014~2015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냄. 그 대신, 세종시 내 이동,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증가하였음
 - 세종시를 제외한 충청권 지역 내 가장 청년 유입과 유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전시임

- (청년인구 이동 사유 변화: 전입) 2013년 기준 직업(45.1%) > 교육(42.2%) > 가족(41.7%) 등의 순에서 2022년 직업(56%) > 가족(44%) > 주거환경(43.1%) > 교육(39.9%) 등의 순으로 변화함
- (청년인구 이동 사유 변화: 전출) 2013년 기준 직업(47.6%) > 가족(43.1%) > 주거환경(35.9%) > 교육(34.5%) 등의 순에서 2022년 직업(53.8%) > 교육(48.8%) > 주거환경(43.0%) > 주택(34.7%) 등의 순으로 변화함

□ 우려되는 변화

- 출범 초기인 2013년에 비하여 2022년에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으로 이동(전입, 전출)한 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짐
 - 2022년 기준, 서울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 중 51.8%(4,892명 중 2,533명)를 청년이 차지함(2013년 41.6%에서 10.2%p 상승)
 - 2022년 기준, 세종시에서 서울로 전출한 인구 중 61.3%(4,550명 중 2,790명)를 청년이 차지함(2013년 56%에서 5.3%p 상승)
- (전입/전출 사유의 변화 특징) ‘교육’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전입을 선택 하였던 청년인구는 감소하는 대신,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전입사유 시사점: “교육 및 주거환경과 관련된 정책은 청년들의 전입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
 - 전출사유 시사점: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기회 확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

3. 세종시 지역 내 격차와 청년 인구 이동

1) 주요 특징

□ 주민등록인구 변화 측면

- (주민등록인구 변화 측면)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의 경우, 출범 이후 7년 정도는 급격한 청년 인구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그 성장세가 둔화 또는 감소되었음
- (인구이동 변화 측면) 세종시 청년의 시·도 간 이동은 전입과 전출 모두 출범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주민등록 기준 읍·면 지역 청년인구 현황) 최근 2~3년 사이 큰 폭의 청년 인구 감소를 경험함. 면 지역 청년 여성의 급격한 감소에 주목해야 함
 - 지역소멸위험지수 산출 계산식에 근거할 때, 면 지역 청년 여성(20~39세)의 감소는 세종시 면 지역의 지역소멸위험도를 높여 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읍, 면 지역 청년인구 이동 사유 측면

- (읍, 면 지역 청년인구 이동 사유 변화: 전입) 2013년 기준 직업 > 주택 > 가족 > 기타 > 교육 등의 순에서 2022년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기타 등의 순으로 변화함
- (읍, 면 지역 청년인구 이동 사유 변화: 전출) 2013년 기준 주택 > 직업 > 가족 > 기타 > 교육 등의 순에서 2022년 직업 > 가족 = 주택 > 기타 > 교육 등의 순으로 변화

□ 읍, 면 지역 청년인구 이전 거주지 및 전출지역 측면

- (읍, 면 지역 청년인구 전입 이전 거주지) 2013년 세종 > 충북 > 대전 > 충남 지역 순에서 2022년 세종 > 그 외 지역 > 경기 > 대전 순
- (읍, 면 지역 청년인구 전출 지역) 2013년 세종 > 충북 > 대전 > 충남 > 경기 지역 순에서 2022년 세종 > 경기 > 충남 > 대전 > 그 외 지역 등의 순

□ 전출 사유별 청년이동 특징: ①직업

○ 20대보다 30대 청년의 세종시 내 이동이 활발함

- 20대와 30대 모두 남성 청년의 전출 인구 수가 여성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이 여성 청년보다 지역 내 활발한 이동을 보임

○ 직업을 찾아 수도권으로의 전출한 청년의 전출지역은 성·연령별로 다른 특성을 보임. 서울로의 전출의 경우, 20대 여성이 30대 남녀보다 압도적으로 높음

- 20대 남성 전출지역: 세종(2,277명), 경기(1,217명), 충남(1,019명) 등의 순
- 20대 여성 전출지역: 세종(1,656명), 서울(1,103명), 경기(696명) 등의 순
- 30대 남성 전출지역: 세종(2,664명), 충남(1,107명), 경기(1,050명) 등의 순
- 30대 여성 전출지역: 세종(1,506명), 경기(539명), 대전(415명)

□ 전출 사유별 청년이동 특징: ②주택

○ 20대 청년보다 30대 청년의 주택으로 인한 세종시 내 이동자수가 많고, 남성 전출 인구 규모가 여성 전출 인구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됨

○ 20대 대비 30대 청년의 세종시 내 이동이 활발함. 30대의 경우, 가족 단위의 이주 가능성이 신도심 지역(동 지역)으로의 이동 선호 결과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됨.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패턴도 20대보다 30대의 인구수가 더 높음

○ 주택을 사유로 전출한 지역의 우선순위는 20~30대 남녀 모두 '세종 > 충북 > 대전 > 충남 순'으로 동일하나, 이 결과는 '직업'을 사유로 한 전출지역이 수도권을 포함하는 것과는 대조적임

□ 전출 사유별 청년이동 특징: ③교육

○ 세종시 읍 지역은 면 지역에 비하여, 교육을 사유로 전입한 수도권 등 지역 청년 비중이 높음

○ 20대와 30대 청년 중, 교육을 사유로 읍, 면 지역 전입과 전출이 많은 청년층은 20대라고 할 수 있음

- 20대: 서울(901명), 경기(965명), 그 외 지역(1,478명)으로부터 가장 많은 전입 인구를 보이며, 이는 20대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임
- 30대: 세종(230명), 그 외 지역(45명)으로 전입 인구가 비교적 적음. 이는 30대가 교육을 이유로 세종시로 전입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30대가 학업보다는 직장이나 가족 등 다른 이유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읍, 면 지역 청년 중 20대의 경우는 서울과 경기 지역 순으로 전출 빈도가 높은 반면, 30대의 경우는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보다는 충청권 지역에서의 전출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2) 우려되는 변화

순이동의 감소와 청년인구 증가세 둔화

- 세종시의 경우, 청년인구의 증가세에 순이동 감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청년의 순유입이 감소하면서 주민등록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쳐 전체 인구의 감소도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읍, 면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현상 심화

- 2013년 대비 2022년 세종시 읍, 면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전출지역: 서울) 읍 지역의 경우 43.6%, 면 지역의 경우 18.9% 증가함
 - (전출지역: 경기) 읍 지역의 경우 29.5%, 면 지역의 경우 16.6% 증가함
 - (전출지역: 인천) 읍 지역의 경우 21.2% 증가, 면 지역의 경우 35.7% 감소함
- 2013년에 비하여 2022년의 읍, 면 지역 청년 여성(20~39세)의 전출 지역 우선순위에서 수도권 비중이 높아짐

- 세종을 제외하고 볼 때, 읍 지역 젊은 여성 전출자의 경우, 2013년의 경우, 세종 > 충북 > 대전 > 충남 > 경기 등의 순으로 충청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도권 지역보다 월등히 활발했음. 반면, 2022년에는 세종 > 대전 > 서울 > 충남 > 경기 등의 순으로 전출지역 우선순위가 변화됨
- 또한, 대전, 충남, 충북과 같은 충청권 내 지역의 전출자 수는 2013년에 비하여 모두 감소한 반면, 서울, 경기 지역은 2022년에 모두 전출자가 증가한 특징을 보임

□ 직업/주택/교육을 사유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이동패턴

- 세종시 내의 일자리의 부족, 교육 여건의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질 경우, 읍·면 지역의 청년들(특히, 20대)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심화될 전망이다
- 주택을 사유로 한 30대의 세종시 내 이동의 패턴은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에 있어 안정적인 주거 조건이 매우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줌

결 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진단 결과와 시사점

제3절 정책 제언

5장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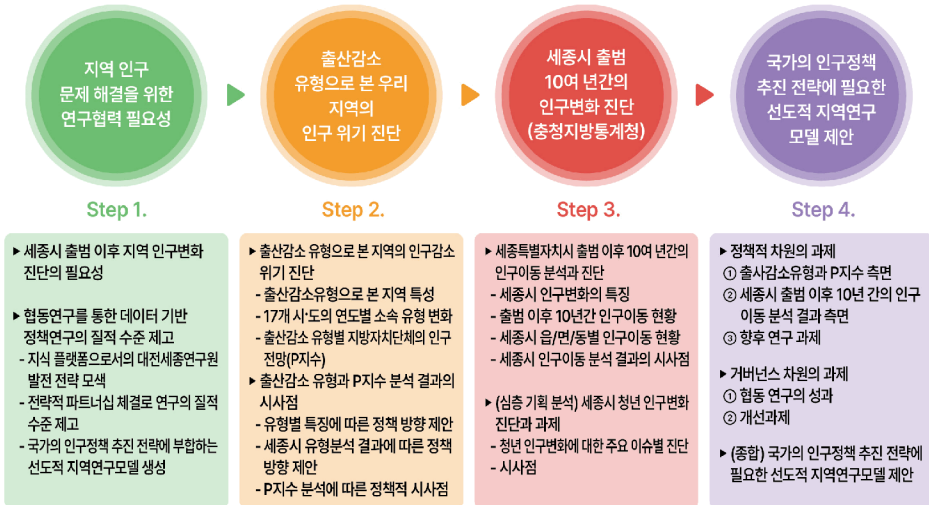
1절 연구 요약

1.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측면

□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동 연구 사례로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한 기존 연구의 지속성·연결성·확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부합하는 선도적 지역연구모형을 만드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세종시 출범 이후 10여 년간의 ❶ 출산감소 유형의 변화(17개 시·도), ❷ 세종시 읍·면·동 중심의 인구이동, ❸ 지역 청년 인구변화에 대한 진단을 협업을 위한 전략적 주제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 연구의 흐름별 주요 내용



[그림 5-1] 연구의 주요 내용

2. 연구의 차별성 측면

□ 연구의 구성 측면: 액자형 구조

- 이 과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자체 심의를 거쳐 진행된 전략상생연구임
 - 세종시나 대전시의 연구 제안을 통해 연구 주제가 정해진 후, 수행하는 정책연구와는 다른 과제 유형임
- 따라서 대전세종연구원 차원의 선제적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정책 제안이 가능하고, 연구 방법론과 구성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전략적 연구’ 수행이 가능함
- 본 연구는 기존의 주어진 하나의 주제에 대한 문제해결형 정책 방향 제시 연구 형태(정책연구)와는 다른 액자형 구성 형태를 통해,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지역연구모형을 제시함
 - 액자형 구조는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 있는 글쓰기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지역연구모형 마련’이라는 연구 목적을 큰 프레임으로 두고,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동 연구를 통해 얻어진 세종시 출범 이후 10여 년간의 인구이동 분석 사례를 그 안에 담는 과정을 거침
 - 이러한 액자형 구성 연구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지역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모델의 지속가능성과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연구의 분석 내용 측면: 선행연구의 지속성·연결성·확장성 제고

-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와 세종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및 선제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 축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정책연구의 경우, 두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부서별 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제에 따라 지속성과 연결성, 그리고 확장성을 고려하여 자료의 최신화를 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대표적인 연구 주제가 바로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위기 관련 이슈’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관련 주제를 정책연구 형태로 수행하기에는 연구원의 연구 주제 선정 기준(예: 중복된 과제 배제), 분량 및 예산의 한계 등이 존재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연구의 수행 여부나 자료 최신화의 필요성도 인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남
-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지속성·연결성·확장성을 고려한 전략 연구수행을 충청지방통계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시도하였음
- 이는 연구원 자체적인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쇄신 노력과 대전과 세종 중심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의지를 담은 ‘보완적 연구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데이터 자체의 가치 측면: 통계청 내부망 SASApp 서버 내 저장공간 할당으로 만들어진 희소성 높은 세종시 인구이동 데이터

- 단층제 행정체계를 고려한 세종시 상황에 맞춘 출범 이후 10여 년간의 인구이동 분석은 지역 연구기관 차원에서 정확한 자료정제 및 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 본 연구의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인구이동데이터를 10여 년에 걸친 읍·면·동, 지역별/성별/연령별 등으로 세분화해야 하는데, 그 데이터 규모가 일반 업무용 PC 수준에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임
- 실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이동 데이터는 통계청 내부망 SASApp 서버 내 저장공간을 할당받아 마이크로데이터 자료 업로드 후 분석이 이루어졌음
- 충청지방통계청 데이터분석팀의 전문역량 활용(공동연구진으로의 협업)과 통계청 서버 이용이 불가능했다면, 출범 이후 10여 년간의 세종시 인구이동 데이터를 이 연구에 활용하지 못했을 것임

□ 연구의 분석 내용 측면: 협업을 위한 전략적 주제 선정, ‘청년인구 이동’

- 본 연구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간한 2018년도 정책연구 과제 2건에 대하여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최신화한 결과를 담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의 지속성·연계성·확장성을 추구하는 본 연구진은 세종시 읍, 면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고려한 청년의 인구이동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4장에 담았음
- 이것은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격차가 심한 도농복합도시 세종시의 특성에 맞춘 기획 분석이자, 충청지방통계청의 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자료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절 진단 결과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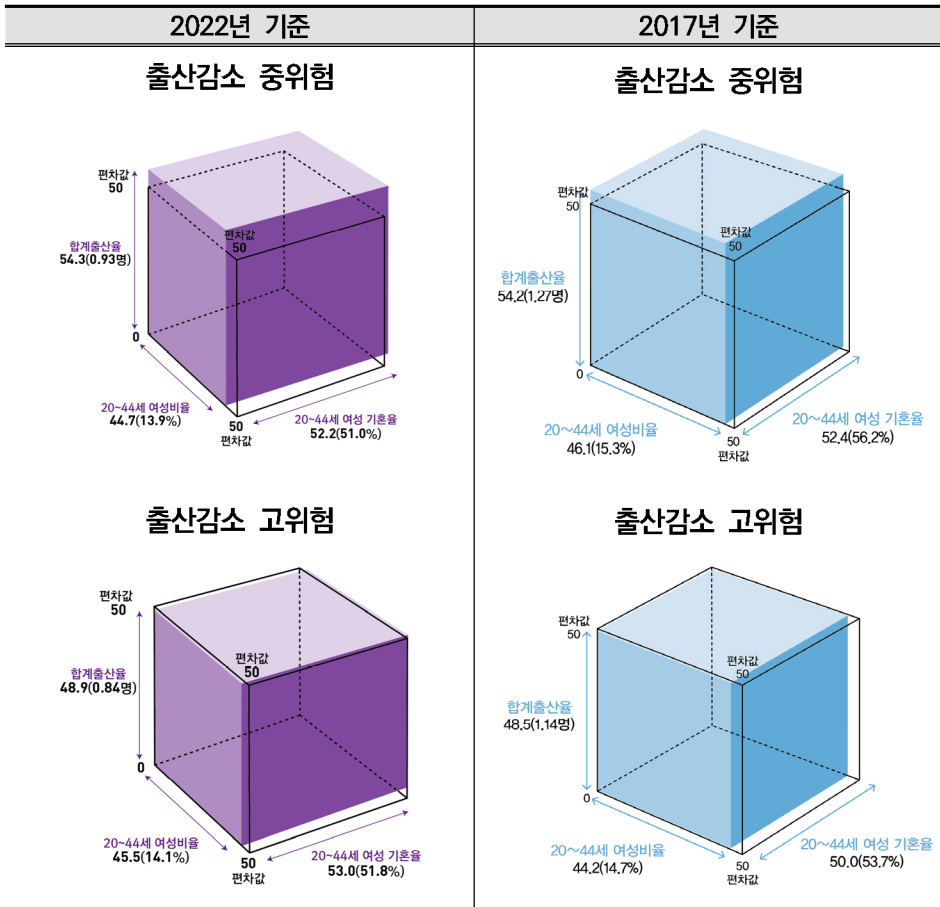
1. 출산감소 유형 분석과 P지수 시나리오 분석의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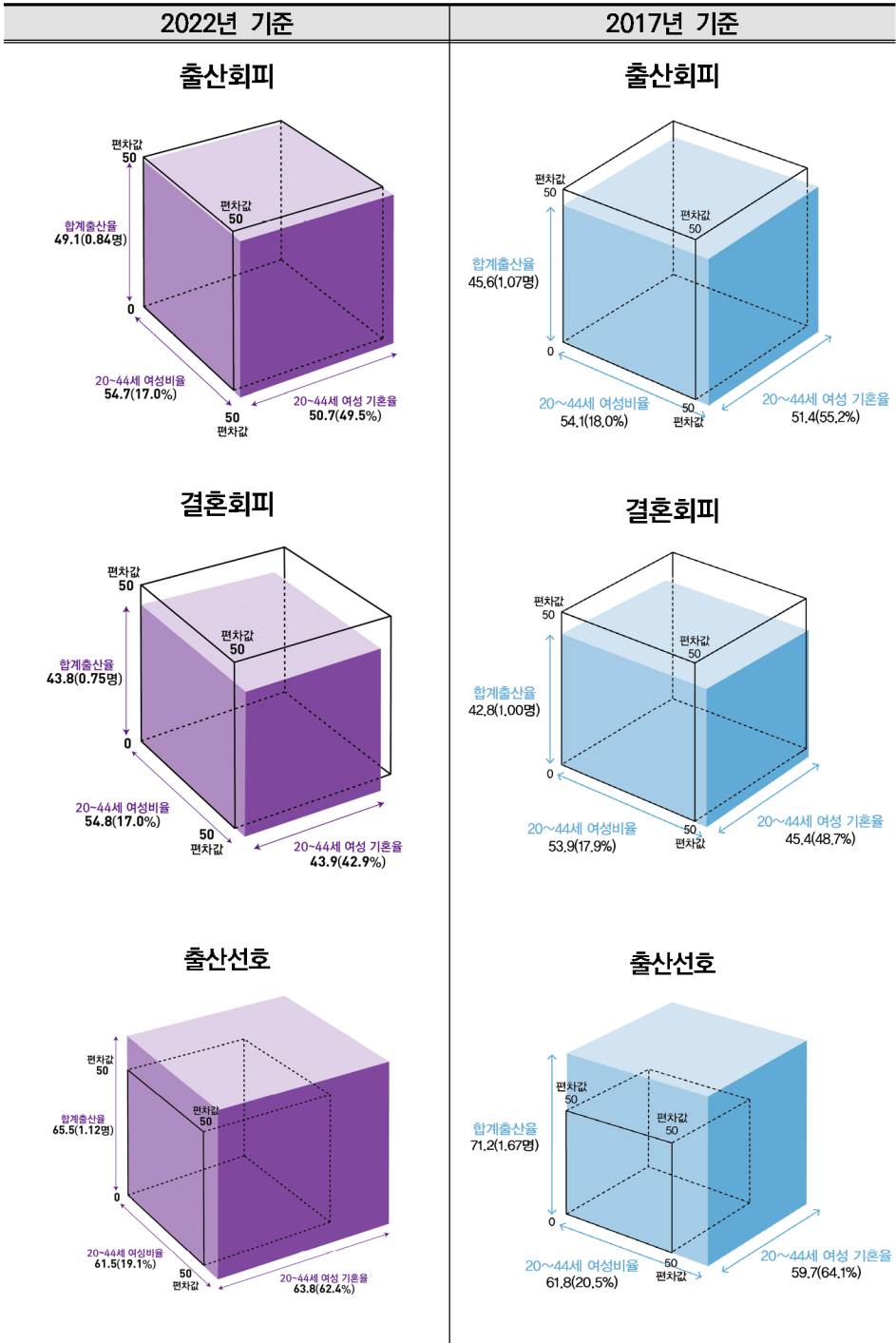
1) 선행연구와의 비교 결과

□ 출산감소 유형별 3개 지표 환산값 변화(2017년 vs. 2022년)

- 2017년 기준 출산감소 유형을 분석한 선행연구(최성은, 2018)와 2022년 기준으로 산출한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별 변화된 특징을 살펴봄

[표 5-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내 소멸위험지역 비율값 변화(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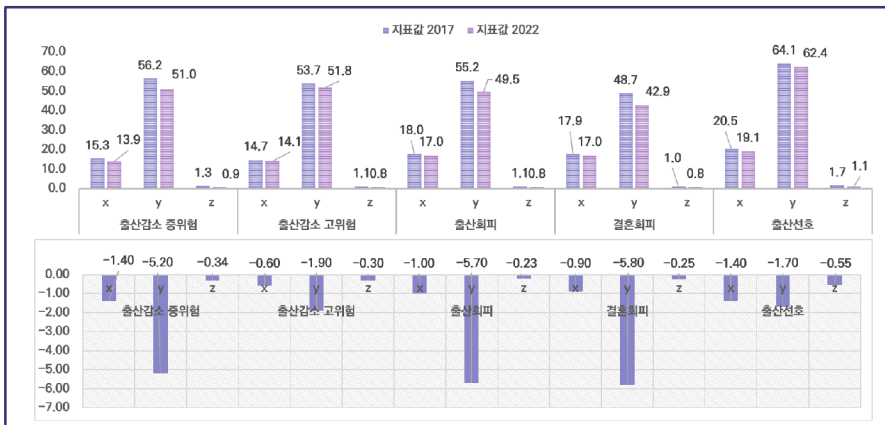
자료: 2017년 기준 자료는 최성은(2018)의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 자료를 발췌하여 포함하였음

○ 출산감소 유형별 기준 모형의 차이(2017년 vs. 2022년)

[표 5-2] 출산감소 유형별 기준 모형의 차이(2017년 vs. 2022년)

유형 구분	지표	A: 2022년		B: 2017년		증감(A-B)	
		환산값	지표값	환산값	지표값	환산값	지표값
출산감소 중위험	X	44.7	13.9	46.1	15.3	-1.4	-1.40
	Y	52.2	51.0	52.4	56.2	-0.2	-5.20
	Z	54.3	0.9	54.2	1.3	0.1	-0.34
출산감소 고위험	X	45.5	14.1	44.2	14.7	1.3	-0.60
	Y	53	51.8	50	53.7	3	-1.90
	Z	48.9	0.8	48.5	1.1	0.4	-0.30
출산회피	X	54.7	17.0	54.1	18.0	0.6	-1.00
	Y	50.7	49.5	51.4	55.2	-0.7	-5.70
	Z	49.1	0.8	45.6	1.1	3.5	-0.23
결혼회피	X	54.8	17.0	53.9	17.9	0.9	-0.90
	Y	43.9	42.9	45.4	48.7	-1.5	-5.80
	Z	43.8	0.8	42.8	1.0	1	-0.25
출산선호	X	61.5	19.1	61.8	20.5	-0.3	-1.40
	Y	63.8	62.4	59.7	64.1	4.1	-1.70
	Z	65.5	1.1	71.2	1.7	-5.7	-0.55

2017년 vs. 2022년 X, Y, Z 지표값의 변화
(검은색 바탕의 그래프는 지표값 증감 수치를 나타냄)



주: X= 20~44세 여성 비율(단위:%), Y=20~44세 여성 기혼율(단위:%), Z=합계출산율(단위:명)

- 2017년 대비 2022년 모든 유형의 X, Y, Z 지표값이 감소하였음이 확인됨
- 다만, 지표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값이 낮아져서(예: 2017년 17개 시도 평균 y 지표값 1.3명을 50으로 환산 ⇒ 2022년 17개 시도 평균 y 지표값 0.8명을 50으로 환산) 일부 유형별 X, Y, Z 지표의 환산값의 경우, 증가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 **광역자치단체별 출산감소 유형 분석 결과(2012~2022년)**

○ 출산감소지역 유형화 작업을 통해 도출한 17개 시·도의 2012~2022년
까지의 출산감소 유형 변화를 살펴봄

[표 5-3] 세종시와 대전시의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

연도 유형구분	2012년	2015년	2017년	2020년	2022년 ¹⁾
출산감소 중위험 (G1:저-저-고)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없음	
출산감소 중위험 (G2:저-고-고)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감소 고위험 (G3:저-고-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없음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출산감소 고위험 (G4:저-저-저)	없음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북도
출산회피 (G5:고-고-저)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출산선호 (G6: 고-고-고)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출산감소 저위험 (G7:고-저-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결혼회피 (G8:고-저-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주: [부록 표 1-12]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지표 상세표기) 참조

- 1) 2022년 - y축: 통계청(2021), <2020년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자료 활용
- z축: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2023.2.22.

○ 출산감소 유형의 연도별 변화의 해석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앞서 살펴본
출생지표(x, y, z)의 모든 수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현 시점(2022년)을 기준
으로 상대적인 수준에서 유형별 구분이 유의미하다는 점임

- 세종시는 출범 해인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출산선호 유형을 유지해 왔음
- 대전시의 경우,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결혼회피 유형을 유지해 오고 있음

2) 출산감소 유형 분석과 P지수 시나리오 분석의 시사점

□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 지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출산감소 심화 요인)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연령대인 20~44세 여성 비율이 낮다는 점이 출산 감소의 위험을 높여 온 것으로 여겨짐
 - 이 유형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출산감소 고위험군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젊은 세대, 특히 청년 여성의 지속적인 유입과 정주환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지역임
- (출산감소 중위험 지역의 변화) 2017년에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이었던 강원지역이 2022년에는 중위험 지역으로 변하였음. 제주의 경우, 2017년에는 20~44세 여성 비율과 20~44세 여성 기혼율이 모두 낮았던 중위험 지역에서 여성 비율만 낮은 중위험 지역으로 이전됨
 - 이러한 변화는 X, Y, Z 지표값의 감소에 기인한 평균값의 변화로 상대적인 수준에서의 변동으로 추정됨

□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 지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출산감소 심화 요인) 합계출산율과 20~44세 젊은 여성 비율이 모두 낮은 지역인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은, 여성의 높은 기혼율에도 불구하고 출산감소가 일어나는 지역(울산, 경남)과 여성의 기혼율도 모두 낮은 지역(전북)에 해당됨
 - 울산과 경남의 경우, 유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출산장려정책과 다둥이 가정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전북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 추진과 동시에 인구 구조 변화에 적응할 인구정책 시나리오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출산감소 고위험 지역의 변화) 2017년 기준, 출산감소 고위험 지역은 강원, 부산, 전북이었으나, 2022년 기준 울산, 경남, 전북으로 분석됨. 전북의 경우만 지속적으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 출산회피 유형 지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출산감소 심화 요인) 이 유형은 젊은 여성과 여성의 기혼율이 높지만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로서 젊은 여성의 유입이 많아 합계출산율 수치가 낮을 가능성이 큰 지역임
 - 실제 경기도는 젊은 청년들의 인구 유입이 서울과 더불어 가장 활발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유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젊은 청년들의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안정 등의 전략을 함께 펼칠 필요가 있겠음
- (출산회피 지역의 변화) 2012~2022년 경기도만 유일하게 출산회피 유형에 속함

□ 결혼회피 유형 지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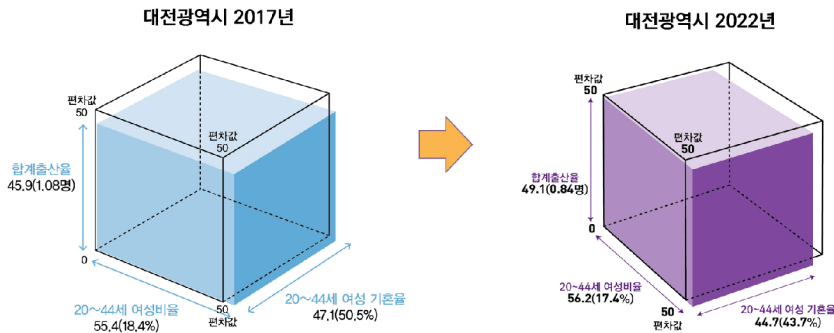
- (출산감소 심화 요인) 소위 대도시로 분류되는 6개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가 2022년 기준 결혼회피 유형에 포진됨. 젊은 청년의 비혼 또는 미혼율이 높아 기혼율이 낮고, 합계출산율도 낮은 지역임
 - 이 유형에 포함되는 지역의 경우,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그 지역에 정주하는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대학 등 학교 교육 이후에도 정주를 선택하였으나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보류/지연하는 경우라면,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반면, 대학 등 학교 교육 이후에 수도권 등의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젊은 세대가 많을 경우 지역의 출산감소 위기 대응 방안은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결혼회피 지역의 변화) 2017년 대비 2022년의 두드러진 변화는 부산이 출산감소 고위험 지역에서 결혼회피 지역으로 이전하였다는 점임. 결혼회피와 고위험 지역 간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함
 - 대구의 경우도, 2017년에는 결혼회피 유형이었다가, 2020년 출산감소 고위험 지역으로 이전 후 2022년 다시 결혼회피 유형으로 복귀함
 - 이러한 변화도 2022년의 X, Y, Z 지표값의 감소에 기인한 상대적인

수준에서의 변동으로 추정되나, 젊은 여성 유출이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할 경우, 20~44세 여성비율이 감소함으로써 결혼회피 유형 지역은 출산감소 고위험 지역으로 언제든지 변동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함

- 따라서 대도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청년 여성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경우, 인구유출 속도와 그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함 (예: 일자리, 주거안정 등 청년 정주여건 조성)

○ (사례: 대전광역시의 변화) 2017년과 동일하게 결혼회피 유형으로 분류된 대전광역시의 경우, X, Y, Z 지표값이 모두 감소하였음

-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출산감소 고위험 지역으로의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청년 여성의 유입과 유출의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해 나감과 동시에 청년에게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강화와 위한 중·장기적 인구전략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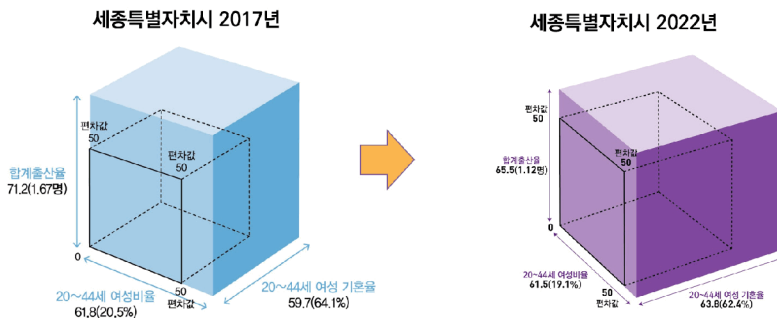
2022년	20~44세 여성 비율(X축)	20~44세 여성 기혼율(Y축)	합계출산율(Z축)
대전광역시 2022년	17.4	43.7	0.84
대전광역시 2017년	18.4	50.5	1.08
2017년 대비 2022년 증감률	-5.3	-13.5	-22.2

[그림 5-2] 결혼회피 유형 대전광역시의 지표별 증감률

□ **유일한 출산선호 지역, 세종시의 정책 방향 제안**

○ (세종 출산감소 유형 변화 특징) 2012년 ‘출산감소 증위험’ 유형 ⇒ 2015년 ‘출산선호’ 유형으로 변경됨 ⇒ 2022년까지 전국에서 유일한 ‘출산선호’ 유형 유지 중임

- 그러나 2022년의 X, Y, Z 지표값의 감소에 따라 3가지 지표의 평균 값이 2017년 대비 낮아졌기 때문에, 세종시의 모든 지표가 평균 이상이라도 하더라도 출산감소 위험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음
-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출생아수의 감소와 더불어 여성의 주민등록연앙인구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됨. 이를 고려할 때, 15~49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출산의 지연/보류/거부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함(최성은 외, 2023)



2022년	20~44세 여성 비율(X축)	20~44세 여성 기혼율(Y축)	합계출산율(Z축)
세종특별자치시 2022년 지표값(B)	19.1	62.4	1.12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지표값(A)	20.5	64.1	1.67
2017년 대비 2022년 증감률(B-A)/A*100	-7.0	-2.7	-32.9

[그림 5-3] 출산선호 유형 세종특별자치시의 지표별 증감률

- P지수 시나리오 분석 결과, 세종시 전체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20~44세 남녀 인구비율은 2022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65세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대비 2050년 4.8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다만, 세종시의 미래 인구 증가는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이동에 근거하여 일어날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세종시 출산감소의 속도와 그 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인구의 자연증가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나리오 분석) 만약, 2017년 기준으로 2022년 17개 지역의 출산감소 유형을 재분류한다면 세종시는 어느 유형에 포함될 것인가?

○ 본 연구에서는 2017년의 X, Y, Z축의 각 지표별 평균값을 2022년에 적용할 때 지역 유형 구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음

구분	2017년	2022년 ¹⁾
출산감소 중위험 (G1:자-저-고)	제주특별자치도	없음
출산감소 중위험 (G2:자-고-고)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없음
출산감소 고위험 (G3:자-고-저)	강원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출산감소 고위험 (G4:자-저-저)	전라북도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회피 (G5:고-고-저)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선호 (G6:고-고-고)	세종특별자치시	없음
출산감소 저위험 (G7:고-저-고)	없음	없음
결혼회피 (G8:고-저-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그림 5-4] 2017년 각 지표별 평균값을 활용한 출산감소 유형분석 시나리오

주 1) 2022년 - y축 : 통계청(2021), <2020년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자료 활용
 - z축 :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2023.2.22.

○ 분석 결과, 2017년 각 지표별 평균값을 적용하면, 2022년의 출산감소 유형은 큰 변동을 보임([그림 5-4]) 참조

-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에 속해 있던 지역들이 고위험 유형으로 이동하고, 고위험 군 내 비교적 양호했던 그룹은 X, Y, Z축 지표값이 모두 평균값 미만으로 떨어진 고위험군으로 출산감소 위험이 증가했음
- 결혼회피지역으로 구분되었던 부산과 대구는 고위험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함
- 무엇보다 세종시는 출산선호에서 출산회피 유형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어서는 도대체 왜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인지, 세종시 출범 이후의 인구이동 분석을 통해 그 변화를 추적하고 진단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함

[표 5-4] 출산감소 유형 분류 및 P지수로 본 인구 시나리오 결과 요약

유형별	과거(2012년)		현재(2022년)		미래(2050년)	
	지역 구분	P지수 해석 (2022년 대비)	지역 구분	직육면체 해석	P지수 해석 (2022년 대비)	
출산 감소 중위험	(G1:자-자-고)	없음	없음	젊은 여성 기혼율 및 합계출산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젊은 여성 비율이 평균값에 미달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전체 인구수 감소 전망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전체 인구수 증가 전망 (충남, 제주)	
	(G2:자-고-고)	새종특별자치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인구수 적음/ 모든 연령 인구비율 적음(세종) 20세 미만 인구비율 높음 (충북, 제주) 45세 미만 인구비율 높음 (충남, 경남) 전체 인구수 많음/ 45세 이상 인구비율 적음 (전남, 전북) 45~64세 미만 인구비율 적음 (경북)			
출산 감소 고위험	(G3:자-고-저)	강원특별자치도	없음	젊은 여성 기혼율은 평균보다 높으나, 젊은 여성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평균에 미달 (울산, 경남) 젊은 여성 비율, 젊은 여성 기혼율, 합계출산율 모두 평균값에 미달 (전북)	전체 인구수 감소 전망 (울산, 경남, 전북)	(공통점) 젊은 연령층 (20~44세)의 인구비율보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G4:자-자-저)	없음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젊은 여성 비율과 젊은 여성 기혼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고 합계출산율은 평균값에 미달 (경기)	전체 인구수 증가 전망 (경기)	
출산회피 (G5:고-고-저)		경기도	없음	젊은 여성 비율, 젊은 여성 기혼율, 합계출산율 모두 평균값보다 높음(세종)	전체 인구수 증가 전망 (세종)	
	출산선호 (G6: 고-고-고)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수 많음, 45~64세 미만 인구비율 적음 (경기) 전체 인구수 많음, 45세 미만 인구비율 적음 (울산) 전체 인구수 많음/ 45~64세 미만 인구비율 적음(서울), 65세 이상 인구비율 적음(부산), 45세 이상 인구비율 적음 (대구, 광주), 45세 미만 인구비율 높음(대전)	젊은 여성 비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젊은 여성 기혼율과 합계출산율은 평균값보다 미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체 인구수 감소 전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결혼회피 (G8:고-자-저)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수 적음/ 45세 미만 인구비율 높음(인천)	젊은 여성 비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젊은 여성 기혼율과 합계출산율은 평균값보다 미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체 인구수 감소 전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 세종시 출범 후 10여 년간 지역 인구변화 진단

□ 최근 10년간 세종시 인구변화의 특징

-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함. 동 지역 중심의 인구 증가가 특징임
 - 평균 연령의 증가, 면 지역과 읍, 동 지역의 평균연령의 격차(2022년 기준 면 지역 평균연령 49.2세, 읍 지역 40.9세, 동 지역 35.1세)를 보여, 읍, 면 지역의 고령화 추세와 동 지역의 고령화 추세가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세종시 인구이동의 특징

- 최근 10년간 순이동은 여전히 (+)방향이지만,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입초과 현상은 약화 추세임
 - 읍, 면 지역의 순이동 감소와 달리, 동 지역은 증가하는 이분화된 인구 이동 패턴을 보이고 있음.
 - 타 시도로의 전출 사유로 '교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30대의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남. 최근 10년간(2013~2022년) 30대가 시·도 간 전입(24.1%), 전출(23.2%)이 가장 많았고, 시·도 내 이동에서도 비중이 가장 컸음(24.3%)

□ 읍·면 지역의 순유출, 동 지역의 순유입

- 세종시 읍·면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읍 지역에서 가장 많이 순유출이 일어난 연도는 2019년도로 -1,218명이었음. 면 지역은 2018년에 -1,270명을 보였음
- 동 지역은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2015년의 경우 +54,207명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로도 2만명 이상의 순유입이 나타났음
- 그래프상으로 순이동을 살펴보면 읍·면·동 모두에서 2020년도 이후로 순이동 증감율이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읍이나 면의 경우에는 1천 명 단위의 순이동이 2020년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고, 동의 경우 1만 명 대의 순이동을 유지하고 있어 인구의 유입이나 유출 면에서 이전에 비해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임

□ 30~40대의 활발한 이동, 20대는 시·도 간 전입/전출

- 시·도 간 이동 및 시·도 내 이동에 있어서 30~4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의 누적 수치를 살펴보면 30대가 가장 많은 이동을 보였고 다음으로 40대임. 그중 남성의 이동이 비교적 여성에 비해 높았음
- 20대는 시·도 간 이동의 수치가 시·도 내 이동보다 활발하였음
 - 20대 중에서도 여성의 이동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편이었으며, 60대를 비롯하여 70대 이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음
 - 고령층과 청년층의 이동은 다른 사유에서 기인한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임

□ 읍·면·동 전입과 전출의 특성

- 읍 지역의 경우 ‘교육’의 사유로 전입한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주택’ 때문에 전입하였다는 비율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음
 - 한편, 전출의 사유에 있어서도 ‘교육’이라는 응답은 2020년 이후로 다소 높아지는 추세임. 절대적 수치는 낮지만 ‘주거환경’의 비율도 약간씩 높아진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대목임
 - 읍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교육 같은 영역에 대한 지역민들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읍 지역의 이전 거주지와 전출지역에서 수도권 비중이 높음
 - 세종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의 이전이나, 수도권으로의 전출이 꾸준히 높은 순위에 있음
 - 대전으로의 전출은 줄어들어 1% 미만의 수치를 보이며, 충청으로의 전출은 2020년 이후로 줄어드는 추세임
- 면 지역의 전입에 있어서 ‘기타’ 사유를 살펴볼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전출의 경우 '직업' 사유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면 지역 전입/전출에서 '직업', '가족', '주택'이라는 주요한 사유는 여전히 높은 편이나, '기타' 사유라는 응답이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기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함

- 전출 면에서 '직업' 사유가 과반을 넘어서는 상황이 2018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함

○ 면 지역의 이전 거주지와 전출지역에서 충청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세종 내 이동을 제외하고, 전입과 전출 면에서 충청권의 비중이 수도권보다도 높은 특성을 보임

○ 동 지역의 전입은 '주택' 사유가 가장 많고, 전출에서는 '직업' 사유가 가장 많음. 한편 '교육'과 '기타' 사유도 높은 편임

- 동 지역 전입은 '주택' 사유가 압도적이었지만,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직업'과 '가족'의 사유로 점차 분배됨

- 전출 면에서도 여전히 '주택', '직업', '가족'의 사유가 대부분이지만, '교육'이라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 즉, 동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교육 관련 인프라 요구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동 지역 전입/전출의 경우, 대전과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

- 대전에서 세종으로의 전입한 인구는 20%대에서 출발하여 10% 증반대로 감소 추세를 보임. 수도권의 경우 12~13%의 전입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충청권은 10~11% 대입

- 전출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수도권이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 충청 순이었음

□ **성별 및 연령대로 분석한 이동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2020~2022년간 최근 3년의 인구이동 흐름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 연령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경우에도 세종의 읍·면·동은 인구수나 증감률 면에서 다소 변동의 폭이 적은 상황으로 여겨짐

3. 세종시 지역 청년인구 변화 진단

1) 세종시 청년 연령 집단별 인구이동 특성

주요 특징

- 2012~2022년 동안 세종시 순이동에서 차지하는 청년 비중 다소 부침은 있으나 증가세(우상향)를 보임
- (시·도 간 전입과 전출) 청년의 연령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결과, 20대 청년층의 경우 전입과 전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
 - 반면, 30대 청년층의 경우, 2019년 이후 전입이나 전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있어 20대 청년층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한 편은 아님
- (시·도 내 이동) 30대 청년층 비중이 20대 청년층 비중보다 높음. 즉, 30대가 세종시 내 이동이 20대에 비하여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우려되는 변화

- 2018년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세종시 전체 유출 인구 중 2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2013년 23.1%에서 2022년 26.7%)

2) 청년의 시·도 간 이동 특징과 사유 비교

주요 특징

- 세종시 청년의 시·도 간 이동은 전입과 전출 모두 출범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세종시 청년인구 이동은 초기 충청권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였으나 (2014~2015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냄. 그 대신, 세종시 내 이동,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증가하였음
 - 세종시를 제외한 충청권 지역 내 가장 청년 유입과 유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전시임

- (청년인구 이동 사유 변화: 전입) 2013년 기준 직업(45.1%) > 교육(42.2%) > 가족(41.7%) 등의 순에서 2022년 직업(56%) > 가족(44%) > 주거환경(43.1%) > 교육(39.9%) 등의 순으로 변화함
- (청년인구 이동 사유 변화: 전출) 2013년 기준 직업(47.6%) > 가족(43.1%) > 주거환경(35.9%) > 교육(34.5%) 등의 순에서 2022년 직업(53.8%) > 교육(48.8%) > 주거환경(43.0%) > 주택(34.7%) 등의 순으로 변화함

□ 우려되는 변화

- 출범 초기인 2013년에 비하여 2022년에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으로 이동(전입, 전출)한 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짐
 - 2022년 기준, 서울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 중 51.8%(4,892명 중 2,533명)를 청년이 차지함(2013년 41.6%에서 10.2%p 상승)
 - 2022년 기준, 세종시에서 서울로 전출한 인구 중 61.3%(4,550명 중 2,790명)를 청년이 차지함(2013년 56%에서 5.3%p 상승)
- (전입/전출 사유의 변화 특징) '교육'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전입을 선택 하였던 청년인구는 감소하는 대신,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4. 세종시 지역 내 격차와 청년인구 이동

1) 주요 특징

주민등록인구 변화 측면

- (주민등록인구 변화 측면)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의 경우, 출범 이후 7년 정도는 급격한 청년 인구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그 성장세가 둔화 또는 감소되었음
- (인구이동 변화 측면) 세종시 청년의 시·도 간 이동은 전입과 전출 모두 출범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주민등록 기준 읍·면 지역 청년인구 현황) 최근 2~3년 사이 큰 폭의 청년 인구 감소를 경험함. 면 지역 청년 여성의 급격한 감소에 주목해야 함
 - 지역소멸위험지수 산출 계산식에 근거할 때, 면 지역 청년 여성(20~39세)의 감소는 세종시 면 지역의 지역소멸위험도를 높여 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읍, 면 지역 청년인구 이동 사유 측면

- (읍, 면 지역 청년인구 이동 사유 변화: 전입) 2013년 기준 직업 > 주택 > 가족 > 기타 > 교육 등의 순에서 2022년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기타 등의 순으로 변화함
- (읍, 면 지역 청년인구 이동 사유 변화: 전출) 2013년 기준 주택 > 직업 > 가족 > 기타 > 교육 등의 순에서 2022년 직업 > 가족 = 주택 > 기타 > 교육 등의 순으로 변화

읍, 면 지역 청년인구 이전 거주지 및 전출지역 측면

- (읍, 면 지역 청년인구 전입 이전 거주지) 2013년 세종 > 충북 > 대전 > 충남 지역 순에서 2022년 세종 > 그 외 지역 > 경기 > 대전 순
- (읍, 면 지역 청년인구 전출 지역) 2013년 세종 > 충북 > 대전 > 충남 > 경기 지역 순에서 2022년 세종 > 경기 > 충남 > 대전 > 그 외 지역 등의 순

□ 전출 사유별 청년이동 특징: ①직업

- 20대보다 30대 청년의 세종시 내 이동이 활발함
 - 20대와 30대 모두 남성 청년의 전출 인구 수가 여성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이 여성 청년보다 지역 내 활발한 이동을 보임
- 직업을 찾아 수도권으로의 전출한 청년의 전출지역은 성·연령별로 다른 특성을 보임. 서울로의 전출의 경우, 20대 여성이 30대 남녀보다 압도적으로 높음
 - 20대 남성 전출지역: 세종(2,277명), 경기(1,217명), 충남(1,019명) 등의 순
 - 여성 전출지역: 세종(1,656명), 서울(1,103명), 경기(696명) 등의 순
 - 30대 남성 전출지역: 세종(2,664명), 충남(1,107명), 경기(1,050명) 등의 순
 - 30대 여성 전출지역: 세종(1,506명), 경기(539명), 대전(415명)

□ 전출 사유별 청년이동 특징: ②주택

- 20대 청년보다 30대 청년의 주택으로 인한 세종시 내 이동자수가 많고, 남성 전출 인구 규모가 여성 전출 인구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됨
- 20대 대비 30대 청년의 세종시 내 이동이 활발함. 30대의 경우, 가족 단위의 이주 가능성이 신도심 지역(동 지역)으로의 이동 선호 결과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됨.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패턴도 20대보다 30대의 인구수가 더 높음
- 주택을 사유로 전출한 지역의 우선순위는 20~30대 남녀 모두 '세종 > 충북 > 대전 > 충남 순'으로 동일하나, 이 결과는 '직업'을 사유로 한 전출지역이 수도권을 포함하는 것과는 대조적임

□ 전출 사유별 청년이동 특징: ③교육

- 세종시 읍 지역은 면 지역에 비하여, 교육을 사유로 전입한 수도권 등 지역 청년 비중이 높음
- 20대와 30대 청년 중, 교육을 사유로 읍, 면 지역 전입과 전출이 많은 청년층은 20대라고 할 수 있음

- 20대: 서울(901명), 경기(965명), 그 외 지역(1,478명)으로부터 가장 많은 전입 인구를 보이며, 이는 20대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임
- 30대: 세종(230명), 그 외 지역(45명)으로 전입 인구가 비교적 적음. 이는 30대가 교육을 이유로 세종시로 전입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30대가 학업보다는 직장이나 가족 등 다른 이유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읍, 면 지역 청년 중 20대의 경우는 서울과 경기 지역 순으로 전출 빈도가 높은 반면, 30대의 경우는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보다는 충청권 지역에서의 전출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2) 우려되는 변화

순이동의 감소와 청년인구 증가세 둔화

- 세종시의 경우, 청년인구의 증가세에 순이동 감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청년의 순유입이 감소하면서 주민등록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쳐 전체 인구의 감소도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읍, 면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현상 심화

- 2013년 대비 2022년 세종시 읍, 면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전출지역: 서울) 읍 지역의 경우 43.6%, 면 지역의 경우 18.9% 증가함
 - (전출지역: 경기) 읍 지역의 경우 29.5%, 면 지역의 경우 16.6% 증가함
 - (전출지역: 인천) 읍 지역의 경우 21.2%증가, 면 지역의 경우 35.7% 감소함
- 2013년에 비하여 2022년의 읍, 면 지역 청년 여성(20~39세)의 전출 지역 우선순위에서 수도권 비중이 높아짐

- 세종을 제외하고 볼 때, 읍 지역 젊은 여성 전출자의 경우, 2013년의 경우, 세종 > 충북 > 대전 > 충남 > 경기 등의 순으로 충청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도권 지역보다 월등히 활발했음. 반면, 2022년에는 세종 > 대전 > 서울 > 충남 > 경기 등의 순으로 전출지역 우선순위가 변화됨
- 또한, 대전, 충남, 충북과 같은 충청권 내 지역의 전출자 수는 2013년에 비하여 모두 감소한 반면, 서울, 경기 지역은 2022년에 모두 전출자가 증가한 특징을 보임

□ 직업/주택/교육을 사유로 이동하는 청년들의 이동패턴

- 세종시 내의 일자리의 부족, 교육 여건의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질 경우, 읍, 면 지역의 청년들(특히, 20대)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심화될 전망이다
- 주택을 사유로 한 30대의 세종시 내 이동의 패턴은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에 있어 안정적인 주거 조건이 매우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줌

3절 정책 제안

1. 정책 차원

1) 국가 차원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강화 필요

- 세종시 설치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정책적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이루어진 만큼, 그 목적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됨
- 세종시 인구이동의 흐름은 인접 지자체와 지속적인 상호작용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 인접 지역에서 세종시로의 대규모 유입은 특정 시점의 일시적 현상이었음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추진은 충청권 지역 인구 재배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세종시와 더불어 충청권 지역(대전, 충남, 충북) 모두가 함께 공동의 목표로 힘을 합쳐 의지를 피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

(후속 연구)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 전 지역 내 인구 격차를 진단하고 이동의 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12월 19일에 개최된 대전세종상생포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향후 대전에 대한 지역 내 인구 격차를 진단하고 그 이동의 패턴을 분석한 뒤, 더 나아가 충청권의 인구이동 분석을 심층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있었음
- 충청권 전 지역 내 인구 격차를 진단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이동의 패턴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곧 출범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대전세종연구원은 충청지방통계청과의 지속적인 연구 협력과 더불어 출범을 앞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후속 연구) 국가 전체의 인구이동 패턴과 세종, 그리고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 지역의 인구이동 패턴 비교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에 이어, 대전시 그리고 충청도와 충북도의 인구이동 심층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국가 전체의 인구이동 패턴과의 차이점, 특수성을 도출하여 충청권 지역에 필요한 인구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세종시 차원

15~49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출산의 지연/보류/거부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

- 세종시는 2017년 기준에도 유일한 출산선호 유형 지역이었고, 2022년 기준에도 역시 출산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분류되었음
- 그러나 세종시의 20~44세 여성비율과 기혼율 그리고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출산감소 위험도가 높아졌음을 알리고 있음
- 특히, 20~44세 여성비율은 2017년 대비 7.0% 감소한 반면, 20~44세 여성기혼율은 2.7% 정도만 감소했는데도 합계출산율이 32.9%나 감소했음
- 기혼율의 감소폭이 크지 않음에도 합계출산율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은 기혼자 중에서도 출산을 지연/기피/거부한 경우가 늘고 있음을 시사함
 - 세 개의 지표 간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2017년 20~44세 기혼여성비율이 높을 때, 합계출산율도 높았던 점을 감안한 해석임
- 따라서 세종시 내 15~49세 남녀 시민을 대상으로 출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심층 분석 연구가 필요함

세종시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격차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함

-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간의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동 지역 중심의 인구변화와 읍, 면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이동 패턴이 상이하다는 것이 드러남
- 세종시 읍, 면 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지역과 유사한 인구변화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읍 지역과 면 지역 간에도 상이한 인구이동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연령 집단별 이동경로와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4년제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읍 지역의 경우, 수도권으로부터 전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 세종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전출 지역은 세종, 충청, 수도권 순으로 나타났음. 최근 10년간 읍 지역 전입/전출 인구의 경우, 20대가 가장 활발한 특징을 보임
 - 세종시 면 지역의 경우, 최근 10년간 대부분의 연도에서 순유출(전출 초과)을 보였음. 2016년과 2020~2021년에만 전입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면 지역에서 전입/전출 사유로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많아, 연령 집단별,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심층 분석이 필요함
 - 면 지역 전입 이전 거주지/전출지역을 보면, 세종시 내에서의 이동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청도, 수도권 순이었음. 면 지역의 경우도, 20대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함
- 도농복합도시 세종시는 읍, 면 지역이 전체 면적의 91.3%를 차지함(전 체면적 465 km^2 중 424.5 km^2)
- 이것은 단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세종시가 인구정책 방향 수립 시 도농 복합도시이며 지역 내 인구감소 패턴이 상이한 점을 인지하여 전략을 취해야 함을 의미함
- 2021년에 수립한 <세종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읍, 면 지역의 인구 격차를 고려한 정책 대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세종시의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1~2025년)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세종으로, 추진 전략은 젊은 세대의 미래 보장, 안정적인 가족 환경 조성, 존중받는 건강 노후 보장, 시민행복 공동체 구현 4개입
 - 해당 기본계획은 사람 중심으로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전략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향후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격차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또한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격차에 대한 심층 조사와 분석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그림 5-5] 세종시 인구정책 비전(2021~2025년)

자료: 세종특별자치시(2021),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세종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2021-2025년)>

□ 세종시 동 지역 인구이동의 변화와 이동 패턴, 사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세종시의 인구 성장은 대부분 동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음. 순이동의 경우, 최근 10년간 257,277명을 기록함
- 동 지역으로 전입한 사유의 1순위는 주택이었음. 이는 신규 주택 분양, 입주 등과 인구 유입이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함. 향후, 세종시의 신규 주택 및 아파트 입주 계획이 지난 10년만큼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한 전략은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
- 주목할 점은 지난 10년간 이주 사유 중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었던 ‘교육’의 증가세라고 할 수 있음. 순위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해당 사유로 이주를 선택한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세종시가 앞으로 주목할 인구정책 분야가 ‘교육’이어야 함을 시사함

□ **청년의 시각으로 직업/주택/교육 정책 설계 필요**

- 세종시 내의 일자리의 부족, 교육 여건의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질 경우, 읍, 면 지역의 청년들(특히, 20대)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심화될 전망이다
- 주택을 사유로 한 30대의 세종시 내 이동의 패턴은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에 있어 안정적인 주거 조건이 매우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줌
- 청년들의 전입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 및 주거 환경이므로, 향후 청년들이 생각하는 교육과 주거환경의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를 심층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세종시 내 20대 청년들과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주택/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역고등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세종시 지역에 맞춤형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청년들이 교육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아닌, 교육을 이유로 정주하고, 유입 되는 세종시를 만들어가야 함

□ **세종시 청년인구의 유출을 줄이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일자리, 비용 접근성 높은 주거시설, 청년문화 거점지역 조성⁸⁾**

- 청년들의 전출 사유로 직업과 교육 및 주거환경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기회 확대, 거주하고 싶은 주거환경(비용, 안전, 시설 등), 그리고 청년문화의 거점 지역 조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세종시 지역 내에서 공급되는 대부분의 주택이 4인 가족 기준의 고비용 주거시설이므로 저렴한 청년주택의 공급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8) 본 연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30~40대가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인 요코하마시의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도시디자인 역시 중요한 생활인구와 체류인구 유입을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대전세종연구원 경영공시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참조 요망)

2. 거버넌스 차원

1)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연구 추진 성과와 한계

□ 충청지방통계청 데이터분석팀과의 협동연구 추진의 성과

- (대내적 성과) 연구원 보고서의 질적 수준 제고
 - 연구의 지속성·연계성·확장성을 높여준 데이터 기반 협력 연구의 사례
 - 연구진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협업 과정과 결과물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 (대내적 성과) 종합연구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과 충청지방통계청 간의 협동연구의 마중물 사례 생산
 - 본 연구의 추진 과정과 결과, 그리고 확산을 위한 전 과정은 향후 종합연구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의 다양한 정책 분야에 적용 가능하여, 연구성과의 우수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 (대외적 성과)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협업 우수 사례 생산
 -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설치된 세종시의 설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대전세종연구원이 선도적으로 제안하여 출범 이후 10년에 맞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함
 - 관내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선도적 연구모델 사례 도출

□ 충청지방통계청 데이터분석의 협동연구 추진의 한계

- 기획 과제의 한계: 지속성 측면
 - 본 연구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전략상생연구로 기획·추진되었음. 따라서 해당 주제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현실임
 - 연구 과정의 전 기록과 더불어 결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연구 과제 완료 이후에도 후속 작업 조치가 필요하나 연구원의 과제 추진 일정과 충청지방통계청의 업무 추진 계획 간의 차이가 존재함
 - 충청지방통계청에서는 세종시 인くい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상반기 기획보도를 준비 중임. 관련 연구진들이 2024년 기획보도 자료 작성에 협업할 수 있는 연구원 차원의 업무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예: 업무 성과 인정 기준 등)

- 기획 과제의 한계: 공동연구자에 대한 보상과 협업 매뉴얼 부재
 - MOU에 근거한 협업이 이루어지므로 공무원 신분인 충청지방통계청 공동연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지급이 어려운 구조임
 - 데이터 분석을 맡은 공동연구진 외에 충청지방통계청 데이터분석팀과의 협업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으나 이 부분을 성과로 인정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었음
 - 또한, 연구책임자와 일부 개별 연구진의 경우, 협업 연구를 근거로 하여 충청지방통계청 요청에 개별 자격으로 협조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공식적인 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이 부재함
 -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위하여 두 기관 간 협업 매뉴얼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음
-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인과관계 규명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통계청 데이터 이외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기간으로 인하여 연구 범위의 제약이 있음

2)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필요한 선도적 지역연구모델 제안

□ 지역연구모델로서의 가능성 검토

- 본 연구는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필요한 선도적 지역연구모델’을 목표로 충청지방통계청과의 협동연구 사례를 담고 있음
-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은 기획·완화·적응정책으로 구분되나, 지역 주도의 추진 전략 실현은 쉽지 않은 상황임
 - 20대 정부는 인구정책을 “인구정책 완화정책, 적응정책, 기획정책”으로 구분하여, 전략의 영역인 적응과 기획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머니투데이, 2022년 5월 2일자)

- 완화정책은 급속도로 빨라진 출산을 감소현상을 둔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며, 적응정책은 인구변화가 만드는 미래 상황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미함. 마지막으로 기획정책이란, 저출산·고령화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인구정책을 뜻함(최성은 외, 2023)

- 이러한 완화, 적응, 기획정책이 지역 주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 이 연구는 국가 인구정책 추진 전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세종시를 위하여 '인구변화 진단'을 협동연구로 추진한 것임
- 그러나 앞서 살펴본 협동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청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칭)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선도적 지역연구모형을 제안하는 바임

□ (가칭)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인구 문제 해결 추진체계 마련

- 대전세종연구원의 <중앙-지방정부 간 저출산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세종시 정책 제안> 연구보고서는 지역의 저출생 문제, 인구감소위기에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대응을 위해서 (가칭)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음(최성은 외, 2023)
- (가칭)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는 대전세종연구원과 같은 시·도연구원에 설치하고, 저출생 문제와 지역 내 인구감소 위기 모니터링과 정책 연구 지원을 하는 지역별 인구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라고 할 수 있음
 - 이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와는 업무분장 및 설치목적 등에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추진체계임
- (가칭)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를 통해 지역 내 인구변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면, 출산 결정 지연/보류/거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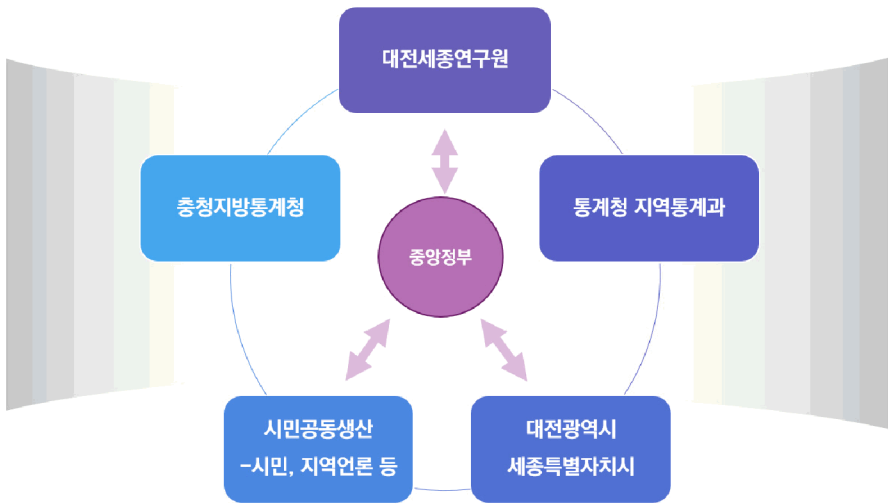
[표 5-5]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와의 차이

구 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가칭)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안)
근거 법·제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0조(인구감소지역 대응센터 설치·운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 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 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u>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조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공공기관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시·도 연구원에 (가칭)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 설치 및 운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9조(사무기구) 외에 관련 조직에 관한 규정 부재. 센터 설치 시 시행령 개정 필요
업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 지원, 관리	각 광역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주도적인 인구미래전략 수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자체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 등 상향식 전략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평가, 환류 체계)
재원	지역소멸대응기금 (10년 후 일몰)	국비(지역소멸대응기금 등) + 시비 매칭
차별성	하향식. 인구감소 지정 지역 한정. 인구의 사 회적 이동에 초점. 1개 공공기관이 17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상향식. 제외 지역 없음. 인구의 사회적 이동 + 자연적 증가(출생)와 감소(사망, 고령화)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대응 가능

자료: 최성은 외(2023), <중앙-지방정부 간 저출산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세종시 정책 제안>, 대전세종연구원, 142쪽 [표 5-1] 발취

□ (종합)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필요한 선도적 지역연구모델 제안

- 향후, 대전세종연구원과 충청지방통계청이 (가칭)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를 필두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시민과의 공동생산을 통해 확대·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인접한 충청도, 충북 도와의 연계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음



[그림 5-6] 선도적 지역연구모델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필요한 선도적 지역연구 모델(안)을 다음 [그림 5-7]과 같이 제시하는 바임
 - (가칭)광역미래인구전략센터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설치될 경우, 대전과 세종 지역의 인구 전략 추진의 주체로서 인구변화모니터링, 연구 및 교육, 심층조사, 지역사회 연계를 담당할 수 있음
 - 또한, 중앙정부와의 대응 및 인구정책에 따른 성과관리를 담당하여, 연구와 더불어 중앙-지방정부 간 가교역할,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중앙정부



[그림 5-7]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 필요한 선도적 지역연구모델(안)

참고문헌

- 가케이 유스케(정태원 옮김)(2016), 〈인구감소×디자인〉. kmac.
- 세종특별자치시(2021),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세종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2021-2025년)〉.
- 최성은(2018),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최성은·안용준·박치성(2018), 〈세종시 인구 이동 특성과 정책방향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충청지방통계청(2017), 〈최근 4년간 세종지역 인구이동통계(2012~2016)〉.
- 통계청 보도자료(2020),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0-2050〉, 2022년 5월 22일자.
- 통계청 보도자료(2023),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8월 30일자.
- 통계청(2015), 〈2015 인구총조사〉.
- 통계청(2020), 〈2020 인구총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2022), 〈2022년 3월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 지역〉.
- 통계청(<https://mdis.kostat.go.kr>), 〈국내이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MDIS〉, 각 년도.
-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국내이동통계〉, 각 년도.
-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각 년도.

부 록

[부록 표 1-1] 2012년 각 17개 시·도 전체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단위: 명, %)

행정구역별	전체 인구 (2012년)	젊은 여성(20~44세) 인구	젊은 여성(20~44세) 비율	
				50 변환값*
서울특별시	10,036,273	2,096,900	20.9	59.4
부산광역시	3,461,881	618,060	17.9	50.8
대구광역시	2,480,493	457,075	18.4	52.4
인천광역시	2,793,754	539,605	19.3	54.9
광주광역시	1,503,758	295,200	19.6	55.8
대전광역시	1,540,136	303,666	19.7	56.1
울산광역시	1,124,659	206,898	18.4	52.3
세종특별자치시	102,157	15,964	15.6	44.4
경기도	11,974,482	2,357,269	19.7	56.0
강원도	1,504,234	236,063	15.7	44.6
충청북도	1,553,478	265,313	17.1	48.6
충청남도	2,042,689	342,366	16.8	47.7
전라북도	1,817,430	289,854	15.9	45.4
전라남도	1,782,361	248,824	14.0	39.7
경상북도	2,655,755	421,917	15.9	45.2
경상남도	3,265,495	554,735	17.0	48.3
제주특별자치도	560,818	95,578	17.0	48.5

주*: 17개 사·도의 젊은 여성(20~44세)의 비율의 평균을 50으로 산정하여 나온 산출한 값
 자료: 통계청(2022), <장래인구추계 사·도편: 2012~2050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 5세별/시·도)' '중위추계' 자료 재구성(2023년 5월)

[부록 표 1-2] 2015년 각 17개 시·도 전체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단위: 명, %)

행정구역별	전체 인구 (2015년)	젊은 여성(20~44세) 인구	젊은 여성(20~44세)비율	
				환산값* (평균 = 50)
서울특별시	9,941,162	1,994,349	20.1	58.8
부산광역시	3,452,260	588,627	17.1	49.9
대구광역시	2,468,755	425,671	17.2	50.5
인천광역시	2,882,868	532,060	18.5	54.1
광주광역시	1,505,906	282,701	18.8	55.0
대전광역시	1,542,394	288,056	18.7	54.7
울산광역시	1,163,719	203,256	17.5	51.2
세종특별자치시	187,202	36,350	19.4	56.9
경기도	12,423,017	2,319,302	18.7	54.7
강원도	1,516,636	226,787	15.0	43.8
충청북도	1,589,264	258,611	16.3	47.7
충청남도	2,102,811	341,100	16.2	47.5
전라북도	1,835,125	282,726	15.4	45.1
전라남도	1,796,578	245,670	13.7	40.1
경상북도	2,677,768	403,670	15.1	44.2
경상남도	3,330,230	537,922	16.2	47.3
제주특별자치도	599,252	99,751	16.6	48.8

주*: 17개 시·도의 젊은 여성(20~44세)의 비율의 평균을 50으로 산정하여 나온 산출한 값
 자료: 통계청(2022),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2~2050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 5세별/시·도)' '증위추계' 자료 재구성(2023년 5월)

[부록 표 1-3] 2017년 각 17개 시·도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단위: 명, %)

행정구역별	전체 인구 (2017년)	젊은 여성(20~44세) 인구	젊은 여성(20~44세)비율	
				환산값* (평균 = 50)
서울특별시	9,766,399	1,919,524	19.7	59.2
부산광역시	3,424,409	565,502	16.5	49.7
대구광역시	2,457,769	408,438	16.6	50.0
인천광역시	2,923,859	522,463	17.9	53.8
광주광역시	1,495,392	270,523	18.1	54.5
대전광역시	1,527,784	277,335	18.2	54.7
울산광역시	1,158,787	194,217	16.8	50.5
세종특별자치시	265,517	52,912	19.9	60.0
경기도	12,785,790	2,302,215	18.0	54.2
강원도	1,520,879	220,843	14.5	43.7
충청북도	1,609,061	255,448	15.9	47.8
충청남도	2,153,380	340,959	15.8	47.7
전라북도	1,828,527	272,914	14.9	44.9
전라남도	1,795,036	238,314	13.3	40.0
경상북도	2,675,128	386,773	14.5	43.5
경상남도	3,339,275	517,843	15.5	46.7
제주특별자치도	634,919	103,660	16.3	49.2

주*: 17개 시·도의 젊은 여성(20~44세)의 비율의 평균을 50으로 산정하여 나온 산출한 값
 자료: 통계청(2022),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2~2050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 5세별/시·도)' '증위추계' 자료 재구성(2023년 5월)

[부록 표 1-4] 2020년 각 17개 시·도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단위: 명, %)

행정구역별	전체 인구 (2020년)	젊은 여성(20~44세) 인구	젊은 여성(20~44세)비율	
				환산값* (평균 = 50)
서울특별시	9,617,795	1,879,607	19.5	61.2
부산광역시	3,355,632	533,724	15.9	49.8
대구광역시	2,414,262	384,392	15.9	49.9
인천광역시	2,951,065	506,793	17.2	53.8
광주광역시	1,479,550	257,314	17.4	54.5
대전광역시	1,491,876	260,281	17.4	54.7
울산광역시	1,139,069	179,698	15.8	49.4
세종특별자치시	348,302	68,010	19.5	61.2
경기도	13,452,422	2,334,553	17.4	54.4
강원도	1,519,291	209,881	13.8	43.3
충청북도	1,630,839	246,887	15.1	47.4
충청남도	2,176,641	329,173	15.1	47.4
전라북도	1,805,688	257,584	14.3	44.7
전라남도	1,793,108	228,027	12.7	39.8
경상북도	2,651,789	358,799	13.5	42.4
경상남도	3,340,211	488,400	14.6	45.8
제주특별자치도	668,699	107,015	16.0	50.1

주*: 17개 시·도의 젊은 여성(20~44세)의 비율의 평균을 50으로 산정하여 나온 산출한 값
 자료: 통계청(2022),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2~2050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 5세별/시·도)' '중위추계' 자료 재구성(2023년 5월)

[부록 표 1-5] 2022년 각 17개 시·도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단위: 명, %)

행정구역별	전체 인구 (2022년)	젊은 여성(20~44세) 인구	젊은 여성(20~44세)비율	
				환산값* (평균 = 50)
서울특별시	9,411,443	1,841,519	19.6	63.1
부산광역시	3,299,396	516,382	15.7	50.5
대구광역시	2,363,420	366,322	15.5	50.0
인천광역시	2,960,685	496,266	16.8	54.1
광주광역시	1,463,411	249,745	17.1	55.1
대전광역시	1,471,563	256,447	17.4	56.2
울산광역시	1,112,807	165,200	14.8	47.9
세종특별자치시	382,760	72,997	19.1	61.5
경기도	13,680,911	2,319,635	17.0	54.7
강원도	1,525,912	204,088	13.4	43.2
충청북도	1,633,687	240,946	14.7	47.6
충청남도	2,180,086	319,699	14.7	47.3
전라북도	1,780,234	244,983	13.8	44.4
전라남도	1,768,620	211,236	11.9	38.5
경상북도	2,628,220	339,202	12.9	41.6
경상남도	3,289,257	450,051	13.7	44.2
제주특별자치도	675,705	104,701	15.5	50.0

주*: 17개 시·도의 젊은 여성(20~44세)의 비율의 평균을 50으로 산정하여 나온 산출한 값
 자료: 통계청(2022),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2~2050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 5세별/시·도)' '중위추계' 자료 재구성(2023년 5월)

[부록 표 1-6] 2012년 각 17개 시·도 젊은 여성(20~44세) 기혼비율

(단위: 명, %)

행정구역별	젊은 여성(20~44세) 인구	젊은 여성(20~44세) 기혼 인구	젊은 여성(20~44세) 기혼 비율	
				환산값 (평균 = 50)
서울특별시	2,055,617	973,893	47.4	39.5
부산광역시	618,501	315,357	51.0	42.5
대구광역시	460,295	262,147	57.0	47.5
인천광역시	519,264	300,162	57.8	48.2
광주광역시	293,656	167,579	57.1	47.6
대전광역시	297,984	168,047	56.4	47.0
울산광역시	203,379	134,157	66.0	55.0
세종특별자치시(2013년)	19,195	11,707	61.0	50.9
경기도	2,258,715	1,389,127	61.5	51.3
강원도	232,254	144,424	62.2	51.9
충청북도	258,517	158,392	61.3	51.1
충청남도	332,521	208,807	62.8	52.4
전라북도	281,331	173,270	61.6	51.4
전라남도	238,255	161,665	67.9	56.6
경상북도	410,500	255,224	62.2	51.8
경상남도	541,846	356,550	65.8	54.9
제주특별자치도	91,415	55,342	60.5	50.5

자료: 통계청(2010), <2010년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전수 자료 재구성; 세종시(2013),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센서스> '연령 및 성별 혼인상태별' 자료를 활용함

[부록 표 1-7] 2015년·2017년 17개 시·도 젊은 여성(20~44세) 기혼비율

(단위: 명, %)

행정구역별	젊은 여성(20~44세) 인구	젊은 여성(20~44세) 기혼 인구	젊은 여성(20~44세) 기혼 비율	
				50 변환값*
서울특별시	1,896,546	811,781	42.8	39.9
부산광역시	572,421	262,720	45.9	42.8
대구광역시	415,158	212,470	51.2	47.7
인천광역시	514,182	265,898	51.7	48.2
광주광역시	273,651	137,352	50.2	46.8
대전광역시	279,911	141,451	50.5	47.1
울산광역시	194,894	114,096	58.5	54.5
세종특별자치시	39,070	25,038	64.1	59.7
경기도	2,215,118	1,222,215	55.2	51.4
강원도	219,540	119,346	54.4	50.6
충청북도	248,392	134,572	54.2	50.5
충청남도	323,211	182,391	56.4	52.6
전라북도	271,742	144,017	53.0	49.4
전라남도	235,329	136,231	57.9	53.9
경상북도	387,170	212,546	54.9	51.1
경상남도	516,693	302,169	58.5	54.5
제주특별자치도	96,091	50,982	53.1	49.4

주*: 17개 사도의 젊은 여성(20~44세)의 기혼 비율의 평균을 50으로 산정하여 나온 산출한 값
 자료: 통계청(2015), <2015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표본 (20%)자료 활용함. 2017년의 경우, 자료구득이 어려워 2015년 자료로 대신함

[부록 표 1-8] 2020년·2022년 17개 시·도 젊은 여성(20~44세) 기혼비율

(단위: 명, %)

행정구역별	젊은 여성(20~44세) 인구	젊은 여성(20~44세) 기혼 인구	젊은 여성(20~44세) 기혼 비율	
				50 변환값*
서울특별시	1,779,549	637,728	35.8	36.7
부산광역시	514,664	215,769	41.9	42.9
대구광역시	371,187	67,977	45.3	46.3
인천광역시	480,247	219,592	45.7	46.8
광주광역시	247,148	110,861	44.9	45.9
대전광역시	251,944	110,049	43.7	44.7
울산광역시	171,311	92,870	54.2	55.5
세종특별자치시	67,079	41,849	62.4	63.8
경기도	2,216,207	1,097,372	49.5	50.7
강원도	201,364	101,296	50.3	51.5
충청북도	232,649	114,138	49.1	50.2
충청남도	303,174	59,930	52.8	54.0
전라북도	242,225	115,074	47.5	48.6
전라남도	213,404	113,073	53.0	54.2
경상북도	333,908	171,866	51.5	52.7
경상남도	460,954	247,706	53.7	55.0
제주특별자치도	99,213	49,126	49.5	50.7

주*: 17개 시도의 젊은 여성(20~44세)의 기혼 비율의 평균을 50으로 산정하여 나온 산출한 값
 자료: 통계청(2020), <2020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표본 (20%)'자료 활용함. 2022년의 경우, 자료구득이 어려워 2020년 자료로 대신함

[부록 표 1-9] 각 17개 시·도별 합계출산율

(단위: 명)

행정구역별	2012년		2015년		2017년		2020		2022p)	
	50 변환값*		50 변환값*		50 변환값*		50 변환값*		50 변환값*	
서울특별시	1.059	37.7	1.001	36.7	0.836	35.7	0.642	34.4	0.590	34.5
부산광역시	1.135	40.4	1.139	41.7	0.976	41.7	0.747	40.1	0.720	42.1
대구광역시	1.217	43.4	1.216	44.6	1.067	45.6	0.807	43.3	0.760	44.4
인천광역시	1.301	46.4	1.216	44.6	1.007	43.0	0.829	44.5	0.750	43.8
광주광역시	1.295	46.1	1.207	44.2	1.053	45.0	0.811	43.5	0.840	49.1
대전광역시	1.315	46.9	1.277	46.8	1.075	45.9	0.805	43.2	0.840	49.1
울산광역시	1.481	52.8	1.486	54.5	1.261	53.8	0.984	52.8	0.850	49.7
세종특별자치시	1.597	56.9	1.893	69.4	1.668	71.2	1.277	68.5	1.120	65.5
경기도	1.355	48.3	1.272	46.6	1.069	45.6	0.878	47.1	0.840	49.1
강원도	1.374	49.0	1.311	48.1	1.123	47.9	1.036	55.6	0.970	56.7
충청북도	1.485	52.9	1.414	51.8	1.235	52.7	0.983	52.7	0.870	50.9
충청남도	1.571	56.0	1.480	54.2	1.276	54.5	1.029	55.2	0.910	53.2
전라북도	1.440	51.3	1.352	49.6	1.151	49.1	0.909	48.7	0.820	47.9
전라남도	1.642	58.5	1.549	56.8	1.325	56.6	1.145	61.4	0.970	56.7
경상북도	1.489	53.1	1.464	53.7	1.256	53.6	1.003	53.8	0.930	54.4
경상남도	1.503	53.6	1.437	52.7	1.227	52.4	0.945	50.7	0.840	49.1
제주특별자치도	1.598	56.9	1.477	54.1	1.305	55.7	1.021	54.8	0.920	53.8

주*: 17개 시도별 합계출산율의 평균을 50으로 산정하여 나온 산출한 값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동향조사(2000~2022년)>, '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 활용, 2022년은 잠정치

[부록 표 1-10] 전국 및 각 17개 시·도별 인구

(단위: 명)

행정 구역별	성별	연령별	2012년	2017년	2022년	2030년	2050년
전국	계	계	50,199,853	51,361,911	51,628,117	51,199,019	47,358,532
	계	20세 미만	11,012,807	9,706,738	8,213,287	6,609,082	5,742,967
	남자	20 - 44세	10,018,896	9,672,181	9,207,769	8,068,139	5,080,277
	여자	20 - 44세	9,345,287	8,849,883	8,399,419	7,259,210	4,689,857
	계	45 - 64세	14,056,134	16,067,049	16,789,230	16,206,262	12,841,542
	계	65세 이상	5,766,729	7,066,060	9,018,412	13,056,326	19,003,889
서울특별시	계	계	10,036,273	9,766,399	9,411,443	8,947,637	7,918,861
	계	20세 미만	1,933,862	1,610,865	1,270,937	968,677	898,690
	남자	20 - 44세	2,111,271	1,904,444	1,754,131	1,516,673	938,322
	여자	20 - 44세	2,096,900	1,919,524	1,841,519	1,625,208	1,039,059
	계	45 - 64세	2,866,168	3,039,458	2,928,587	2,649,102	2,112,295
	계	65세 이상	1,186,610	1,292,108	1,616,269	2,187,977	2,930,495
부산광역시	계	계	3,461,881	3,424,409	3,299,396	3,077,470	2,512,270
	계	20세 미만	676,854	576,573	467,597	363,612	280,103
	남자	20 - 44세	647,221	608,642	549,462	435,979	253,612
	여자	20 - 44세	618,060	565,502	516,382	410,337	245,411
	계	45 - 64세	1,096,095	1,131,982	1,073,808	942,688	637,637
	계	65세 이상	423,651	541,710	692,147	924,854	1,095,507
대구광역시	계	계	2,480,493	2,457,769	2,363,420	2,197,348	1,807,068
	계	20세 미만	551,588	465,041	374,689	284,532	220,604
	남자	20 - 44세	477,051	444,159	400,703	325,609	186,453
	여자	20 - 44세	457,075	408,438	366,322	290,934	172,457
	계	45 - 64세	727,992	803,155	795,593	702,254	467,622
	계	65세 이상	266,787	336,976	426,113	594,019	759,932
인천광역시	계	계	2,793,754	2,923,859	2,960,685	2,964,832	2,813,782
	계	20세 미만	628,323	560,945	479,998	382,390	333,898
	남자	20 - 44세	577,990	570,401	542,502	478,002	304,854
	여자	20 - 44세	539,605	522,463	496,266	430,321	279,897
	계	45 - 64세	792,255	936,621	990,834	959,866	790,264
	계	65세 이상	255,581	333,429	451,085	714,253	1,104,869
광주광역시	계	계	1,503,758	1,495,392	1,463,411	1,401,078	1,213,098
	계	20세 미만	378,034	319,024	259,132	201,402	162,507
	남자	20 - 44세	302,651	283,578	263,933	225,725	137,195
	여자	20 - 44세	295,200	270,523	249,745	205,539	124,757
	계	45 - 64세	385,628	442,986	467,768	449,483	327,005
	계	65세 이상	142,245	179,281	222,833	318,929	461,634
대전광역시	계	계	1,540,136	1,527,784	1,471,563	1,396,703	1,246,836
	계	20세 미만	370,779	314,658	242,679	186,351	161,848
	남자	20 - 44세	317,769	298,127	279,441	239,574	148,401
	여자	20 - 44세	303,666	277,335	256,447	213,744	135,375
	계	45 - 64세	408,058	460,852	464,294	426,861	329,914
	계	65세 이상	139,864	176,812	228,702	330,173	471,298

행정 구역별	성별	연령별	2012년	2017년	2022년	2030년	2050년
울산광역시	계	계	1,124,659	1,158,787	1,112,807	1,043,675	844,246
	계	20세 미만	271,706	236,829	196,694	148,976	101,069
	남자	20 - 44세	232,950	230,901	201,863	159,381	90,250
	여자	20 - 44세	206,898	194,217	165,200	124,545	71,393
	계	45 - 64세	331,172	384,729	390,876	356,098	227,829
	계	65세 이상	81,933	112,111	158,174	254,675	353,705
세종 특별자치시	계	계	102,157	265,517	382,760	496,997	630,780
	계	20세 미만	22,126	69,101	93,227	104,746	116,092
	남자	20 - 44세	21,249	55,045	74,409	85,801	72,765
	여자	20 - 44세	15,964	52,912	72,997	82,531	71,006
	계	45 - 64세	26,966	63,899	104,232	151,582	189,183
	계	65세 이상	15,852	24,560	37,895	72,337	181,734
경기도	계	계	11,974,482	12,785,790	13,680,911	14,421,123	14,353,146
	계	20세 미만	2,832,400	2,596,015	2,354,726	2,015,591	1,928,497
	남자	20 - 44세	2,510,902	2,524,175	2,587,083	2,432,500	1,613,019
	여자	20 - 44세	2,357,269	2,302,215	2,319,635	2,143,618	1,466,470
	계	45 - 64세	3,180,747	3,946,432	4,464,062	4,677,859	4,125,454
	계	65세 이상	1,093,164	1,416,953	1,955,405	3,151,555	5,219,706
강원도	계	계	1,504,234	1,520,879	1,525,912	1,529,269	1,481,582
	계	20세 미만	322,248	275,800	227,606	182,441	156,377
	남자	20 - 44세	273,569	259,396	242,461	208,353	130,954
	여자	20 - 44세	236,063	220,843	204,088	173,756	112,574
	계	45 - 64세	437,424	496,959	515,025	480,852	381,908
	계	65세 이상	234,930	267,881	336,732	483,867	699,769
충청북도	계	계	1,553,478	1,609,061	1,633,687	1,654,450	1,604,743
	계	20세 미만	350,342	309,588	258,419	214,147	185,220
	남자	20 - 44세	298,517	298,375	295,561	264,090	169,810
	여자	20 - 44세	265,313	255,448	240,946	205,631	134,561
	계	45 - 64세	427,388	501,664	531,467	520,504	430,036
	계	65세 이상	211,918	243,986	307,294	450,078	685,116
충청남도	계	계	2,042,689	2,153,380	2,180,086	2,228,415	2,191,231
	계	20세 미만	455,499	423,570	359,908	296,545	256,240
	남자	20 - 44세	404,582	410,773	391,324	352,084	229,161
	여자	20 - 44세	342,366	340,959	319,699	276,793	183,730
	계	45 - 64세	533,667	627,775	683,596	696,500	579,518
	계	65세 이상	306,575	350,303	425,559	606,493	942,582
전라북도	계	계	1,817,430	1,828,527	1,780,234	1,690,585	1,493,464
	계	20세 미만	408,035	351,482	279,998	209,609	162,265
	남자	20 - 44세	319,644	305,947	279,970	230,917	138,074
	여자	20 - 44세	289,854	272,914	244,983	195,053	116,961
	계	45 - 64세	502,644	559,073	577,245	531,587	377,787
	계	65세 이상	297,253	339,111	398,038	523,419	698,377

행정 구역별	성별	연령별	2012년	2017년	2022년	2030년	2050년
전라남도	계	계	1,782,361	1,795,036	1,768,620	1,698,534	1,522,919
	계	20세 미만	381,565	331,040	275,865	210,480	151,208
	남자	20 - 44세	288,275	281,416	263,218	216,366	130,107
	여자	20 - 44세	248,824	238,314	211,236	166,604	99,962
	계	45 - 64세	507,756	559,117	584,937	545,715	387,143
	계	65세 이상	355,941	385,149	433,364	559,369	754,499
경상북도	계	계	2,655,755	2,675,128	2,628,220	2,552,040	2,256,705
	계	20세 미만	545,676	476,765	390,884	304,218	225,616
	남자	20 - 44세	488,362	463,774	421,613	347,959	206,030
	여자	20 - 44세	421,917	386,773	339,202	267,470	161,785
	계	45 - 64세	765,500	854,533	876,489	810,317	560,821
	계	65세 이상	434,300	493,283	600,032	822,076	1,102,453
경상남도	계	계	3,265,495	3,339,275	3,289,257	3,193,395	2,769,334
	계	20세 미만	743,210	654,350	553,983	425,219	305,333
	남자	20 - 44세	643,367	618,728	546,253	443,853	259,242
	여자	20 - 44세	554,735	517,843	450,051	352,340	209,229
	계	45 - 64세	918,488	1,065,031	1,121,706	1,072,657	720,883
	계	65세 이상	405,695	483,323	617,264	899,326	1,274,647
제주 특별자치도	계	계	560,818	634,919	675,705	705,468	698,467
	계	20세 미만	140,560	135,092	126,945	110,146	97,400
	남자	20 - 44세	103,526	114,300	113,842	105,273	72,028
	여자	20 - 44세	95,578	103,660	104,701	94,786	65,230
	계	45 - 64세	148,186	192,783	218,711	232,337	196,243
	계	65세 이상	72,968	89,084	111,506	162,926	267,566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중위추계' 자료 활용

[부록 표 1-11] 전국 및 각 17개 시·도별 P지수

(단위: %)

행정구역별	성별	연령별	P지수*				
			2012년	2017년	2022년	2030년	2050년
전국	계	계	97	99	100	99	92
	계	20세 미만	21	19	16	13	11
	남자	20 - 44세	19	19	18	16	10
	여자	20 - 44세	18	17	16	14	9
	계	45 - 64세	27	31	33	31	25
	계	65세 이상	11	14	17	25	37
서울특별시	계	계	107	104	100	95	84
	계	20세 미만	21	17	14	10	10
	남자	20 - 44세	22	20	19	16	10
	여자	20 - 44세	22	20	20	17	11
	계	45 - 64세	30	32	31	28	22
	계	65세 이상	13	14	17	23	31
부산광역시	계	계	105	104	100	93	76
	계	20세 미만	21	17	14	11	8
	남자	20 - 44세	20	18	17	13	8
	여자	20 - 44세	19	17	16	12	7
	계	45 - 64세	33	34	33	29	19
	계	65세 이상	13	16	21	28	33
대구광역시	계	계	105	104	100	93	76
	계	20세 미만	23	20	16	12	9
	남자	20 - 44세	20	19	17	14	8
	여자	20 - 44세	19	17	15	12	7
	계	45 - 64세	31	34	34	30	20
	계	65세 이상	11	14	18	25	32
인천광역시	계	계	94	99	100	100	95
	계	20세 미만	21	19	16	13	11
	남자	20 - 44세	20	19	18	16	10
	여자	20 - 44세	18	18	17	15	9
	계	45 - 64세	27	32	33	32	27
	계	65세 이상	9	11	15	24	37
광주광역시	계	계	103	102	100	96	83
	계	20세 미만	26	22	18	14	11
	남자	20 - 44세	21	19	18	15	9
	여자	20 - 44세	20	18	17	14	9
	계	45 - 64세	26	30	32	31	22
	계	65세 이상	10	12	15	22	32
대전광역시	계	계	105	104	100	95	85
	계	20세 미만	25	21	16	13	11
	남자	20 - 44세	22	20	19	16	10
	여자	20 - 44세	21	19	17	15	9
	계	45 - 64세	28	31	32	29	22
	계	65세 이상	10	12	16	22	32

행정구역별	성별	연령별	P지수*				
			2012년	2017년	2022년	2030년	2050년
울산광역시	계	계	101	104	100	94	76
	계	20세 미만	24	21	18	13	9
	남자	20 - 44세	21	21	18	14	8
	여자	20 - 44세	19	17	15	11	6
	계	45 - 64세	30	35	35	32	20
	계	65세 이상	7	10	14	23	32
세종특별자치시	계	계	27	69	100	130	165
	계	20세 미만	6	18	24	27	30
	남자	20 - 44세	6	14	19	22	19
	여자	20 - 44세	4	14	19	22	19
	계	45 - 64세	7	17	27	40	49
	계	65세 이상	4	6	10	19	47
경기도	계	계	88	93	100	105	105
	계	20세 미만	21	19	17	15	14
	남자	20 - 44세	18	18	19	18	12
	여자	20 - 44세	17	17	17	16	11
	계	45 - 64세	23	29	33	34	30
	계	65세 이상	8	10	14	23	38
강원도	계	계	99	100	100	100	97
	계	20세 미만	21	18	15	12	10
	남자	20 - 44세	18	17	16	14	9
	여자	20 - 44세	15	14	13	11	7
	계	45 - 64세	29	33	34	32	25
	계	65세 이상	15	18	22	32	46
충청북도	계	계	95	98	100	101	98
	계	20세 미만	21	19	16	13	11
	남자	20 - 44세	18	18	18	16	10
	여자	20 - 44세	16	16	15	13	8
	계	45 - 64세	26	31	33	32	26
	계	65세 이상	13	15	19	28	42
충청남도	계	계	94	99	100	102	101
	계	20세 미만	21	19	17	14	12
	남자	20 - 44세	19	19	18	16	11
	여자	20 - 44세	16	16	15	13	8
	계	45 - 64세	24	29	31	32	27
	계	65세 이상	14	16	20	28	43
전라북도	계	계	102	103	100	95	84
	계	20세 미만	23	20	16	12	9
	남자	20 - 44세	18	17	16	13	8
	여자	20 - 44세	16	15	14	11	7
	계	45 - 64세	28	31	32	30	21
	계	65세 이상	17	19	22	29	39

행정구역별	성별	연령별	P지수*				
			2012년	2017년	2022년	2030년	2050년
전라남도	계	계	101	101	100	96	86
	계	20세 미만	22	19	16	12	9
	남자	20 - 44세	16	16	15	12	7
	여자	20 - 44세	14	13	12	9	6
	계	45 - 64세	29	32	33	31	22
	계	65세 이상	20	22	25	32	43
경상북도	계	계	101	102	100	97	86
	계	20세 미만	21	18	15	12	9
	남자	20 - 44세	19	18	16	13	8
	여자	20 - 44세	16	15	13	10	6
	계	45 - 64세	29	33	33	31	21
	계	65세 이상	17	19	23	31	42
경상남도	계	계	99	102	100	97	84
	계	20세 미만	23	20	17	13	9
	남자	20 - 44세	20	19	17	13	8
	여자	20 - 44세	17	16	14	11	6
	계	45 - 64세	28	32	34	33	22
	계	65세 이상	12	15	19	27	39
제주 특별자치도	계	계	83	94	100	104	103
	계	20세 미만	21	20	19	16	14
	남자	20 - 44세	15	17	17	16	11
	여자	20 - 44세	14	15	15	14	10
	계	45 - 64세	22	29	32	34	29
	계	65세 이상	11	13	17	24	40

주*: 2022년 각 광역자치도의 전체인구를 100명으로 산정하여, 비교대상 연도의 인구를 상대적으로 표기한 수치임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1세별, 5세별)/시·도' 중위추계 자료 활용

[부록 표 1-12]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지표 상세표기)

연도	초기그룹	20~44세 여성 비율	20~44세 여성 기혼율	합계출산율	광역시·도 구분	최종 그룹
2012	G1	저	저	고	없음	출산감소 중위험
	G2	저	고	고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감소 중위험
	G3	저	고	저	강원특별자치도	출산감소 고위험
	G4	저	저	저	없음	출산감소 고위험
	G5	고	고	저	경기도	출산 회피
	G6	고	고	고	울산광역시	출산 선호
	G7	고	저	고	없음	출산감소 저위험
	G8	고	저	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결혼 회피
2015	G1	저	저	고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감소 중위험
	G2	저	고	고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출산감소 중위험
	G3	저	고	저	강원특별자치도	출산감소 고위험
	G4	저	저	저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출산감소 고위험
	G5	고	고	저	경기도	출산 회피
	G6	고	고	고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출산 선호
	G7	고	저	고	없음	출산감소 저위험
	G8	고	저	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결혼 회피
2017	G1	저	저	고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감소 중위험
	G2	저	고	고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출산감소 중위험
	G3	저	고	저	강원특별자치도	출산감소 고위험
	G4	저	저	저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출산감소 고위험
	G5	고	고	저	경기도	출산 회피
	G6	고	고	고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출산 선호
	G7	고	저	고	없음	출산감소 저위험
	G8	고	저	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결혼 회피

연도	초기그룹	20~44세 여성 비율	20~44세 여성 기혼율	합계출산율	광역시·도 구분	최종 그룹
2020	G1	저	저	고	없음	출산감소 중위험
	G2	저	고	고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출산감소 중위험
	G3	저	고	저	없음	출산감소 고위험
	G4	저	저	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출산감소 고위험
	G5	고	고	저	경기도	출산 회피
	G6	고	고	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신호
	G7	고	저	고	없음	출사감소 저위험
	G8	고	저	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결혼 회피
2022	G1	저	저	고	없음	출산감소 중위험
	G2	저	고	고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감소 중위험
	G3	저	고	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출산감소 고위험
	G4	저	저	저	전라북도	출산감소 고위험
	G5	고	고	저	경기도	출산 회피
	G6	고	고	고	세종특별자치시	출산 신호
	G7	고	저	고	없음	출사감소 저위험
	G8	고	저	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결혼 회피

[부록 표 1-13] 세종시 읍·면·동별 청년(19-39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단위 : 명)

연도	분류	읍	면	동	전체
2012	소계	13,922	12,545	5,927	32,394
	남성	7,325	7,222	2,731	17,278
	여성	6,597	5,323	3,196	15,116
2013	소계	15,080	12,395	7,416	34,891
	남성	7,892	7,096	3,395	18,383
	여성	7,188	5,299	4,021	16,508
2014	소계	14,756	12,215	19,893	46,864
	남성	7,685	6,964	9,200	23,849
	여성	7,071	5,251	10,693	23,015
2015	소계	14,258	12,000	38,842	65,100
	남성	7,541	6,918	17,881	32,340
	여성	6,717	5,082	20,961	32,760
2016	소계	14,243	12,230	48,306	74,779
	남성	7,590	7,117	22,336	37,043
	여성	6,653	5,113	25,970	37,736
2017	소계	13,586	11,724	60,065	85,375
	남성	7,239	6,864	27,988	42,091
	여성	6,347	4,860	32,077	43,284
2018	소계	13,265	10,918	71,375	95,558
	남성	7,195	6,510	33,503	47,208
	여성	6,070	4,408	37,872	48,350
2019	소계	12,596	10,168	78,551	101,315
	남성	6,931	6,135	37,079	50,145
	여성	5,665	4,033	41,472	51,170
2020	소계	12,353	10,430	79,502	102,285
	남성	6,850	6,468	37,418	50,736
	여성	5,503	3,962	42,084	51,549
2021	소계	12,357	10,391	80,976	103,724
	남성	6,947	6,518	38,210	51,675
	여성	5,410	3,873	42,766	52,049
2022	소계	11,739	9,681	81,840	103,260
	남성	6,607	6,161	38,765	51,533
	여성	5,132	3,520	43,075	51,727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각 년도 자료 재구성

**[부록 표 1-14] 세종시 청년(19~39세)의 시·도 간 이동 지역 변화 추이
(충청권* vs. 세종시 내 vs. 그 외 지역)**

(단위: 명)

연도	세종시로 전입 이전 거주지역			세종시에서 전출한 지역		
	충청권 (세종 제외)	그 외 시도	세종시	충청권 (세종 제외)	그 외 시도	세종시
2012	6,348	4,487	4,409	2,696	2,033	4,409
2013	4,228	4,087	4,432	2,741	2,178	4,432
2014	10,640	8,160	6,996	3,077	2,611	6,996
2015	16,779	10,940	10,100	4,014	3,726	10,100
2016	12,040	9,746	11,124	4,762	4,855	11,124
2017	14,867	9,983	5,058	5,651	5,640	15,058
2018	14,586	10,702	16,540	5,937	6,393	16,540
2019	13,964	10,328	18,069	6,639	7,729	18,069
2020	11,647	10,110	19,264	8,241	8,127	19,264
2021	10,905	10,250	17,833	7,190	7,745	17,833
2022	9,248	9,377	15,063	6,546	7,667	15,063

주*: 충청권-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의 합계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부록 표 1-15] 세종시 읍·면 지역 청년인구 변화(2012~2022년)

(단위: 명)

연도	읍 지역_여성	면 지역_여성	읍 지역_남성	면 지역_남성
2012	6,597	5,323	7,325	7,222
2013	7,188	5,299	7,892	7,096
2014	7,071	5,251	7,685	6,964
2015	6,717	5,082	7,541	6,918
2016	6,653	5,113	7,590	7,117
2017	6,347	4,860	7,239	6,864
2018	6,070	4,408	7,195	6,510
2019	5,665	4,033	6,931	6,135
2020	5,503	3,962	6,850	6,468
2021	5,410	3,873	6,947	6,518
2022	5,132	3,520	6,607	6,161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지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www.dsi.re.kr

ISBN 979-11-6075-437-7 93350